

발 간 등 록 번 호

정책보고서 2016-

# 노후준비 실태조사 및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정경희·강은나·김경래·오미애·오영희  
이윤경·황남희·이선희·이금룡·이소정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책임연구자】**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요저서】**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공저)

연령통합 지표 개발과 적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공저)

**【공동연구진】**

강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경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오미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오영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이금룡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이소정 남서울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노후준비 실태조사 및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년 11월

주관연구기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정경희

연구원 강은나

김경래

오미애

오영희

이윤경

황남희

이선희

이금룡

이소정







# 목 차

요약 .....	1
제1부 서론 .....	B
제1장 서론 .....	B
제1절 추진배경 .....	1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4 2
제2장 노후준비 현황 .....	92
제1절 국민의 노후준비 현황 .....	1 3
제2절 노후준비 관련 정책 현황 .....	9 3
제3장 노후준비서비스의 의의와 현황 .....	1 5
제1절 노후준비서비스의 특징과 의의 .....	3 5
제2절 노후준비서비스의 연혁과 현황 .....	5 5
제3절 노후준비 영역별 관련 주요 서비스 및 인프라 .....	9 5
제2부 노후준비 실태조사 .....	76
제4장 노후준비 실태조사의 개요 .....	9 6
제1절 조사배경과 조사목적 .....	1 7
제2절 조사개요 .....	2
제3절 표본설계 개요 .....	47
제4절 조사내용 개요 .....	67



제5장 노후준비 실태조사의 조사결과 .....	5· 8
제1절 응답자의 특성 .....	78
제2절 영역별 노후준비 실태 .....	9 8
제3절 영역별 노후준비수준 진단 .....	91
제4절 노후준비정도 및 서비스 이용의향 .....	271

### 제3부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 .....571

제6장 제1차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	71
제1절 수립 방향 .....	19
제2절 영역별 추진과제 .....	8
제3절 종합 .....	191

제7장 각 분야별 세부계획 .....	9
제1절 통합적·연속적 서비스 제공 .....	71
제2절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62
제3절 다양한 서비스 접근방법 마련 .....	92
제4절 서비스 제공 기반마련 .....	6
제5절 인식·경험의 공유 기반 마련 .....	12
제6절 주요 생애주기별 노후준비 기회 제공 .....	692

제8장 종합 .....	23
제1절 서비스 이용자 관점에서 본 정책 과제 .....	592
제2절 주체별 주요 역할 .....	8



---

참고문헌 .....	301
------------	-----

부록 .....	305
----------	-----

부록 1. 노후준비 실태조사 설문지 .....	308
---------------------------	-----

부록 2. 영역별 및 유형별 노후준비수준 기준선 .....	223
----------------------------------	-----

부록 3. 노후준비 실태조사 결과표 .....	328
---------------------------	-----







## 표 목차

〈표 2- 1〉 노후준비 방법 .....	1	3
〈표 2- 2〉 일반특성별 사회적 관계망의 작동 가능성과 규모 .....	3	3
〈표 2- 3〉 연도별 무연고 사망자 현황(2011~2015) .....	5	3
〈표 2- 4〉 일반특성별 건강관리 실천현황 .....	5	3
〈표 2- 5〉 중장년기 및 노년기 사회참여 변화 유형 .....	7	3
〈표 2- 6〉 은퇴연령층 가구 빈곤율 .....	8	3
〈표 2- 7〉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2	4
〈표 2- 8〉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목적 및 특징 .....	5	4
〈표 2- 9〉 주요 노인 여가활동 지원 시설의 목적 및 특징 .....	5	4
〈표 2-10〉 사회참여 관련 정책 현황 .....	6	4
〈표 3 -1〉 정부의 노후준비서비스 관련 주요 연혁 .....	6	5
〈표 3 -2〉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서비스 관련 주요 연혁 .....	6	5
〈표 3 -3〉 분야별 주요 서비스 .....	7	5
〈표 3 -4〉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절차 .....	7	5
〈표 3- 5〉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운영현황 .....	8	5
〈표 3- 6〉 공공기관의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현황 .....	9	5
〈표 3- 7〉 공공기관의 영역별 서비스 현황 .....	0	6
〈표 3- 8〉 노후준비 관련 인프라 현황 .....	1	6
〈표 3- 9〉 국민연금공단 지사 관할구역 내 서비스 대상 분포 .....	3	6
〈표 3-10〉 국민연금공단 지사 관할구역 내 서비스 대상 규모 .....	5	6
〈표 3-11〉 행정구역별 국민연금공단지사 분포에 따른 시·군·구 및 읍·면·동 개수 비교 .....	6	6
〈표 4- 1〉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1	7
〈표 4- 2〉 노후준비 실태조사 개요 .....	2	7
〈표 4- 3〉 층화 방법 .....	4	7
〈표 4- 4〉 모집단 분포 .....	5	7
〈표 4- 5〉 실태조사(2013년 및 2016년 조사)와 국민연금공단 진단지표 비교 .....	6	7
〈표 4- 6〉 2016년도 노후준비 실태조사의 조사 내용 .....	9	7
〈표 4- 7〉 노후준비 진단지표 개요 .....	3	8
〈표 5- 1〉 응답자의 일반특성 분포 .....	8	8
〈표 5- 2〉 일반특성별 배우자와의 대화 충분성 .....	1	9



〈표 5- 3〉 일반특성별 배우자와의 동반 외출 빈도 .....	2	9
〈표 5- 4〉 일반특성별 자녀와의 대화 정도 .....	4	9
〈표 5- 5〉 일반특성별 최근 1년간 본인(배우자) 형제·자매와의 접촉·연락 빈도 .....	6	9
〈표 5- 6〉 일반특성별 본인(배우자) 형제·자매의 도움 정도 .....	8	9
〈표 5- 7〉 일반특성별 최근 1년간 친구와 만남 빈도 .....	0	0 1
〈표 5- 8〉 일반특성별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이웃의 수 .....	1	0 1
〈표 5- 9〉 일반특성별 친구·이웃의 도움 정도 .....	3	0 1
〈표 5-10〉 일반특성별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모임의 수 .....	5	0 1
〈표 5-11〉 일반특성별 동년배와 비교한 주관적 건강상태 .....	7	0 1
〈표 5-12〉 일반특성별 현재 앓고 있는 만성질환의 수 .....	9	0 1
〈표 5-13〉 일반특성별 평소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1	1 1
〈표 5-14〉 일반특성별 현재 흡연 여부 .....	3	1 1
〈표 5-15〉 일반특성별 최근 6개월간 음주 정도 .....	5	1 1
〈표 5-16〉 일반특성별 최근 6개월간 규칙적 운동 정도 .....	7	1 1
〈표 5-17〉 일반특성별 균형적인 영양 섭취를 위한 노력 정도 .....	9	1 1
〈표 5-18〉 일반특성별 최근 6개월간 건강 체중 유지 노력 정도 .....	1	2 1
〈표 5-19〉 일반특성별 1일 수면시간 충분 정도 .....	3	2 1
〈표 5-20〉 일반특성별 정기적 건강검진 정도 .....	5	2 1
〈표 5-21〉 일반특성별 비만지수(BMI) .....	7	2 1
〈표 5-22〉 일반특성별 노후 취미·여가활동 고려 여부 .....	9	2 1
〈표 5-23〉 일반특성별 노후를 고려한 취미·여가활동 참여 경험 .....	1	3 1
〈표 5-24〉 일반특성별 노후 취미·여가활동 변화 예상 .....	3	3 1
〈표 5-25〉 일반특성별 동년배와 비교한 취미·여가활동 정도 .....	5	3 1
〈표 5-26〉 일반특성별 취미·여가활동 지속 기간 .....	7	3 1
〈표 5-27〉 일반특성별 본인의 예상 은퇴 연령 .....	0	4 1
〈표 5-28〉 일반특성별 배우자의 예상 은퇴 연령 .....	1	4 1
〈표 5-29〉 일반특성별 본인의 소득 안정성 .....	3	4 1
〈표 5-30〉 일반특성별 배우자의 소득 안정성 .....	4	4 1
〈표 5-31〉 일반특성별 제2의 일을 위한 본인 준비여부 .....	6	4 1
〈표 5-32〉 일반특성별 월평균 예상 노후소득 .....	8	4 1
〈표 5-33〉 영역별 노후준비수준 .....	3	5 1
〈표 5-34〉 일반특성별 노후준비 정도 .....	6	5 1



〈표 5-35〉	영역별 노후준비수준 상중하 기준 .....	7·5·1
〈표 5-36〉	일반특성별 종합 노후준비수준의 상중하 분포 .....	9·5·1
〈표 5-37〉	일반특성별 사회적 관계 영역의 노후준비수준 상중하 분포 .....	0·6·1
〈표 5-38〉	일반특성별 건강한 생활습관 영역의 노후준비수준 상중하 분포 .....	1·6·1
〈표 5-39〉	일반특성별 여가활동 영역의 노후준비수준 상중하 분포 .....	2·6·1
〈표 5-40〉	일반특성별 소득과 자산 영역의 노후준비수준 상중하 분포 .....	3·6·1
〈표 5-41〉	영역별 노후준비 유형 .....	5·6·1
〈표 5-42〉	일반특성별 사회적 관계 영역의 노후준비수준 유형 .....	8·6·1
〈표 5-43〉	일반특성별 건강한 생활습관 영역의 노후준비수준 유형 .....	9·6·1
〈표 5-44〉	일반특성별 여가활동 영역의 노후준비수준 유형 .....	0·7·1
〈표 5-45〉	일반특성별 소득과 자산 영역의 노후준비수준 유형 .....	1·7·1
〈표 5-46〉	일반특성별 주관적 노후준비정도와 서비스 이용의향 .....	4·7·1
〈표 6- 1〉	제1차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개요 .....	1·9·1
〈표 6- 2〉	대상별 서비스 적용사례 .....	3·9·1
〈표 7- 1〉	연도별 종합상담 건 수 및 전년대비 증가율 .....	0·0·2
〈표 7- 2〉	노후준비서비스 분야별 상담 건수 및 비율(연도별) .....	2·0·2
〈표 7- 3〉	연도별 노후준비 교육 현황(횟수 및 인원) .....	3·0·2
〈표 7- 4〉	재무 및 비재무 영역의 행태변화 측정(안) .....	5·0·2
〈표 7- 5〉	상담회차별 세부내용 .....	6·0·2
〈표 7- 6〉	노후준비지원센터 관할지역별 인프라 분석 .....	8·1·2
〈표 7- 7〉	노후준비지원센터 평균 연계기관수 .....	0·2·2
〈표 7- 8〉	노후준비지원센터 평균 MOU 체결기관수 및 교류기관수 .....	2·2·2
〈표 7- 9〉	연령별·생애주기별 주요서비스 사례 .....	6·2·2
〈표 7-10〉	노후준비수준 영역별 상관계수 .....	8·2·2
〈표 7-11〉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추진 및 계획 상황 .....	0·3·2
〈표 7-12〉	성별·연령별 노후준비 상담 건수(2016년 기준) .....	4·3·2
〈표 7-13〉	자립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공공서비스 .....	8·3·2
〈표 7-14〉	시스템 구축방안 비교 .....	0·4·2
〈표 7-15〉	노후준비 교육 현황 .....	2·5·2
〈표 7-16〉	노후준비 지원법의 서비스 제공자 교육훈련 내용 .....	8·6·2
〈표 7-17〉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교육과목 .....	9·6·2



〈표 7-18〉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상담직원 및 전문강사 현황 .....	9·6·2
〈표 7-19〉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노후준비 관련 자격증 보유 현황(2016년말 기준) .....	0·7·2
〈표 7-20〉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상담 및 전문강사 현황 .....	1·7·2
〈표 7-21〉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전문강사 배치 현황(2016년말 기준) .....	2·7·2
〈표 7-22〉 메시지 작성 예시 .....	482

〈부표 2- 1〉 영역별 및 유형별 노후준비수준 기준선 .....	2·2·3
〈부표 3- 1〉 2016년 노후준비 실태조사 설문항목별 관련 표번호 .....	3·2·3
〈부표 3- 2〉 일반특성별 동반자 또는 이성친구와의 대화 정도 .....	5·2·3
〈부표 3- 3〉 일반특성별 동반자 또는 이성친구와의 만남 정도 .....	6·2·3
〈부표 3- 4〉 일반특성별 노후의 대인관계 변화 예상 .....	7·2·3
〈부표 3- 5〉 일반특성별 노후의 대인관계를 위한 노력 정도 .....	8·2·3
〈부표 3- 6〉 일반특성별 동년배와 비교한 대인관계 정도 .....	9·2·3
〈부표 3- 7〉 일반특성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노력 정도 .....	0·3·3
〈부표 3- 8〉 일반특성별 노후건강 유지를 위한 현재 노력 정도 .....	1·3·3
〈부표 3- 9〉 일반특성별 노후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의향 .....	2·3·3
〈부표 3-10〉 일반특성별 노후 건강 악화를 대비한 준비 정도 .....	3·3·3
〈부표 3-11〉 일반특성별 지난 1년간 참여한 취미·여가활동 수 .....	4·3·3
〈부표 3-12〉 지난 1년간 참여한 가장 주된 취미·여가활동 .....	5·3·3
〈부표 3-13〉 일반특성별 취미·여가활동 동반자 .....	6·3·3
〈부표 3-14〉 일반특성별 취미·여가활동을 위한 경제적 지출 여부 .....	7·3·3
〈부표 3-15〉 일반특성별 현재 본인의 근로상황 .....	8·3·3
〈부표 3-16〉 일반특성별 본인의 월평균 근로소득 .....	9·3·3
〈부표 3-17〉 일반특성별 본인의 근로가능한 예상 연령 .....	0·4·3
〈부표 3-18〉 일반특성별 지난 1년간 본인의 구직활동 여부 .....	1·4·3
〈부표 3-19〉 일반특성별 본인의 구직 노력 활동 .....	2·4·3
〈부표 3-20〉 일반특성별 현재 배우자의 근로상황 .....	3·4·3
〈부표 3-21〉 일반특성별 배우자의 월평균 근로소득 .....	4·4·3
〈부표 3-22〉 일반특성별 제2의 일을 위한 배우자 준비여부 .....	5·4·3
〈부표 3-23〉 일반특성별 배우자의 근로가능한 예상 연령 .....	6·4·3
〈부표 3-24〉 일반특성별 지난 1년간 배우자의 구직활동 여부 .....	7·4·3
〈부표 3-25〉 일반특성별 배우자의 구직 노력 활동 .....	8·4·3



〈부표 3-26〉	일반특성별 거주 주택 점유형태 .....	9·4·3
〈부표 3-27〉	일반특성별 거주주택의 시가 및 전·월세 금액 .....	0·5·3
〈부표 3-28〉	일반특성별 부채 보유 여부 및 부채액 .....	1·5·3
〈부표 3-29〉	일반특성별 부채 해소에 부담을 느끼는 정도 .....	2·5·3
〈부표 3-27〉	일반특성별 자녀 교육비 지출 부담정도 .....	2·5·3
〈부표 3-30〉	일반특성별 자녀 교육비 지출 부담정도 .....	3·5·3
〈부표 3-31〉	일반특성별 자녀 경제적 지원 부담정도 .....	4·5·3
〈부표 3-32〉	일반특성별 부모 경제적 지원 부담정도 .....	5·5·3
〈부표 3-33〉	일반특성별 노후 필요생활비 .....	6·5·3
〈부표 3-34〉	일반특성별 노후준비에 있어서의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1) .....	7·5·3
〈부표 3-35〉	일반특성별 노후준비에 있어서의 하위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1) .....	8·5·3
〈부표 3-36〉	일반특성별 본인의 노후준비 정도1) .....	0·6·3
〈부표 3-37〉	일반특성별 사회적 관계 영역의 현재 노후준비 정도 .....	1·6·3
〈부표 3-38〉	일반특성별 건강한 생활습관 영역의 현재 노후준비 정도 .....	2·6·3
〈부표 3-39〉	일반특성별 여가활동 영역의 현재 노후준비 정도 .....	3·6·3
〈부표 3-40〉	일반특성별 소득과 자산 영역의 현재 노후준비 정도 .....	4·6·3
〈부표 3-41〉	일반특성별 노후준비서비스 인지 여부 .....	5·6·3
〈부표 3-42〉	일반특성별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지원센터의 노후준비서비스 경험유무 .....	6·6·3
〈부표 3-43〉	일반특성별 노후준비서비스 향후 이용의향 .....	7·6·3
〈부표 3-44〉	일반특성별 노후준비서비스 종류별 이용의향 비율 .....	8·6·3







## 그림 목차

[그림 1-1]	총인구, 고령화 및 노년부양비 .....	1	2
[그림 1-2]	연령별 노인인구 구성비 전망 .....	2	2
[그림 1-3]	한국의 고령화 대응지수 연도별 추이 .....	2	2
[그림 1-4]	연구내용 개요 .....	5	2
[그림 1-5]	연구진행도 .....	6	2
[그림 1-6]	연구진행방법 .....	7	2
[그림 2-1]	연령별 독거인구 추이(2000~2035) .....	4	3
[그림 2-2]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시행 절차 .....	3	4
[그림 2-3]	노인일자리 지원시스템 개선 방안 .....	9	4
[그림 2-4]	노후소득보장 체계도 .....	0	5
[그림 3-1]	공적 노후준비서비스 .....	55	
[그림 4-1]	65세 노인의 삶의 만족도 .....	1	7
[그림 5-1]	영역별 노후준비수준 진단과정 .....	0	5
[그림 5-2]	노후준비지표별 선택문항의 점수 .....	1	5
[그림 5-3]	현재 노후준비정도 및 향후 서비스 의향에 대한 유형별 분포 .....	2	7
[그림 6-1]	노후준비서비스의 장기발전방향 .....	179	
[그림 6-2]	1차 기본계획의 추진과제 개요 .....	2	8
[그림 6-3]	통합적·연속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과제 .....	4	8
[그림 6-4]	생애주기별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과제 .....	5	8
[그림 6-5]	다양한 서비스 접근 방법 마련을 위한 정책과제 .....	6	8
[그림 6-6]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과제 .....	8	8
[그림 6-7]	인식 및 경험의 공유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과제 .....	9	8
[그림 6-8]	주요 생애주기별 노후준비 기회 제공을 위한 정책과제 .....	190	
[그림 7-1]	연계 서비스 현황 .....	402	
[그림 7-2]	노후준비서비스 표준모델(안) .....	6	0
[그림 7-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관계기관 연계 서비스 의뢰 체계도 .....	9	0
[그림 7-4]	노후준비서비스 사후관리 계획에 따른 단계별 서비스 내용 .....	1	1
[그림 7-5]	종합포털 구성(안) .....	2	4
[그림 7-6]	국민연금공단 메인 도메인(AS-IS) .....	3	4
[그림 7-7]	국민연금공단 메인 도메인(TO-BE) .....	3	4



[그림 7- 8]	국민연금공단 서버 도메인(AS-IS) .....	4·4·2
[그림 7- 9]	국민연금공단 서버 도메인(TO-BE) .....	4·4·2
[그림 7-10]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상담 메뉴(1)(AS-IS) .....	5·4·2
[그림 7-11]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상담 메뉴(1)(TO-BE) .....	5·4·2
[그림 7-12]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상담 메뉴(2)(AS-IS) .....	6·4·2
[그림 7-13]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상담 메뉴(2)(TO-BE) .....	6·4·2
[그림 7-14]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정보 메뉴(1)(AS-IS) .....	7·4·2
[그림 7-15]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정보 메뉴(1)(TO-BE) .....	7·4·2
[그림 7-16]	국민연금공단 자가진단 메뉴(AS-IS) .....	8·4·2
[그림 7-17]	국민연금공단 자가진단 메뉴(TO-BE) .....	8·4·2
[그림 7-18]	국민연금공단 재무설계 메뉴(AS-IS) .....	9·4·2
[그림 7-19]	국민연금공단 재무설계 메뉴(TO-BE) .....	9·4·2
[그림 7-20]	국민연금공단 커뮤니티 메뉴(AS-IS) .....	0·5·2
[그림 7-21]	국민연금공단 커뮤니티 메뉴(TO-BE) .....	0·5·2
[그림 7-22]	생애단계별 서비스 타겟 .....	4·5·2
[그림 7-23]	생애단계별 재무목표 .....	4·5·2
[그림 7-24]	국민연금공단 본부 조직도 .....	8·5·2
[그림 7-25]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구성도 .....	9·5·2
[그림 7-26]	라스웰의 S-M-C-R-E 모형 .....	3·8·2
[그림 7-27]	채널의 특성 .....	582
[그림 7-28]	홍보 Concept .....	682



##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후준비 지원법이 시행('15. 12. 23.)됨에 따라 노후준비 지원정책의 중장기 목표 및 전략 마련 등 5개년 장기 계획의 수립 필요
- 실현가능하고 효과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준비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필요
- 이에 본 연구는 전국민의 노후준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노후준비 실태조사 실시
-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제1차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반이 될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기초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II.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1. 연구내용

- 첫째, 국민 개개인의 노후준비 현황과 노후준비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 현황 파악
- 둘째, 노후준비서비스의 특징과 연혁 및 주요 서비스 인프라 현황 파악
- 셋째, 노후준비 실태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 분석
- 넷째,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제시



## 2 노후준비 실태조사 및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

### 2. 연구방법

#### □ 연구진행과정



#### □ 연구진행방법





### Ⅲ. 주요 연구 결과

#### 1. 노후준비 실태조사

##### 가.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전국의 만35세 이상 69세 이하 남녀 1,539명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조사표를 이용한 대면면접조사

□ 조사기간 : 2016년 8월 9일 ~ 2016년 9월 9일

□ 표본추출방법

○ 2016년 7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을 활용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

□ 조사내용

○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 4대 영역별 노후준비 실태 파악: 1)사회적 관계 2)건강한 생활습관 3)여가활동  
4) 소득과 자산

○ 전반적인 노후준비도와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이용경험

##### 나. 응답자 특성

□ 전체 조사완료된 1,539명에 대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 50.4%(776명), 여성 49.6%(763명)

○ 혼인상태는 유배우자가 전체의 84.0%(1,292명), 무배우자 16.0%(247명)

－ 연령은 40대가 33.7%(518명), 50대 31.6%(486명), 60대 19.8%(305명),



30대 14.9%(230명)의 순으로 분포

- 지역별 분포는 중소도시 46.5%(716명), 대도시 45.5%(701명)의 순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나, 농어촌의 경우 7.9%(122명)에 불과
- 학력은 고졸이 전체의 48.5%(746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전문대졸 이상(전문대졸 및 대졸이상)도 34.3%(527명)이며, 이외 중졸 이하의 학력은 전체의 17.3%
- 전체의 78.8%(1,213명)가 취업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종으로는 판매 및 서비스직이 44.0%(677명), 기능 및 노무직 16.6%(256명), 관리 및 전문·사무직 14.7%(226명) 등의 순
  - 종사상지위는 고용주 및 단독자영업자가 전체의 39.8%(613명)로 가장 많고, 상용근로자 26.8%(412명) 등의 순

#### 다. 노후준비 실태

##### 1) 노후준비지표 및 점수 산정과정

- 노후준비실태를 점검하는 노후준비 진단지표는 4개 영역과 총 31개 지표로 구성
  - 사회적 관계 영역의 지표 9개, 건강한 생활습관 영역의 지표 11개
  - 여가활동 영역의 지표 5개, 소득과 자산 영역의 지표 6개
- 보건복지부에서 2012년에 개발하여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활용하고 있는 노후준비 진단지표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각 영역의 명칭을 일반 국민에게 보다 친숙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수정
  - 영역 명칭은 기존 ‘대인관계’에서 ‘사회적 관계’, ‘건강’에서 ‘건강한 생활습관’, ‘여가’에서 ‘여가활동’, ‘재무’에서 ‘소득과 자산’으로 변경
  - 노후준비 진단지표가 노후준비수준을 보다 잘 측정할 수 있도록 5개의 지표를 변경



[그림] 영역별 노후준비수준 진단과정

영역	하위영역	지표	지표표준화(a) <sup>1)</sup>	하위영역가중치(b)	하위영역최대값(c) <sup>2)</sup>	노후준비수준
사회적관계 (A)	배우자 관계	A1.배우자와의 대화 충분성 A2.배우자와의 동반 외출 빈도	선택문항×2점	37	20	하위 영역별 'a×b/c' 점수 합산
	자녀 관계	A3.자녀와의 대화 정도	선택문항×2점	23	10	
	형제자매 관계	A4.본인(배우자) 형제자매와의 접촉빈도 A5.형제자매의 도움 정도	선택문항×2점	15	20	
	친구·이웃 관계	A6.친구와 만남 빈도 A7.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이웃의 수 A8.친구·이웃의 도움 정도	선택문항×2점	15	30	
	단체활동	A9.자발적으로 참석하는 모임의 수	선택문항×2점	10	10	
건강한 생활 습관 (B)	현재 건강상태	B1.동년배와 비교한 주관적 건강상태 B2.현재 앓고 있는 만성질환의 수 B3.평소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B8.비만지수(BMI)	선택문항×2점 (단 B2는×25점)	53	40	하위 영역별 'a×b/c' 점수 합산
	건강생활 실천	B4.현재 흡연 여부 B5.최근 6개월간 음주 정도 B6.최근 6개월간 규칙적 운동 정도 B7.균형적인 영양 섭취를 위한 노력 정도 B9.최근 6개월간 건강 체중 유지 노력 정도 B10.1일 수면시간 충분 정도 B11.정기적 건강검진 정도	선택문항×2점 (단 B4는×25점)	47	70	
여가 활동 (C)	노후여가 생활인식	C1.노후 취마여가활동 고려 여부 C2.노후를 고려한 취마여가활동 참여 경험 C3.노후 취마여가활동 변화 예상	선택문항×2점 (단 C2는×25점)	48	30	하위 영역별 'a×b/c' 점수 합산
	현재 여가생활	C4.동년배와 비교한 취마여가활동 정도 C5.취마여가활동 지속 기간	선택문항×2점	52	20	
소득과 자산 (D)	준비여건 및 인식	D1.본인의 예상 은퇴 연령 D2.배우자의 예상 은퇴 연령 D3.본인의 소득 안정성 D4.배우자의 소득 안정성 D5.제2의 일을 위한 본인 준비여부	선택문항×1점 <sup>3)</sup>	54	38	하위 영역별 'a×b/c' 점수 합산
	현재 자산상태	D6.본인(배우자)의 월평균 예상 노후소득	응답액 반영 최대 50	46	50	

주: 1) 지표표준화과정에서 지표별 선택문항은 [부록 1] 참조 2) 하위영역별 최대값임.

3) 노후소득의 준비여건 및 인식 관련 지표는 본인과 배우자 지표는 각각 최대 10점과 5점이며, 제2의 일을 위한 본인 준비여부는 최대 8점임

## 2) 노후준비수준

□ 영역별 노후준비수준을 살펴보면 4대 영역의 노후준비수준을 종합한 점수는 62.8점이며, 영역별로는 건강한 생활습관 영역이 73.1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사회적 관계 61.1점, 여가활동 60.2점, 소득과 자산 54.8점 순

- 건강한 생활습관 영역의 표준편차(8.7)가 가장 적은 반면 소득과 자산(21.0)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 영역의 준비정도의 다양성이 큼.
- 노후준비는 각 영역을 모두 균형있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소득과 자산 영역에 대한 노후준비 제고 노력이 요구됨.

〈표〉 영역별 노후준비수준

(단위: 점)				
영역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합	62.8	11.2	25.7	92.1
사회적 관계	61.1	18.7	6.0	99.0
건강한 생활습관	73.1	8.7	45.7	98.7
여가활동	60.2	16.1	20.8	100.0
소득과 자산	54.8	21.0	0	98.6

주: 1) 영역별로 100점 만점임.

2) (사회적 관계×17)+(건강한 생활습관×34)+(여가활동×14)+(소득과 자산×35)/100

### 3) 영역별 노후준비수준 유형

□ 상담과 교육, 연계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유형화가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영역별로 유형화 작업 실시

〈표〉 영역별 노후준비수준 유형

영역	유형	
	기준	결과
사회적 관계	· 사회적 관계의 크기(대/소)	① 고립형 (1.2%)      ② 친족 중심형(27.4%)
	· 사회적 관계의 유형(고립/친족중심/다층)	③ 소규모 다층형(30.0%)      ④ 대규모 다층형(41.4%)
건강한 생활습관	· 현재 건강상태(건강/건강주의)	① 건강군 실천형(44.9%)      ② 건강군 비실천형(34.9%)
	· 건강생활 실천행위(실천/비실천)	③ 건강주의군 실천형(10.3%)      ④ 건강주의군 비실천형(9.9%)
여가활동	· 노후 여가생활 인식(높음/낮음)	① 노후여가인식이 낮은 소극형(20.9%)
	· 현재 여가생활 적극성(적극적/소극적)	② 노후여가인식이 낮은 적극형(30.8%)
소득과 자산		③ 노후여가인식이 높은 소극형(15.3%)
		④ 노후여가인식이 높은 적극형(33.0%)
	· 노후소득준비(예상)규모(충분/부족)	① 노후준비가 충분한 공적자산형(21.2%)
	· 자산 구성(공적/사적)	② 노후준비가 부족한 공적자산형(30.9%)
		③ 노후준비가 충분한 사적자산형(21.5%)
		④ 노후준비가 부족한 사적자산형(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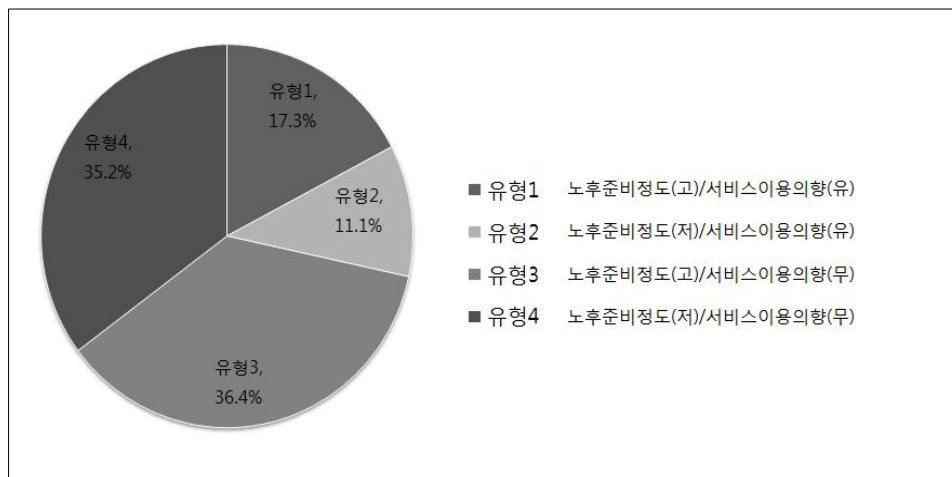


#### 4) 주관적 노후준비정도 및 서비스 이용의향

□ 현재 응답자가 생각하는 노후준비정도와 향후 노후준비서비스 이용의향에 대해, 총 4개의 유형으로 구분

- [유형1] 주관적 노후준비정도가 평균 이상이며, 서비스 이용의향이 있는 유형(17.3%)
- [유형2] 주관적 노후준비정도가 평균 미만이며, 서비스 이용의향이 있는 유형(11.1%)
- [유형3] 주관적 노후준비정도가 평균 이상이며, 서비스 이용의향이 없는 유형(36.4%)
- [유형4] 주관적 노후준비정도가 평균 미만이며, 서비스 이용의향이 없는 유형(35.2%)

[그림] 현재 노후준비정도 및 향후 서비스 의향에 대한 유형별 분포



#### 5) 노후준비서비스 경험

□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해 들어본 국민은 전체의 12.2%에 그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지원센터의 노후준비서비스를 경험한 비율은 1.6%에 불과



## 2.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

### 가. 기본계획의 장기발전방향

- 2030년까지 균형잡힌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사회구성원의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후생활과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 구현
- 장기발전방향 모색 맥락에서 1차 기본계획의 중점 사업 정립
  - 기반마련을 통한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2차 기본계획)를 위한 출발점 제시
  - 인식에서 행동으로의 이행 독려

### 나. 기본계획의 지향성

- 비전 및 핵심목표
  - 비전: 전 국민의 체계적 준비를 통한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후생활
  - 핵심목표: 누구나 원하면 언제, 어디서나 신뢰할 수 있는 노후준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반 조성
- 기본원칙
  - 삶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적이며, 생애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효과적·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존의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연계체계 마련
  - 생애단계별로 지속적인 점검·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반 구축
    - － 특정 연령대만이 아닌 ‘교육, 노동시장 참여, 결혼·출산’ 등 중요한 생애사건마다 자신의 노년기까지의 삶을 점검하고 수정보완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생애주기’를 고려한 대책 마련



- 국민의 노후준비 및 노후준비서비스 실태 등 경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수립
- 사회구성원이 인식과 경험을 나누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다. 1차 기본계획의 개요

##### □ 1차 기본계획임을 감안한 전략적 접근

- 2010년부터 시작된 정책적 관심으로 인하여 노후준비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노후준비 인식도 및 자체 만족도’에 의하면 2013년의 85.7점에서 2015년 92.8점으로 상승
    - 그러나 이러한 인식제고에 비하여 실질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따라서 초기단계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매우 중요
  - 이를 위하여 오피니언 리더의 관심과 참여 촉진 방안 모색 필요
  - 기존 공적 서비스와의 연계성 강화를 1차 기본계획의 초점으로 설정
- 다양한 주체의 참여 강조
  - 공적 전달체계 공고화와 더불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여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 국민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 1차 기본계획의 기본 구성

- 생애주기별 맞춤형서비스와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여,
  - 서비스의 심리적·물리적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접근방법 마련
-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별로 노후준비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공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인식 및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생애단계별로 서비스 대상자에게 통합적·연속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물적·인적 기반과 인식·경험 공유 기반 구축



[그림] 1차 기본계획의 추진과제 개요





## 라. 영역별 과제 및 세부과제

	영역	과제	세부과제
이용이 편리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통합적· 연속적 서비스 제공	1.연속적인 서비스 체계 구축	1-1. 노후준비서비스의 연속성 강화를 위한 서비스 콘텐츠 개발 및 효과적인 운영관리 1-2. 노후준비서비스의 성과 파악을 위한 평가체계 정립 1-3. 노후준비서비스의 연속성 강화를 위한 연구지원
		2.지역사회 자원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2-1. 노후준비지원 연계 서비스 제공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 2-2. 노후준비 관계 기관 발굴 및 체계적 자원 관리 2-3.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별 연계기관 협의체 운영 2-4. 지역내 유관 기관의 적극적 참여 및 협조를 위한 지원 2-5. 지자체의 노후준비 지원사업의 적극적 참여 독려
	생애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3.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3-1.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관리 기능 강화 3-2. 정기적 평가를 통한 노후준비서비스의 지속적인 질적 개선
		4.기업의 참여 독려	4-1. 기업 주관 노후준비 교육 실시 4-2. 노후준비 유가제도의 단계적 도입 4-3.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5.공적 사업과의 연계	5-1. 주요 생애단계별 주요 서비스 이용시 노후준비 진단 포함 5-2. 주요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노후준비서비스 안내 및 단계적으로 맞춤형 상담 제공
	다양한 서비스 접근방법 마련	6.디지털 접근 방법의 강화	6-1. 종합정보시스템 통합DB 구축 및 홈페이지개선 6-2. 노후준비 진단 앱 개발
		7.찾아가는 서비스 개발	7-1. 찾아가는 서비스의 타겟 설정 7-2. 노후준비서비스 전담 콜센터(전담 번호) 운영
	종합적인 기반 확충 및 강화	8.노후준비지원센터의 전달체계 확립	8-1.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독자성 확보 8-2.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와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역할 정립
		9.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확보	9-1. 기존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독자성 확보 9-2. 다양한 공공기관의 참여 지원
		10.전문성 있는 인력확보 및 양성	10-1. 모든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법에서 규정한 전담인력 확보 10-2. 서비스 제공인력 양성교육 내실화 10-3.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강화 10-4.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수교육 체계화
		11.진단지표 고도화	11-1. 노후준비 지표 표준화 11-2.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욕구사정 항목 개발
		12.체계적인 홍보전략 마련	12-1. 오피니언 리더에 대한 홍보 및 참여 촉진을 통한 여론선도 12-2. 연령대별 중점대상층 중심의 맞춤형 홍보 12-3. 전 국민에 대한 노후준비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13.이용자간의 노후준비 및 실천경험 공유	13-1. 홈페이지에 이용자 공유공간 마련 13-2. 상담사례집 발간
		14.교육과정별 노후준비 기회 제공	14-1. 학급(초·중·고등 및 대학교)별 노후준비관련 프로그램 개발 14-2. 학급(초·중·고등 및 대학교)별 교과서에 노후준비 관련 내용 포함
		15.주요 생애주기별 노후준비 수준 진단 및 설계 유도	15-1. 군복무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15-2.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자 대상 노후준비 진단 안내
	6영역	15개 과제	38개 세부과제







# 제 1 부 서론

제1장 서론

제2장 노후준비 현황

제3장 노후준비서비스의 의의와 현황







# 제 1 장 서론

제1절 추진배경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제1절 추진배경

- 노인인구의 증가(2016년 현재 676만명, 전체인구의 13.2%)와 더불어 평균수명 증가 및 사회경제문화적 변화로 인하여 노후 기간 확대 및 생활의 다양성이 증대하고 있음.
- 노인인구의 양적·질적 변화는 사회적 차원에서 고령화에 대한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개인적 차원에서의 길어진 노년기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요구함.
-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변화로, 노인인구 부양은 미래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으며 그 중 안정된 노년을 위해 노후준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노후준비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노년기에 겪게 될 어려움에 대비하여 노후에 필요한 자원들을 마련하여 행복하고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과 계획으로 설명됨(박창제, 2008).
  - －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노후준비의 영역은 크게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으로 분류되고 있음.
- 노후준비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제상태, 가족관계 등 다양한 인구사회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됨.
- 성별, 연령과 관련해서는 노후준비의 영역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며, 남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 낮은 연령일수록 사회적 노후준비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박창제, 2008; 이신영, 2009; 김백수 외, 2010; 김주성 외, 2010; 배문조, 2011; 최명화 외, 2012).



- 교육수준 및 경제상태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전반적인 노후준비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이정화, 2009; 조추용 외, 2009; 최명화 외, 2012).
- 가족관계와 관련해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전반적으로 노후준비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녀의 경우에는 자녀와의 다양한 역학관계에 따라 노후준비가 여러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됨(이선형 외, 2010; 정순돌 외, 2013).
- 최근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주목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노후준비와 관련하여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경제적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취업여부 및 지속정도, 은퇴 결정 형태 등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안기선 외, 2012; 박창제, 2013).
  - 연금수급 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하며(하춘광, 2006), 나아가 연금 뿐 아니라 다층소득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하여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 역시 제시됨(권혁창 외, 2012).
  - 사회적 노후준비와 관련해서는 노년기의 사회활동 참여가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 만족도를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임우택 외, 2013).
- 노후준비에 대한 개괄적 논의를 바탕으로, 국민의 전반적인 노후준비 실태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다양한 주체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까지 전국단위의 표본을 중심으로 노후준비 현황을 살펴본 연구는 국민연금공단(2012)과 이삼식 외(2013)의 연구가 대표적이며, 대다수 연구는 경제적 노후준비 영역을 중점으로 하여 진행됨.
    - 국민연금연구원(2012)에서는 50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주관적 측면에서 노후시기 해당여부, 경제, 정서, 사회, 신체적 측면의 노후준비 실태를



조사하였음.

- 경제적 노후준비수준은 미비한 수준에 그치는 것에 반해, 정서 및 사회적, 신체적 노후준비는 조사대상자 전체의 평균(5점 만점 기준)에 근접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삼식 외(2013)의 연구는 전국 35~69세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건강, 재무, 여가의 4개의 측면에서 노후준비 실태를 조사하였음.
- 노후준비수준은 각 영역별로 상이하여 건강> 대인관계> 여가> 재무영역 순으로 노후준비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 국민연금공단에서 2015년 1년간 국민연금행복노후설계센터를 방문해 노후준비 종합진단을 받은 만 20세 이상 응답자들의 12,429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 노후준비 점수는 400점 만점에 평균 248.8점이며 영역별로는 건강(77점)> 사회적 관계(61.1점)> 여가(59.6점)> 소득과 자산(51.1점)으로 나타남.

○ 이외 민간기관에서도 노후준비 상황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음.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3)에서는 만 24~58세 성인 비은퇴가구 약 3,000명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지수를 발표하였으며, 평균 50.3점으로 2012년 53.3점에 비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재무준비지수는 40.3점으로 2012년에 비해 6.0점 하락한 반면, 비재무지수는 65.3점으로 동기간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됨.
- 박지승(2013)의 연구에서는 재무영역을 중심으로 도시거주 베이비부머 2,000명을 중심으로 노후준비수준을 살펴본 바 있음.
- 연령이 높을수록 은퇴 후 경제생활 수준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중은 높지만, 실제 준비하는 정도는 40대를 정점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노후준비와 관련하여 노후준비 영향요인,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노후준비 실태 등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노후준비에 대한 개괄적 논의를 바탕으로 국민의 전반적 노후준비 실태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다양한 주체를 통해 진행되었지만, 노후준비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방향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임.

□ 영역별로 다양한 노후준비수준을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함.

- 국민의 노후준비 실태가 다양한 것에 주목하여 이를 파악하려는 여러 시도가 이루어진 바 있음.

－ 노후준비수준의 영역별 균형에 초점을 둔 분류(이소정 외, 2013)

- 모든 영역에서 균형잡힌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유형(유형1), 건강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낮은 수준의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유형(유형2), 재무영역과 대인관계 영역 중심의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유형(유형3), 재무영역과 여가영역의 높은 준비도를 가지고 있는 유형(유형4), 여가영역만 준비하는 유형(유형 5), 재무영역만 준비하는 유형(유형6)

－ 각 영역별로 유형분류를 실시한 경우도 존재(홍백의 외, 2012)

- 사회적 관계: 고립형, 친족중심형, 소규모 다층형, 대규모 다층형
- 건강한 생활습관: 건강군 실천형, 건강군 비실천형, 건강주의군 실천형, 건강주의군 비실천형
- 여가활동: 노후여가인식이 낮은 소극형, 노후여가인식이 낮은 적극형, 노후여가인식이 높은 소극형, 노후여가인식이 높은 적극형
- 소득과 자산: 노후준비가 충분한 공적자산형, 노후준비가 부족한 공적자산형, 노후준비가 충분한 사적자산형, 노후준비가 부족한 사적자산형

□ 향후 예견되는 지속적인 고령화와 길어진 노년기를 생각해볼 때 생애단계별로 노후준비 관련 관심도와 지속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특정 연령대에서만 노후를 고민하고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노동시장 참여, 결혼 등 중요한 생애사건마다 자신의 노년기까지의 삶을 점검하고 수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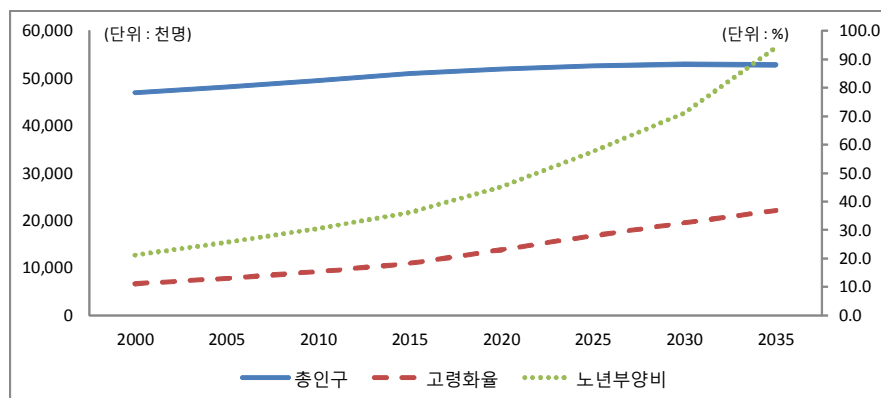


완해가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이 필요함.

○ 고령화 심화 및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 은퇴에 따라 국민들이 사전에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노인인구는 2000년 3,395천명(7.2%)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7,381천명에 달하여 전체인구의 14.3%를 차지하는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됨.
  - 평균수명 역시 2002년 76.8세에서 2015년 82.1세로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노년기가 확장되고 있음(통계청, 2016).
- 모든 국민이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준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후준비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구현해가야 할 것임.
-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는 2015년 현재 723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2020년부터 노년기에 진입할 것임.
  - 노년기 진입을 목전에 둔 베이비부머의 적절한 노후준비는 베이비부머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양 측면에서 모두 중요한 과제임.

[그림 1-1] 총인구, 고령화 및 노년부양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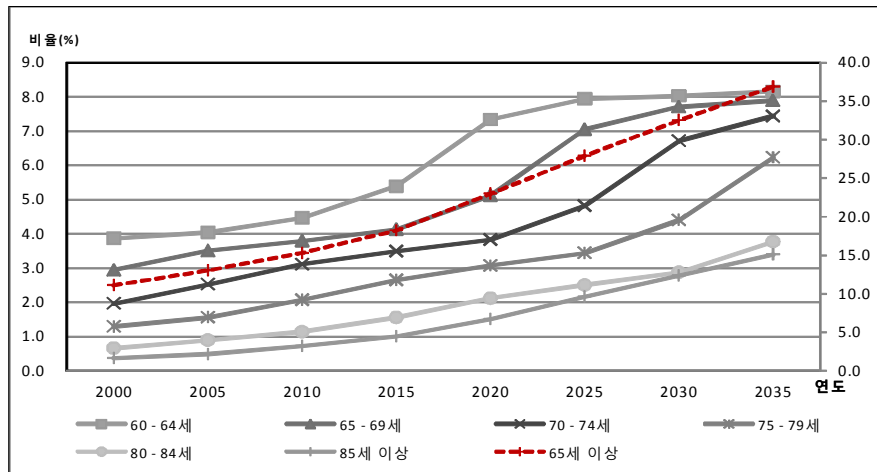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을 통해 연구진 재구성



□ 한편 우리사회의 ‘압축적인 고령화’에 대해 다양한 제도적인 준비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우리사회의 고령화 대응 수준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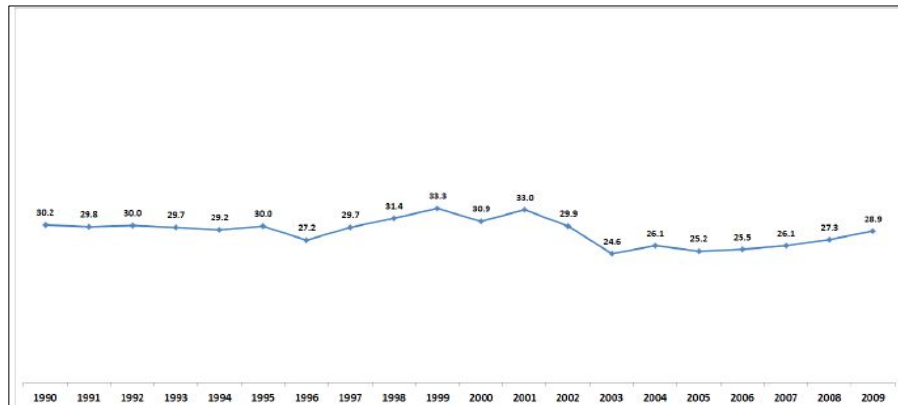
○ 이에 정부는 국가의 대응책 마련 외에도 개인적 차원의 대응 또한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개개인의 노후준비를 체계화·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그림 1-2] 연령별 노인인구 구성비 전망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을 통해 연구진 재구성

[그림 1-3] 한국의 고령화 대응지수 연도별 추이



자료: 정홍원 외 (2012). 인구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 및 고령화 대응지수 개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림 3-3-1] 재인용



□ 이러한 맥락에서 노년기에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소득단절, 건강 악화, 사회적 관계의 약화 및 무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준비를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구체화되고 있음.

○ 노후준비 지원법의 제정(2015.6.22.)을 통해 노후준비 지원방안에 관한 산발적 논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정책적 관심이 구체화되었음.

- 본 법은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후생활에 필요한 준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음.<sup>1)</sup>
- 본 법에서는 노후준비를 건강하고 안정된 노년을 준비하기 위하여 은퇴 후의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에 관해 미리 진단하고 이에 대해 설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노후준비 지원법은 5년마다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하고 있음.

- 또한 노후준비 지원법은 (중앙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노후준비 지원사업의 물작인적 인프라 구축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명시함.

□ 현재 노후준비서비스는 공공영역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일부 민간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으나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 일반적으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거주지역과 연령(베이비부머 중심)에 자격제한을 두고 있음.

- 다양한 상황에 놓여있는 전 국민의 균형잡힌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적절한 국가-시장-지역사회-가족개인의 역할분담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정경희, 2013).

○ 이러한 맥락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노후준비 여건 조성이 정책과제로 포함되었음.

1) 국회에 제출된 최초의 법안명은 '노후설계지원에 관한 법률(2013. 5. 24. 유재중 의원 대표발의)'였지만 논의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노후준비 지원법으로 확정되었음.



-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15.12.23)에 따라 진단·상담·교육, 관계기관 연계 등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 고령사회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중장기 국가 노후준비 지원정책의 로드맵이 필요함.

##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1. 연구내용

□ 본 연구는 노후준비 지원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기초한 단중장기 비전 및 목표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자 함.

○ 구체적인 기본계획의 범위는 노후준비 지원법 제5조에 포함된 내용을 기본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sup>2)</sup>

□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국민 개개인의 노후준비 현황과 노후준비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 현황을

---

2) 노후준비 지원법 제5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중 1차 기본계획임을 고려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검토가 이루어졌음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등 기본조성에 관한 사항
- 건강, 대인관계, 여가, 재무 등 영역별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노후준비 지원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노후준비 관련 통계의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 노후준비 문화의 확산에 관한 사항
- 노후준비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노후준비 관련 민간자원의 연계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 노후준비 관련 국내·국외 기관간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노후준비 지원 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파악하고,

- 둘째, 노후준비서비스의 특징과 연혁 및 주요 서비스 인프라 현황을 파악하며,
- 셋째, 노후준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 넷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제시하는 것임.

[그림 1-4] 연구내용 개요



## 2. 연구방법

□ 본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음.

- 한국리서치는 노후준비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함(전국 만 35~69세 1,500명 목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노후준비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제특성별 노후준비 현황을 파악하고,
  - 선행연구 및 조사결과 분석 등에 기초하여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의견 청취, 국가노후준비위원회<sup>3)</sup>를 통해 검토를 실시하였음.

[그림 1-5] 연구진행도



3) 국가노후준비위원회는 노후준비 지원법 제8조에 기초하여 보건복지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게 되어 있음. 제1차 노후준비 5개년 계획을 검토하고 심의한 국가노후준비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당연직 위원 8명(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금융위원회의 고위 공무원, 국민연금공단 업무이사(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장) 및 위촉직 6명으로 구성되었음



□ 본 연구의 구체적인 수행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 문헌연구, 현장방문 및 자문을 통하여 기본적인 연구 진행방향을 정리하고 비전과 핵심목표를 설정하였음.
- 노후준비 실태조사 결과와 현장방문을 통하여 사회구성원의 노후준비실태 및 욕구, 현장에서의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였음.
- 구체적인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후에는 현장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 국가노후준비위원회의 위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였음.
- － 본 연구가 정부가 확정하여 발표하게 될 제1차 노후준비 지원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라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은 중요한 기준임.

[그림 1-6] 연구진행방법









## 제 2 장

# 노후준비 현황

---

제1절 국민의 노후준비 현황

제2절 노후준비 관련 정책 현황







# 2

## 노후준비 현황

### 제1절 국민의 노후준비 현황

#### 1. 국민의 노후준비 현황

□ 2015년 국내 만 19세 이상 가구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조사에서, 전체의 72.6%가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통계청, 2015b).

○ 주된 노후준비 방법은 55.1%로 국민연금에 치중되었으며, 사적연금 및 퇴직(연)금을 통한 준비는 2013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음.

○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27.4%), 그 이유로 준비할 능력 없음(49.9%), 앞으로 준비할 계획임(25.7%), 자녀에게 의탁(14.4%) 등을 언급함.

〈표 2-1〉 노후준비 방법

(단위 : %)

	계	준비 유									준비 무					
			소계	국민연금	기타공적연금	사적연금	퇴직급여	예금적금	부동산운용	기타		소계	아직생각안함	앞으로준비할계획	준비능력없음	자녀에게의탁
2013년	100.0	72.9	100.0	52.5	7.8	11.3	4.6	17.4	5.3	1.0	27.1	100.0	8.8	24.0	49.7	17.4
2015년	100.0	72.6	100.0	55.1	8.5	9.0	3.9	17.7	5.2	0.6	27.4	100.0	10.4	25.7	49.9	14.4

자료 : 통계청(2015b). 사회조사 결과 보도자료 p.11. 재인용.

□ 한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핵가족 증가, 가족문화 변화 등을 바탕으로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험개발원(2015)에서 우리나라 30~50대 은퇴준비 가구주 1,275명<sup>4)</sup>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노후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90%를 상회함.

4) 본 조사는 2014년 수도권 거주 만 39세 이상 59세 이하 775명과 2015년 서울 및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울산, 광주) 만 30세 이상 59세 이하 500명을 합쳐 분석됨.



- 준비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30대 94.3%, 40대 92.2%, 50대 94.2%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 본인의 준비정도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함.
- 비은퇴가구를 중심으로 조사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5)의 조사결과에서도, 전국 25~59세 성인 2,906명 중 노후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42.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안정적 자산운용 등에 관심이 많은 연령대인 30대와 40대에서 높은 공감대를 나타냈으며(84.5%, 85.6%), 상대적으로 은퇴와 가까운 연령대인 50대에서도 높은 인식수준을 보임(83.5%).

## 2. 영역별 노후준비 현황

- 노후준비 주요영역인 사회적 관계, 건강한 생활습관, 여가활동, 소득과 자산<sup>5)</sup>을 중심으로 관련 지표들을 통해 국민들의 영역별 노후준비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가. 사회적 관계(대인관계 영역)

- 2015년 사회조사에서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하거나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하는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2.4%, 76.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통계청, 2015b).
- 그러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남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농어촌지역에 비해 도시지역이 사회적 관계망의 작동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5) 조사주체에 따라 영역명칭과 순서가 상이함. 본 보고서에서는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노후준비종합진단지의 영역명칭과 순서(사회적 관계-건강한 생활습관-여가활동-소득과 자산)에 따라 서술하고자 함.



〈표 2-2〉 일반특성별 사회적 관계망의 작동 가능성과 규모

(단위 : %)

구분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sup>1)</sup>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경우	
	도움받을 사람있음	사람 수	도움받을 사람있음	사람 수	도움받을 사람있음	사람 수
2013년	74.7	2.2	47.0	2.5	81.1	3.1
2015년	76.8	2.2	50.1	2.4	82.4	2.9
도 시	77.1	2.2	50.8	2.4	83.0	3.0
농 어 촌	75.5	2.1	46.6	2.3	79.2	2.7
남 자	76.9	2.2	50.4	2.4	80.5	3.0
여 자	76.7	2.1	49.8	2.3	84.2	2.9
13~18세	—	—	63.8	3.6	89.0	4.3
19~29세	82.6	2.6	61.5	2.6	88.8	3.6
30~39세	78.5	2.2	59.1	2.1	86.5	2.9
40~49세	76.2	2.1	50.4	2.1	83.2	2.7
50~59세	74.0	2.1	41.5	2.1	79.5	2.5
60세이상	74.0	2.0	35.7	2.0	73.3	2.4

주: 19세 이상 대상임.

자료 : 통계청(2015b). 사회조사 결과 보도자료 p.18.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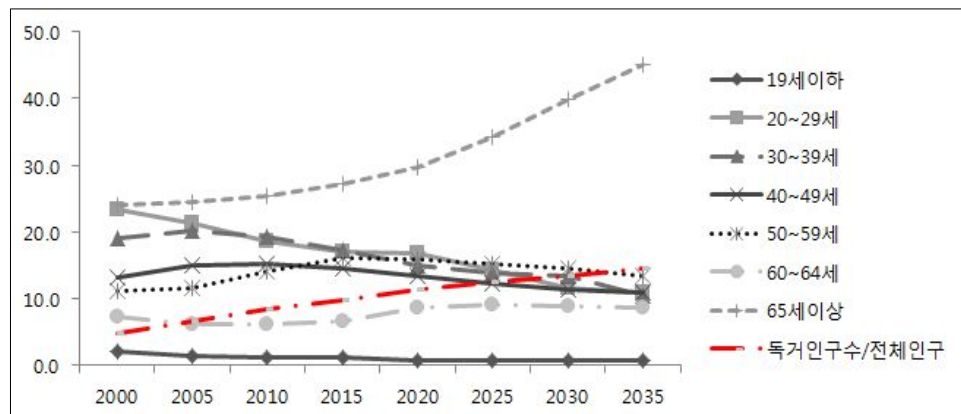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독거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00년 4.8% → '10년 8.4% → '20년 11.3% → '35년 14.4%).

○ 그러나 최근으로 올수록 변화율은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연령에 따라 변화율에 편차가 발생함.

- 20대~40대의 경우, 가구 형성 및 가구 확산의 시기로 독거인구 비율은 시간의 추이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65세 이상의 경우, 2000년 24.0%에서 2010년 25.4%, 2020년 29.7%, 2035년에는 45.0%로 가파른 증가율을 보임.
- 연령에 따라 가구형성 추이가 달라짐을 감안하여 맞춤형의 적절한 서비스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림 2-1] 연령별 독거인구 추이(2000~2035)



자료: 통계청(2016d). 장래가구추계. 원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구성함.

○ 한편, 은퇴 후 부부간 역할 변화 및 접촉시간 증가 등에 따른 갈등으로 인해 황혼이혼은 증가추세이며, 특히 결혼 20년차 이상 부부의 이혼건수는 전체 이혼건수의 29.9%를 차지하고 있음(통계청, 2015c).

– 따라서 각 생애주기별로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와 개개인의 노력이 요구됨.

□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는 신체기능(ADL, IADL) 뿐만 아니라 인지기능(MMSE-KC), 정서적 기능(우울증상) 호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노인이 맺고 있는 사회관계가 많으면 사망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정경희 외, 2012).

○ 고독사와 관련하여 2015년 기준, 무연고 사망자 중 약 31.0%가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파악됨(김춘진, 2016).

–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5년 1,245명(미상 포함시)으로 2011년 693명 대비 179% 급증한 바 있음(기동민, 2016).

• 무연고 사망자 수(전 연령) : 2011년(693명), 2012년(741명), 2013년(922명), 2014년(1,008명)



〈표 2-3〉 연도별 무연고 사망자 현황(2011~2015)

(단위: 명)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 계	693	741 (106.9% ↑)	922 (124.4% ↑)	1,008 (109.3% ↑)	1,245 (123.5% ↑)

자료: 기동민 의원실 보도자료(2016.9.14). 「각박한 세대, 무연고 사망자(고독사) 매년 증가」. (원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나. 건강한 생활습관(건강 영역)

□ 우리나라 13세 이상 인구 중 47.1%는 전반적으로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임(통계청, 2016a).

○ 20~29세 63.9%, 30~39세 54.2%, 40~49세 46.2%, 50~59세 40.3%, 60세 이상 25.4%로 60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낮음.

□ 건강상태의 주관적 인식과 달리 건강관리(식사, 수면, 운동, 건강검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건강행동 실천항목별,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임(통계청, 2016a).

〈표 2-4〉 일반특성별 건강관리 실천현황

(단위: %)

구분	아침식사하기		적정수면(6-8시간)		규칙적 운동		정기 건강검진	
	실천	비실천	실천	비실천	실천	비실천	실천	비실천
2014년	70.1	29.9	76.1	23.9	36.9	63.1	58.3	41.7
2016년	67.2	32.8	77.2	22.8	38.0	62.0	60.7	39.3
남 자	66.0	34.0	77.3	22.7	41.3	58.7	60.7	39.3
여 자	68.5	31.5	77.0	23.0	34.9	65.1	60.7	39.3
13~18세	67.6	32.4	70.9	29.1	35.0	65.0	32.7	67.3
19~29세	44.7	55.3	73.2	26.8	35.7	64.3	28.9	71.1
30~39세	48.8	51.2	74.4	25.6	30.6	69.4	53.9	46.1
40~49세	65.9	34.1	76.8	23.2	34.6	65.4	67.9	32.1
50~59세	76.8	23.2	80.7	19.3	42.4	57.6	76.0	24.0
60세이상	89.7	10.3	81.9	18.1	45.9	54.1	79.9	20.1

자료: 통계청(2016a). 사회조사 결과 보도자료 p.24. 재인용.



○ 조사결과, 걱정수면(77.2%)과 아침 식사하기(67.2%), 정기 건강검진(60.7%)을 실천하는 비율에 비해 규칙적 운동을 실천하는 비율은 38.0%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아침 식사하기의 실천률은 20대(44.7%), 30대(48.8%)가 60세 이상(89.7%)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됨.
- 걱정수면은 전 연령대에서 7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이며, 정기검진의 경우 직장가입자 의무검진 등을 통해 30대 이상 연령층에서 50% 이상의 높은 참여율을 보임.
- 반면, 규칙적 운동의 경우 20~30대에 비해, 50~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42.4%, 45.9%)을 보였으나 여전히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 노후건강은 전 생애를 통해 누적적으로 마련되는 것으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중요하나, 현 건강관리 실태를 볼 때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파악됨.

○ 기대수명의 지속적 증가('02. 77.2세→'15. 82.3세) 추세를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건강행동 실천이 요구됨(통계청, 2016c).

- 한편, 동기간 건강수명은 2002년의 67.8세에서 2015년에 73.2세로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기대수명과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통계청, 2016c).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 의료비 추이 역시 건강관리 실천의 중요성을 뒷받침함.

- 2015년,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622만명으로 전체의 12.3%를 차지하나, 건강보험 진료비는 21조 3,615억원으로 전체의 36.8% 차지함(통계청, 2016b).
- 65세 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343만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하였고, 전체 인구 월평균 진료비 대비 3배 수준에 달하고 있음(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5).



### 다. 여가활동(여가 영역)

□ 우리나라 19세 이상 국민의 약 57.1%는 취미활동을 하며 노후를 보내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남(통계청, 2015b).

○ 다음으로는 소득창출활동(17.6%), 학습 및 자아개발활동(10%) 순으로 노후를 보내고 싶어함.

□ 그러나 실제 대다수는 TV 시청으로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음(통계청, 2015b).

○ 13세 이상 국민들의 여가활동은 ‘TV시청(69.9%)’, ‘휴식(50.8%)’,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19.0%)’ 등 순임(복수응답).

□ 중장년기에 사회참여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 노년기에도 지속적으로 사회참여를 하고 있어, 여가(사회참여)는 경험자의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음(장훈 외, 2014).

〈표 2-5〉 중장년기 및 노년기 사회참여 변화 유형

(단위 : %)

구 분	비참여→비참여	비참여→참여	참여→비참여	참여→참여
비율	31.8	6.9	28.6	32.8

자료 : 정경희 외(2012).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심층분석(20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라. 소득과 자산(경제 영역)

□ 노후를 위한 사회적 관심사로 소득지원(40.4%), 취업지원(26.3%)이 높은 순위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통계청, 2015c), 제반여건은 여전히 미흡하여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기대하기 어려움.

○ 보험연구원(2015)에서 우리나라 30~50대 은퇴준비자 1,26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은퇴준비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응답한 경우 경제측면(생활비)은 7.9%에 그침.



□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의 역사가 짧고, 사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체계가 미흡하며,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해 노인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 노인비율)은 OECD 최고 수준임.

○ 국민연금의 경우,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납부예외자는 451만명(전체 가입자의 20.9%), 1년 이상 장기체납자는 110만명(전체 가입자의 5.1%)인 것으로 나타남(국민연금공단, 2015).

– 65세이상 노인가계 자산구성 비율은 (한국) 비금융 86.3% 금융 13.7% / (미국) 비금융 56% 금융 44% / (스웨덴) 비금융 59%, 금융 41% 순으로 여전히 부동산 등이 노후소득에 주축을 이루고 있음(보험연구원, 2015).

○ 한편 은퇴연령인구(66세 이상)의 균등화 중위소득은 근로연령 인구(18~65세)의 30% 수준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통계청, 2015a).

– 18~65세 중위소득 : 220.5만원, 66세 이상 중위소득 : 67.6만원

– 은퇴연령층 가구(66세 이상)의 빈곤율 역시 취업자가 없는 경우 73.6%로 그렇지 않은 경우(30.8%)와 약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임(통계청, 2015c).

〈표 2-6〉 은퇴연령층 가구 빈곤율

(단위 : %, %p)

구분		2013년 처분 가능소득	2014년				
			시장소득(A)	처분가능소득			
				B	증감	정부정책효과 (A-B)	빈곤갭
은퇴연령층 가구 빈곤율		52.9	64.7	49.6	-3.3	15.1	45.5
취업자수별	0인	75.6	90.8	73.6	-2.0	17.2	50.4
	1인이상	34.9	44.4	30.8	-4.0	13.5	36.2

자료 : 통계청(2015a).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p.40.

□ 재취업 등으로 실제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 연령은 70세 이후이나, 장기근속일 자리의 퇴직연령은 49세에 머무는 상황임.

○ 상대적으로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지만, 대부분 비정규직 일자리로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sup>6)</sup>.

6) 우리나라 고령자(55~64세)의 고용률은 2015년 기준 67.8%로, OECD 평균인 61.1%보다도 높은 수준임(미국 63.9%, 프랑스 52.6% 등). 이는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미흡과 같은 사회구조적 취약성과 농업 및 자



-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의 이직연령 및 근속기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반해 노동시장 은퇴연령은 증가하여 간극이 발생함('00년: 남성 67.1세, 여성 65.9세 → '14년: 남성 72.9, 여성 70.6세(OECD, 2015)).

## 제2절 노후준비 관련 정책 현황<sup>7)</sup>

□ 사회구성원이 노후를 준비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정책을 아래와 같이 정리함.

○ 노후준비 4개 영역에 상응하는 국가의 기본계획을 통하여 정책의 지향성을 살펴보고자 함.

- 이는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활용할 수 있는 노후준비 관련 정책의 발전방향을 예측하게 할 뿐만 아니라 노후준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임.

○ 또한 현재 개개인이 노후준비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영역별로 정리하였음.

### 1. 관련 기본계획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3차례(1차(2006~2010), 2차(2011~2015), 3차(2016~2020)) 수립된 바 있으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사회를 구현하라는 비전 하에,

○ 저출산 영역에서는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고령사회 영역에서는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를 목표로 하여 하위 추진전략을 수행 중에 있음.

- 이는 민간-지역-정부의 협력으로 전사회적 대응체계 강화, 인식 및 문화개선, 추진 인프라 확립을 선행조건으로 함.

영업자 등의 취업구조에서 기인함(통계청, e-나라지표(원자료 : OECD, OECD Stats.))

7)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과 관련사업 수행기관의 홈페이지에 기초하여 정리한 것임.



□ 건강과 관련해서는 노인장기요양기본계획과 치매관리종합계획이 대표적임.

○ 제1차 노인장기요양기본계획은 가족의 요양부담 감소 및 요양서비스 품질 제고라는 목표 하에, 분야별 추진과제로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확대,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전달체계의 효율성 강화, 재정 관리 강화를 두고 있음.

– 세부 추진과제로 적정수준의 수혜 대상 확대, 등급외자에 대한 지원강화, 본인부담 감면 대상 확대, 다양한 재가 서비스 활성화, 요양기관 서비스 품질 관리 강화 및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의 16가지 과제를 선정하였음.

○ 치매관리종합계획은 1차(2008~2012), 2차(2012~2015), 3차(2016~2020)에 걸쳐 수립된 바 있음.

– 1차 기본계획에는 19개의 세부과제가, 2차 기본계획에서는 12개의 세부과제가 제시된 바 있으며, 3차 기본계획에 들어와 좀 더 구체화된 38개 세부과제가 제시되었음.

• 즉 10여년 동안의 집중적인 정책수행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발전방향의 모색이 가능해진 것임.

□ 여가활동과 관련한 주요 기본계획으로는,

○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1차 국가기본계획(2008~2012)을 수립하였고 현재 2차 국가기본계획(2013~2017)이 수립되어 진행중이며,

– 2차 국가기본계획에 들어와 은퇴자 및 노인자원봉사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음.

○ 평생학습과 관련해서는 3차에 걸친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이 수립되었음.

– 제1차(2002~2006), 2차(2008~2012), 3차(2013~2017)에 걸친 계획 중 제3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에 들어와 100세 시대 평생학습체계 구축이 중요한 주제로 대두되었음.

□ 소득의 경우는 별도의 기본계획이 없으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 하에,

○ 공적연금 강화, 주택·농지연금 대폭 확산,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장수리스크 대비 금융시스템 개선 등을 세부과제로 제시한 바 있음.



## 2. 영역별 관련 정책

### 가. 사회적 관계

□ 사회적 관계에 대한 공적인 서비스는 문제에 당면한 가족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음.

○ 폭력과 관련하여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관련 상담소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을 뿐이며<sup>8)</sup>,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는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sup>9)</sup>.

－ 사회적 관계와 관련하여 아직 개인의 노력 또는 민간시장에 의하여 준비해야 하는 상황임.

□ 가족관계 향상을 위해 생애주기별 가족상담 프로그램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생애주기에 따라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생애주기별 부모·부부 교육 등 가족교육 및 가족관계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 나. 건강한 생활습관

□ 건강검진

○ 국가 건강검진 사업을 통하여 선제적으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고 있음.

－ 건강보험 가입자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지역 보건소에 신청하여 2년에 1

8)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 임시보호를 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국에 203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가족정책의 주요 전달체로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의 제안 및 실행업무를 수행함. 생애주기별 가족 생활교육, 가족상담, 아이돌봄지원 등 다양한 가족관련 서비스를 수행하며 전국 167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9) 동 기본계획에 노인학대 예방체계 강화 관련 내용은 포함되었으나,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사회적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 등은 부재한 상황임.



번씩 일반 검진, 암종별 대상 연령에 따라 암 검진을 받을 수 있음.

- 생애전환기(40세, 66세) 건강검진이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40세 이후 매 10년마다 제공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음(보건복지부, 2016).

#### □ 건강증진 사업

-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여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1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2-7〉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 구성 및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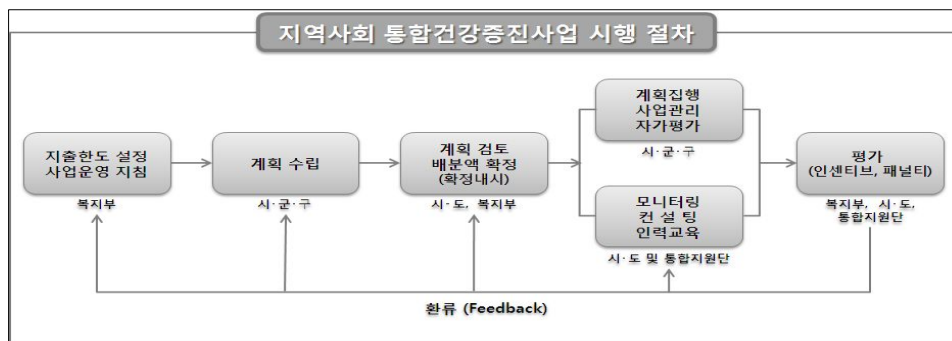
구분	사업 목적	사업 내용
금연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접 흡연 없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강 증진 및 건강 수명 연장	- 흡연 예방 - 흡연자 금연 촉진 - 간접 흡연 없는 환경(Smoke-free) 조성
절주	건강 음주 문화 조성 및 위험 음주의 조기 발견, 개입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음주 피해 감소	- 교육 및 홍보 - 조기 선별 및 상담
신체활동	신체활동 실천 인구 증가 및 걷기,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률 증가	- 생애 주기별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 - 만성 질환 예방을 위한 개인별 서비스 - 홍보 및 캠페인 - 환경 조성 - 지역사회 지원 및 연계 강화
영양	건강 수명 증가를 위한 최적의 영양관리 및 식생활 습관 개선	- 대국민 홍보 환경 조성 - 생애 주기별 영양 관리(영양 플러스 포함)
비만	국내 비만 인구의 증가 억제 건강한 식생활, 규칙적인 신체활동 등 비만 예방을 위한 건강 생활 실천 향상	- 정보 제공 및 홍보 캠페인 - 만성 질환 예방 및 비만 관리 - 생애 주기별 주민 교육 - 취약 계층 비만 예방 프로그램
구강보건	예방 중심의 평생 구강 관리 체계 강화로 구강 건강 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구강 건강 증진 - 구강병 예방 진료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심뇌혈관 질환의 심각성과 예방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고혈압, 당뇨병 질환 전 단계와 질환자의 적정 관리를 통해 건강 지표 목표 달성	- 심뇌혈관 질환 홍보 - 만성 질환 예방 관리
한의학 건강증진	인구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만성퇴행성질환을 포함한 지역 주민의 건강상의 문제 해결을 위해 치매병의 원리와 한의약적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질환별 한의약 건강 증진 - 생애 주기별 한의약 건강 증진
아토피 천식 예방 관리	지역사회 알레르기 질환 예방 관리 수준 향상	- 아토피, 천식 안심 학교 운영 - 취약 계층 아토피, 천식 환자 지원 - 아토피, 천식 교육 - 아토피, 천식 홍보
여성, 어린이 특화	임신, 출산, 육아 관련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과 어린이 건강 증진	- 임신부 등록 관리 - 산모 건강 관리 - 가임기 여성 건강 증진 - 다문화 가정 여성, 어린이 건강 증진 - 영유아 건강 증진



구분	사업 목적	사업 내용
치매관리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 관리함으로써 치매 노인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매 노인 사례 관리</li> <li>- 치매 검진</li> </ul>
지역사회 중심재활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사회적 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재활</li> <li>- 장애인 사회 참여</li> <li>- 2차 장애 발생 예방</li> </ul>
방문건강 관리	취약 계층의 건강 인식 제고, 자가 건강 관리 능력 향상,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 행태 개선</li> <li>- 만성 질환 관리 및 합병증 예방</li> <li>- 임신부, 신생아 및 영유아 관리</li> <li>- 노인 허약 예방</li> <li>- 다문화 가족 및 북한 이탈주민 관리</li> <li>- 장애인 재활 관리</li> </ul>

자료: 보건복지부(2015b). 2015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총괄). p.21.

[그림 2-2]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시행 절차



자료: 보건복지부(2015b). 2015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총괄).

- 이외에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의하면,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노년기 진입 전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고령자 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건강마일리지 제도를 시범사업 중이며, 건강백세운동교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고령화에 대응한 건강서비스체계를 수정보완하고 있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임.
  - 질병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정신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인자살 예방체계를 마련해가고 있으며, 포괄간호서비스(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호스피스 활성화 등 후기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 노인이 주의해야 할 의약품 정보제공, 의약품 안전사용 지원사업 등도 진행되고 있으므로 건강한 노후생활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 의원급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제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이 수행 중으로 향후 확대될 예정임.

○ 고혈압, 당뇨 재진환자 대상으로 동네의원 의사가 비대면 만성질환 관리(환자별 계획 수립, 지속관찰 관리, 전화상담)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으로 체계적인 노년기 만성질환 관리가 가능해질 것임.

□ 한편, 서비스 질 제고 등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고도화 노력과 치매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노년기에 이러한 문제에 당면할 경우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더불어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지역별 요양시설 관련 정보(시설 및 인력현황, 평가등급, 프로그램 현황 등)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한편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고도화로 장례식장 가격정보 제공, 모바일 화장예약 서비스 기능 개발, 장사관련 상담서비스 활성화도 추진되고 있음.

#### 다. 여가활동

□ 노년기는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경제활동으로부터 물러난 시기로 그 이전의 시기에 비하여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시기임.

○ 여가활동의 경험이 없어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른다면 여가는 무료함을 주는 것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무위와 소외를 완화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활기찬 노후 생활 구현에 기여할 것임.

□ 이에 정부는 노년기의 다양한 여가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있음.



- 노인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여가활동 공간으로는 노인복지법에 기초한 노인 여가복지시설이 있음.
- 또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여가, 자원봉사, 학습활동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 있음.

〈표 2-8〉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목적 및 특징

시설	목적	특징
노인복지관	노인의 교양취미 생활 및 사회 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과 소득 보장·재가복지, 그밖에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사회 복지사 근무 지자체 예산 + 신축에 필요한 예산 분권 교부세로 지원
경로당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취미 활동·공동 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 제공	지자체 예산 + 냉난방비 일부 국비 지원 경로당 외부에서 관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광역 운영 지원 센터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 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 생활·노인 건강 유지·소득 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 프로그램 제공	전적으로 지자체 관리 운영과 관련된 기준은 법적 근거뿐 아니라 사업 안내 등에서도 제시되지 않고 있음.

〈표 2-9〉 주요 노인 여가활동 지원 시설의 목적 및 특징

시설	목적	특징	법적 기반	소관부처
지방문화원	지역 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을 통하여 지역 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 문화 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등을 수행	시·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원(院)을 둔 16개 시도 연합회와 한국 문화원 연합회	지방문화원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진흥원(시·도), 평생 학습 도시(시·군·구), 행복 학습 센터(읍·면·동)으로 이어지는 추진 체계 및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등 평생교육 추진 기반 구축		평생교육법	교육부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활동의 발굴과 원조를 위한 조사, 연구, 홍보, 연락 조정, 복지 교육, 자원봉사국의 설치·운영, 또는 자원봉사 활동의 사고에 대한 보험 운영, 자원봉사활동 기금의 조성 등 사업이나 활동	시·군·구 1개 설치 지자체 예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행정자치부

□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하여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임.

-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전국 문화시설에서 어르신 맞춤형 문화프로그램(300~350개)을 운영 중임.



○ 어르신 문화활동가 양성, 문화나눔봉사단·문화동아리 운영, 문화공동체 구축, 어르신-청년 협력 프로젝트 등도 진행되고 있음.

□ 노인복지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극, 무용, 음악, 미술, 사진 등 5개 분야 전문예술강사 및 교육 프로그램(330~400개, 2016년도 기준) 지원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사업주관)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의 협력체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이외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체육활동 및 관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수행 중임.

○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어르신 생활체육종목 보급(17개 종목, 615개소 교실 강습, 13개 종목 대회 지원) 및 어르신 야외체력교실을 운영 중임(120개소, 2016년도 기준).

○ 시니어(53~61세)를 대상으로, 시니어 유형별 맞춤 여행 프로그램 제안, 시니어 맞춤형 관광정보 제공, 시니어 관광 리플렛 제작 및 배포(전국 관광안내소 등)

□ 사회구성원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지원사업이 <표 2-10> 과 같이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음.

<표 2-10> 사회참여 관련 정책 현황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 기타부처	
고령자 특화			
한국노인복지관협회	대한노인회	전연령층 대상	
전문노인자원봉사	노인자원봉사클럽	사회복지자원봉사	행정자치부의 1365 자원봉사 (자원봉사센터)  과학기술인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공익활동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	-
재능나눔활동 -재능을 보유한 노인에게 재능나눔활동 기회를 부여 하여 사회참여를 통한 성취감 제고, 건강 및 대인관 계 개선 유도			



- 중고령층 자원봉사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확대를 위하여 전국의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중고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발굴, 우수사례 시상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1365자원봉사포털’을 중심으로 타 자원봉사 관련 단체 및 시스템과 연계하여 자원봉사 실적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자원봉사 활동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라. 소득과 자산

- 노년기의 소득 및 자산은 현재 자신의 경제활동과 과거의 경제활동 등의 결과로 축적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노년기 진입 전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노후소득보장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함.

### 1) 노년기 진입 전후의 경제활동 지원

- 중장년층 및 노인층의 민간시장 취업알선과 창업지원 관련 정책(예: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한노인회의 통합취업지원센터 등), 공공에서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노인에게 제공하는 사업(예: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구분되어 수행되고 있음.
- 민간시장 취업알선과 관련해서는 노인 및 중장년층 등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이 수행되고 있음.
  - 노인에게 일자리를 알선하는 통합취업지원센터(2015년 기준 24개소)가 있음.
    - － 중앙정부의 노인 경제활동 지원정책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이외에도 시니어 인턴십과 고령자친화기업에 대한 지원도 수행되고 있으며, 2016년도부터는 시니어 인턴십과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이 노인일자리 시장형에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음.
  - 중장년에게 일자리를 알선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음.
    - －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일자리와 복지, 서민금융 등의 상담과 지원을 원스



톱 서비스로 제공하며, 2014년 10개소로 시작되어 2015년 40개소, 2017년까지 100개소로 확대할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음.

○ 중장년 직업훈련 기회 확대를 위한 관련 서비스 등이 수행되고 있음.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와 지역·산업 맞춤형 훈련 사업 내 ‘중장년 정보화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하여 장년층의 ICT 역량을 제고하고, 고학력·고숙련 구직급여 수급자의 유망산업 선도훈련·신산업분야 양성훈련 참여를 지원하는 노력이 진행중임.
- 또한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내 특화훈련과정 운영, 취업률과 훈련비 자부담 연계를 확대하여 고(高)성과 훈련참여를 촉진하는 사업도 진행될 예정임.

□ 사회적 기업을 통한 장년 일자리 창출 및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완화를 통한 사회적기업 진입(육성) 활성화를 진행하고 있음.

○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기초한 것으로,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장차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임.

□ 이외에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 대상 구직상담, 직업교육, 인턴십 및 취업 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해갈 예정임.

□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관련 사업도 지속적으로 활성화 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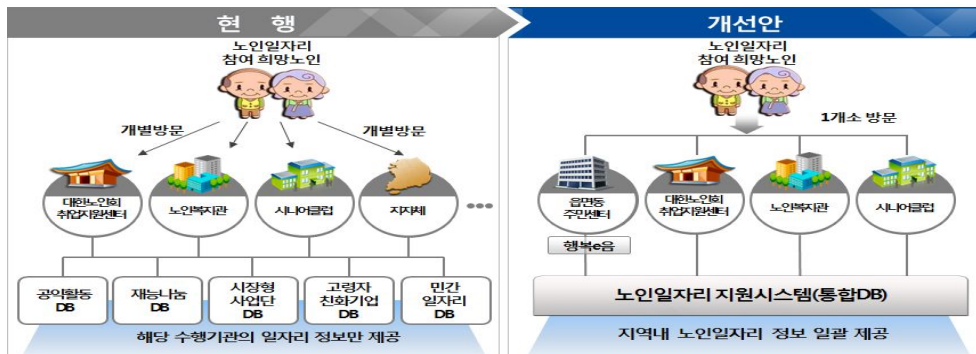
○ 65세 이상 노인 중 저소득층을 우선 대상으로 취업형, 공익활동, 재능나눔 일자리 사업 지속적으로 활성화해가고 있음.

- 노인일자리 창출 계획 : ('16) 387천개 → ('17) 437천개 → ('18) 487천개 → ('19) 537천개 → ('20) 587천개

○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와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청노인 거주지역의 재정지원 노인일자리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그림 2-3] 노인일자리 지원시스템 개선 방안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6).

## 2) 노후소득보장제도

□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공적 제도는 [그림 2-4] 와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기초연금은 기본이 되는 노후소득원으로서 0층을 구성하며, 1층인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역연금제도(공무원, 사립 학교 교직원, 군인)를 포함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며, 특히 노인의 노후소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2015년 말 기준으로 총 인구수 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률은 3.2%이며,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동 수급률이 6.7%에 달하고 있음(보건복지부, 2015a).

○ 퇴직연금제도와 개인연금제도는 개인 스스로 노후의 경제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비교적 최근에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사업장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은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으로 시행되었으나, 2015년 6월 말 기준, 퇴직연금 도입률은 16.5%에 불과한 실정임(대한민국정부,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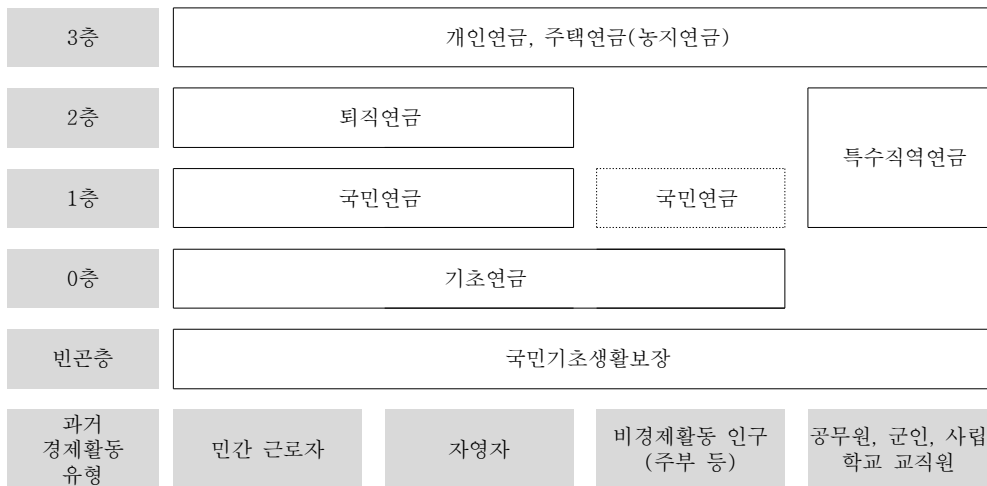
－ 개인연금은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1994년부터 시행되었으나 가입률은 12.2%에 불과함(대한민국정부, 2015).



○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은 노인이 보유한 자산을 소득화하여 노후 생활 안정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임.

- 주택연금은 자신이 보유한 주택 자산을 유동화하는 것으로 2007년에 도입되었음.
- 부부 중 최소 1명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본인이 소유 및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되, 평생 거주하면서 노후 생활 자금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임.
- 농지연금제도는 현재 보유한 농지 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2011년에 도입되었음.
-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으로 5년 이상 영농 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본인이 소유한(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농지 제외) 농지를 담보로 맡기되, 농지에서 계속 농사를 지으며 연금을 받을 수 있음.

[그림 2-4] 노후소득보장 체계도



주: 비경제활동인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국민연금 가능.  
자료: 정경희 외(2016). 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발전전략 모색. <표 3-1>을 재인용함.



# 제 3 장

## 노후준비서비스의 의의와 현황

제1절 노후준비서비스의 특징과 의의

제2절 노후준비서비스의 연혁과 현황

제3절 노후준비 영역별 관련 주요 서비스 및 인프라







# 3

## 노후준비서비스의 의의와 현황 <

### 제1절 노후준비서비스의 특징과 의의<sup>10)</sup>

#### □ 노후준비 개념의 연속적·적극성으로 인한 노후준비서비스의 포괄성

- 노년기를 설계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의미의 용어이며, 고용관계 상의 변화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변화와 사회적인 변화 또한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포괄성을 갖고 있음.
- 연속적이며 적극적인 개념인 노후준비가 적절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로 특화된 서비스의 개발이 요구됨.

#### □ 가치재로서의 노후준비서비스

- 가치재는 사적재 중에서도 인간이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수준으로 소비해야 하는 유익한 재화이지만, 마땅히 생산되고 소비되어야 할 양보다 적은 규모로 시장을 통해 덜 생산되고 소비되는 재화·서비스를 말함.
  - 정부는 이런 재화·서비스의 소비 자체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접 공급에 개입하기도 함(예: 의료서비스, 주택서비스, 교육서비스).
- 노후준비서비스는 향후 한 개인이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재정, 여가, 건강, 주택, 일자리 등을 미리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노후준비기에 최소한의 수준으로라도 이용(소비)하는 것이 보다 풍요롭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됨.
  - 그러나 아직 국민들의 노후준비수준이 낮으므로 공적 서비스를 통하여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준비 수준을 제고할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상황임.

10) 노후준비서비스와 관련하여 이론적 논의를 종합하여 정리한 이소정 외(2014) 연구내용 중 노후준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검토되어야할 주요내용을 정리하였음.



- 민간부분에서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수요대비 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즉 현재의 서비스 규모가 사회적·개인적으로 필요한 규모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적 서비스가 요구됨.
- 적절한 규모의 수요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제공되는 경우도 중산층 이상과 같은 특정층에 초점이 두어지고 있음.
- 소비자의 낮은 인식 수준과 더불어 우리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인식구조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또한 서비스 구매에 있어 미온적임.

□ 노후준비서비스가 가져올 누적적·장기적인 외부효과를 고려할 때 공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측면이 있음.

○ 급격한 고령화와 압축적인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노인빈곤, 건강, 자살, 사회 참여, 학대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 노년기 진입 이전부터 각 생애단계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통해 사회적 관계, 건강, 여가 및 소득 등에 대하여 준비하게 된다면, 준비 없는 노후진입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임.

- 노인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효율있는 서비스로 고령화 사회에서 새로이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 노후준비서비스는 기존서비스와는 달리 준비의 패러다임과 예방적 복지의 패러다임, 정보 중심의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서비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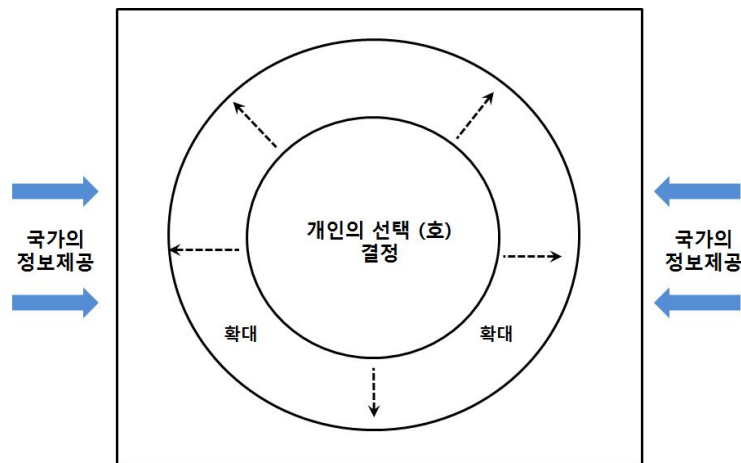
○ 노후준비서비스는 청·장년층이 자신이 노년기에 진입하기 이전에 미리 노후에 예견되는 문제를 예측하고 대비함으로써 다음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



－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지원하는 것이 보다 비용효과적인 접근임.

○ 지금까지의 현금서비스나 현물서비스와는 달리 노후준비에 필요한 유용한 지식과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스스로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대비하게 하여 자기주도적 생활을 촉진하게 함.

[그림 3-1] 공적 노후준비서비스



주: 이소정 외(2014)의 [그림 2-30] 을 연구자가 재구성함.

자료: 이소정 외(2014). 노후설계서비스 종합계획수립 및 콘텐츠 개발 연구-노후설계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그림 2-30] 재인용. (원자료: 이해영(2011). 정책결정에서 온 온정주의의 이해. 한국행정학회 2011년 하계학술대회.)

## 제2절 노후준비서비스의 연혁과 현황

### 1. 공적 노후준비서비스의 연혁과 현황

□ 고령인구 증가 및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등 노년기 안정적인 삶에 대한 준비, 즉 노후준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정부도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옴.

○ 정부에서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제2차 새로마지 플랜’)에서 노후 설계에 대한 내용을 반영(‘10년)하기 시작하였으며, ’15년 노후준비 지원법 제



정을 기점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노후준비 지원사업을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하여 제공 중에 있음.

- 노후준비 지원법에서는 노후준비와 관련한 국가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노후준비지표 개발 및 보급, 중앙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체계적인 노후준비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함.

○ 관련하여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 고령사회대책 세부 과제의 하나로 ‘노후준비 인프라 확충’이 제시되어 있음.

〈표 3-1〉 정부의 노후준비서비스 관련 주요 연혁

구분	내용
'1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제2차 새로마지플랜)에 ‘노후설계’ 반영
'12. 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5조의2에 ‘노후설계’ 신설
'12.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제2차 새로마지플랜) 보완계획에 ‘노후설계’ 구체화
'13. 5.	노후설계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제출
'15. 6.	노후준비 지원법 제정
'15.12.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

자료 :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 국민연금공단은 2003년부터 노후준비서비스(CSA) 사업 등을 중심으로 노후준비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주요 사업의 연혁은 아래와 같음.

〈표 3-2〉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서비스 관련 주요 연혁

구분	내용
'08. 4.	가입자 및 수급자 등 대상 노후준비서비스 시행
'09. 5.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09.12.	노후준비 전문사이트 ‘내연금’ 구축 및 운영
'11. 4.	전국 141개 행복노후설계센터 설치 <sup>1)</sup>
'12. 4.	노후준비 종합진단서비스 실시
'15. 6.	노후준비 지원법 제정
'15.12.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 전국 107개 노후준비지역센터 소재

주: 1) 현재는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명명되며, 107개(2016년말 기준) 센터 소재  
 자료 :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 '09년 '내연금'사이트 구축을 통해 재무영역을 중심으로 한 노후준비 전문 사이트를 개설하였으며, 이후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중심으로 '행복노후설계센터'가 설치됨.
- 이후 노후준비 주요영역인 '대인관계, 건강, 재무, 여가'영역에 대한 종합 진단서비스가 실시됨('12.4.)
-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15.12)과 맞물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종합적 정보와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제공 중임.
-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 중인 분야별 주요 서비스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표 3-3〉 분야별 주요 서비스

영역	서비스 내용
대인관계	건강한 소통방법, 전문기관 등 정보 제공
건강	건강관리, 질병예방 등 건강실천 정보 제공
재무	재무설계 및 연금, 보험 등 재무정보 제공
여가	취미활동, 자원봉사 등 다양한 여가정보 제공

자료 :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표 3-4〉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절차

구분	내용
진단	진단지 측정을 통한 분야별 노후준비수준 진단(상·중·하) 및 취약점 파악
상담	개인별 노후준비수준 및 분야별 취약점 보완을 위한 1:1 맞춤형 상담
교육	생애주기별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에 대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연계	노후준비 상담 후 심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기관에 연계
사후관리	상담시 계획한 실천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정보 제공

자료 :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 2016년 상반기 기준, 노후준비서비스는 진단 및 상담(39,089명), 교육(4,839회/217,004명), 관계기관 정보제공(2,893명), 상담고객 대상 사후관리 차원의 정기적 추가정보 제공(943명) 실적이 보고됨.
- 국민연금공단의 2012년~2016년 8월까지 누적 노후준비 상담건수(진단 지표 미활용 상담건수 포함)는 총280,147건임.
- 현재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준비 지원법을 근간으로 국민연금



공단을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로, 전국 107개 국민연금공단지사를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 중임.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지원실에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등 노후준비서비스 정책 지원업무 수행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107개)에서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업무 수행

〈표 3-5〉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운영현황

지역노후준비 지원센터 운영형태	개소수		운영 현황
지사 (지역노후준 비지원센터)	107	행복노후준비지원센터 (75개소)	노후준비 전담부서 설치 노후준비 상담직원 1명과 민원 상담인력 3~4명 배치
		연금지급부 (32개소)	연금지급부에 노후준비 상담직원 1명 배치
상담센터 (지사 소속)	46	—	노후준비 상담직원 미배치 노후소득보장 위주의 상담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연계

주: 상담센터에는 총 2명 직원이 상주함.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 노후준비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향후 연금정보 조회 범위의 확대(기존 국민·퇴직·개인연금('16.4)→ 주택연금('16.12), 상담 및 교육 콘텐츠 개발('16.연중), 노후준비서비스 분야별 관계기관 연계 시스템 구축('16.12.), 사후관리 시범운영('16.7~11), 진단지표의 세분화('17년) 등을 추진 중에 있음(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 국민연금공단을 제외한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노후지원서비스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표 3-6〉 공공기관의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현황

기관구분	세부구분	대상	비용
국민연금공단	-온라인 자가진단 상담, 정보제공, 방문상담, 집합교육	전국민	무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온라인 자가진단	전국민	무료
	-노후설계상담사 양성	베이비부머 사회참여 지원	무료
여성가족부	-중고령여성 노후설계역량강화 -(전국 4개권역 주2~3회, 20~60시간 교육)	만50세 이상	무료
	-여성의 경제적 권익향상 관련 재무 및 생활설계 교육	결혼이민여성, 장애여성 등	무료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교육, 일자리, 자원봉사	베이비부머	참가비 5만원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 노인취업훈련센터	-노년설계아카데미 집합교육	취업희망 노년세대 중심	-
방송통신대 프라임칼리지의 제2인생설계과정	-인문교양 및 시민문해 -제2인생대학: 학점과목(경제, 일과 사회 참여, 여가, 주거), 비학점(재취업, 건강) -귀농귀촌, 국제개발협력/사회적경제, 전문자격	일반인 누구나	36,000~94,500원/ 과목당선착순 200명/15차수
경기 55.63 새출발 프로그램	-베이비부머 은퇴자 프로그램 및 강사 양성	경기도 거주 베이비부머	-
기타 지자체	-노인대상 교육 혹은 평생교육 내 1-2 섹션	일반인 / 노인	무료

자료: 이삼식 외(201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인용.

## 제3절 노후준비 영역별 관련 주요 서비스 및 인프라

### 1. 노후준비 영역별 관련 주요 서비스 및 인프라

□ 노후준비 4대 주요 영역에 대해, 공적 영역을 중심으로 현재 제공가능한 서비스를 파악한 결과는 〈표 3-7〉과 같으며, 복지포털([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을 중심으로 재정리하였음.

○ 이를 서비스 인프라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표 3-8〉과 같음.



〈표 3-7〉 공공기관의 영역별 서비스 현황

대 분류	소 분류	서비스명	서비스 제공기관	생애주기	대상(구체조건)	비고
종합	상담 교육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국민연금공단	전체	-	현물서비스 (‘내연금’사이트를 통한 콘텐츠 개 발, 보급)
사회적 관계	학대	가정폭력상담소이용	가정폭력상담소	전체	도서지역 거주 남성	현물서비스 (교육서비스)
		성폭력상담소 이용	성폭력상담센터	전체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족	현물서비스
	상담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	건강가정지원센터	전체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	현물서비스
		법원연계 이혼위기 가족 회복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일부)	전체		현물서비스
건강한 생활 습관	건강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민간 제공기관(시군구 신청)	만65세 미만	75세 이하로 한정 (혹은 만55세 이상 공무원 퇴직자)	현금서비스 (활동수당 지급)
		지역사회통합건강증 진사업	보건소	전체	국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질병관련 조건	현물서비스
		암검진사업	암센터	만40세이상		현물서비스
		심뇌혈관질환 고위험 군 등록관리시범사업	보건소	만30세이상 (권고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현물서비스
		중독관리통합지원센 터 이용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전체	고혈압, 당뇨병자	현물서비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건강검진기관	만40세(만66세)	중독관리가 필요한 자	현물서비스
		제가암관리	보건소	전체	의료급여수급권자	현물서비스 (cf.비용지원)
		노인안검진 및 개안 수술	보건소	만60세이상	제가암환자	현물서비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보건소	만60세이상	중위소득 60%이하인 안 질환 대상자(개안수술)	현물서비스
		전립선 등 노인성 질환 예방관리사업	보건소	만55세이상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 충족자에 한정	현금서비스
여가활동	문화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시군구청 및 문화예술 위원회	만6세이상	이혼 신청(준비) 부부 및 자녀	현물서비스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 교육 서비스)
	교육	온라인 정보화교육	배움나라(estudy)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우선돌봄 차 상위계층	바우처카드지급
		고령층 정보화교육	일자리교육기관	만55세이상	-	현물서비스
자산과 소득	고용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세부사업별 상이	세부사업별 상이	현물서비스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지원센터	18세~64세	취업취약계층	현물/현금서비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시군구청	만18세이상	취업취약계층	현물서비스
		여성경제활동 촉진지 원사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제한없음	취약계층	현물서비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지방산림청, 국유림관 리소	만18세이상	경력단절여성	현물서비스
		시니어 기술창업지원 (기술창업센터)/창업넷		만40세이상	실업자,일용근로자	현물서비스
		산림서비스도우미	시군구청	만18세이상	(예비)창업자	현물/현금서비스
		산림보호 지원단	지방산림청, 국유림관 리소	만18세이상	사회서비스 일자리사 업 지침 해당자	현물서비스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경찰서(파출소),노인회	만60세이상	취업취약계층	현물서비스

주 : 복지포털(www.bokjiro.go.kr)에 제시된 영역별 / 대상별 주요 서비스 분류(2016. 7. 17. 반출)



〈표 3-8〉 노후준비 관련 인프라 현황

구분	역할	비고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관계, 건강한 생활습관, 여가활동, 소득과 자산 등 국민의 노후준비를 위하여 전반적으로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li> </ul>	■ 107개소
지역 사회내 노후준비 서비스 관련 자원	<b>계</b>	<b>10,014개소</b>
	<b>소계</b>	<b>197개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교육, 상담, 정보제공 등 [건강가정지원센터]</li> </ul>	■ 161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가정폭력상담소,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li> </ul>	■ 36개소
	<b>소계</b>	<b>3,789개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료및검사, 예방접종, 재활보건, 만성질환관리 등 [보건소]</li> </ul>	■ 3,191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검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건강보험공단]</li> </ul>	■ 177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울, 불안, 스트레스 예방과 관리를 서비스 제공 [정신건강증진센터]</li> </ul>	■ 212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매상담·예방 및 치매어르신돌보기 등 [치매센터]</li> </ul>	■ 70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동상담·치방 및 운동프로그램운영 [국민체력100센터]</li> </ul>	■ 33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사증후군 예방관리, 건강생활 실천 및 체력증진 [건강생활지원센터]</li> </ul>	■ 22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증진 및 직장생활만족도 향상 [근로자건강증진센터]</li> </ul>	■ 20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검진 및 건강검진 프로그램 관리 [건강관리협회]</li> </ul>	■ 16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암센터, 체육회 등</li> </ul>	■ 48개소
	<b>소계</b>	<b>5,113개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의시설 운영 등 [자치센터]</li> </ul>	■ 3,563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돌봄, 노인사회활동 지원 [노인복지관]</li> </ul>	■ 526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활동 등 [사회복지관]</li> </ul>	■ 252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봉사활동 소개, 단체안내 및 활동지원 [자원봉사센터]</li> </ul>	■ 248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전시회, 공연, 축제 등 [지방문화원]</li> </ul>	■ 244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적합형 사회활동 개발 및 환경조성 [시니어클럽]</li> </ul>	■ 134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평생교육원]</li> </ul>	■ 33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문화의 집, 문화관광 등</li> </ul>	■ 113개소
	<b>소계</b>	<b>915개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후생활비, 부족자금 등을 제시하고 마련방안을 안내 [노후행복설계센터]</li> </ul>	■ 44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연금제도관련 서비스 기관 [주택금융공사]</li> </ul>	■ 20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연금제도관련 서비스 기관 [농어촌공사]</li> </ul>	■ 113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업급여, 취업·교육훈련지원 등 [고용(복지+)센터]</li> </ul>	■ 88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여성새일센터]</li> </ul>	■ 147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구직정보, 일자리 프로그램 제공 [여성인력개발센터]</li> </ul>	■ 52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지원 [자활센터]</li> </ul>	■ 283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및 취약층 일자리 지원 [산업인력공단]</li> </ul>	■ 24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0대이상 중장년층의 재취업 및 창업정보제공 [노인일자리지원기관]</li> </ul>	■ 30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일자리 및 노인취업교육 [대한노인회]</li> </ul>	■ 8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50+센터, 귀농귀촌종합센터 등</li> </ul>	■ 106개소



## 2. 노후준비서비스 제공대상 분포 및 규모

□ 노후준비서비스는 기본적으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서비스 제공이 비교적 최근에 도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다수가 학업을 끝내고 일과 가정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35세 이후부터 60대에 진입하여 길어진 노년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모색해야 하는 69세까지를 주요 서비스 대상으로 상정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가 위치한 행정구역을 바탕으로 주요 서비스 제공대상(만 35~69세)의 인구규모를 〈표 3-9〉에서 살펴봄.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가 위치한 107개 지사 관할구역을 중심으로 주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대상 인구(만 35~69세)를 살펴본 결과, 약 2,659만명이 잠재적 서비스 대상으로 파악됨.

○ 연령대별로는 40대(33.5%)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50대(31.7%), 60대(19.7%), 30대(15.0%)의 순으로 나타남.

– 주 노후준비서비스 대상자 대비 실제 지금까지 이루어진 상담건수인 280,147건을 대비해보면 현재까지 주 대상자의 1.07%에게만 상담이 이루어진 상황임.

○ 서비스 대상 규모별 비율을 살펴본 결과, 30만명 이상~35만명 미만인 지사가 전체의 16.8%(18개소)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20만명~25만명 미만(15.0%(16개소))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3-10 참조).

– 35만명 이상 인구가 밀집한 지사 역시 전체의 18.7%(20개소)를 차지하여, 지역별 인구규모 편차가 큰 상황으로 서비스 접근성과 관련하여 제공기관의 적절한 분포 등이 요구됨.

– 행정구역별 국민연금공단 지사 분포에 따른 시·군·구, 읍·면·동 개수를 보면, 공단지사 1개소당 담당하는 시·군·구는 평균 2.1개이나 지역별 편차가 두드러져 최대 4.4개, 최소 1.0개까지 분포함. 이같은 경향성은 읍·면·동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남(표 3-11 참조).



〈표 3-9〉 국민연금공단 지사 관할구역 내 서비스 대상 분포

(단위: 명)

연번	지사명	35- 3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60- 64세	65- 69세	합계
1	서울북부	58,316	60,783	58,911	52,467	51,953	38,530	30,683	351,643
2	종로중구	20,447	22,079	23,964	23,219	23,807	18,307	14,065	145,888
3	동대문중랑	60,381	60,819	64,889	63,596	66,908	50,643	37,952	405,188
4	성북강북	60,348	67,372	67,649	61,676	63,987	49,761	39,734	410,527
5	도봉노원	67,473	77,508	84,953	76,422	77,092	56,027	40,391	479,866
6	성동광진	54,633	54,440	55,881	52,591	52,281	37,565	27,867	335,258
7	용산	19,161	19,929	20,011	18,205	18,214	14,083	10,971	120,574
8	은평	40,374	42,931	42,284	38,609	40,072	30,518	24,188	258,976
9	고양	76,876	95,035	103,076	92,787	78,344	47,092	33,088	526,298
10	파주	35,688	39,294	37,697	32,223	29,241	19,781	15,281	209,205
11	의정부	57,303	68,353	71,094	66,415	63,841	44,148	33,518	404,672
12	포천철원	12,134	15,128	17,272	18,559	19,399	13,171	9,512	105,175
13	구리남양주	77,228	88,476	86,939	78,541	74,403	53,516	38,594	497,697
14	서울남부	16,758	15,879	14,825	11,707	10,948	9,088	7,506	86,711
15	강남역삼	32,084	33,977	39,038	32,111	28,661	22,341	16,021	204,233
16	송파	56,176	56,050	56,375	51,561	52,328	39,777	27,081	339,348
17	강동하남	53,008	51,962	53,245	52,406	55,605	41,367	28,540	336,133
18	서초	80,313	81,575	72,129	63,266	55,650	43,321	18,876	415,130
19	관악	43,531	40,472	37,582	35,393	37,224	30,121	24,534	248,857
20	동작	34,025	32,687	31,079	29,342	30,967	23,928	19,179	201,207
21	구로금천	55,638	53,857	53,555	52,856	55,129	42,538	32,380	345,953
22	영등포	32,341	30,862	30,197	29,141	30,569	23,301	18,300	194,711
23	강서	52,400	49,313	46,305	44,893	48,731	36,496	26,337	304,475
24	양천	34,951	42,095	47,361	41,571	38,451	27,592	19,136	251,157
25	춘천	25,480	29,505	32,418	31,954	33,838	25,281	16,686	195,162
26	홍천	7,995	9,405	11,074	12,828	15,796	12,155	8,064	77,317
27	강릉	21,703	27,178	30,019	29,610	33,365	24,921	18,226	185,022
28	삼척	16,144	19,105	20,621	20,350	23,827	18,508	13,929	132,484
29	원주	28,836	34,365	37,267	35,913	37,163	25,900	16,679	216,123
30	경인	64,232	63,841	63,719	55,030	44,706	25,913	16,892	334,333
31	북수원	38,690	43,053	46,712	42,495	38,127	24,944	17,537	251,558
32	용인	88,646	100,737	93,226	70,844	59,053	44,002	35,529	492,037
33	화성오산	88,396	84,461	70,711	55,003	47,210	31,850	22,146	399,777
34	안양과천	48,911	55,588	61,850	58,953	56,218	36,181	23,437	341,138
35	군포의왕	35,595	38,254	40,083	38,361	36,365	22,428	14,558	225,644
36	성남	79,302	85,569	90,025	80,757	76,485	52,102	37,413	501,653
37	경기광주	28,759	28,545	27,861	25,313	25,538	18,186	12,240	166,442
38	이천여주	23,885	25,492	27,021	25,821	26,051	18,754	12,989	160,013
39	평택안성	53,072	57,633	57,933	51,650	48,054	32,692	23,769	324,803
40	안산	52,854	63,325	71,572	65,457	52,873	28,831	18,288	353,200
41	광명	29,754	31,678	30,404	26,969	26,926	18,851	12,786	177,368
42	시흥	33,175	39,023	42,541	36,972	28,298	15,482	9,959	205,450
43	부천	66,409	70,246	75,831	76,751	75,695	47,664	30,018	442,614



64 노후준비 실태조사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5개년 기본 계획 수립 연구

연번	지사명	35- 3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60- 64세	65- 69세	합계
44	남동연수	70,703	76,191	78,732	75,102	68,100	41,809	27,447	438,084
45	서인천	44,791	47,463	47,690	43,582	37,643	22,888	14,942	258,999
46	김포강화	36,811	38,155	35,015	32,346	32,146	23,946	18,850	217,269
47	남인천	49,157	51,211	50,930	49,852	52,308	39,193	30,162	322,813
48	부평계양	68,383	72,521	81,314	83,291	76,317	46,569	30,643	459,038
49	대전	47,438	55,170	59,440	52,441	52,016	36,055	25,442	328,002
50	동대전	39,287	43,584	45,203	43,204	46,349	36,339	28,314	282,280
51	북대전	43,463	47,691	49,432	42,384	39,368	25,084	15,911	263,333
52	청주	65,599	70,639	73,555	65,404	62,506	42,116	27,845	407,664
53	증평	16,402	17,899	20,115	20,263	22,081	16,596	11,838	125,194
54	옥천	6,414	8,304	10,070	11,099	13,704	11,504	9,313	70,408
55	충주	22,456	28,075	32,316	32,049	35,485	26,699	18,262	195,342
56	공주부여	9,185	11,404	13,472	14,652	17,563	14,431	11,734	92,441
57	세종	23,819	23,133	17,984	14,042	13,529	9,904	7,048	109,459
58	천안아산	81,315	80,950	78,920	67,423	59,650	39,272	27,813	435,343
59	홍성	23,574	25,685	26,475	26,374	28,197	22,876	19,169	172,350
60	서산태안	16,268	18,057	18,751	18,101	18,995	14,578	12,920	117,670
61	보령	10,199	12,669	14,096	15,107	17,918	15,601	13,685	99,275
62	광주	60,159	67,489	66,286	53,457	44,854	28,360	22,477	343,082
63	동광주	27,293	30,472	32,965	32,455	34,372	25,985	23,298	206,840
64	북광주	37,947	41,392	45,448	44,189	43,206	30,283	25,270	267,735
65	전주완주	54,455	62,937	64,805	58,554	55,929	40,608	33,014	370,302
66	진안	4,943	6,029	7,233	8,113	9,594	8,085	7,825	51,822
67	익산군산	41,004	47,046	49,090	46,171	47,374	35,123	28,898	294,706
68	정읍	16,178	20,757	23,677	24,995	28,654	22,999	22,754	160,014
69	남원순창	5,843	7,932	8,745	8,591	9,824	7,943	7,726	56,604
70	순천	35,689	42,060	50,360	47,814	45,872	32,287	28,345	282,427
71	여수	19,698	22,007	24,337	24,277	24,500	18,547	15,556	148,922
72	나주	11,275	12,290	13,548	14,752	16,411	13,041	12,538	93,855
73	목포	30,218	33,345	33,784	32,768	33,297	24,845	21,917	210,174
74	해남	11,708	13,985	16,341	18,759	21,867	17,352	17,693	117,705
75	제주	35,669	41,247	41,916	37,323	33,148	23,093	17,656	230,052
76	서귀포	11,289	13,610	14,681	14,324	13,796	10,383	8,655	86,738
77	대구	43,473	50,233	56,806	54,206	49,262	33,500	22,187	309,667
78	서대구	45,892	54,251	59,823	57,408	54,478	39,846	29,169	340,867
79	동대구	27,626	27,562	28,019	28,586	30,626	24,572	18,819	185,810
80	대구수성	45,303	57,700	65,027	58,133	55,958	42,778	32,777	357,676
81	대구달성고령	19,523	19,758	20,341	20,161	19,412	13,683	10,134	123,012
82	경산청도	21,600	23,922	25,004	24,654	25,090	19,659	15,614	155,543
83	경주영천	21,493	26,782	30,445	31,101	32,589	26,864	21,538	190,812
84	포항	41,964	47,187	53,148	54,186	57,873	44,419	30,768	329,545
85	안동	14,440	17,249	19,787	21,374	25,098	21,693	17,671	137,312
86	영주봉화	7,509	9,381	11,022	11,876	13,920	11,886	9,348	74,942
87	문경	10,890	13,410	15,660	17,741	21,582	18,834	15,842	113,959
88	구미	49,101	49,782	50,778	44,719	37,891	24,525	16,497	273,293
89	김천성주	11,080	12,315	14,681	15,619	17,275	14,084	11,318	96,372



연번	지사명	35- 3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60- 64세	65- 69세	합계
90	부산	43,497	45,296	47,710	47,757	54,333	43,557	32,768	314,918
91	충부산	16,258	18,810	20,786	21,792	26,808	23,192	19,102	146,748
92	서부산	31,482	33,279	37,608	38,439	43,444	33,743	24,882	242,877
93	북부산	32,116	31,105	34,595	36,128	38,427	27,172	18,213	217,756
94	부산사상	16,647	16,774	20,485	22,507	24,165	17,177	11,929	129,684
95	동래금정	34,889	38,920	43,625	44,290	48,838	38,838	28,583	277,983
96	동부산	46,949	50,558	50,820	46,061	47,047	36,405	26,633	304,473
97	남부산	33,343	35,984	37,493	35,940	41,609	34,737	27,332	246,438
98	남울산	41,888	48,620	55,652	51,579	46,705	31,258	20,104	295,806
99	동울산	51,806	50,242	55,020	54,574	50,868	32,685	20,494	315,689
100	창원	56,110	61,873	68,467	66,107	61,113	39,630	25,835	379,135
101	마산	34,812	37,220	40,994	41,107	45,805	36,188	26,654	262,780
102	김해밀양	49,657	58,393	61,513	53,694	48,798	33,249	23,733	329,037
103	통영	39,353	40,408	38,263	33,733	35,135	24,773	17,904	229,569
104	진주	27,948	33,304	37,149	34,348	36,783	27,728	21,935	219,195
105	사천남해	10,322	11,894	12,395	12,378	13,900	11,445	10,017	82,351
106	거창	6,933	8,946	11,321	11,888	14,112	11,842	10,421	75,463
107	양산	26,374	27,654	28,008	25,107	23,556	16,290	11,570	158,559
합계		4,002,335	4,358,090	4,546,370	4,251,039	4,188,466	3,018,303	2,229,630	26,594,233

주: 1) 국민연금공단 총 107개 지사를 대상으로 분석함.

2) 각 지사별 인구는 주민등록인구(2016.5월말 기준)임.

자료: 1)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2)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2016.5.31.기준).

〈표 3-10〉 국민연금공단 지사 관할구역 내 서비스 대상 규모

35~69세 연령군의 규모	비율(%)	빈도(개소)
10만명 미만	12.1	13
10만명 이상~15만명 미만	13.1	14
15만명 이상~20만명 미만	12.1	13
20만명 이상~25만명 미만	15.0	16
25만명 이상~30만명 미만	12.1	13
30만명 이상~35만명 미만	16.8	18
35만명 이상~40만명 미만	5.6	6
40만명 이상~45만명 미만	7.5	8
45만명 이상	5.6	6
합	100.0	107

자료: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2016.5.31.기준).



〈표 3-11〉 행정구역별 국민연금공단지사 분포에 따른 시·군·구 및 읍·면·동 개수 비교

	특별시	광역시						특별 자치시	도								특별 자치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공단지사 <sup>1)</sup> (A)	19	8	5	4	3	3	2	1	20	5	4	5	5	5	8	8	2	107
시군구(B)	25	16	8	10	5	5	5	—	31	18	12	15	14	22	23	18	2	229 <sup>2)</sup>
읍면동(C)	423	210	139	147	95	78	56	11	550	193	153	207	241	296	331	315	43	3,488
%(A/B)	76.0	50.0	62.5	40.0	60.0	60.0	40.0	—	64.5	27.8	33.3	33.3	35.7	22.7	34.8	44.4	100.0	46.7
개수(B/A)	1.3	2.0	1.6	2.5	1.7	1.7	2.5	—	1.6	3.6	3.0	3.0	2.8	4.4	2.9	2.3	1.0	2.1
개수(C/A)	22.3	30.0	27.8	36.8	31.7	26.0	28.0	—	30.0	38.6	38.3	41.4	48.2	59.2	41.4	39.4	43.0	34.2

주: 1) 전체 107개 지사의 행정구역에 따른 구분임.  
2) 행정시가 아닌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제외하면 227개임.  
자료 :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2016).



## 제 2 부

# 노후준비 실태조사

---

제4장 노후준비 실태조사의 개요

제5장 노후준비 실태조사의 조사결과







## 제 4 장

# 노후준비 실태조사의 개요

---

제1절 조사배경과 조사목적

제2절 조사개요

제3절 표본설계 개요

제4절 조사내용 개요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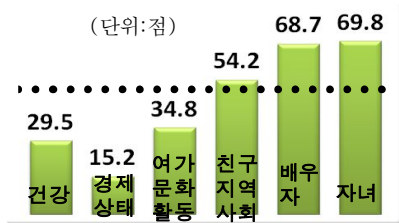
## 노후준비 실태조사의 개요

### 제1절 조사배경과 조사목적

#### 1. 조사배경

□ 노인인구의 증가(2016년 현재 676만명, 전체인구의 13.2%)와 더불어 평균수명의 증대 및 사회·경제·문화적 변화로 노후생활의 기간 확대 및 생활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성인의 노후준비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노후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 역시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음.

[그림 4-1] 65세 노인의 삶의 만족도



자료: 정경희 외(2014). 전국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4-1〉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단위:%)

구분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 않음	매우 불만
건강상태	1.8	27.7	26.2	35.9	8.3
경제상태	0.7	14.5	30.8	43.6	10.3
자녀와의 관계	7.8	62.0	22.3	6.3	1.6

자료: 정경희 외(2014). 전국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향후 예견되는 지속적인 고령화와 길어진 노년기를 생각해볼 때 생애단계별로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도와 지속적인 점검과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 제공의 필요성이 증대됨.



## 2. 조사목적

- 본 조사는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서 우리나라 국민의 전반적인 노후준비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됨.
- 좀 더 구체적으로는, 주요 서비스 대상자인 만 35세 이상 69세 이하 일반 국민의 노후준비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노후준비 점수를 산출하고, 영역별 노후준비수준에 따른 노후준비 유형화를 통해 향후 노후준비 관련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일반 국민의 노후준비 지표 점수를 산출하여 통계적 분포를 파악하고, 타당성 있는 지표를 산출하고자 함.

## 제2절 조사개요

### 1. 조사방법

- 조사대상 : 전국의 만35세 이상 69세 이하 남녀 1,500명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조사표를 이용한 대면면접조사
- 조사기간 : 2016년 8월 9일 ~ 2016년 9월 9일

〈표 4-2〉 노후준비 실태조사 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전국의 만 35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남녀
표본수	1,500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대면면접조사 (PI, Personal Interview)
조사기간	2016년 8월 9일 ~ 2016년 9월 9일
표본추출방법	2016년 7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을 활용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2.5\%$



## 2. 자료처리 및 분석

- 조사가 이루어진 조사표에 대해서는 슈퍼바이저와 전문 리뷰어를 통해 100% 리뷰를 실시함.
  - 응답자의 성별, 연령, 직업 등의 인구학적 특성과 조사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응답자의 소득과 자산 파트에 대한 리뷰를 집중적으로 실시함.
  - 슈퍼바이저는 조사표 로직체크, 실제 조사여부 확인, 무응답 검토 등을 통하여 보완 및 수정작업을 진행함.
- 1차 리뷰 완료 후 독립 전화검증팀에서 면접원별로 완료한 응답자의 30% 전화검증을 실시함.
  - 전화검증에서는 본인 실제 조사 여부 및 주요 항목의 응답내용 일치의 여부를 재확인하고, 조사답례품 수령여부를 확인함.
- 리뷰와 전화검증을 완료한 설문은 에디팅 작업을 진행함.
  - 편치 담당 팀장에 의하여 문항 응답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코딩, 편칭 작업 등이 실시됨.
  - 편칭은 설문지 로직을 프로그래밍화하여 편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를 최소화함.
- 전산입력 후 입력에서 발생하는 오류 수정을 위하여 에러체크 프로그램을 통한 작업이 실시됨.
  - 확정된 조사자료에 대하여 SPSS 등의 통계패키지를 통해 주제별 연구결과 분석이 이루어짐.
    - 승수 적용결과 반올림에 의하여 백분율이 100.0을 약간 넘거나 모자라는 경우에도 ‘계’에서는 100.0으로 제시함.



### 제3절 표본설계 개요

□ 본 조사의 표본 크기는 전국 100개 국가기초구역(지역) 내 만 35세 이상 69세 이하 남녀 1,500명임.

○ 국가기초구역이란 행정경계 및 우편구역, 지형 등을 고려하여 구성된 체계적인 블록(Block)으로, 2015년 인구센서스를 위한 통계구역으로 활용되었으며, 도로명 주소체계를 사용한 전자지도를 제공하여 명확한 조사지점 설정 및 엄정한 표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본 조사의 표본은 전국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17개 특별·광역시의 동부와 읍면부로 층화한 후, 각 시도별로 표본수를 비례배분함.

○ 각 시도별로 배정된 표본수를 층별 인구비례에 따라 분할하였고, 총 29개 층별 표본수에 따라서 실사지점 수를 산출함.

○ 한 개의 지점에서 조사할 수 있는 표본수는 국가기초구역의 가구수를 고려하여 평균 15가구로 하며, 총 100개 국가기초구역에서 1,500명을 조사함.

□ 표본추출 단계

○ 1단계 : 지역층화

- 1단계 : 17개 시도광역시도 단위 층화
- 2단계 : 인구수가 많은 서울은 4개로 층화
- 3단계 : 9개 도지역은 동부와 읍면부로 층화, 일부 읍면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광역시는 단일층으로 구분

〈표 4-3〉 층화 방법

구분	지역	1차 층화	2차 층화	층 수
동·읍·면	서울, 7대 광역시	서울(4개 권역), 광역시(7)	-	11
	도 지역	9개 도 지역	동 지역	9
			읍면 지역	9



## ○ 2단계 : 실사지점 추출 및 응답자 선정

- 1단계 : 각 시도별 배정된 표본수를 층별 인구비례에 따라 표본수 분할
- 2단계 : 29개 층별 표본수에 따른 실사지점 수 산출
- 3단계 : PPS(Probability Proportionate to size Sampling) 방식으로 읍면동 추출
- 4단계 : 선정된 읍면동에서 무작위로 국가기초구역 선정 후, 최종 조사지점 선정
- 5단계 : 해당 조사지점에서 할당표 기준에 따라 응답자 선정 후 조사

## □ 표본배분

○ 본 조사의 표집틀은 2016년 7월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임.

- 모집단의 분포는 아래 〈표 4-4〉와 같으며, 서울의 경우 4개 권역, 부산을 포함한 6개 광역시의 경우, 대도시로 분류, 이외 지역은 동부·읍면부로 나누어 인구분포를 파악함(단, 제주 및 세종특별자치시 제외).

〈표 4-4〉 모집단 분포

행정구역	전수 구분	계	35-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전체		26,439,825	2,028,676	1,950,578	2,186,537	2,111,011	2,296,012	2,231,556	2,137,009	2,055,827
서울특별시	남동	1,097,217	86,291	94,943	87,353	95,518	92,437	96,843	80,884	82,925
	남서	1,546,948	130,929	122,931	127,381	120,808	123,699	122,983	115,036	116,510
	북동	1,630,730	123,982	119,539	130,176	128,393	135,968	138,046	125,227	127,117
	북서	877,107	69,055	69,706	72,753	72,147	72,568	73,077	65,289	66,408
부산광역시	대도시	1,881,589	131,136	125,436	135,574	133,660	144,563	149,054	141,974	148,734
대구광역시	대도시	1,299,387	90,128	90,379	101,541	104,702	112,157	115,618	105,948	108,009
인천광역시	대도시	1,517,447	122,200	115,430	128,067	122,087	131,938	132,013	129,373	126,372
광주광역시	대도시	724,207	57,813	58,259	62,825	63,670	65,017	65,412	56,974	57,003
대전광역시	대도시	761,858	58,748	58,856	64,475	64,802	68,065	68,369	60,126	59,519
울산광역시	대도시	612,189	49,331	44,877	49,340	48,906	55,205	55,571	55,063	50,582
경기도	동부	5,322,671	443,696	440,162	482,129	480,918	492,832	494,142	440,572	423,210
	읍면부	1,099,122	85,770	76,883	95,692	80,975	97,937	82,115	93,998	78,869
강원도	동부	474,958	32,578	33,117	38,567	39,193	42,179	41,239	38,140	37,874
	읍면부	321,715	18,425	15,942	22,527	17,768	25,910	20,839	27,802	24,148
충청북도	동부	470,342	35,409	34,836	39,490	40,481	42,744	43,917	38,391	37,964
	읍면부	329,418	22,488	18,722	24,775	19,464	27,586	22,212	27,894	23,481
충청남도	동부	447,240	41,522	39,176	41,753	41,613	42,054	40,999	36,129	33,654
	읍면부	584,212	41,123	32,949	45,603	35,560	48,788	38,535	47,383	40,548



행정구역	전수 구분	계	35-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전라북도	동부	645,098	47,437	47,177	54,410	55,238	57,127	56,355	50,692	50,231
	읍면부	288,881	16,062	12,138	20,161	14,038	23,524	17,073	24,750	19,763
전라남도	동부	404,521	30,376	29,245	33,324	32,878	37,045	35,541	34,250	32,431
	읍면부	543,163	32,410	26,681	39,522	29,527	46,322	34,291	47,909	38,542
경상북도	동부	730,749	56,723	54,832	59,601	61,026	63,360	63,603	58,736	58,575
	읍면부	661,542	38,047	31,057	45,334	35,492	53,540	43,063	57,137	48,454
경상남도	동부	1,131,567	90,281	85,654	97,564	96,980	102,733	103,103	92,824	90,074
	읍면부	607,346	40,823	36,191	45,934	37,896	50,777	42,260	50,073	43,531
제주특별 자치도	-	317,862	23,962	23,173	28,440	26,220	29,993	26,990	27,010	24,645
세종 특별자치시	-	110,739	11,931	12,287	12,226	11,051	9,944	8,293	7,425	6,654

## 제4절 조사내용 개요

### 1. 설문지 개요

#### □ 설문지 수정보완의 기본방향

- 공단 진단지표에 포함된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기존틀을 유지하되 진단지표 이  
외의 항목에서는 조사의 논리성 등을 고려하여 자구, 보기문항 등 수정
- 진단지표 이외의 항목 중 상담과 무관한 항목(3개)을 삭제하고, 기본계획 수립  
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항목(4개)을 추가
- 2013년도 조사내용과 비교한 조사내용의 변경사항은 <표 4-5> 와 같음.

<표 4-5> 실태조사(2013년 및 2016년 조사)와 국민연금공단 진단지표 비교

영역 명칭 <sup>1)</sup>	노후준비실태조사		국민연금 공단 진단지표	비고
	질문 내용	문항 항목 (‘13) (‘16)		
표지	응답자 개인정보 (이름, 성별, 연령, 전화번호, 주소, 교육수준)	- -	-	-응답의 정확성을 위해 지역구분(구분 선택→코드입력) 기재방식 변경 -신 주소 기입방법 반영
	응답자 가구현황(가구원수, 자녀유무, 자녀관련 정보, 부모 부양여부)	- -	-	
	응답자 취업유무 및 직종, 지위	- -	-	-



영역 명칭 <sup>1)</sup>	노후준비실태조사			국민연금 공단 진단지표	비고
	질문 내용	문항 항목			
		(‘13)	(‘16)		
사회적 관계	응답자 혼인상태	A1	A1	인구특성	-응답의 정확성을 위해 보기명 변경(미혼, 유배우(기혼), 사별(기혼), 이혼(기혼), 별거(기혼)) -유배우(기혼)의 경우 배우자 연령 추가
	배우자와의 대화정도	A2	A2	A1	
	최근1년간 배우자와 동반외출빈도	A3	A3	A2	
	동반자나 이성친구와의 대화정도	A4	A4	-	
	동반자나 이성친구와 접촉 빈도	A5	A5	-	
	자녀와의 대화 정도	A6	A6	A3	
	최근 1년간 본인(배우자) 형제자매 접촉빈도	A7	A7	A4	
	본인(배우자) 형제자매 도움정도	A8	A8	A5	
	최근 1년간 친구를 만나는 빈도	A9	A9	A6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이웃)수	A10	A10	A7	
	친구(이웃) 도움정도	A11	A11	A8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모임의 수	A12	A12	A9	-참여모임의 정기성과 자발성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문구정리
	현재 대인관계의 노후변화	A13	A13	-	-연령별(35-49세) 문항
	노후 대인관계를 위한 노력 정도	A14	A14	-	-연령별(50-69세) 문항
	동년배와 비교한 주관적 대인관계	A15	A15	-	
	현재 대인관계와 노후 대인관계에 대한 인식 및 실천의 중요도	A16	A16	-	
건강한 생활 습관	동년배와 비교한 주관적 건강상태	B1	B1	B1	
	만성질환 여부	B2	B2	B2	
	1일 수면시간 충분성	B3	B3	B9	
	평소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	B4	B4	B3	
	BMI 지수	B5	B5	B11	-정수로 기재하도록 명시
	흡연정도	B6	B6	B4	
	음주정도	B7	B7	B5	
	지난 6개월간 규칙적 운동여부	B8	B8	B6	
	균형잡힌 식품섭취	B9	B9	B7	
	지난 6개월간 체중유지 노력	B10	B10	B8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노력	B11	B11	-	
	정기검진 경험여부	B12	B12	B10	
	동년배와 비교한 노후건강 노력정도	B13	B13	-	
	노후건강을 대비한 건강서비스 이용 의사	B14	B14	-	-연령별(35-49세) 문항
	노후건강취급 대비 준비정도	B15	B15	-	-연령별(50-69세) 문항
	노후 건강상태 변화 양상	B16	삭제	-	-건강기능 쇠퇴 등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응답결과의 정책적 함의 도출 등에 부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현재 건강상태와 노후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및 실천행위의 중요도	B17	B16	-	
여가 활동	지난1년간 취미, 여가활동 참여수	D1	C1*		
	지난1년간 주된 취미, 여가활동	DI-1	CI-1*	-	-풍부한 정보 확보를 위하여 주된 취미 여가활동 1가지→ 3가지로 변경
	취미여가활동 참여기간	D2	C2	D5	



영역 명칭 <sup>1)</sup>	노후준비실태조사			국민연금 공단 진단지표	비고
	질문 내용	문항 항목			
		(‘13)	(‘16)		
	취미여가활동 동반자	D3	C3	—	
	취미여가활동 경제적 지출 여부	D4	C4	—	
	동년배와 비교한 취미여가활동	D5	C5	D4	
	노후 취미여가활동 고려 여부	D6	C6	D1	
	노후를 고려한 취미여가활동 참여여부	D7	C7	D2	
	취미여가활동 변화 예측	D8	C8	D3	
	노후 여가생활에 대한 인식 및 여가 실천행위의 중요도	D9	C9	—	
	취업유무	C1	D1	C1, C2	
	본인(배우자)의 현재 일 예상 은퇴연령	C1-1 C2-1	D1-1 D2-1	C1-1 C2-1	-개방형 질문으로 변경
본인(배우자)의 직종 안정성	C1-2 C2-2	D1-2 D2-2	C1-2 C2-2		
본인(배우자)의 현 직종 소득	C1-3 C2-3	D1-3 D2-3			
본인(배우자)의 제2의 일 준비상태	C1-4 C2-4	D1-4 D2-4	C1-3		
본인(배우자)의 최종 은퇴예상 연령	C1-5 C2-5	D1-5* D2-5*	—	-개방형 질문으로 변경	
본인(배우자)의 구직활동 유무	C1-6 C2-6	D1-6 D2-6	—		
본인(배우자)의 구직활동 노력	C1-7 C2-7	D1-7 D2-7	—	-풍부한 정보 확보를 위하여 각 활동별 노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정	
소득과 자산	본인(배우자) 국민(특수직역)연금 가입여부, 월평균 납부액, 납부기간, 예상수령금액	C3	D3	C3	
	본인(배우자) 국민(특수직역)연금 수급여부 및 수급액	C4	D4	—	
	퇴직(연)금 향후 수령여부 및 수령액	C5	D5	C4	
	퇴직(연)금 수급여부 및 수급액	C6	D6	—	
	개인연금(장기저축) 투자여부 및 투자액	—	—	C5	
	개인연금 향후 수령여부 및 수령액	C7	D7	C7	
	개인연금 수급여부 및 수급액	C8	D8	—	
	금융자산 및 부동산 자산 현황, 노후 활용비율	C9	D9	C8, C9	
	거주주택 점유 형태 및 주택 가격	C10	D10	—	
	부채 유무	C11	D11	—	
	부채 해소에 부담을 느끼는 정도	C12	D12	—	
	자녀교육비 지출 부담정도	C13	D13	—	
	자녀관련 지출 부담정도	C14	D14	—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부담정도	C15	D15	—	
	은퇴예상 생활비	C16	D16	C6	
	노후생활비 마련 주체	C17	삭제	—	-응답결과와 정책적 함의 도출 등에 부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노후준비여건 및 인식 및 노후 재정 안정성을 위한 실천행위의 중요도	C18	D17	—	



영역 명칭 <sup>1)</sup>	노후준비실태조사			국민연금 공단 진단지표	비고
	질문 내용	문항 항목			
		(‘13)	(‘16)		
노 후 준비 및 노후 지원 서비스 에 대한 인식	노후준비 영역별 중요도	E1	E1	—	
	노후준비 정도(100점 만점)	E2	E2	—	
	노후준비 영역별 준비정도	E3	E3*	—	-활용도가 낮고 응답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적 도수준 조정(‘12(5점)→‘13(7점)→‘16(5점)
	노후준비 시작연령	E4	삭제	—	-노후준비상담의 실효성 및 응답결과 의 정책적 함의 도출 등에 부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노후준비서비스 인지도부	—	E4	—	-향후 서비스 제공의 활성화를 위한 문항 신설
	노후준비서비스 이용경험	—	E4-1	—	-향후 서비스 제공의 활성화를 위한 문항 신설
	노후준비서비스 이용 의향	—	E5	—	-향후 서비스 제공의 활성화를 위한 문항 신설
	노후준비서비스 종류별 이용 의향	—	E5-1	—	-향후 서비스 제공의 활성화를 위한 문항 신설

주: 1) \*표는 노후준비실태조사 항목에는 있으나, 국민연금공단 진단지표에서 제외된 항목임.

## 2. 조사내용 개요

□ 확정된 조사표로 우선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1) 사회적 관계 (2) 건강한 생활습관 (3) 여가활동 (4) 소득과 자산의 4대 영역에 대한 노후준비수준을 파악하였음.

○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노후준비수준과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이용경험을 조사하였음(부록 1 참조)

〈표 4-6〉 2016년도 노후준비 실태조사의 조사 내용

대분류	세부 문항
A. 사회적 관계	(1) 혼인상태 (2) 배우자와의 대화 정도 (3) 배우자와의 동반 외출 빈도 (4) 동반자 혹은 이성친구와의 대화 정도 (5) 동반자 혹은 이성친구와의 만남 정도 (6) 자녀들과의 대화 정도 (7) 본인 혹은 배우자의 형제자매와의 접촉 빈도 (8) 본인 혹은 배우자의 형제자매와의 친밀도 (9) 친구를 만나는 빈도 (10)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나 이웃의 수 (11) 친구나 이웃과의 친밀도 (12) 자발적·정기적으로 참석하는 모임의 수 (13) 향후 노후 대인관계 변화에 대한 예상 (14) 노후 대인관계를 위한 노력 정도 (15) 동년배 대비 대인관계 평가 (16) 노후의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를 위한 영역별 중요도



대분류	세부 문항
B. 건강한 생활습관	(1) 동년배 대비 건강상태 평가 (2) 현재 앓고 있는 만성질환의 수 (3) 피로회복을 위한 수면시간 충분도 (4) 평소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5) 현재 키와 몸무게 (6) 현재 흡연 여부 (7) 음주 횟수 (8) 규칙적인 운동 여부 (9) 균형적인 영양 섭취를 위한 노력 여부 (10) 건강 체중 유지 노력 여부 (11)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노력 정도 (12) 정기적인 건강검진 여부 (13) 동년배 대비 노후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정도 평가 (14) 노후건강을 대비하기 위해 건강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 (15) 노후에 간병이나 수발 필요 시를 대비한 준비 정도 (16) 노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영역별 중요도
C. 여가활동	(1) 지난 1년간 한 취미 여가 활동 개수 (2) 현재 취미 여가 활동의 지속기간 (3) 현재 취미 여가 활동의 파트너 (4) 현재 취미 여가 활동의 지출 유무 (5) 동년배 대비 본인의 취미 여가활동 평가 (6) 노후의 여가생활에 대한 고려경험 여부 (7) 노후를 고려한 여가활동 참여 여부 (8) 향후 노후 취미 여가활동에 대한 예상 (9) 노후 여가생활 준비를 위한 영역별 중요도
D. 소득과 자산	(1) 현재 본인의 근로 상황 (2) 배우자의 근로 상황 (3) 본인과 배우자의 국민연금이나 특수직역연금 가입여부, 월평균납부액, 총 예상 납부기간, 향후 예상 수령 금액 (4) 본인과 배우자의 국민연금이나 특수직역연금 수급여부, 수급 금액 (5) 본인과 배우자의 퇴직금연금이나 퇴직금(일시금) 수령가능여부, 향후 예상 수령 금액 (6) 본인과 배우자의 퇴직금연금이나 퇴직금(일시금) 수령경험여부, 수령 금액 (7) 본인과 배우자의 개인연금 수령가능여부, 향후 예상 수령 금액 (8) 본인과 배우자의 개인연금 수령경험, 수령 금액 (9)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 보유 유무 및 총액, 노후활용가능비율 (10) 현재 거주 주택 형태 및 점유 형태 (11) 부채 유무 및 부채 총액 (12) 부채해소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정도 (13) 자녀 교육비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정도 (14) 자녀의 경제적 지원에 부담을 느끼는 정도 (15)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부담을 느끼는 정도 (16) 은퇴 이후 예상 생활비 (17) 노후의 경제상태 준비를 위한 영역별 중요도
E. 노후준비 및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인식	(1) 노후준비를 구성하는 각 영역들의 상대적 중요도 (2) 현재 본인의 전반적인 노후준비 정도 (3) 노후 영역별 준비 정도 (4) 노후준비서비스 인식 및 이용경험 (5) 노후준비서비스 이용의사



### 3. 노후준비 진단지표 개요

□ 본 조사의 목적이 노후준비 점수를 산출하고, 유형화하여 향후 노후준비 관련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사내용을 노후준비 진단지표를 중심으로 하여 정리해볼 필요가 있음.

□ 노후준비 진단지표는 4개 영역과 총 3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4개 영역은 사회적 관계, 건강한 생활습관, 여가활동, 소득과 자산이며, 각 영역별로 최소 5개에서 최대 11개의 지표가 있음.

- 사회적 관계 영역의 지표 9개, 건강한 생활습관 영역의 지표 11개
- 여가활동 영역의 지표 5개, 소득과 자산 영역의 지표 6개

□ 보건복지부(2012a)에서 개발하여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활용하고 있는 노후준비지표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각 영역의 명칭을 일반 국민에게 보다 친숙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수정함.

○ 영역 명칭이 기존 ‘대인관계’에서 ‘사회적 관계’, ‘건강’에서 ‘건강한 생활습관’, ‘여가’에서 ‘여가활동’, ‘재무’에서 ‘소득과 자산’으로 변경됨.

○ 노후준비지표가 노후준비수준을 보다 잘 측정할 수 있도록 5개의 지표를 변경함.

- 여가활동 영역에서 ‘현재 취미·여가생활 수준’을 파악하던 것을 ‘동년배와 비교한 취미·여가활동 정도’로 변경함.
  - 현재 취미·여가생활은 활동 빈도에 따른 절대적인 기준보다 동년배와의 상대적 비교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함.
- 소득과 자산 영역에서 ‘본인(배우자)의 개인연금 및 장기저축금액’을 삭제하고, 기존의 공적연금과 그 외의 자산의 예상 수령액으로 구분된 것을 ‘본인(배우자)의 월평균 예상 노후소득’으로 통합함.
  - 개인연금 및 장기저축금액은 노후소득원천별 예상 수령액과 중복 측정되는 문제가 있음(표 4-7 참조). 또한 주요 서비스 대상이 35세에서 69세인 것을 감안하여 예상 수령액에는 현재 수령액도 포함함.



- ‘본인(배우자)의 노후 필요생활비’는 노후준비수준 계산과정에서 활용이 부적절하여 삭제함.
- 우선 주관적인 노후 필요생활비에 대한 인식을 노후준비 진단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실시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서는 부부가구 적정 생활비(185만원)를 기준으로 조사 응답값이 일치하면 1점, 조사 응답값이 커지거나 작아지면 최대 9점이 되도록 환산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이를 그대로 반영하기에는 그 논리가 명확하지 않음.
- ‘제2의 일을 위한 본인 준비여부’의 선택 문항에서 제2의 일을 위한 본인 준비여부에서 ‘이미 제2의 일을 하고 있다’는 제외함.
- 노후준비의 관점에서는, 현재 기준에서의 일자리 이후의 일에 대한 계획을 고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 이는 이삼식 외(2013)<sup>11)</sup>에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연구진이 수정·보완한 내용과 동일함.

---

11) 이삼식 외(2013). 성별·생애주기별 노후준비지표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4-7〉 노후준비 진단지표 개요

영역 <sup>1)</sup>	지표		비고 <sup>2)</sup>
사회적 관계	1. 배우자와의 대화 충분성 3. 자녀와의 대화 정도 5. 형제·자매의 도움 정도 7.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이웃의 수 9. 정기적·자발적으로 참석하는 모임의 수	2. 배우자와의 동반 외출 빈도 4. 본인(배우자) 형제자매와의 접촉연락 빈도 6. 친구와 만남 빈도 8. 친구·이웃의 도움 정도	
건강한 생활습관	1. 동년배와 비교한 주관적 건강상태 3. 평소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5. 최근 6개월간 음주 정도 7. 균형적인 영양 섭취를 위한 노력 정도 9. 최근 6개월간 건강 체중 유지 노력 정도 11. 정기적 건강검진 정도	2. 현재 앓고 있는 만성질환의 수 4. 현재 흡연 여부 6. 최근 6개월간 규칙적 운동 정도 8. 비만지수(BMI) 10. 1일 수면시간 충분 정도	
여가 활동	1. 노후 취미·여가활동 고려 여부 3. 노후 취미·여가활동 변화 예상 5. 취미·여가활동 지속 기간	2. 노후를 고려한 취미·여가활동 참여 경험 4. 동년배와 비교한 취미·여가활동 정도	· ‘현재’ 취미·여가생활 수준을 ‘동년배 비교’로 변경 <sup>3)</sup>
소득과 자산	1. 본인의 예상 은퇴 연령 3. 본인의 소득 안정성 5. 제2의 일을 위한 본인 준비여부	2. 배우자의 예상 은퇴 연령 4. 배우자의 소득 안정성 6. 본인(배우자)의 월평균 예상 노후소득	· 기존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금융자산, 부동산자산을 통합하여 ‘월평균 예상 노후소득’으로 변경 · 본인(배우자)의 개인연금 및 장기저축금액, 노후 필요생활비는 지표에서 삭제 · 제2의 일을 위한 본인 준비여부에서 ‘이미 제2의 일을 하고 있다’는 선택 문항 제외

주 : 1) 영역 명칭이 기존 ‘대인관계’에서 ‘사회적 관계’, ‘건강’에서 ‘건강한 생활습관’, ‘여가’에서 ‘여가활동’, ‘재무’에서 ‘소득과 자산’으로 변경됨.  
 2)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활용하는 「2012년 노후준비지표 소개 및 해설(보건복지부, 2012a)」와 비교한 것임.  
 3) 기존 ① 별다른 취미·여가 활동이 없다, ②비정기적으로 취미·여가 활동을 하고 있다, ③일 년에 정기적으로 하는 취미·여가 활동이 있다, ④한 달에 정기적으로 취미·여가 활동을 하고 있다, ⑤한 주에 정기적으로 취미·여가 활동을 하고 있다를 변경 문항에 맞춰 ①매우 활발하지 않다, ②별로 활발하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대체로 활발하다, ⑤매우 활발하다로 수정함.







## 제 5 장

# 노후준비 실태조사의 조사결과

제1절 응답자의 특성

제2절 영역별 노후준비 실태

제3절 영역별 노후준비수준 진단

제4절 노후준비정도 및 서비스 이용의향







# 5

## 노후준비 실태조사의 조사결과 <

- 조사내용에는 노후준비 진단지표 외에도 노후준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본 조사가 일반국민의 노후준비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본론에는 노후준비지표와 관련된 조사결과를 노후준비지표 순서대로 제시하고자 함.
  - － 그 외의 조사결과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으며, 설문항목 대비 관련 조사결과는 <부표 3-1>과 같음.
- 개별 지표에 대한 제특성별 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내용만 서술함.

### 제1절 응답자의 특성

- 추출된 표본에 따라 조사된 응답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 5-1 참조).
- 전체 조사완료된 1,539명에 대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은 50.4%(776명), 여성은 49.6%(763명)임.
  - － 응답자의 사회적 관계와 관련하여 유배우자인 경우가 전체의 84.0%(1,292명), 무배우자는 16.0%(247명)로 나타났으며,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가 13.1%(202명), 자녀가 있는 경우 88.8%(1,366명),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98.2%(1,512명), 친구가 있는 경우 93.7%(1,442명) 등으로 나타남.
  - － 연령은 40대가 33.7%(518명), 50대 31.6%(486명), 60대 19.8%(305명), 30대 14.9%(230명)의 순으로 분포함.
  - － 지역별 분포는 중소도시 46.5%(716명), 대도시 45.5%(701명)의 순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나, 농어촌의 경우 7.9%(122명)에 그침.



- 학력은 전체의 48.5%(746명)인 고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전문대졸 이상(전문대졸 및 대졸이상)은 34.3%(527명)로 나타남.
- 이외 중졸 이하의 학력은 전체 17.3%임.
- 취업여부는 전체의 78.8%(1,213명)이 취업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종으로는 판매 및 서비스직이 44.0%(677명), 기능 및 노무직 16.6%(256명), 관리 및 전문·사무직 14.7%(22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종사상지위는 고용주 및 단독자영업자가 전체의 39.8%(613명), 상용근로자 26.8%(412명) 등의 순임.

〈표 5-1〉 응답자의 일반특성 분포

(단위 : %, 명)

구분	계 (명)
전체	100.0 (1,539)
성별	
남성	50.4 ( 776)
여성	49.6 ( 763)
혼인상태	
유배우자	84.0 (1,292)
무배우자	16.0 ( 247)
부모부양여부	
부모부양	13.1 ( 202)
부모부양하지 않음	86.9 (1,337)
자녀유무	
자녀있음	88.8 (1,366)
자녀없음	11.2 ( 173)
형제자녀유무	
형제자매있음	98.2 (1,512)
형제자매없음	1.8 ( 27)
친구유무	
친구있음	93.7 (1,442)
친구없음	6.3 ( 97)
연령	
30대	14.9 ( 230)
40대	33.7 ( 518)
50대	31.6 ( 486)
60대	19.8 ( 305)
지역	
대도시(7개 광역시)	45.5 ( 701)
중소도시(9개 도의 동)	46.5 ( 716)
농어촌(9개 도의 읍/면)	7.9 ( 122)



구분	계(명)
학력	
초졸이하	7.7 ( 118)
중졸	9.6 ( 148)
고졸	48.5 ( 746)
전문대졸	11.4 ( 175)
대졸 이상	22.9 ( 352)
취업여부	
취업	78.8 (1,213)
미취업	21.2 ( 326)
직업	
관리/전문/사무	14.7 ( 226)
판매/서비스	44.0 ( 677)
기능/노무	16.6 ( 256)
농림어업	3.4 ( 52)
기타(군인)	0.1 ( 2)
미취업	21.2 ( 326)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26.8 ( 412)
임시/일용근로자	9.2 ( 142)
고용주/단독자영업자	39.8 ( 613)
무급가족종사자	2.4 ( 37)
기타	0.6 ( 9)
미취업	21.2 ( 326)

## 제2절 영역별 노후준비 실태

### 1. 사회적 관계(대인관계 영역)

□ 사회적 관계 영역에서는 일차적인 비공식 관계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이차적인 비공식 관계인 친구·이웃, 공식적인 관계인 단체활동 등에 대해 파악함.

○ 각 관계의 친밀성과 작동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배우자와의 대화와 동반의 출을 통하여 친밀성을 파악하고, 자녀의 경우는 대화의 충분성, 형제·자매와 친구·이웃의 경우는 접촉빈도와 도구적 지원가능성을 공통적으로 파악하였음.

－ 친구·이웃의 경우는 단순히 알고 지내는 약한 유대와 긴밀한 정서적 유대를 바탕으로 하는 강한 유대가 혼재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모두 파악함.

－ 또한 공식적인 관계의 파악을 위해서 자발적 참여모임 수를 파악하였음.



## 가. 배우자 및 자녀와의 관계

□ 삶에 있어 배우자는 중요한 의미를 지님. 정서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을 가까운 거리에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임. 배우자와의 관계의 질을 대화의 충분성과 배우자와의 동반외출을 통하여 살펴보았음.

□ 전체 응답자중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84.0%이고, 이들을 대상으로 주관적 판단 하에 배우자와의 대화 충분성을 살펴보면, ‘대체로 그런 편이다’(46.0%) 또는 ‘매우 그렇다’(16.9%)라는 긍정적 응답 비율은 62.9%로 전체 3분의 2정도는 배우자와의 대화 수준에 만족하고 있음(표 5-2 참조).

○ 그러나 12.4%(‘전혀(별로) 그렇지 않다’)는 배우자와 대화가 부족하다고 응답함.

○ 배우자와의 대화의 충분성에 대한 만족도(긍정적 응답)를 제특성별로 보면, 지역의 경우 농어촌(77.6%)이 가장 높고 대도시(65.8%), 중소도시(57.4%)의 순임.

－ 교육수준별로는 중졸 이상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더 높는데, 대졸 이상의 만족도(73.7%)와 중졸(49.5%)간의 격차는 24.2%p임.

－ 종사상지위별 배우자와의 대화 충분성은 무급가족종사자/기타(66.7%)가 가장 높고, 임시/일용근로자(53.3%)가 가장 낮음.

□ 배우자와의 동반 외출 빈도를 〈표 5-3〉에서 살펴보면, 매주 1번 정도가 35.1%로 가장 많고, 한 달에 1번 정도 31.8%, 격주에 1번 정도 18.0% 등으로 응답자의 53.1%는 격주에 1회 이상의 동반 외출을 하고, 약 85%는 월 1회 이상의 동반 외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매주 1회 이상 동반외출 하는 비율을 제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적을수록 동반외출이 더 잦고, 지역별로는 중소도시(36.9%)가 가장 높으며, 대도시(34.1%), 농어촌(30.1%) 순임.

－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동반외출이 더 많음.

• 직종별로는 관리/전문/사무직(50.8%)이,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43.1%)가 배우자와 매주 1회 이상 동반외출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표 5-2〉 일반특성별 배우자와의 대화 충분성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명) <sup>1)</sup>
전체	1.2	11.2	24.7	46.0	16.9	100.0(1,292)
성별						
남성	0.8	10.2	24.1	47.9	17.0	100.0( 630)
여성	1.7	12.2	25.2	44.1	16.8	100.0( 662)
혼인상태						
유배우자	1.2	11.2	24.7	46.0	16.9	100.0(1,292)
무배우자 <sup>2)</sup>	—	—	—	—	—	—
연령						
30대	1.2	6.4	17.5	53.2	21.6	100.0( 171)
40대	0.9	10.9	24.2	47.1	16.9	100.0( 450)
50대	1.2	12.5	26.4	44.0	16.0	100.0( 425)
60대	2.0	13.0	27.6	42.3	15.0	100.0( 246)
지역***						
대도시	0.8	10.8	22.6	51.9	13.9	100.0( 592)
중소도시	1.8	12.9	27.8	38.5	18.9	100.0( 597)
농어촌	0.0	3.9	18.4	55.3	22.3	100.0( 103)
학력***						
초졸 이하	2.3	14.9	25.3	40.2	17.2	100.0( 87)
중졸	2.7	17.1	30.6	36.9	12.6	100.0( 111)
고졸	1.6	12.3	26.4	44.3	15.3	100.0( 632)
전문대졸	0.7	5.3	27.3	52.0	14.7	100.0( 150)
대졸 이상	—	8.7	17.6	51.3	22.4	100.0( 312)
취업 여부						
취업	1.0	10.3	25.5	46.1	17.1	100.0(1,017)
미취업	2.2	14.5	21.8	45.5	16.0	100.0( 275)
직업						
관리/전문/사무	—	7.5	24.6	52.3	15.6	100.0( 199)
판매/서비스	1.6	11.0	23.9	46.4	17.2	100.0( 565)
기능/노무	0.5	12.2	28.3	41.5	17.6	100.0( 205)
농림어업/기타	—	6.3	35.4	37.5	20.8	100.0( 48)
미취업	2.2	14.5	21.8	45.5	16.0	100.0( 275)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0.3	10.5	22.9	47.9	18.4	100.0( 332)
임시/일용근로자	—	5.6	41.1	44.9	8.4	100.0( 107)
고용주/단독자영업자	1.7	11.1	24.2	44.8	18.2	100.0( 533)
무급가족종사자/기타	—	11.1	22.2	51.1	15.6	100.0( 45)
미취업	2.2	14.5	21.8	45.5	16.0	100.0( 275)

주: 1)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2) 무배우자는 혼인상태가 미혼, 이혼, 사별인 경우임.

3)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5-3〉 일반특성별 배우자와의 동반 외출 빈도

(단위: %, 명)

구분	6개월에 1번 정도	3개월에 1번 정도	한 달에 1번 정도	격주에 1번 정도	매주 1번 정도	계(명) <sup>1)</sup>
전체	6.4	8.7	31.8	18.0	35.1	100.0(1,292)
성별						
남성	6.7	7.6	30.6	20.2	34.9	100.0( 630)
여성	6.2	9.7	32.9	16.0	35.2	100.0( 662)
혼인상태						
유배우자	6.4	8.7	31.8	18.0	35.1	100.0(1,292)
무배우자	—	—	—	—	—	— —
연령***						
30대	2.3	2.3	21.1	20.5	53.8	100.0( 171)
40대	3.6	6.9	30.2	20.7	38.7	100.0( 450)
50대	6.8	10.6	37.9	16.9	27.8	100.0( 425)
60대	13.8	13.0	31.7	13.4	28.0	100.0( 246)
지역**						
대도시	4.9	10.8	33.6	16.6	34.1	100.0( 592)
중소도시	7.7	6.7	31.5	17.3	36.9	100.0( 597)
농어촌	7.8	7.8	23.3	31.1	30.1	100.0( 103)
학력***						
초졸 이하	18.4	14.9	31.0	19.5	16.1	100.0( 87)
중졸	12.6	9.9	33.3	13.5	30.6	100.0( 111)
고졸	6.3	11.2	35.4	16.3	30.7	100.0( 632)
전문대졸	2.0	5.3	27.3	22.0	43.3	100.0( 150)
대졸 이상	3.2	2.9	26.3	20.8	46.8	100.0( 312)
취업 여부						
취업	5.7	8.8	32.5	18.8	34.1	100.0(1,017)
미취업	9.1	8.0	29.1	15.3	38.5	100.0( 275)
직업***						
관리/전문/사무	4.0	3.0	20.6	21.6	50.8	100.0( 199)
판매/서비스	5.3	10.4	36.6	17.3	30.3	100.0( 565)
기능/노무	7.3	8.8	34.1	18.5	31.2	100.0( 205)
농림어업/기타	10.4	14.6	27.1	25.0	22.9	100.0( 48)
미취업	9.1	8.0	29.1	15.3	38.5	100.0( 275)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5.4	4.8	24.7	22.0	43.1	100.0( 332)
임시/일용근로자	1.9	10.3	39.3	14.0	34.6	100.0( 107)
고용주/단독자영업자	6.9	11.1	36.4	17.4	28.1	100.0( 533)
무급가족종사자/기타	2.2	8.9	28.9	22.2	37.8	100.0( 45)
미취업	9.1	8.0	29.1	15.3	38.5	100.0( 275)

주: 1)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2) \* p &lt;0.05, \*\* p &lt;0.01, \*\*\* p &lt;0.001



□ 전체 응답자중 자녀가 있는 비율은 88.0%이고, 이들을 대상으로 주관적 판단 하에 자녀와의 대화 충분성을 살펴보면, ‘대체로 그런 편이다’(44.7%) 또는 ‘매우 그렇다’(14.8%)라고 응답한 59.5%는 자녀와의 대화 수준에 만족하고 있음(표 5-4 참조).

○ 그러나 12.6%(‘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별로 그렇지 않다’)는 자녀와의 대화가 부족하다고 응답함.

○ 자녀와의 대화 충분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대체로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을 기준으로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성별로는 여성(65.9%)이 남성(52.3%)보다 13.6%p 더 높고,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자(60.6%)의 만족도가 무배우자(49.2%)보다 더 높음.

- 연령군별로는 연령이 적을수록 자녀와의 대화 수준에 만족도가 더 높음.
- 지역별로는 농어촌(68.2%), 대도시(61.1%), 중소도시(56.5%)의 순임.
- 교육수준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은 보이지 않으나, 대졸 이상의 만족도(70.2%)가 가장 높고, 중졸(46.4%)이 가장 낮음.
- 취업자중 직종별로는 관리/전문/사무직(67.5%)이 가장 높고, 기능/노무(48.9%)가 가장 낮음.



〈표 5-4〉 일반특성별 자녀와의 대화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명) <sup>1)</sup>
전체	1.0	11.6	27.9	44.7	14.8	100.0(1,366)
성별***						
남성	1.7	15.0	31.0	41.6	10.7	100.0( 642)
여성	0.3	8.7	25.1	47.5	18.4	100.0( 724)
혼인상태**						
유배우자	0.7	11.0	27.7	45.6	15.0	100.0(1,244)
무배우자	3.3	18.0	29.5	36.1	13.1	100.0( 122)
연령***						
30대	0.6	4.4	21.5	49.4	24.1	100.0( 158)
40대	1.1	7.9	26.7	46.8	17.5	100.0( 457)
50대	0.9	15.7	27.0	45.3	11.1	100.0( 459)
60대	1.0	15.1	34.6	38.0	11.3	100.0( 292)
지역**						
대도시	0.5	11.3	27.2	49.2	11.9	100.0( 622)
중소도시	1.4	12.1	30.0	40.7	15.8	100.0( 634)
농어촌	0.9	10.9	20.0	42.7	25.5	100.0( 110)
학력***						
초졸 이하	0.9	16.0	23.6	47.2	12.3	100.0( 106)
중졸	2.2	15.2	36.2	32.6	13.8	100.0( 138)
고졸	0.9	12.3	31.5	43.8	11.6	100.0( 674)
전문대졸	—	8.7	22.1	47.0	22.1	100.0( 149)
대졸 이상	1.0	8.4	20.4	50.5	19.7	100.0( 299)
취업 여부						
취업	0.8	11.7	28.5	45.2	13.7	100.0(1,066)
미취업	1.3	11.3	25.7	43.0	18.7	100.0( 300)
직업***						
관리/전문/사무	—	6.2	26.3	49.5	18.0	100.0( 194)
판매/서비스	0.3	12.9	26.8	47.1	12.8	100.0( 596)
기능/노무	2.7	13.8	34.7	39.1	9.8	100.0( 225)
농림어업/기타	2.0	9.8	29.4	33.3	25.5	100.0( 51)
미취업	1.3	11.3	25.7	43.0	18.7	100.0( 300)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1.2	8.2	27.1	48.8	14.7	100.0( 340)
임시/일용근로자	1.7	10.8	36.7	40.0	10.8	100.0( 120)
고용주/단독자영업자	0.5	14.1	28.6	43.8	13.0	100.0( 560)
무급가족종사자/기타	—	10.9	17.4	50.0	21.7	100.0( 46)
미취업	1.3	11.3	25.7	43.0	18.7	100.0( 300)

주: 1) 자녀가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2) \* p &lt;0.05, \*\* p &lt;0.01, \*\*\* p &lt;0.001



## 나. 형제·자매와의 관계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98.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의 왕래 및 연락 빈도를 살펴보면, 한달에 한번 정도가 30.8%로 가장 많고, 그 다음 3개월에 1번 정도 22.4%, 매주 1번 정도 21.8%, 6개월에 1번 정도 14.8%, 격주에 1번 정도 10.3% 순으로, 한달에 1번 이상의 연락을 주고받는 비율이 62.9%임(표 5-5참조).
- 제특성별 형제·자매와의 왕래 및 연락 빈도(한달에 1번 이상)에 있어, 성별로는 여자(63.2%)가 남자(62.5%)에 비하여 약간 더 높으나, 주 1회 이상 왕래하는 비율에 있어서는 여자(26.5%)가 9.4%p 더 높음.
- 연령별로는 연령이 적을수록 형제·자매와의 왕래 및 연락이 더 많고, 지역별로는 대도시 지역(65.6%)이 가장 높음.
-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형제·자매와의 왕래 및 연락이 더 빈번함.
  - － 대졸 이상의 경우 23.5%가 매주 1번 정도 접촉·연락을 하는데 비하여 초졸 이하의 경우는 7.1%에 불과함.
- 취업자일 경우 고학력 직종일수록 왕래 및 연락이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관리/전문/사무직(67.4%)이 가장 높고,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64.1%)의 형제·자매와의 왕래 및 연락 빈도가 더 높음.
  - － 사회경제적 여력과 형제·자매와의 왕래 및 연락 빈도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표 5-5〉 일반특성별 최근 1년간 본인(배우자) 형제·자매와의 접촉·연락 빈도

(단위: %, 명)

구분	6개월에 1번 정도	3개월에 1번 정도	한 달에 1번 정도	격주에 1번 정도	매주 1번 정도	계(명) <sup>1)</sup>
전체	14.8	22.4	30.8	10.3	21.8	100.0(1,512)
성별***						
남성	14.5	23.0	35.8	9.6	17.1	100.0( 760)
여성	15.2	21.7	25.8	10.9	26.5	100.0( 752)
혼인상태**						
유배우자	14.4	22.6	30.9	11.2	20.8	100.0(1,283)
무배우자	17.0	21.0	30.1	4.8	27.1	100.0( 229)
연령***						
30대	7.1	16.0	33.3	8.9	34.7	100.0( 225)
40대	11.7	24.5	30.4	10.1	23.3	100.0( 514)
50대	18.9	20.5	31.4	11.7	17.4	100.0( 477)
60대	19.6	26.4	28.7	9.1	16.2	100.0( 296)
지역**						
대도시	13.4	21.0	29.3	12.6	23.7	100.0( 689)
중소도시	16.4	22.1	31.2	8.7	21.7	100.0( 702)
농어촌	14.0	31.4	37.2	5.8	11.6	100.0( 121)
학력***						
초졸 이하	25.7	28.3	28.3	10.6	7.1	100.0( 113)
중졸	17.8	26.7	28.1	9.6	17.8	100.0( 146)
고졸	16.2	20.7	29.9	10.5	22.7	100.0( 730)
전문대졸	10.3	21.3	31.6	9.8	27.0	100.0( 174)
대졸 이상	9.5	22.6	34.4	10.0	23.5	100.0( 349)
취업 여부						
취업	14.4	22.9	32.1	10.1	20.5	100.0(1,192)
미취업	16.3	20.3	25.9	10.9	26.6	100.0( 320)
직업**						
관리/전문/사무	9.4	23.2	35.3	9.8	22.3	100.0( 224)
판매/서비스	12.9	23.5	31.6	10.5	21.6	100.0( 668)
기능/노무	22.0	20.3	28.9	10.6	18.3	100.0( 246)
농림어업/기타	20.4	25.9	40.7	3.7	9.3	100.0( 54)
미취업	16.3	20.3	25.9	10.9	26.6	100.0( 320)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12.6	23.3	30.7	7.9	25.5	100.0( 404)
임시/일용근로자	21.6	20.9	27.3	12.9	17.3	100.0( 139)
고용주/단독자영업자	14.2	22.5	34.5	10.4	18.3	100.0( 605)
무급가족종사자/기타	11.4	31.8	27.3	15.9	13.6	100.0( 44)
미취업	16.3	20.3	25.9	10.9	26.6	100.0( 320)

주: 1) 형제·자매가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2) \* p &lt;0.05, \*\* p &lt;0.01, \*\*\* p &lt;0.001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의 친밀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갑자기 도움을 요청했을 때 기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파악함.

○ 형제·자매와의 친밀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그런 편이다’(45.4%) 또는 ‘매우 그렇다’(10.7%)라는 긍정적 응답 비율은 56.1%로 절반 이상은 비상시 형제·자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응답함(표 5-6 참조).

－ 그러나 16.1%(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별로 그렇지 않다)는 비상시 형제·자매에게 도움 요청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형제·자매와의 친밀도(긍정적 응답)를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자(56.7%)가, 연령군별로는 연령이 적을수록 친밀도가 더 높음.

－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형제·자매와의 친밀도가 더 높음.

－ 취업자중 직종별로는 관리/전문/사무직(63.0%)이, 종사상지위별로는 무급가족종사자/기타(70.5%)의 경우 형제·자매와의 친밀도가 가장 높음.



〈표 5-6〉 일반특성별 본인(배우자) 형제·자매의 도움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명) <sup>1)</sup>
전체	2.3	13.8	27.8	45.4	10.7	100.0(1,512)
성별						
남성	2.8	13.4	27.6	46.7	9.5	100.0( 760)
여성	1.9	14.1	28.1	44.0	12.0	100.0( 752)
혼인상태*						
유배우자	1.9	12.9	28.4	46.3	10.4	100.0(1,283)
무배우자	4.4	18.3	24.5	40.2	12.7	100.0( 229)
연령***						
30대	0.4	6.7	21.8	53.8	17.3	100.0( 225)
40대	1.9	11.9	28.6	45.5	12.1	100.0( 514)
50대	2.1	15.3	30.2	43.2	9.2	100.0( 477)
60대	4.7	19.9	27.4	42.2	5.7	100.0( 296)
지역						
대도시	1.6	12.3	28.0	48.2	9.9	100.0( 689)
중소도시	3.1	15.8	26.8	42.6	11.7	100.0( 702)
농어촌	1.7	9.9	33.1	45.5	9.9	100.0( 121)
학력***						
초졸 이하	3.5	25.7	29.2	36.3	5.3	100.0( 113)
중졸	4.1	27.4	24.7	36.3	7.5	100.0( 146)
고졸	2.5	13.2	30.1	44.4	9.9	100.0( 730)
전문대졸	0.6	8.0	28.2	51.7	11.5	100.0( 174)
대졸 이상	1.7	8.3	23.8	51.0	15.2	100.0( 349)
취업 여부						
취업	2.2	12.5	28.8	46.1	10.5	100.0(1,192)
미취업	2.8	18.4	24.4	42.8	11.6	100.0( 320)
직업*						
관리/전문/사무	2.2	7.1	27.7	47.8	15.2	100.0( 224)
판매/서비스	1.8	12.9	28.6	47.2	9.6	100.0( 668)
기능/노무	3.3	16.7	30.9	40.2	8.9	100.0( 246)
농림어업/기타	1.9	11.1	25.9	51.9	9.3	100.0( 54)
미취업	2.8	18.4	24.4	42.8	11.6	100.0( 320)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2.0	8.2	28.5	48.3	13.1	100.0( 404)
임시/일용근로자	1.4	22.3	30.9	34.5	10.8	100.0( 139)
고용주/단독자영업자	2.5	13.2	29.4	47.3	7.6	100.0( 605)
무급가족종사자/기타	2.3	11.4	15.9	45.5	25.0	100.0( 44)
미취업	2.8	18.4	24.4	42.8	11.6	100.0( 320)

주: 1) 형제·자매가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2) \* p &lt; 0.05, \*\* p &lt; 0.01, \*\*\* p &lt; 0.001



#### 다. 친구·이웃과의 관계

□ 최근 1년 동안 친구와의 접촉빈도를 살펴보면, 한달에 한번 정도가 31.6%로 가장 많고, 그 다음 매주 1번 정도 30.2%, 격주에 1번 정도 18.1%, 3개월에 1번 정도 13.0%, 6개월에 1번 정도 7.0% 순으로 한달에 1번 이상의 연락을 주고받는 비율이 79.9%임(표 5-7 참조).

○ 제특성별 친구와의 접촉빈도(한달에 1번 이상)를 비교하면, 성별로는 남성(82.4%)이 여자(77.3%)에 비하여 접촉빈도가 조금 더 높고, 혼인상태별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매주 1번 접촉한다는 비율은 무배우자(38.1%)가 9.4%p 더 높음.

－ 지역별로는 농어촌지역(82.8%)이 도시지역보다 친구와의 접촉빈도가 더 높고,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유무에 있어 취업자(80.6%)의 경우 접촉빈도가 더 높음.

• 취업자 중에서 직종별로는 관리/전문/사무직(87.9%)이,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84.9%)일 경우 친구와의 접촉빈도가 가장 높음.

□ 응답자의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를 마음을 털어놓고 가깝게 지내는 친구·이웃 수의 분포를 통해 살펴보면, 2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0.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3명(24.4%), 5명(12.3%), 1명(11.9%), 6명 이상(8.2%), 4명(6.8%) 순이며, 친구·이웃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6.3%임(표 5-8 참조).

○ 제특성별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를 친구·이웃의 수가 4명 이상인 비율로 비교해보면,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자(28.2%)가 무배우자(22.3%)보다 더 높음.

－ 연령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은 없으나, 40대 이상에서는 연령이 많을수록 친구·이웃의 수가 4명 이상인 비율이 더 높고, 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32.8%)이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정서적 교류가 더 이루어지고 있음.

－ 교육수준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은 없으나, 중졸(34.5%)이 가장 높고, 취업여부에서는 취업자(27.9%)가 더 높음.



〈표 5-7〉 일반특성별 최근 1년간 친구와 만남 빈도

(단위: %, 명)

구분	6개월에 1번 정도	3개월에 1번 정도	한 달에 1번 정도	격주에 1번 정도	매주 1번 정도	계(명) <sup>1)</sup>
전체	7.1	13.0	31.6	18.1	30.2	100.0(1,505)
성별*						
남성	5.6	11.9	31.4	17.3	33.7	100.0( 762)
여성	8.6	14.1	31.8	19.0	26.5	100.0( 743)
혼인상태*						
유배우자	7.2	12.8	33.2	18.1	28.7	100.0(1,269)
무배우자	6.8	14.0	22.9	18.2	38.1	100.0( 236)
연령						
30대	6.2	11.5	32.2	22.0	28.2	100.0( 227)
40대	6.9	15.3	31.8	18.2	27.8	100.0( 510)
50대	7.0	12.7	31.9	16.5	31.9	100.0( 473)
60대	8.5	10.8	30.2	17.6	32.9	100.0( 295)
지역**						
대도시	7.3	13.2	33.1	19.2	27.2	100.0( 683)
중소도시	7.1	13.2	32.3	17.7	29.7	100.0( 706)
농어촌	6.0	11.2	18.1	14.7	50.0	100.0( 116)
학력*						
초졸 이하	10.8	10.8	27.9	17.1	33.3	100.0( 111)
중졸	10.3	13.1	24.8	13.1	38.6	100.0( 145)
고졸	8.1	13.4	31.6	18.9	28.0	100.0( 725)
전문대졸	6.9	13.2	33.9	18.4	27.6	100.0( 174)
대졸 이상	2.6	12.9	34.3	18.9	31.4	100.0( 350)
취업 여부**						
취업	6.3	13.1	31.9	19.5	29.2	100.0(1,192)
미취업	10.2	12.8	30.4	12.8	33.9	100.0( 313)
직업*						
관리/전문/사무	4.0	8.0	41.3	17.3	29.3	100.0( 225)
판매/서비스	7.0	14.7	29.8	19.9	28.5	100.0( 667)
기능/노무	6.1	12.6	30.0	21.1	30.4	100.0( 247)
농림어업/기타	7.5	17.0	26.4	17.0	32.1	100.0( 53)
미취업	10.2	12.8	30.4	12.8	33.9	100.0( 313)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4.2	11.0	33.6	19.9	31.4	100.0( 408)
임시/일용근로자	9.6	15.6	31.1	20.7	23.0	100.0( 135)
고용주/단독자영업자	7.1	13.4	31.7	18.3	29.4	100.0( 605)
무급가족종사자/기타	4.5	20.5	20.5	29.5	25.0	100.0( 44)
미취업	10.2	12.8	30.4	12.8	33.9	100.0( 313)

주: 1) 친구가 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2) \* p &lt;0.05, \*\* p &lt;0.01, \*\*\* p &lt;0.001



〈표 5-8〉 일반특성별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이웃의 수

(단위: %, 명)

구분	0(없음)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계(명)	평균
전체	6.3	11.9	30.1	24.4	6.8	12.3	8.2	100.0(1,539)	3.19
성별									
남성	6.6	11.0	29.0	24.0	6.3	13.0	10.2	100.0( 776)	3.39
여성	6.0	12.8	31.3	24.9	7.2	11.5	6.2	100.0( 763)	2.99
혼인상태***									
유배우자	5.3	11.3	29.3	25.9	7.2	12.7	8.3	100.0(1,292)	3.30
무배우자	11.7	15.0	34.4	16.6	4.5	10.1	7.7	100.0( 247)	2.63
연령***									
30대	5.2	8.7	30.0	29.1	9.1	14.8	3.0	100.0( 230)	2.91
40대	4.6	13.7	32.2	23.9	7.9	11.8	5.8	100.0( 518)	3.04
50대	6.6	10.5	29.4	25.9	5.6	11.1	10.9	100.0( 486)	3.27
60대	9.5	13.4	27.9	19.3	4.9	13.1	11.8	100.0( 305)	3.55
지역**									
대도시	6.8	11.0	31.0	23.7	6.6	12.4	8.6	100.0( 701)	3.17
중소도시	5.4	11.3	30.9	26.4	7.5	11.5	7.0	100.0( 716)	3.20
농어촌	8.2	20.5	21.3	17.2	3.3	16.4	13.1	100.0( 122)	3.33
학력***									
초졸 이하	15.3	18.6	28.8	17.8	3.4	9.3	6.8	100.0( 118)	2.60
중졸	10.1	14.9	20.9	19.6	6.1	17.6	10.8	100.0( 148)	3.46
고졸	5.9	12.1	33.2	21.8	7.0	11.9	8.0	100.0( 746)	3.27
전문대졸	5.1	13.7	28.6	28.0	9.7	10.3	4.6	100.0( 175)	2.82
대졸 이상	3.1	7.1	28.7	32.4	6.3	12.8	9.7	100.0( 352)	3.30
취업 여부*									
취업	5.2	12.3	30.5	24.2	6.8	12.8	8.3	100.0(1,213)	3.17
미취업	10.4	10.4	28.8	25.5	6.7	10.4	7.7	100.0( 326)	3.27
직업									
관리/전문/사무	4.0	11.9	27.0	28.8	6.6	12.4	9.3	100.0( 226)	3.19
판매/서비스	4.7	11.8	30.4	24.4	7.4	13.4	7.8	100.0( 677)	3.23
기능/노무	7.0	13.7	34.4	19.9	5.9	10.5	8.6	100.0( 256)	2.95
농림어업	7.4	13.0	27.8	22.2	3.7	16.7	9.3	100.0( 54)	3.50
미취업	10.4	10.4	28.8	25.5	6.7	10.4	7.7	100.0( 326)	3.27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5.1	11.2	31.3	26.9	6.3	11.9	7.3	100.0( 412)	3.00
임시/일용근로자	6.3	14.8	36.6	16.9	7.0	12.0	6.3	100.0( 142)	3.02
고용주/단독자영업자	4.9	11.9	29.5	24.1	6.9	13.2	9.5	100.0( 613)	3.31
무급가족종사자	6.5	19.6	17.4	21.7	8.7	17.4	8.7	100.0( 46)	3.41
미취업	10.4	10.4	28.8	25.5	6.7	10.4	7.7	100.0( 326)	3.27

주: \* p &lt;0.05, \*\* p &lt;0.01, \*\*\* p &lt;0.001



□ 친구 및 이웃과의 친밀도 파악을 위하여 갑자기 도움을 요청하면 친구나 이웃이 기꺼이 도와주는지를 파악하였음.

○ ‘대체로 그런 편이다’(54.2%) 또는 ‘매우 그렇다’(8.3%)라는 긍정적 응답 비율은 62.5%로 전체의 3분의 2는 비상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구 및 이웃이 있다고 응답함(표 5-9 참조).

○ 친구 및 이웃과의 친밀도(긍정적 응답)를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자(63.1%)의 친밀도가 더 높음.

－ 연령별로는 연령이 적을수록 친구 및 이웃과의 친밀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농어촌(74.8%)이 가장 높으며 대도시(62.6%), 중소도시(60.4%)의 순임.

－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친구 및 이웃과의 친밀도가 더 높고, 취업자가 미취업자보다 친밀도가 더 높음.

• 취업자중 직종별로는 농림어업(75.9%)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관리/전문/사무직(72.4%)이 친구 및 이웃과의 친밀도가 높음.



〈표 5-9〉 일반특성별 친구·이웃의 도움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sup>1)</sup>
전체	1.6	7.6	28.3	54.2	8.3	100.0 (1,521)
성별						
남성	1.7	8.2	28.1	52.7	9.3	100.0 ( 765)
여성	1.5	7.0	28.4	55.7	7.4	100.0 ( 756)
혼인상태***						
유배우자	0.9	7.3	28.8	54.9	8.2	100.0 (1,281)
무배우자	5.4	9.6	25.4	50.4	9.2	100.0 ( 240)
연령*						
30대	1.8	5.7	20.6	61.0	11.0	100.0 ( 228)
40대	1.2	7.0	28.7	56.1	7.0	100.0 ( 513)
50대	1.7	7.1	28.5	54.5	8.3	100.0 ( 481)
60대	2.0	11.0	33.1	45.2	8.7	100.0 ( 299)
지역***						
대도시	1.4	6.7	29.3	55.9	6.7	100.0 ( 690)
중소도시	1.8	9.0	28.8	52.5	7.9	100.0 ( 712)
농어촌	0.8	5.0	19.3	53.8	21.0	100.0 ( 119)
학력*						
초졸 이하	0.9	12.0	29.9	49.6	7.7	100.0 ( 117)
중졸	2.1	11.0	34.2	41.8	11.0	100.0 ( 146)
고졸	2.0	7.6	29.2	54.0	7.1	100.0 ( 733)
전문대졸	0.6	5.2	29.3	55.7	9.2	100.0 ( 174)
대졸 이상	1.1	6.0	22.8	60.4	9.7	100.0 ( 351)
취업 여부*						
취업	1.2	7.4	27.1	55.2	9.0	100.0 (1,202)
미취업	2.8	8.5	32.6	50.2	6.0	100.0 ( 319)
직업***						
관리/전문/사무	1.3	5.8	20.4	60.4	12.0	100.0 ( 225)
판매/서비스	0.9	7.0	29.2	55.8	7.1	100.0 ( 672)
기능/노무	2.4	10.4	29.5	50.2	7.6	100.0 ( 251)
농림어업/기타	0.0	5.6	18.5	50.0	25.9	100.0 ( 54)
미취업	2.8	8.5	32.6	50.2	6.0	100.0 ( 319)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1.5	7.3	24.6	57.3	9.3	100.0 ( 410)
임시/일용근로자	1.5	10.2	22.6	56.9	8.8	100.0 ( 137)
고용주/단독자영업자	1.1	6.9	30.2	53.3	8.5	100.0 ( 610)
무급가족종사자/기타	—	6.7	22.2	57.8	13.3	100.0 ( 45)
미취업	2.8	8.5	32.6	50.2	6.0	100.0 ( 319)

주: 1) 알고지내는 친구·이웃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2) \* p &lt; 0.05, \*\* p &lt; 0.01, \*\*\* p &lt; 0.001



## 라. 단체 활동

- 공식적 관계망을 파악하기 위해서 최근 1년동안 1회 이상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모임(단체, 동호회, 종교 모임 등)의 수가 몇 개인지를 파악하였음.
-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모임 수로 2개가 28.1%로 가장 많고, 그 다음 3개(19.9%), 1개(19.8%), 4개 이상(17.3%) 순임(표 5-10 참조).
  - 85.1%는 자발적 모임이 있고, 14.9%는 모임이 없다고 응답함.
- 제특성별 공식적 관계망의 크기를 자발적 모임 3개 이상인 비율로 비교하면,
  - 성별로는 남자(41.1%)가 여자(33.1%)보다 더 높고, 혼인상태별로 유배우자(39.7%)가 무배우자(23.9%)보다 더 높음.
  - 연령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은 없으나, 50대(42.2%)의 공식적 관계망이 가장 넓고, 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45.1%)이 도시지역보다 더 높음.
  - 교육수준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은 없으나, 대졸 이상(47.4%)의 공식적 교류가 가장 높고, 초졸 이하(28.9%)가 가장 낮음.
  -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자(38.1%)가 공식적 교류 비율이 더 높음.
    - 취업자중 직종별로는 관리/전문/사무직(54.0%)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농림어업(51.9%)이며, 종사상지위별로는 고용주/단독자영자(39.8%)의 공식적 교류 비율이 가장 높음.



〈표 5-10〉 일반특성별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모임의 수

(단위: %, 명, 개)

구분	없음	1개	2개	3개	4개 이상	계(명)	평균
전체	14.9	19.8	28.1	19.9	17.3	100.0(1,539)	2.31
성별**							
남성	12.8	19.7	26.4	21.4	19.7	100.0( 776)	2.51
여성	17.0	19.9	29.9	18.3	14.8	100.0( 763)	2.12
혼인상태***							
유배우자	13.3	18.8	28.2	20.7	19.0	100.0(1,292)	2.41
무배우자	23.1	25.1	27.9	15.8	8.1	100.0( 247)	1.80
연령**							
30대	17.8	20.0	27.0	24.8	10.4	100.0( 230)	2.03
40대	16.4	17.4	31.9	18.9	15.4	100.0( 518)	2.17
50대	10.7	21.2	25.9	19.8	22.4	100.0( 486)	2.63
60대	16.7	21.6	26.2	18.0	17.4	100.0( 305)	2.28
지역**							
대도시	12.3	21.0	30.1	19.4	17.3	100.0( 701)	2.31
중소도시	16.8	19.1	27.8	20.8	15.5	100.0( 716)	2.25
농어촌	18.9	17.2	18.9	17.2	27.9	100.0( 122)	2.71
학력***							
초졸 이하	29.7	22.9	18.6	13.6	15.3	100.0( 118)	1.80
중졸	16.9	22.3	28.4	18.2	14.2	100.0( 148)	2.11
고졸	14.9	20.2	29.0	18.1	17.8	100.0( 746)	2.28
전문대졸	17.1	24.6	26.9	20.6	10.9	100.0( 175)	1.93
대졸 이상	8.0	14.5	30.1	26.1	21.3	100.0( 352)	2.84
취업 여부*							
취업	13.5	19.5	28.9	19.6	18.5	100.0(1,213)	2.40
미취업	19.9	20.9	25.5	20.9	12.9	100.0( 326)	2.00
직업***							
관리/전문/사무	8.4	14.6	23.0	27.0	27.0	100.0( 226)	2.86
판매/서비스	13.9	19.5	32.3	18.0	16.2	100.0( 677)	2.35
기능/노무	16.8	25.4	26.6	16.4	14.8	100.0( 256)	2.08
농림어업	14.8	13.0	20.4	24.1	27.8	100.0( 54)	2.59
미취업	19.9	20.9	25.5	20.9	12.9	100.0( 326)	2.00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11.4	19.4	30.1	20.9	18.2	100.0( 412)	2.45
임시/일용근로자	21.8	21.8	28.2	14.8	13.4	100.0( 142)	2.01
고용주/단독자영업자	12.6	18.9	28.7	20.1	19.7	100.0( 613)	2.47
무급가족종사자	19.6	21.7	21.7	17.4	19.6	100.0( 46)	2.20
미취업	19.9	20.9	25.5	20.9	12.9	100.0( 326)	2.00

주: \* p &lt;0.05, \*\* p &lt;0.01, \*\*\* p &lt;0.001



## 2. 건강한 생활습관(건강 영역)

- 건강한 생활습관 영역에서는 전반적인 개인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스스로 인식한 건강상태, 만성질환 유무 및 만성질환 수를, 정신적 건강상태를 간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를 분석함.
- 그리고 건강생활 실천행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생활습관인 흡연 및 음주 실태, 신체활동(운동실천) 정도, 식생활습관과 건강유지를 위한 체중관리 정도, 피로 회복을 위한 수면의 충분성, 예방적 건강관리 상태를 분석함.

### 가. 건강상태

- 주관적 건강 상태
  - 응답자가 인식하고 있는 자신의 평소 건강상태 분포를 보면, ‘매우 건강한 편’ 12.1%, ‘대체로 건강한 편’ 53.3%, ‘보통’ 25.1%, ‘조금 나쁜 편’ 8.6%, ‘대단히 나쁜 편’ 0.9%임(표 5-11 참조).
  - 자신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65.4%이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9.5%로 긍정적 인식이 더 높음.
  -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긍정적 응답률을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자(67.2%)가 무배우자(55.9%)보다 더 높음.
    - 연령별로는 연령이 적을수록 본인의 건강상태를 더 건강한 것으로 인식함.
    - 교육수준별로는 대체적으로 고학력일수록, 취업여부에 있어서는 취업자인 경우(68.0%)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임.
      - 취업자 중 직종별로는 관리/전문/사무직(70.3%)이 가장 높고,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72.3%)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가장 긍정적임.



〈표 5-11〉 일반특성별 동년배와 비교한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 명)

구분	대단히 나쁜 편이다	조금 나쁜 편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한 편이다	계(명)
전체	0.9	8.6	25.1	53.3	12.1	100.0(1,539)
성별						
남성	1.2	6.8	24.1	55.0	12.9	100.0( 776)
여성	0.7	10.4	26.2	51.5	11.3	100.0( 763)
혼인상태***						
유배우자	0.5	7.3	25.1	55.2	12.0	100.0(1,292)
무배우자	3.2	15.4	25.5	43.3	12.6	100.0( 247)
연령***						
30대	0.4	4.8	21.7	53.0	20.0	100.0( 230)
40대	1.4	6.2	22.4	55.8	14.3	100.0( 518)
50대	0.2	7.2	27.2	56.2	9.3	100.0( 486)
60대	1.6	17.7	29.2	44.6	6.9	100.0( 305)
지역						
대도시	1.3	8.8	23.4	55.1	11.4	100.0( 701)
중소도시	0.6	8.0	25.8	53.2	12.4	100.0( 716)
농어촌	0.8	10.7	31.1	43.4	13.9	100.0( 122)
학력***						
초졸 이하	2.5	25.4	33.1	36.4	2.5	100.0( 118)
중졸	0.7	12.8	33.1	43.9	9.5	100.0( 148)
고졸	1.1	8.3	24.5	53.5	12.6	100.0( 746)
전문대졸	0.6	4.0	23.4	60.6	11.4	100.0( 175)
대졸 이상	0.3	4.0	21.3	58.8	15.6	100.0( 352)
취업 여부***						
취업	0.7	6.3	25.0	55.1	12.9	100.0(1,213)
미취업	1.5	17.2	25.8	46.6	8.9	100.0( 326)
직업***						
관리/전문/사무	—	2.7	27.0	55.3	15.0	100.0( 226)
판매/서비스	0.9	6.5	23.9	55.7	13.0	100.0( 677)
기능/노무	1.2	6.3	23.8	57.0	11.7	100.0( 256)
농림어업/기타	—	18.5	35.2	37.0	9.3	100.0( 54)
미취업	1.5	17.2	25.8	46.6	8.9	100.0( 326)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0.5	3.6	23.5	56.3	16.0	100.0( 412)
임시/일용근로자	—	7.7	31.0	52.1	9.2	100.0( 142)
고용주/단독자영업자	1.1	6.9	23.8	56.3	11.9	100.0( 613)
무급가족종사자/기타	—	17.4	34.8	37.0	10.9	100.0( 46)
미취업	1.5	17.2	25.8	46.6	8.9	100.0( 326)

주: \* p &lt; 0.05, \*\* p &lt; 0.01, \*\*\* p &lt; 0.001



## □ 만성질환 수

○ 3개월 이상 앓고 있으면서 의사에게 진단받은 만성질환수를 살펴보면, 만성질환이 1개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7.0%, 2개 5.5%, 3개 이상 2.0% 등으로 전체 응답자의 24.5%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만성질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75.6%임(표 5-12 참조).

- 의사진단을 받은 만성질환 유병률을 제특성별로 비교하면,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의 유병률(30.8%)이 유배우자(23.2%)보다 더 높음.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만성질환 유병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30대 5.2%, 40대 13.5%, 50대 27.2%, 60대 53.1%임.
- 지역별로는 농어촌(39.4%), 중소도시(25.5%), 대도시(20.7%) 순임.
- 교육수준별로는 저학력일수록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초졸 이하의 경우 60.9%로 가장 높고, 전문대졸이 9.1%로 가장 낮음.
  - 이는 고연령층일수록 저학력의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됨.
- 취업상태별로는 미취업자 유병률(34.9%)이 취업자(21.6%)보다 더 높음.
  - 취업자중 직종별로는 농림어업/기타(48.1%)가, 종사상지위별로는 무급가족종사자/기타(34.7%)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가장 높음.



〈표 5-12〉 일반특성별 현재 앓고 있는 만성질환의 수

구분	(단위: %, 명)				
	3개 이상	2개	1개	없다	계(명)
전체	2.0	5.5	17.0	75.6	100.0(1,539)
성별					
남성	1.5	5.4	16.9	76.2	100.0( 776)
여성	2.5	5.5	17.0	75.0	100.0( 763)
혼인상태***					
유배우자	1.4	5.1	16.7	76.8	100.0(1,292)
무배우자	5.3	7.3	18.2	69.2	100.0( 247)
연령***					
30대	0.4	—	4.8	94.8	100.0( 230)
40대	0.6	2.3	10.6	86.5	100.0( 518)
50대	2.7	6.4	18.1	72.8	100.0( 486)
60대	4.6	13.4	35.1	46.9	100.0( 305)
지역**					
대도시	1.9	5.0	13.8	79.3	100.0( 701)
중소도시	1.8	5.7	18.0	74.4	100.0( 716)
농어촌	4.1	6.6	28.7	60.7	100.0( 122)
학력***					
초졸 이하	7.6	16.9	36.4	39.0	100.0( 118)
중졸	4.7	12.8	29.7	52.7	100.0( 148)
고졸	2.0	4.2	16.4	77.5	100.0( 746)
전문대졸	—	—	9.1	90.9	100.0( 175)
대졸 이상	—	4.0	10.2	85.8	100.0( 352)
취업 여부***					
취업	1.3	5.2	15.1	78.4	100.0(1,213)
미취업	4.6	6.4	23.9	65.0	100.0( 326)
직업***					
관리/전문/사무	—	4.4	7.5	88.1	100.0( 226)
판매/서비스	1.8	4.7	15.4	78.1	100.0( 677)
기능/노무	0.8	6.6	16.4	76.2	100.0( 256)
농림어업/기타	3.7	7.4	37.0	51.9	100.0( 54)
미취업	4.6	6.4	23.9	65.0	100.0( 326)
중사상지위***					
상용근로자	0.5	4.1	10.2	85.2	100.0( 412)
임시/일용근로자	—	9.2	21.8	69.0	100.0( 142)
고용주/단독자영업자	2.0	5.1	16.0	77.0	100.0( 613)
무급가족종사자/기타	4.3	4.3	26.1	65.2	100.0( 46)
미취업	4.6	6.4	23.9	65.0	100.0( 326)

주: 1) \* p &lt;0.05, \*\* p &lt;0.01, \*\*\* p &lt;0.001



□ 평소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응답자가 평소에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를 보면, ‘대단히 많이 느낀다’ 8.1%, ‘조금 느낀다’ 51.0%, ‘보통이다’ 20.1%, ‘별로 느끼지 않는다’ 18.8%, ‘전혀 느끼지 않는다’ 1.9%임(표 5-13 참조).
-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59.1%이고,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다는 긍정적 평가는 20.7%로 부정적 응답이 약 3배 더 높음.
- 스트레스 정도에 대한 부정적 응답률을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연령별로는 연령이 적을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고, 지역별로는 대도시(61.8%), 중소도시(59.7%), 농어촌(41.0%) 순임.
- 교육수준별로는 대체적으로 고학력일수록 스트레스 정도는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취업자(62.7%)가 미취업자(46.1%)보다 더 부정적인 응답을 보임.
- 취업자중 직종별로는 판매/서비스직(67.2%)이,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64.6%)의 스트레스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5-13〉 일반특성별 평소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단위: %, 명)

구분	대단히 많이 느낀다	조금 느낀다	보통 이다	별로 느끼지 않는다	전혀 느끼지 않는다	계(명)
전체	8.1	51.0	20.1	18.8	1.9	100.0(1,539)
성별						
남성	9.9	48.6	19.8	19.7	1.9	100.0( 776)
여성	6.3	53.5	20.3	18.0	2.0	100.0( 763)
혼인상태						
유배우자	7.4	51.5	19.9	19.3	1.8	100.0(1,292)
무배우자	11.7	48.2	21.1	16.2	2.8	100.0( 247)
연령***						
30대	9.6	56.1	22.6	10.4	1.3	100.0( 230)
40대	9.8	54.2	18.0	17.4	0.6	100.0( 518)
50대	7.6	49.4	20.2	21.0	1.9	100.0( 486)
60대	4.9	44.3	21.6	24.3	4.9	100.0( 305)
지역***						
대도시	7.6	54.2	18.5	18.5	1.1	100.0( 701)
중소도시	9.4	50.3	21.5	16.9	2.0	100.0( 716)
농어촌	4.1	36.9	20.5	32.0	6.6	100.0( 122)
학력**						
초졸 이하	6.8	44.1	18.6	27.1	3.4	100.0( 118)
중졸	4.1	46.6	20.9	22.3	6.1	100.0( 148)
고졸	8.0	52.4	19.0	19.2	1.3	100.0( 746)
전문대졸	13.1	48.6	20.6	16.6	1.1	100.0( 175)
대졸 이상	8.0	53.4	22.2	15.1	1.4	100.0( 352)
취업 여부***						
취업	9.6	53.1	18.5	17.7	1.2	100.0(1,213)
미취업	2.8	43.3	26.1	23.0	4.9	100.0( 326)
직업***						
관리/전문/사무	10.6	50.4	22.6	15.5	0.9	100.0( 226)
판매/서비스	10.6	56.6	15.8	15.8	1.2	100.0( 677)
기능/노무	7.0	50.8	19.5	22.3	0.4	100.0( 256)
농림어업/기타	3.7	31.5	29.6	29.6	5.6	100.0( 54)
미취업	2.8	43.3	26.1	23.0	4.9	100.0( 326)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8.5	56.1	19.4	14.8	1.2	100.0( 412)
임시/일용근로자	8.5	47.2	20.4	23.9	0.0	100.0( 142)
고용주/단독자영업자	10.8	53.2	16.6	18.1	1.3	100.0( 613)
무급가족종사자/기타	6.5	43.5	28.3	19.6	2.2	100.0( 46)
미취업	2.8	43.3	26.1	23.0	4.9	100.0( 326)

주: \* p <0.05, \*\* p <0.01, \*\*\* p <0.001



## 나. 건강생활 실천

### □ 현재 흡연율

- 현재 흡연자는 23.8%(매일 20.9%, 가끔 2.9%)이고, 76.2%는 비흡연자임(흡연 중단자 9.7%, 전혀 피우지 않음 66.5%)(표 5-14 참조).
- 현재 흡연율을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성별로는 남성(45.7%)이 여성(1.5%)에 비하여 월등히 높고, 혼인상태별로는 무배우자(35.7%)가 유배우자(21.5%)보다 더 높음.
  - 연령별로는 연령이 적을수록 흡연율이 높고, 지역별로는 대도시(25.8%)가 가장 높고, 중소도시, 농어촌 순임.
  - 교육수준별로는 대체적으로 고학력일수록 흡연율이 더 높고, 취업자(27.5%)가 미취업자(10.1%)보다 더 높음.
  - 취업자중 직종별로는 기능/노무직(39.5%)이,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33.5%)의 흡연율이 가장 높음.



〈표 5-14〉 일반특성별 현재 흡연 여부

(단위: %, 명)

구분	매일 피운다	가끔 피운다	과거에 피웠으나 현재는 피우지 않는다	전혀 피우지 않는다	계(명)
전체	20.9	2.9	9.7	66.5	100.0(1,539)
성별***					
남성	40.5	5.2	18.4	36.0	100.0( 776)
여성	1.0	0.5	0.8	97.6	100.0( 763)
혼인상태***					
유배우자	19.3	2.2	9.8	68.7	100.0(1,292)
무배우자	29.6	6.1	8.9	55.5	100.0( 247)
연령**					
30대	21.3	3.9	6.5	68.3	100.0( 230)
40대	25.7	2.9	7.9	63.5	100.0( 518)
50대	19.8	2.7	10.7	66.9	100.0( 486)
60대	14.4	2.3	13.4	69.8	100.0( 305)
지역*					
대도시	23.5	2.3	8.0	66.2	100.0( 701)
중소도시	19.0	3.8	11.7	65.5	100.0( 716)
농어촌	17.2	0.8	7.4	74.6	100.0( 122)
학력***					
초졸 이하	7.6	0.8	8.5	83.1	100.0( 118)
중졸	18.2	4.1	14.2	63.5	100.0( 148)
고졸	23.1	2.4	7.5	67.0	100.0( 746)
전문대졸	19.4	4.0	5.7	70.9	100.0( 175)
대졸 이상	22.7	3.4	14.8	59.1	100.0( 352)
취업 여부***					
취업	24.4	3.1	10.6	61.9	100.0(1,213)
미취업	8.0	2.1	6.1	83.7	100.0( 326)
직업***					
관리/전문/사무	19.0	3.5	13.7	63.7	100.0( 226)
판매/서비스	22.7	2.1	6.6	68.5	100.0( 677)
기능/노무	34.8	4.7	18.4	42.2	100.0( 256)
농림어업/기타	18.5	5.6	11.1	64.8	100.0( 54)
미취업	8.0	2.1	6.1	83.7	100.0( 326)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28.6	4.9	11.7	54.9	100.0( 412)
임시/일용근로자	17.6	2.1	9.9	70.4	100.0( 142)
고용주/단독자영업자	24.8	2.3	10.8	62.2	100.0( 613)
무급가족종사자/기타	2.2	—	2.2	95.7	100.0( 46)
미취업	8.0	2.1	6.1	83.7	100.0( 326)

주: \* p &lt;0.05, \*\* p &lt;0.01, \*\*\* p &lt;0.001



#### □ 음주실태

- 지난 6개월간 한 번의 술자리에서 소주 7잔(또는 맥주 5캔 정도)이상을 마신 횟수로 살펴보면, 40.4%는 전혀 없었고, 59.6%는 경험이 있음(표 5-15 참조).
  - 거의 매일 8.0%, 1주일에 1번 정도 29.1%, 한달에 1번 정도 16.0%, 두달에 1번 정도 6.5%임.
- 1주일에 1번 이상 음주한 비율을 제특성별로 비교하면, 성별로는 남성(57.8%)이 여성(15.9%) 보다 약 4배 정도 더 많음.
  - 연령별로는 연령이 적을수록 1주일에 1번 이상 과음주한 비율이 높음.
  - 교육수준별로는 고학력일수록 과음주율이 더 높고, 취업자(42.3%)가 미취업자(18.1%)보다 2배 이상 더 높음.
  - 취업자중 직종별로는 기능/노무직(50.8%)이,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49.3%)의 과음주율이 가장 높음.



〈표 5-15〉 일반특성별 최근 6개월간 음주 정도

(단위: %, 명)

구분	거의 매일	1주일에 1번 정도	한 달에 1번 정도	두 달에 1번 정도	전혀 없다	계(명)
전체	8.0	29.1	16.0	6.5	40.4	100.0(1,539)
성별***						
남성	14.8	43.0	14.4	4.8	22.9	100.0( 776)
여성	1.0	14.9	17.7	8.3	58.1	100.0( 763)
혼인상태						
유배우자	7.7	28.3	16.2	6.9	40.9	100.0(1,292)
무배우자	9.3	33.6	15.4	4.5	37.2	100.0( 247)
연령***						
30대	5.7	35.7	18.7	8.7	31.3	100.0( 230)
40대	8.3	33.2	17.2	7.3	34.0	100.0( 518)
50대	9.3	28.4	15.2	5.3	41.8	100.0( 486)
60대	7.2	18.4	13.4	5.2	55.7	100.0( 305)
지역						
대도시	7.7	28.8	16.4	6.3	40.8	100.0( 701)
중소도시	8.0	30.2	15.8	7.3	38.8	100.0( 716)
농어촌	9.8	24.6	15.6	3.3	46.7	100.0( 122)
학력***						
초졸 이하	8.5	11.9	11.9	4.2	63.6	100.0( 118)
중졸	7.4	19.6	21.6	3.4	48.0	100.0( 148)
고졸	8.8	28.8	15.1	7.0	40.2	100.0( 746)
전문대졸	6.3	34.9	16.0	9.1	33.7	100.0( 175)
대졸 이상	7.1	36.6	17.0	6.3	33.0	100.0( 352)
취업 여부***						
취업	9.2	33.1	15.4	6.2	36.2	100.0(1,213)
미취업	3.7	14.4	18.4	7.7	55.8	100.0( 326)
직업***						
관리/전문/사무	6.2	40.3	20.8	5.8	27.0	100.0( 226)
판매/서비스	7.7	30.3	15.4	7.1	39.6	100.0( 677)
기능/노무	14.1	36.7	11.7	4.3	33.2	100.0( 256)
농림어업/기타	16.7	20.4	11.1	5.6	46.3	100.0( 54)
미취업	3.7	14.4	18.4	7.7	55.8	100.0( 326)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8.3	41.0	15.3	5.8	29.6	100.0( 412)
임시/일용근로자	12.0	23.2	16.9	4.9	43.0	100.0( 142)
고용주/단독자영업자	9.5	31.8	14.5	6.4	37.8	100.0( 613)
무급가족종사자/기타	4.3	8.7	23.9	10.9	52.2	100.0( 46)
미취업	3.7	14.4	18.4	7.7	55.8	100.0( 326)

주: \* p &lt;0.05, \*\* p &lt;0.01, \*\*\* p &lt;0.001



□ 규칙적인 운동 실천

- 지난 6개월간 규칙적으로 한 체조나 운동의 신체활동 정도를 보면, ‘매우 그렇다’ 10.5%, ‘대체로 그런 편이다’ 26.9%, ‘보통이다’ 16.6%, ‘별로 그렇지 않다’ 26.1%, ‘전혀 그렇지 않다’ 20.0%임(표 5-16 참조).
  - 규칙적인 운동 실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37.4%이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는 46.1%임.
- 규칙적 운동실천에 대한 긍정적 응답률을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지역별로는 대도시(38.6%), 중소도시(36.7%), 농어촌(33.6%) 순임.
  - 교육수준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은 없으나 대졸 이상(43.5%)의 운동 실천률이 가장 높으며, 미취업자(44.8%)가 취업자(35.3%)보다 더 높음.
  - 취업자중 직종별로는 관리/전문/사무직(40.7%)이, 종사상지위별로는 무급가족종사자/기타(43.5%)의 실천률이 가장 높음.



〈표 5-16〉 일반특성별 최근 6개월간 규칙적 운동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명)
전체	20.0	26.1	16.6	26.9	10.5	100.0(1,539)
성별						
남성	20.0	26.2	16.5	26.5	10.8	100.0( 776)
여성	20.1	26.0	16.6	27.3	10.1	100.0( 763)
혼인상태						
유배우자	19.4	25.0	16.9	27.9	10.8	100.0(1,292)
무배우자	23.1	31.6	15.0	21.9	8.5	100.0( 247)
연령						
30대	21.3	26.5	19.1	25.2	7.8	100.0( 230)
40대	20.1	29.7	16.8	24.5	8.9	100.0( 518)
50대	20.0	24.7	15.4	27.8	12.1	100.0( 486)
60대	19.0	21.6	16.1	30.8	12.5	100.0( 305)
지역***						
대도시	15.5	29.5	16.3	29.2	9.4	100.0( 701)
중소도시	20.8	24.4	18.0	25.7	11.0	100.0( 716)
농어촌	41.0	15.6	9.8	20.5	13.1	100.0( 122)
학력***						
초졸 이하	33.9	22.9	14.4	22.0	6.8	100.0( 118)
중졸	17.6	27.0	17.6	26.4	11.5	100.0( 148)
고졸	22.1	25.6	15.3	26.9	10.1	100.0( 746)
전문대졸	21.7	26.3	20.0	20.0	12.0	100.0( 175)
대졸 이상	11.1	27.6	17.9	32.1	11.4	100.0( 352)
취업 여부*						
취업	21.2	26.7	16.7	25.7	9.6	100.0(1,213)
미취업	15.6	23.6	16.0	31.3	13.5	100.0( 326)
직업***						
관리/전문/사무	10.2	27.0	22.1	29.2	11.5	100.0( 226)
판매/서비스	21.0	28.1	15.5	25.8	9.6	100.0( 677)
기능/노무	27.3	24.2	15.6	23.8	9.0	100.0( 256)
농림어업/기타	40.7	20.4	14.8	18.5	5.6	100.0( 54)
미취업	15.6	23.6	16.0	31.3	13.5	100.0( 326)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20.4	27.7	18.0	24.3	9.7	100.0( 412)
임시/일용근로자	20.4	37.3	19.7	16.2	6.3	100.0( 142)
고용주/단독자영업자	21.5	24.6	15.2	28.2	10.4	100.0( 613)
무급가족종사자/기타	26.1	13.0	17.4	34.8	8.7	100.0( 46)
미취업	15.6	23.6	16.0	31.3	13.5	100.0( 326)

주: \* p &lt;0.05, \*\* p &lt;0.01, \*\*\* p &lt;0.001



□ 균형잡힌 영양 섭취 노력 정도

- 다양한 식품(곡류, 과일, 채소, 생선, 육류, 우유 등)을 골고루 섭취하려고 노력하는 정도를 보면, ‘매우 그렇다’ 11.8%, ‘대체로 그런 편이다’ 49.4%, ‘보통이다’ 24.8%, ‘별로 그렇지 않다’ 13.1%, ‘전혀 그렇지 않다’ 1.0%임(표 5-17 참조).
  - 균형잡힌 영양을 섭취하려고 노력하는 비율은 61.2%이고,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통이다’ 제외)는 14.1%임.
- 균형잡힌 영양 섭취 노력에 대한 긍정적 응답률을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성별로는 여성(66.4%)이 남성(56.1%) 보다 더 높고,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자(63.6%)가 무배우자(48.6%) 보다 더 높음.
  - 연령별로는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균형잡힌 영양을 섭취하려고 노력하고, 지역별로는 농어촌(82.8%), 대도시(61.8%), 중소도시(57.0%) 순으로 나타남.



〈표 5-17〉 일반특성별 균형적인 영양 섭취를 위한 노력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명)
전체	1.0	13.1	24.8	49.4	11.8	100.0(1,539)
성별**						
남성	1.3	14.8	27.8	44.5	11.6	100.0( 776)
여성	0.7	11.3	21.6	54.5	11.9	100.0( 763)
혼인상태***						
유배우자	0.5	11.9	23.9	51.2	12.4	100.0(1,292)
무배우자	3.2	19.0	29.1	40.1	8.5	100.0( 247)
연령*						
30대	2.2	17.8	24.3	47.0	8.7	100.0( 230)
40대	0.6	15.1	28.0	46.3	10.0	100.0( 518)
50대	0.8	10.3	22.6	52.7	13.6	100.0( 486)
60대	1.0	10.5	23.0	51.5	14.1	100.0( 305)
지역***						
대도시	0.9	12.6	24.8	54.1	7.7	100.0( 701)
중소도시	1.3	15.1	26.7	45.4	11.6	100.0( 716)
농어촌	—	4.1	13.1	46.7	36.1	100.0( 122)
학력						
초졸 이하	1.7	9.3	25.4	48.3	15.3	100.0( 118)
중졸	—	12.2	29.1	47.3	11.5	100.0( 148)
고졸	1.2	14.9	22.8	50.0	11.1	100.0( 746)
전문대졸	0.6	13.1	26.9	50.3	9.1	100.0( 175)
대졸 이상	0.9	10.8	25.9	49.1	13.4	100.0( 352)
취업 여부						
취업	0.8	13.6	25.8	48.1	11.7	100.0(1,213)
미취업	1.5	11.0	20.9	54.6	12.0	100.0( 326)
직업						
관리/전문/사무	0.4	10.6	27.9	48.2	12.8	100.0( 226)
판매/서비스	0.6	15.1	25.6	48.6	10.2	100.0( 677)
기능/노무	2.0	14.5	23.8	47.7	12.1	100.0( 256)
농림어업/기타	—	3.7	29.6	42.6	24.1	100.0( 54)
미취업	1.5	11.0	20.9	54.6	12.0	100.0( 326)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1.2	15.8	26.5	46.8	9.7	100.0( 412)
임시/일용근로자	1.4	15.5	29.6	44.4	9.2	100.0( 142)
고용주/단독자영업자	0.5	12.4	25.0	49.4	12.7	100.0( 613)
무급가족종사자/기타	—	4.3	19.6	52.2	23.9	100.0( 46)
미취업	1.5	11.0	20.9	54.6	12.0	100.0( 326)

주: \* p &lt; 0.05, \*\* p &lt; 0.01, \*\*\* p &lt; 0.001



□ 체중유지 노력 정도

- 지난 6개월간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를 보면, ‘매우 그렇다’ 6.3%, ‘대체로 그런 편이다’ 34.9%, ‘보통이다’ 30.7%, ‘별로 그렇지 않다’ 24.3%, ‘전혀 그렇지 않다’ 3.8%임(표 5-18 참조).
  -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긍정적 응답 비율은 41.2%이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28.1%임.
- 체중유지 노력에 대한 긍정적 응답률을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성별로는 여성(45.5%)이 남성(36.9%) 보다 8.6%p 더 높음.
  - 지역별로는 대도시(41.8%), 중소도시(40.9%), 농어촌(39.3%) 순임.



〈표 5-18〉 일반특성별 최근 6개월간 건강 체중 유지 노력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명)
전체	3.8	24.3	30.7	34.9	6.3	100.0(1,539)
성별*						
남성	4.3	26.2	32.6	31.4	5.5	100.0( 776)
여성	3.3	22.4	28.8	38.4	7.1	100.0( 763)
혼인상태						
유배우자	3.6	23.2	30.7	36.2	6.3	100.0(1,292)
무배우자	4.5	30.0	31.2	27.9	6.5	100.0( 247)
연령						
30대	6.1	23.5	30.0	36.1	4.3	100.0( 230)
40대	2.9	24.5	31.5	36.1	5.0	100.0( 518)
50대	2.7	24.9	29.8	35.0	7.6	100.0( 486)
60대	5.2	23.6	31.5	31.8	7.9	100.0( 305)
지역***						
대도시	3.1	24.8	30.2	37.5	4.3	100.0( 701)
중소도시	3.6	23.2	32.3	33.8	7.1	100.0( 716)
농어촌	8.2	27.9	24.6	26.2	13.1	100.0( 122)
학력						
초졸 이하	5.1	27.1	34.7	28.8	4.2	100.0( 118)
중졸	4.1	21.6	34.5	30.4	9.5	100.0( 148)
고졸	3.5	26.4	30.3	33.9	5.9	100.0( 746)
전문대졸	5.7	23.4	29.1	36.6	5.1	100.0( 175)
대졸 이상	2.8	20.5	29.5	40.1	7.1	100.0( 352)
취업 여부						
취업	3.5	24.4	31.2	35.1	5.8	100.0(1,213)
미취업	4.6	23.9	29.1	34.0	8.3	100.0( 326)
직업						
관리/전문/사무	1.3	19.0	31.0	41.2	7.5	100.0( 226)
판매/서비스	3.1	25.8	31.8	33.4	5.9	100.0( 677)
기능/노무	6.6	26.2	29.7	34.8	2.7	100.0( 256)
농림어업/기타	3.7	20.4	31.5	33.3	11.1	100.0( 54)
미취업	4.6	23.9	29.1	34.0	8.3	100.0( 326)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3.6	22.6	34.0	35.4	4.4	100.0( 412)
임시/일용근로자	5.6	23.2	33.1	33.1	4.9	100.0( 142)
고용주/단독자영업자	2.9	27.1	29.2	34.4	6.4	100.0( 613)
무급가족종사자/기타	4.3	8.7	26.1	47.8	13.0	100.0( 46)
미취업	4.6	23.9	29.1	34.0	8.3	100.0( 326)

주: \* p &lt;0.05, \*\* p &lt;0.01, \*\*\* p &lt;0.001



□ 하루 수면시간의 충분성

- 하루 수면시간이 피로회복에 충분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대체로 그런 편이다’(41.8%) 또는 ‘매우 그렇다’(7.0%)라는 긍정적 응답 비율은 48.8%로 전체의 약 절반 정도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5-19 참조).
  - 그러나 19.9%(‘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별로 그렇지 않다’)는 수면시간이 피로회복에 부족하다고 응답함.
- 수면시간에 대한 만족도(긍정적 응답)를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지역별로는 농어촌(53.3%)이 높고 대도시(48.4%)와 중소도시(48.6%)는 비슷한 수준임.
  - 직업별로는 수면시간의 만족도(긍정적 응답)가 기능/노무직(55.9%)이 가장 높고, 판매/서비스직(44.2%)이 가장 낮음.



〈표 5-19〉 일반특성별 1일 수면시간 충분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명)
전체	1.6	18.3	31.3	41.8	7.0	100.0(1,539)
성별						
남성	1.4	16.8	31.1	43.4	7.3	100.0( 776)
여성	1.7	19.9	31.5	40.2	6.7	100.0( 763)
혼인상태						
유배우자	1.4	17.9	31.0	42.5	7.2	100.0(1,292)
무배우자	2.4	20.6	32.4	38.5	6.1	100.0( 247)
연령						
30대	2.2	20.0	32.6	37.0	8.3	100.0( 230)
40대	1.9	19.9	30.7	41.1	6.4	100.0( 518)
50대	0.8	17.7	31.9	43.0	6.6	100.0( 486)
60대	1.6	15.4	30.2	44.9	7.9	100.0( 305)
지역***						
대도시	1.1	17.1	33.4	45.5	2.9	100.0( 701)
중소도시	1.7	19.4	30.3	38.8	9.8	100.0( 716)
농어촌	3.3	18.9	24.6	38.5	14.8	100.0( 122)
학력						
초졸 이하	1.7	17.8	34.7	38.1	7.6	100.0( 118)
중졸	0.7	18.2	30.4	45.3	5.4	100.0( 148)
고졸	1.9	20.1	29.6	41.7	6.7	100.0( 746)
전문대졸	2.3	17.1	28.6	44.0	8.0	100.0( 175)
대졸 이상	0.9	15.3	35.2	40.9	7.7	100.0( 352)
취업 여부						
취업	1.6	19.2	31.6	41.1	6.5	100.0(1,213)
미취업	1.2	15.0	30.1	44.8	8.9	100.0( 326)
직업*						
관리/전문/사무	1.8	16.4	34.5	39.8	7.5	100.0( 226)
판매/서비스	1.8	21.6	32.5	37.7	6.5	100.0( 677)
기능/노무	1.2	16.4	26.6	51.6	4.3	100.0( 256)
농림어업/기타	1.9	14.8	31.5	38.9	13.0	100.0( 54)
미취업	1.2	15.0	30.1	44.8	8.9	100.0( 326)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1.5	17.7	30.6	44.4	5.8	100.0( 412)
임시/일용근로자	1.4	21.8	28.2	44.4	4.2	100.0( 142)
고용주/단독자영업자	1.8	19.2	32.8	38.5	7.7	100.0( 613)
무급가족종사자/기타	2.2	23.9	34.8	34.8	4.3	100.0( 46)
미취업	1.2	15.0	30.1	44.8	8.9	100.0( 326)

주: \* p &lt;0.05, \*\* p &lt;0.01, \*\*\* p &lt;0.001



#### □ 정기적 건강검진 수진 정도

-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거나 만성질환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최소한 2년에 1회 이상) 병원, 보건기관 등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정도를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 17.5%, ‘대체로 그런 편이다’ 48.1%, ‘보통이다’ 18.8%, ‘별로 그렇지 않다’ 11.4%, ‘전혀 그렇지 않다’ 4.2%임(표 5-20 참조).
- － 정기적 건강검진을 받는다는 비율은 65.6%이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보통이다’ 제외)은 15.6%임.
- 2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는다는 비율을 제특성별로 비교하면, 성별로는 여성(68.8%)이 남성(62.3%) 보다 더 높고,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자가 더 높음.
- － 연령별로는 연령이 많을수록 건강검진 수진률이 더 높고, 지역별로는 중소도시(67.3%), 대도시(64.3%), 농어촌(62.3%) 순임.
- － 교육수준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은 없으나 초졸 이하(78.9%)가 가장 높고, 전문대졸(56.6%)이 가장 낮음.
- － 취업자중 직종별로는 농림어업/기타(75.9%)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관리/전문/사무직(72.6%), 판매/서비스(65.2%)이며, 기능/노무직(62.8%)이 가장 낮음.



〈표 5-20〉 일반특성별 정기적 건강검진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명)
전체	4.2	11.4	18.8	48.1	17.5	100.0(1,539)
성별*						
남성	4.5	13.0	20.1	47.0	15.3	100.0( 776)
여성	3.8	9.8	17.6	49.1	19.7	100.0( 763)
혼인상태***						
유배우자	3.3	10.7	18.3	49.8	18.0	100.0(1,292)
무배우자	8.9	15.4	21.9	38.9	15.0	100.0( 247)
연령***						
30대	10.9	12.6	23.9	41.3	11.3	100.0( 230)
40대	3.5	15.4	19.9	49.2	12.0	100.0( 518)
50대	2.5	9.3	16.9	50.6	20.8	100.0( 486)
60대	3.0	7.2	16.4	47.2	26.2	100.0( 305)
지역***						
대도시	3.4	13.8	18.4	54.6	9.7	100.0( 701)
중소도시	4.2	9.2	19.3	45.5	21.8	100.0( 716)
농어촌	8.2	10.7	18.9	25.4	36.9	100.0( 122)
학력***						
초졸 이하	3.4	7.6	10.2	45.8	33.1	100.0( 118)
중졸	4.7	8.8	18.2	48.0	20.3	100.0( 148)
고졸	4.3	13.1	19.0	48.1	15.4	100.0( 746)
전문대졸	6.9	13.1	23.4	44.6	12.0	100.0( 175)
대졸 이상	2.6	9.4	19.3	50.6	18.2	100.0( 352)
취업 여부						
취업	4.0	11.0	18.5	48.6	18.0	100.0(1,213)
미취업	4.9	13.2	19.9	46.3	15.6	100.0( 326)
직업***						
관리/전문/사무	2.2	9.3	15.9	50.9	21.7	100.0( 226)
판매/서비스	4.6	11.4	18.9	49.5	15.7	100.0( 677)
기능/노무	4.7	11.7	20.7	48.0	14.8	100.0( 256)
농림어업/기타	0.0	9.3	14.8	29.6	46.3	100.0( 54)
미취업	4.9	13.2	19.9	46.3	15.6	100.0( 326)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3.6	11.4	17.7	49.3	18.0	100.0( 412)
임시/일용근로자	4.2	12.0	22.5	44.4	16.9	100.0( 142)
고용주인/독자영업자	3.8	11.1	18.9	48.9	17.3	100.0( 613)
무급가족종사자/기타	8.7	2.2	8.7	50.0	30.4	100.0( 46)
미취업	4.9	13.2	19.9	46.3	15.6	100.0( 326)

주: \* p &lt;0.05, \*\* p &lt;0.01, \*\*\* p &lt;0.001



## □ 비만지수(BMI)

-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서 비만지수(BMI)를 분석함. 비만지수는 질병관리본부 기준을 활용하여,  $BMI = \text{체중} / (\text{신장 m})^2$ 으로 저체중은 18.5 미만, 정상 18.5~23 미만, 과체중 23~25 미만, 경도비만 25~30 미만, 중증도 비만 30 이상으로 구분함.
  - 신장(키)과 체중(몸무게)를 활용한 BMI지수를 통해 비만도를 살펴보면, 저체중은 2.0%, 정상은 43.0%, 과체중은 28.7%, 경도비만은 24.0%, 중증도 비만은 2.3% 등으로 분석되고, 중등도 이상(BMI 25 이상) 비만은 26.3%임 (표 5-21 참조).
- 비만지수의 비만(BMI 25 이상) 비율을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성별로는 남성(30.8%)이 여성(21.7%)보다 더 높고,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자보다 무배우자의 비만율이 더 높음.
  - 연령별로는 연령이 많을수록 비만율이 상승하고, 지역별로는 도시지역보다 농어촌이 더 높음.
  - 취업자의 비만율이 미취업자보다 약간 더 높고, 취업자중 직종별로는 관리/전문/사무직이, 종사상지위별로는 고용주/단독자영업자의 비만율이 가장 높음.



〈표 5-21〉 일반특성별 비만지수(BMI)

구분	(단위: %, 명)					계(명)
	18.5 미만	18.5~23 미만	23~25 미만	25~30 미만	30 이상	
전체	2.0	43.0	28.7	24.0	2.3	100.0(1,539)
성별***						
남성	0.4	34.9	33.9	28.1	2.7	100.0( 776)
여성	3.7	51.2	23.3	19.9	1.8	100.0( 763)
혼인상태**						
유배우자	1.8	44.6	28.6	23.3	1.8	100.0(1,292)
무배우자	3.2	34.8	29.1	27.9	4.9	100.0( 247)
연령***						
30대	5.7	50.0	21.7	17.8	4.8	100.0( 230)
40대	1.9	45.9	28.0	22.2	1.9	100.0( 518)
50대	0.8	41.8	31.3	24.1	2.1	100.0( 486)
60대	1.3	34.8	30.8	31.8	1.3	100.0( 305)
지역*						
대도시	2.7	42.8	28.5	24.3	1.7	100.0( 701)
중소도시	1.3	45.0	28.8	22.8	2.2	100.0( 716)
농어촌	2.5	32.8	28.7	30.3	5.7	100.0( 122)
학력						
초졸 이하	3.4	33.9	24.6	35.6	2.5	100.0( 118)
중졸	—	42.6	25.7	29.1	2.7	100.0( 148)
고졸	1.5	44.2	30.2	22.1	2.0	100.0( 746)
전문대졸	2.9	47.4	26.9	20.0	2.9	100.0( 175)
대졸 이상	3.1	41.5	29.0	24.1	2.3	100.0( 352)
취업 여부**						
취업	1.8	40.9	30.7	24.3	2.3	100.0(1,213)
미취업	2.8	50.9	21.2	23.0	2.1	100.0( 326)
직업*						
관리/전문/사무	4.0	40.3	27.0	26.1	2.7	100.0( 226)
판매/서비스	1.3	39.6	30.9	25.8	2.4	100.0( 677)
기능/노무	1.6	43.8	34.0	18.8	2.0	100.0( 256)
농림어업/기타	—	46.3	27.8	24.1	1.9	100.0( 54)
미취업	2.8	50.9	21.2	23.0	2.1	100.0( 326)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2.7	43.9	28.6	22.8	1.9	100.0( 412)
임시/일용근로자	2.1	48.6	28.9	16.9	3.5	100.0( 142)
고용주/단독자영업자	1.3	37.0	32.3	27.1	2.3	100.0( 613)
무급가족종사자/기타	—	41.3	32.6	23.9	2.2	100.0( 46)
미취업	2.8	50.9	21.2	23.0	2.1	100.0( 326)

주: \* p &lt;0.05, \*\* p &lt;0.01, \*\*\* p &lt;0.001



### 3. 여가활동(여가활동 영역)

- 여가활동 영역에서는 노후의 여가활동 인식 수준과 현재 여가활동의 참여 수준에 대해 파악함.
- 노후의 여가활동 인식 수준은 노후의 취미·여가활동에 대한 고려여부와 노후생활을 감안한 취미·여가활동 참여여부, 취미·여가활동의 예상 변화에 대해 조사함.
- 현재 여가활동 참여 수준은 동년배와 비교하여 취미·여가활동이 활발한지와 취미·여가활동의 지속 기간에 대해 조사함.
  - 여가는 생애경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노후 여가생활을 진단하기 위해 현재의 여가활동 참여 수준을 살펴봄.

#### 가. 노후여가생활 인식

- 전체 응답자 중 34.8%는 노후에 어떠한 취미·여가활동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며(표 5-22 참조), 37.3%는 노후생활을 염두에 두고 취미·여가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음(표 5-23 참조).
- 노후 취미·여가활동에 대한 생각여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그렇다’가 31.3%로 가장 많고, ‘별로 그렇지 않다’ 30.4%, ‘보통이다’ 26.0%, ‘전혀 그렇지 않다’ 8.8%, ‘매우 그렇다’ 3.5% 순임(표 5-22 참조).
  - 제특성별로 살펴보면, 유배우자의 긍정적인 응답(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비율이 36.0%로 무배우자 28.3%에 비해 7.7%p 많음.
  -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성이 있으며, 취업자의 직종별로는 관리/전문/사무직의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46.5%로 가장 높음.
    - 대졸 이상 46.0%, 전문대졸 이상 36.0%, 고졸 32.3%, 중졸 28.4%, 초졸 이하 22.9%
    - 판매/서비스 33.1%, 기능/노무 30.8%, 농림어업/기타 29.6%



〈표 5-22〉 일반특성별 노후 취미·여가활동 고려 여부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명)
전체	8.8	30.4	26.0	31.3	3.5	100.0(1,539)
성별						
남성	8.8	29.4	27.2	30.4	4.3	100.0( 776)
여성	8.9	31.5	24.8	32.1	2.8	100.0( 763)
혼인상태***						
유배우자	7.7	29.1	27.2	32.4	3.6	100.0(1,292)
무배우자	14.6	37.2	19.8	25.1	3.2	—( 247)
연령						
30대	10.9	32.2	25.2	27.8	3.9	100.0( 230)
40대	9.3	31.7	23.6	32.6	2.9	100.0( 518)
50대	8.0	28.6	27.8	31.9	3.7	100.0( 486)
60대	7.9	29.8	27.9	30.5	3.9	100.0( 305)
지역						
대도시	8.1	32.4	28.0	29.8	1.7	100.0( 701)
중소도시	8.2	29.2	25.1	32.3	5.2	100.0( 716)
농어촌	16.4	26.2	19.7	33.6	4.1	100.0( 122)
학력***						
초졸 이하	16.9	40.7	19.5	21.2	1.7	100.0( 118)
중졸	8.8	33.1	29.7	25.0	3.4	100.0( 148)
고졸	7.9	31.6	28.2	30.2	2.1	100.0( 746)
전문대졸	10.9	26.9	26.3	32.0	4.0	100.0( 175)
대졸 이상	7.1	25.0	21.9	39.2	6.8	100.0( 352)
취업 여부						
취업	8.8	30.8	25.4	31.4	3.5	100.0(1,213)
미취업	8.9	28.8	28.2	30.7	3.4	100.0( 326)
직업***						
관리/전문/사무	5.8	25.2	22.6	38.5	8.0	100.0( 226)
판매/서비스	8.9	32.6	25.4	30.9	2.2	100.0( 677)
기능/노무	10.5	31.6	27.0	28.5	2.3	100.0( 256)
농림어업/기타	13.0	27.8	29.6	22.2	7.4	100.0( 54)
미취업	8.9	28.8	28.2	30.7	3.4	100.0( 326)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8.5	29.1	25.0	33.0	4.4	100.0( 412)
임시/일용근로자	7.7	33.1	28.2	26.1	4.9	100.0( 142)
고용주/단독자영업자	9.3	31.2	24.8	32.1	2.6	100.0( 613)
무급가족종사자/기타	8.7	34.8	28.3	23.9	4.3	100.0( 46)
미취업	8.9	28.8	28.2	30.7	3.4	100.0( 326)

주: \* p &lt;0.05, \*\* p &lt;0.01, \*\*\* p &lt;0.001



○ 노후를 고려한 취미·여가활동 참여경험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혀 없다’ 62.7%, ‘한 가지 정도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하고 있다’ 21.5%, ‘시작한 적은 있으나 현재는 하고 있지 않다’ 10.1%, ‘두 가지 이상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하고 있다’ 5.7% 순임(표 5-23 참조).

－ 응답자의 제특성별로는, 연령이 많을수록 노후를 고려한 취미·여가활동 참여경험이 적은 경향이 있으며, 지역별로는 중소도시, 농어촌, 대도시 순으로 참여경험이 적음.

- 연령별로 참여경험이 전혀 없다는 응답 비율은 60대 55.1%, 50대 57.8%, 40대 65.1%, 30대 77.8%임.

- 중소도시 56.3%, 농어촌 66.4%, 대도시 68.6%의 순

－ 교육수준별로는 특별한 경향성이 없으며, 전문대졸의 미참여율이 가장 많고, 대졸 이상이 가장 적음.

- 전문대졸 69.1%, 초졸 이하 67.8%, 고졸 64.6%, 중졸 60.1%, 대졸 이상 54.8%의 순



〈표 5-23〉 일반특성별 노후를 고려한 취미·여가활동 참여 경험

(단위: %, 명)

구분	전혀 없다	시작한 적은 있으나 현재는 하고 있지 않다	한 가지 정도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하고 있다	두 가지 이상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하고 있다	계(명)
전체	62.7	10.1	21.5	5.7	100.0(1,539)
성별					
남성	61.5	10.1	21.9	6.6	100.0( 776)
여성	64.0	10.1	21.1	4.8	100.0( 763)
혼인상태					
유배우자	61.9	10.4	22.1	5.6	100.0(1,292)
무배우자	66.8	8.1	18.6	6.5	100.0( 247)
연령***					
30대	77.8	8.7	10.9	2.6	100.0( 230)
40대	65.1	10.0	21.2	3.7	100.0( 518)
50대	57.8	11.3	23.9	7.0	100.0( 486)
60대	55.1	9.2	26.2	9.5	100.0( 305)
지역***					
대도시	68.6	7.6	20.1	3.7	100.0( 701)
중소도시	56.3	13.0	23.7	7.0	100.0( 716)
농어촌	66.4	7.4	16.4	9.8	100.0( 122)
학력*					
초졸 이하	67.8	6.8	16.1	9.3	100.0( 118)
중졸	60.1	9.5	25.0	5.4	100.0( 148)
고졸	64.6	9.5	21.2	4.7	100.0( 746)
전문대졸	69.1	10.3	14.3	6.3	100.0( 175)
대졸 이상	54.8	12.5	26.1	6.5	100.0( 352)
취업 여부					
취업	63.0	10.1	21.6	5.4	100.0(1,213)
미취업	61.7	10.1	21.2	7.1	100.0( 326)
직업					
관리/전문/사무	58.8	13.7	19.9	7.5	100.0( 226)
판매/서비스	65.9	8.3	22.0	3.8	100.0( 677)
기능/노무	59.8	11.3	21.9	7.0	100.0( 256)
농림어업/기타	59.3	11.1	22.2	7.4	100.0( 54)
미취업	61.7	10.1	21.2	7.1	100.0( 326)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62.9	10.4	20.9	5.8	100.0( 412)
임시/일용근로자	60.6	12.7	22.5	4.2	100.0( 142)
고용주/단독자영업자	63.1	9.5	22.2	5.2	100.0( 613)
무급가족종사자/기타	69.6	6.5	17.4	6.5	100.0( 46)
미취업	61.7	10.1	21.2	7.1	100.0( 326)

주: \* p &lt;0.05, \*\* p &lt;0.01, \*\*\* p &lt;0.001



□ 전체 응답자의 25.6%는 현재의 취미·여가활동이 노후에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표 5-24 참조).

○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비율이 52.0%로 가장 많고, ‘지금보다 조금 활발’ 23.1%, ‘지금보다 조금 소극적’ 16.4%, ‘지금보다 상당히 소극적’ 6.0%, ‘지금보다 상당히 활발’ 2.5% 순임.

○ 응답자의 제특성별로 살펴보면, 혼인상태별로 유배우자의 긍정적인 응답(지금보다 조금 활발, 지금보다 상당히 활발)이 26.5%로 무배우자(21.0%에) 비해 5.5%p 많음.

– 연령별로는 40대의 긍정적인 응답이 29.7%로 가장 많고, 50대 27.0%, 30대 26.1%, 60대 16.0% 임.

– 지역별로는 농어촌이 도시보다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고,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성이 있음.

• 농어촌 35.2%, 중소도시 28.7%, 대도시 20.7%의 순임.

• 전문대졸이 30.8%로 가장 많고, 그 다음 대졸 이상 28.4%, 고졸 26.4%, 중졸 18.9%, 초졸 이하 12.7% 순임.

–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자의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27.7%로 미취업자 17.8%에 비해 9.9%p 많음.

• 취업자의 직종별로는 관리/전문/사무직이 33.2%로 가장 많고, 농림어업/기타가 20.4%로 가장 적음.

•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로는 무급가족종사자/기타가 34.8%로 가장 많고, 그 외는 모두 비슷한 수준임(상용근로자 27.7%, 임시/일용근로자 27.4%, 고용주/단독자영업자 27.2%).



〈표 5-24〉 일반특성별 노후 취미·여가활동 변화 예상

(단위: %, 명)

구분	지금보다 상당히 소극적	지금보다 조금 소극적	큰 변화 없을 것	지금보다 조금 활발	지금보다 상당히 활발	계 (명)
전체	6.0	16.4	52.0	23.1	2.5	100.0 (1,539)
성별						
남성	7.0	16.9	51.7	22.3	2.2	100.0 ( 776)
여성	5.0	15.9	52.4	23.9	2.9	100.0 ( 763)
혼인상태***						
유배우자	4.8	15.6	53.1	23.9	2.6	100.0 (1,292)
무배우자	12.1	20.2	46.6	18.6	2.4	100.0 ( 247)
연령*						
30대	7.0	17.0	50.0	22.6	3.5	100.0 ( 230)
40대	5.2	17.8	47.3	27.4	2.3	100.0 ( 518)
50대	6.2	13.8	53.1	24.1	2.9	100.0 ( 486)
60대	6.2	17.7	60.0	14.4	1.6	100.0 ( 305)
지역***						
대도시	5.8	16.3	57.2	19.8	0.9	100.0 ( 701)
중소도시	6.4	18.3	46.5	25.1	3.6	100.0 ( 716)
농어촌	4.1	5.7	54.9	29.5	5.7	100.0 ( 122)
학력*						
초졸 이하	11.0	12.7	63.6	11.0	1.7	100.0 ( 118)
중졸	7.4	14.9	58.8	15.5	3.4	100.0 ( 148)
고졸	6.0	17.3	50.3	25.1	1.3	100.0 ( 746)
전문대졸	8.6	10.3	50.3	25.1	5.7	100.0 ( 175)
대졸 이상	2.3	19.3	50.0	25.0	3.4	100.0 ( 352)
취업 여부**						
취업	5.7	15.8	50.8	24.9	2.8	100.0 (1,213)
미취업	7.1	18.4	56.7	16.3	1.5	100.0 ( 326)
직업**						
관리/전문/사무	4.0	13.7	49.1	28.8	4.4	100.0 ( 226)
판매/서비스	5.8	17.4	49.3	25.4	2.1	100.0 ( 677)
기능/노무	5.9	14.8	54.3	21.9	3.1	100.0 ( 256)
농림어업/기타	11.1	9.3	59.3	16.7	3.7	100.0 ( 54)
미취업	7.1	18.4	56.7	16.3	1.5	100.0 ( 326)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5.6	16.5	50.2	24.5	3.2	100.0 ( 412)
임시/일용근로자	8.5	17.6	46.5	23.9	3.5	100.0 ( 142)
고용주/단독자영업자	5.1	15.2	52.5	24.8	2.4	100.0 ( 613)
무급가족종사자/기타	6.5	13.0	45.7	32.6	2.2	100.0 ( 46)
미취업	7.1	18.4	56.7	16.3	1.5	100.0 ( 326)

주: \* p &lt; 0.05, \*\* p &lt; 0.01, \*\*\* p &lt; 0.001



## 나. 현재 여가생활

□ 동년배와 비교하여 자신의 취미·여가활동이 활발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9.5%이며(표 5-25 참조), 현재 참여하고 있는 취미·여가활동을 5년 이상 지속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59.6%임(표 5-26 참조).

○ 동년배와 비교하여 자신의 취미·여가활동이 활발한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활발하지 않다’ 35.4%(매우 활발하지 않다 9.0%, 별로 활발하지 않다 26.4%), ‘보통이다’ 35.2%, ‘활발하다’ 29.5%(매우 활발하다 2.9%, 대체로 활발하다 26.6%)순으로 나타남.

- 제특성별로 비교해 보면, 성별로는 남성의 긍정적인 응답(대체로 활발하다와 매우 활발하다) 비율이 32.0%로 여성 26.8%에 비해 5.2%p 많음.
-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자가 29.8%로 무배우자 27.5%에 비해 2.3%p 많고, 지역별로는 중소도시(33.8%), 농어촌(27.9%), 대도시(25.3%) 순임.
-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취업자의 경우 직종별로 상이한 수준을 보임.
  - 대졸 이상이 40.9%로 가장 높고, 고졸 28.0%, 전문대졸 25.1%, 중졸 23.0%, 초졸 이하 18.6% 순임.
  - 취업자의 직종별로는 관리/전문/사무직이 37.7%로 가장 높고, 그 다음 판매/서비스직 28.1%, 기능/노무직 27.7%, 농림어업/기타 25.9%임.



〈표 5-25〉 일반특성별 동년배와 비교한 취미·여가활동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활발하지 않다	별로 활발하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활발하다	매우 활발하다	계(명)
전체	9.0	26.4	35.2	26.6	2.9	100.0(1,539)
성별**						
남성	7.3	25.5	35.2	28.1	3.9	100.0( 776)
여성	10.6	27.3	35.3	25.0	1.8	100.0( 763)
혼인상태*						
유배우자	8.0	25.9	36.2	26.9	2.9	100.0(1,292)
무배우자	13.8	28.7	30.0	24.7	2.8	100.0( 247)
연령						
30대	6.1	23.0	42.6	25.2	3.0	100.0( 230)
40대	7.1	28.4	36.7	25.1	2.7	100.0( 518)
50대	10.3	27.2	31.5	27.6	3.5	100.0( 486)
60대	12.1	24.3	33.1	28.5	2.0	100.0( 305)
지역**						
대도시	7.8	28.1	38.8	23.3	2.0	100.0( 701)
중소도시	8.2	25.1	32.8	30.3	3.5	100.0( 716)
농어촌	19.7	23.8	28.7	23.8	4.1	100.0( 122)
학력***						
초졸 이하	23.7	32.2	25.4	17.8	0.8	100.0( 118)
중졸	14.9	29.7	32.4	21.6	1.4	100.0( 148)
고졸	8.7	29.0	34.3	25.6	2.4	100.0( 746)
전문대졸	7.4	22.9	44.6	21.1	4.0	100.0( 175)
대졸 이상	2.8	19.3	36.9	36.4	4.5	100.0( 352)
취업 여부						
취업	8.8	26.7	34.8	26.5	3.1	100.0(1,213)
미취업	9.5	25.2	36.8	26.7	1.8	100.0( 326)
직업***						
관리/전문/사무	4.0	20.8	37.6	31.9	5.8	100.0( 226)
판매/서비스	9.5	27.2	35.3	25.6	2.5	100.0( 677)
기능/노무	10.5	30.5	31.3	24.6	3.1	100.0( 256)
농림어업/기타	13.0	27.8	33.3	25.9	0.0	100.0( 54)
미취업	9.5	25.2	36.8	26.7	1.8	100.0( 326)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6.3	26.9	34.2	28.6	3.9	100.0( 412)
임시/일용근로자	12.7	27.5	35.9	21.8	2.1	100.0( 142)
고용주/단독자영업자	9.5	25.9	35.4	26.3	2.9	100.0( 613)
무급가족종사자/기타	10.9	32.6	28.3	26.1	2.2	100.0( 46)
미취업	9.5	25.2	36.8	26.7	1.8	100.0( 326)

주: \* p &lt;0.05, \*\* p &lt;0.01, \*\*\* p &lt;0.001



- 현재 참여하고 있는 취미·여가활동의 경우, 시작한지 5년 이상인 경우가 59.6%로 가장 많고, 그 다음 3~5년 이내 17.2%, 1~2년 이내 15.1%, 1년 이내 8.1% 순임(표 5-26 참조).
- 성별로는 취미·여가활동 지속기간이 5년 이상이라는 응답이 남성 66.6%로 여성 52.2%에 비해 14.4%p 많음.
- 연령별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속기간이 5년 이상이라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성이 있으며, 지역별로는 도시보다 농어촌의 비율이 더 높음.
  - 60대 66.9%, 50대 65.4%, 40대 53.6%, 30대 53.3%의 순
  - 농어촌 71.3%, 대도시 62.4%, 중소도시 55.4%의 순
-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자의 경우 5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1.5%로 미취업자 52.6% 보다 8.9%p 많음
  - 취업자의 직종별로는 농림어업/기타가 71.4%로 가장 많고, 관리/전문/사무직이 57.1%로 가장 적음.
  -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로는 고용주/단독자영업자가 64.8%로 가장 많고, 무급가족종사자/기타가 54.3%로 가장 적음.



〈표 5-26〉 일반특성별 취미·여가활동 지속 기간

(단위: %, 명)

구분	1년 이내	1~3년 이내	3~5년 이내	5년 이상	계 (명) <sup>1)</sup>
전체	8.1	15.1	17.2	59.6	100.0(1,291)
성별***					
남성	6.8	11.4	15.2	66.6	100.0( 664)
여성	9.6	19.0	19.3	52.2	100.0( 627)
혼인상태					
유배우자	8.7	14.6	17.6	59.1	100.0(1,091)
무배우자	5.0	18.0	15.0	62.0	100.0( 200)
연령***					
30대	9.4	18.4	18.9	53.3	100.0( 212)
40대	10.2	15.9	20.3	53.6	100.0( 453)
50대	5.9	14.1	14.6	65.4	100.0( 390)
60대	6.8	12.3	14.0	66.9	100.0( 236)
지역*					
대도시	8.0	14.7	14.9	62.4	100.0( 590)
중소도시	8.5	16.6	19.5	55.4	100.0( 621)
농어촌	6.3	6.3	16.3	71.3	100.0( 80)
학력					
초졸 이하	10.0	12.5	7.5	70.0	100.0( 80)
중졸	4.9	11.7	14.6	68.9	100.0( 103)
고졸	7.0	17.2	19.1	56.6	100.0( 627)
전문대졸	10.8	16.9	16.2	56.1	100.0( 148)
대졸 이상	9.6	12.0	17.1	61.3	100.0( 333)
취업 여부*					
취업	8.3	13.1	17.1	61.5	100.0(1,006)
미취업	7.7	22.1	17.5	52.6	100.0( 285)
직업*					
관리/전문/사무	14.1	11.2	17.6	57.1	100.0( 205)
판매/서비스	7.1	13.6	17.9	61.5	100.0( 553)
기능/노무	5.6	14.6	15.5	64.3	100.0( 213)
농림어업/기타	8.6	8.6	11.4	71.4	100.0( 35)
미취업	7.7	22.1	17.5	52.6	100.0( 285)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10.2	14.4	16.1	59.3	100.0( 361)
임시/일용근로자	9.5	12.1	21.6	56.9	100.0( 116)
고용주/단독자영업자	5.9	12.1	17.2	64.8	100.0( 494)
무급가족종사자/기타	17.1	17.1	11.4	54.3	100.0( 35)
미취업	7.7	22.1	17.5	52.6	100.0( 285)

주: 1) 지난 1년간 취미·여가활동을 한 적이 있는 1,291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 p < 0.05, \*\* p < 0.01, \*\*\* p < 0.001



#### 4. 소득과 자산 영역(재무 영역)

□ 소득과 자산 영역에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활동, 노후소득 준비수준을 파악하였음.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활동은 취업여부를 파악하여 예상 은퇴 연령과 소득 안정성을 점검하고, 현재의 소득활동을 중단한 후 제2의 일을 위한 준비 여부에 대해 살펴봄.

－ 취업을 통한 소득창출은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임.

○ 노후소득 준비수준은 월평균 예상 노후소득을 통하여 파악하였음.

－ 노후소득은 연금과 금융자산, 거주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자산임.

• 연금에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포함됨.

#### 가. 노후소득 준비여건 및 인식

□ 현재 취업중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몇 세까지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지 살펴본 결과, 60~64세라는 응답이 29.7%로 가장 많고(표 5-27 참조), 취업중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예상 은퇴 연령도 60~64세라는 응답이 37.0%로 가장 많음(표 5-28 참조).

○ 응답자 본인의 예상 은퇴 연령은 60~64세(29.7%), 65~69세(23.3%), 70~74세(22.9%), 55~59세(8.8%), 75세 이상(8.0%), 50~54세(5.4%), 49세 이하(2.0%) 순으로 확인됨.

－ 배우자의 예상 은퇴 연령도 응답 연령 순서는 동일하며, 비율에서 차이가 있음.

• 60~64세(37.0%), 65~69세(22.5%), 70~74세(19.9%), 55~59세(8.7%), 75세 이상(7.2%), 50~54세(3.8%), 49세 이하(0.9%)

○ 응답자 본인의 예상 은퇴 연령을 제특성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이 58.7%로 여성 47.9%에 비해 높게 나타나 남성의 경우 은퇴 예상



연령이 더 높은 경향이 있음.

－ 연령별로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예상 은퇴 연령도 높아지는 경향성이 있으며, 지역별로는 농어촌이 도시에 비해 예상 은퇴 연령이 높음.

- 예상 은퇴 연령이 70~74세라고 응답한 비율은 30대 11.2%, 40대 13.5%, 50대 26.7%, 60대 46.9%

- 예상 은퇴 연령이 75세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대도시 7.1%, 중소도시 5.2%, 농어촌 28.7%

－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예상 은퇴 연령이 늦어지는 경향이 나타나며, 70~74세라고 응답한 비율이 초졸 이하 44.7%로 대졸 이상 15.2%에 비해 약 3배 많음.

- 70~74세라고 응답한 비율이 중졸 42.6%, 고졸 22.4%, 전문대졸 15.6% 순

－ 직종별로는 농림어업/기타의 예상 은퇴 연령이 많고, 관리/전문/사무직은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이 있음.

- 70~74세라고 응답한 비율을 기준으로, 농림어업/기타 33.3%, 판매/서비스 26.3%, 기능/노무 24.6%, 관리/전문/사무직 8.4%

－ 종사상지위별로는 무급가족종사자/기타의 예상 은퇴 연령이 높고, 상용근로자는 낮은 경향이 있음.

- 70~74세라고 응답한 비율을 기준으로 무급가족종사자/기타 39.1%, 고용주/단독자영업자 30.3%, 임시/일용근로자 24.0%, 상용근로자 9.7%

○ 배우자의 예상 은퇴 연령을 응답자 제특성별로 살펴보면, 응답자 본인의 제특성별 경향성과 유사함.

－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예상 은퇴 연령이 70~74세라는 응답비율이 24.7%로 남성(12.2%)에 비해 약 2배 많음.

- 이는 응답자 본인이 여성인 경우 배우자의 성별이 남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남성의 예상 은퇴 연령이 여성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함.



〈표 5-27〉 일반특성별 본인의 예상 은퇴 연령

(단위: %, 명)

구분	49세 이하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세 이상	계(명) <sup>1)</sup>
전체	2.0	5.4	8.7	29.7	23.3	22.9	8.0	100.0(1,213)
성별***								
남성	1.7	4.4	7.1	28.1	25.2	24.7	8.8	100.0( 704)
여성	2.6	6.7	11.0	31.8	20.6	20.4	6.9	100.0( 509)
혼인상태								
유배우자	2.2	5.2	8.6	29.5	23.8	22.2	8.5	100.0(1,017)
무배우자	1.5	6.1	9.2	30.6	20.4	26.6	5.6	100.0( 196)
연령***								
30대	9.0	11.7	7.8	46.9	11.7	11.2	1.7	100.0( 179)
40대	2.1	10.2	16.7	36.2	18.8	13.5	2.5	100.0( 431)
50대	—	—	4.9	28.8	31.0	26.7	8.6	100.0( 409)
60대	—	—	—	1.0	27.3	46.9	24.8	100.0( 194)
지역***								
대도시	2.2	4.0	8.2	30.4	23.3	24.8	7.1	100.0( 549)
중소도시	2.3	6.4	10.1	30.7	25.2	20.1	5.2	100.0( 563)
농어촌	—	6.9	4.0	19.8	11.9	28.7	28.7	100.0( 101)
학력***								
초졸 이하	—	—	1.3	5.3	18.4	44.7	30.3	100.0( 76)
중졸	—	1.0	2.0	11.9	29.7	42.6	12.8	100.0( 101)
고졸	1.5	3.5	8.9	29.4	27.6	22.4	6.7	100.0( 598)
전문대졸	6.0	13.3	13.3	33.3	13.3	15.6	5.2	100.0( 135)
대졸 이상	2.6	8.2	10.6	40.6	18.2	15.2	4.6	100.0( 303)
직업***								
관리/전문/사무	3.6	9.7	13.7	51.8	11.5	8.4	1.3	100.0( 226)
판매/서비스	2.4	5.2	7.5	24.5	26.4	26.3	7.7	100.0( 677)
기능/노무	0.4	3.1	8.6	29.7	27.3	24.6	6.3	100.0( 256)
농림어업/기타	—	—	3.7	1.8	13.0	33.3	48.2	100.0( 54)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3.6	9.2	13.4	46.4	16.0	9.7	1.7	100.0( 412)
임시/일용근로자	3.5	7.0	12.0	28.2	19.7	24.0	5.6	100.0( 142)
고용주/단독자영업자	0.8	2.8	5.2	19.8	29.2	30.3	11.9	100.0( 613)
무급가족종사자/기타	—	—	4.3	17.4	19.6	39.1	19.6	100.0( 46)

주: 1) 현재 취업 중인 1,213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 p &lt;0.05, \*\* p &lt;0.01, \*\*\* p &lt;0.001



〈표 5-28〉 일반특성별 배우자의 예상 은퇴 연령

(단위: %, 명)

구분	49세 이하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세 이상	계(명) <sup>1)</sup>
전체	0.9	3.8	8.7	37.0	22.5	19.9	7.2	100.0 (973)
성별***								
남성	2.4	7.8	13.5	38.7	20.0	12.2	5.4	100.0 (370)
여성	—	1.3	5.6	36.0	24.1	24.7	8.3	100.0 (603)
연령***								
30대	2.9	9.3	10.7	54.3	9.3	11.4	2.1	100.0 (140)
40대	1.1	6.1	14.0	46.1	19.8	11.5	1.4	100.0 (358)
50대	0.3	0.6	5.3	32.1	29.8	23.6	8.3	100.0 (339)
60대	—	—	0.7	7.4	25.0	41.9	25.0	100.0 (136)
지역***								
대도시	1.2	2.8	9.8	36.5	23.9	19.8	6.0	100.0 (430)
중소도시	0.9	5.0	8.1	40.3	22.3	18.4	5.0	100.0 (457)
농어촌	—	2.3	5.8	22.1	16.3	29.1	24.4	100.0 ( 86)
학력***								
초졸 이하	—	—	—	6.7	16.7	38.3	38.3	100.0 ( 60)
중졸	—	—	4.6	15.4	23.1	40.0	16.9	100.0 ( 65)
고졸	1.0	2.0	7.1	36.2	27.3	20.5	5.9	100.0 (506)
전문대졸	1.6	6.5	10.6	46.3	22.8	10.6	1.6	100.0 (123)
대졸 이상	0.9	8.7	14.6	48.4	12.8	12.8	1.8	100.0 (219)
취업 여부								
취업	1.2	4.4	9.4	36.1	22.6	18.7	7.6	100.0 (761)
미취업	—	1.9	5.6	40.1	22.2	24.5	5.7	100.0 (212)
직업***								
관리/전문/사무	0.7	6.4	12.2	55.7	11.4	11.4	2.2	100.0 (140)
판매/서비스	1.1	3.1	8.3	31.5	27.1	21.7	7.2	100.0 (447)
기능/노무	2.3	6.0	12.8	39.8	21.8	14.3	3.0	100.0 (133)
농림어업/기타	—	4.9	2.4	7.3	14.6	24.4	46.4	100.0 ( 41)
미취업	—	1.9	5.6	40.1	22.2	24.5	5.7	100.0 (212)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1.7	8.2	14.7	49.1	13.8	10.8	1.7	100.0 (232)
임시/일용근로자	1.2	2.3	4.7	42.4	22.4	18.8	8.2	100.0 ( 85)
고용주/단독자영업자	1.0	3.0	8.5	29.5	28.5	21.5	8.0	100.0 (400)
무급가족종사자/기타	—	—	—	15.9	15.9	34.1	34.1	100.0 ( 44)
미취업	—	1.9	5.7	40.1	22.2	24.5	5.6	100.0 (212)

주: 1) 현재 취업중인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973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본인 응답자의 일반특성별 배우자의 예상 은퇴 연령을 제시한 것임을 유의할 것.

3) \* p < 0.05, \*\* p < 0.01, \*\*\* p < 0.001



□ 취업 중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소득 안정성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응답(매우 또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비율이 40.4%이며(표 5-29 참조), 취업 중인 배우자의 경우 긍정적인 응답 비율은 이보다 조금 높은 46.2%임(표 5-30 참조).

○ 보다 구체적으로 응답자 본인의 소득 안정성을 살펴보면, ‘비교적 안정적이다’가 34.9%, ‘보통이다’ 33.3%, ‘비교적 불안정하다’ 23.5%, ‘매우 안정적이다’ 5.5%, ‘매우 불안정하다’ 2.8%임.

－ 응답자의 제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자의 소득 안정성이 높은 편임.

- 긍정적인 응답 비율은 남성 43.4%, 여성 36.3%이며, 유배우자 41.3%, 무배우자 35.8%임.

－ 연령별로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소득 안정성이 감소하는 경향성이 있으며, 지역별로는 농어촌이 도시지역에 비해 소득 안정성이 높음.

- 30대의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46.3%로 최대, 60대 33.0%로 최저임.

- 농어촌의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47.6%, 중소도시 42.3%, 대도시 37.1%임.

－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소득 안정성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직종별로는 관리/전문/사무직이 63.7%로 가장 높고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58.8%로 가장 높음.

○ 응답자의 제특성별 배우자의 소득 안정성을 살펴보면, 응답자 본인의 연령별 및 지역별 경향성과 유사함(표 5-30 참조).

－ 그러나 응답자의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 안정성에 대한 긍정적인 비율이 53.2%로 남성(34.8%)에 비해 18.4%p 더 많음.

－ 직종별로는 관리/전문/사무직인 경우 소득 안정성에 대한 긍정적인 비율이 60.0%로 가장 많고,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미취업자의 경우에도 배우자의 소득 안정성에 대한 긍정적인 비율이 50%대로 많은 편임(각각 52.2%, 53.7%).

- 또한 응답자 본인이 미취업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 안정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더 높음(미취업 53.7%, 취업 44.2%).



〈표 5-29〉 일반특성별 본인의 소득 안정성

(단위: %, 명)

구분	매우 불안정하다	비교적 불안정하다	보통이다	비교적 안정적이다	매우 안정적이다	계(명) <sup>1)</sup>
전체	2.8	23.5	33.3	34.9	5.5	100.0(1,213)
성별*						
남성	2.8	21.6	32.2	37.1	6.3	100.0( 704)
여성	2.8	26.1	34.8	31.8	4.5	100.0( 509)
혼인상태***						
유배우자	2.1	22.1	34.5	35.3	6.0	100.0(1,017)
무배우자 <sup>2)</sup>	6.6	30.6	27.0	32.7	3.1	100.0( 196)
연령**						
30대	1.7	22.3	29.6	37.4	8.9	100.0( 179)
40대	2.6	21.6	31.1	38.1	6.7	100.0( 431)
50대	2.9	22.5	37.9	33.5	3.2	100.0( 409)
60대	4.1	30.9	32.0	28.4	4.6	100.0( 194)
지역**						
대도시	2.6	23.9	36.4	32.2	4.9	100.0( 549)
중소도시	3.6	24.5	29.7	37.7	4.6	100.0( 563)
농어촌	0.0	15.8	36.6	33.7	13.9	100.0( 101)
학력***						
초졸 이하	9.2	32.9	30.3	26.3	1.3	100.0( 76)
중졸	2.0	30.7	33.7	28.7	5.0	100.0( 101)
고졸	3.2	23.6	35.1	34.6	3.5	100.0( 598)
전문대졸	3.0	26.7	36.3	29.6	4.4	100.0( 135)
대졸 이상	0.7	17.2	29.0	41.9	11.2	100.0( 303)
직업***						
관리/전문/사무	0.4	8.0	27.9	47.8	15.9	100.0( 226)
판매/서비스	4.1	28.4	35.0	30.6	1.9	100.0( 677)
기능/노무	2.0	26.2	31.6	36.3	3.9	100.0( 256)
농림어업/기타	0.0	14.8	42.6	27.8	14.8	100.0( 54)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0.7	9.7	30.8	47.1	11.7	100.0( 412)
임시/일용근로자	5.6	49.3	27.5	16.2	1.4	100.0( 142)
고용주/단독자영업자	3.8	26.6	35.7	31.6	2.3	100.0( 613)
무급가족종사자/기타	0.0	26.1	41.3	26.1	6.5	100.0 ( 46)

주: 1) 현재 취업 중인 1,213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 p &lt;0.05, \*\* p &lt;0.01, \*\*\* p &lt;0.001



〈표 5-30〉 일반특성별 배우자의 소득 안정성

(단위: %, 명)

구분	매우 불안정하다	비교적 불안정하다	보통이다	비교적 안정적이다	매우 안정적이다	계(명) <sup>1)</sup>
전체	2.4	19.0	32.4	38.1	8.1	100.0(973)
성별***						
남성	3.0	26.2	35.9	28.6	6.2	100.0(370)
여성	2.0	14.6	30.2	43.9	9.3	100.0(603)
연령***						
30대	1.4	11.4	20.7	51.4	15.0	100.0(140)
40대	1.4	17.6	30.2	40.5	10.3	100.0(358)
50대	3.2	20.4	38.1	34.2	4.1	100.0(339)
60대	3.7	27.2	36.0	27.9	5.1	100.0(136)
지역*						
대도시	2.1	20.5	33.3	35.8	8.4	100.0(430)
중소도시	2.6	19.9	31.5	38.9	7.0	100.0(457)
농어촌	2.3	7.0	32.6	45.3	12.8	100.0( 86)
학력***						
초졸 이하	6.7	21.7	41.7	30.0	0.0	100.0( 60)
중졸	4.6	27.7	43.1	18.5	6.2	100.0( 65)
고졸	1.2	22.3	33.4	37.5	5.5	100.0(506)
전문대졸	3.3	13.8	24.4	44.7	13.8	100.0(123)
대졸 이상	2.7	11.0	28.8	43.8	13.7	100.0(219)
취업 여부*						
취업	2.2	21.2	32.5	35.9	8.3	100.0(761)
미취업	2.8	11.3	32.1	46.2	7.5	100.0(212)
직업***						
관리/전문/사무	1.4	12.1	26.4	45.7	14.3	100.0(140)
판매/서비스	2.9	23.0	34.7	33.1	6.3	100.0(447)
기능/노무	1.5	26.3	29.3	36.1	6.8	100.0(133)
농림어업/기타	0.0	14.6	39.0	31.7	14.6	100.0( 41)
미취업	2.8	11.3	32.1	46.2	7.5	100.0(212)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1.3	19.0	27.6	40.1	12.1	100.0(232)
임시/일용근로자	3.5	22.4	34.1	30.6	9.4	100.0( 85)
고용주/단독자영업자	2.8	21.5	34.8	35.0	6.0	100.0(400)
무급가족종사자/기타	0.0	27.3	34.1	31.8	6.8	100.0( 44)
미취업	2.8	11.3	32.1	46.2	7.5	100.0(212)

주: 1) 현재 취업중인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973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본인 응답자의 일반특성별 배우자의 예상은퇴 연령을 제시한 것임을 유의할 것.

3) \* p <0.05, \*\* p <0.01, \*\*\* p <0.001



□ 취업 중인 응답자의 39.1%는 현재의 소득활동을 그만둔 이후 제2의 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됨(표 5-31 참조).

○ 보다 구체적으로, 제2의 일에 대한 준비경험에 대해 ‘필요성이 없어 별다른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가 60.9%로 가장 많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30.1%, ‘제2의 일을 준비하기 위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6.4%,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단계이다’ 2.6% 순임.

○ 응답자의 제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의 제2의 일에 대한 무관심 비율(별다른 준비 하지 않음)이 남성보다 높고(여성 62.7%, 남성 59.7%),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 30대 53.1%, 40대 55.5%, 50대 63.1%, 60대 75.8%의 순임.
- － 지역별로는 농어촌이 도시지역에 비해 무관심 비율이 높고,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무관심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 농어촌 74.3%, 중소도시 57.9%, 대도시 61.6%
- 초졸 이하 81.6%로 최대, 대졸 이상 48.5%로 최저
- － 취업자의 직종별로는 농림어업/기타의 무관심 비율이 74.1%로 가장 높고, 종사상지위별로는 고용주/단독자영업자가 70.3%로 가장 높음.
- 직종별 및 종사상지위별 최저는 관리/전문/사무직(43.8%)과 상용근로자(49.3%)임.



〈표 5-31〉 일반특성별 제2의 일을 위한 본인 준비여부

(단위: %, 명)

구분	별다른 준비하지 않음	관심을 가지고 있음	제2의 일 준비 위해 방법을 모색 중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단계	계(명) <sup>1)</sup>
전체	60.9	30.1	6.4	2.6	100.0(1,213)
성별*					
남성	59.7	29.4	7.7	3.3	100.0( 704)
여성	62.7	31.0	4.7	1.6	100.0( 509)
혼인상태					
유배우자	61.5	29.9	6.2	2.5	100.0(1,017)
무배우자	58.2	31.1	7.7	3.1	100.0( 196)
연령***					
30대	53.1	38.0	6.1	2.8	100.0( 179)
40대	55.5	32.0	9.7	2.8	100.0( 431)
50대	63.1	29.3	5.1	2.4	100.0( 409)
60대	75.8	20.1	2.1	2.1	100.0( 194)
지역**					
대도시	61.6	30.8	6.4	1.3	100.0( 549)
중소도시	57.9	31.8	6.4	3.9	100.0( 563)
농어촌	74.3	16.8	6.9	2.0	100.0( 101)
학력***					
초졸 이하	81.6	15.8	1.3	1.3	100.0( 76)
중졸	78.2	19.8	2.0	0.0	100.0( 101)
고졸	63.0	28.8	5.5	2.7	100.0( 598)
전문대졸	54.8	31.1	10.4	3.7	100.0( 135)
대졸 이상	48.5	39.3	9.2	3.0	100.0( 303)
직업***					
관리/전문/사무	43.8	40.7	10.6	4.9	100.0( 226)
판매/서비스	66.9	25.8	5.6	1.6	100.0( 677)
기능/노무	57.4	34.4	5.5	2.7	100.0( 256)
농림어업/기타	74.1	18.5	3.7	3.7	100.0( 54)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49.3	39.3	7.5	3.9	100.0( 412)
임시/일용근로자	51.4	42.3	6.3	0.0	100.0( 142)
고용주/단독자영업자	70.3	22.2	5.5	2.0	100.0( 613)
무급가족종사자/기타	69.6	15.2	8.7	6.5	100.0( 46)

주: 1) 현재 취업 중인 1,213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 p &lt;0.05, \*\* p &lt;0.01, \*\*\* p &lt;0.001



## 나. 현재 자산 상태

□ 연금소득과 자산소득 등을 포함하여 노후소득은 월평균 약 170만원으로 예상되었음(표 5-32 참조).

○ 응답자의 제특성별로 분석해 보면, 혼인상태에서 유배우자(187만원)가 무배우자(79만원)에 비해, 지역별로 도시(대도시 159만원, 중소도시 185만원)가 농어촌(144만원)에 비해, 월평균 예상 노후소득이 많음.

－ 연령별로는 연령이 많을수록 월평균 예상 노후소득이 감소하고,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 30대 191만원, 40대 180만원, 50대 172만원, 60대 131만원
- 초졸 이하 85만원, 중졸 115만원, 고졸 151만원, 전문대졸 176만원, 대졸 이상 257만원 순으로, 교육수준에 따라 월평균 예상 노후소득의 차이는 최대 172만원임.

－ 취업자의 직종별로는 관리/전문/사무직이 287만원으로 가장 많고,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224만원으로 가장 많음.

- 직종별 최저수준은 농림어업/기타의 경우 124만원으로, 직종에 따른 월평균 예상 노후소득의 차이는 최대 163만원임.
- 종사상지위별 최저수준은 임시/일용근로자가 116만원으로, 종사상지위에 따라 최대 108만원의 차이가 확인됨.

○ 월평균 예상 노후소득의 구성을 살펴보면 연금소득이 120만원으로 전체 노후소득의 약 70%를 차지하며, 자산소득은 약 50만원임.

－ 응답자 제특성별 월평균 예상 연금소득과 자산소득의 경향성은 노후소득과 유사함.

- 다만 연금소득과 자산소득에서는 취업여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연금소득은 취업자(124만원)가 미취업자(103만원)보다 많지만 자산소득은 반대로 미취업자(62만원)가 취업자(47만원) 보다 많음.
- 자산소득의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30대 37만원, 40대 43만원, 50대 60만원, 60대 56만원(단, 60대 예외)).



〈표 5-32〉 일반특성별 월평균 예상 노후소득

(단위: 만원, 명)

구분	노후소득		연금소득		자산소득		대상자 수(명)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69.6	155.2	119.5	126.1	50.1	78.6	(1,539)
성별							
남성	162.5	146.5	116.1	128.1	46.4	52.8	( 776)
여성	176.8	163.4	122.8	124.0	54.0	98.0	( 763)
혼인상태	***		***		***		
유배우자	187.0	158.4	132.1	129.3	54.9	83.0	(1,292)
무배우자	78.5	95.1	53.5	80.3	25.0	41.6	( 247)
연령	***		***		***		
30대	191.4	158.0	153.9	144.0	37.4	48.5	( 230)
40대	180.2	150.6	137.1	130.9	43.1	52.1	( 518)
50대	172.2	162.9	112.4	115.8	59.8	105.6	( 486)
60대	131.0	141.8	74.8	103.6	56.2	81.7	( 305)
지역	**		***				
대도시	158.6	137.1	104.5	109.7	54.1	62.8	( 701)
중소도시	184.6	174.0	136.9	140.0	47.8	95.2	( 716)
농어촌	144.2	127.0	103.0	114.7	41.3	44.6	( 122)
학력	***		***		**		
초졸 이하	84.6	86.6	46.0	64.8	38.7	46.4	( 118)
중졸	115.1	124.7	76.3	111.7	38.8	37.5	( 148)
고졸	151.4	147.8	101.8	107.8	49.7	94.8	( 746)
전문대졸	175.5	131.2	131.7	104.1	43.8	69.4	( 175)
대졸 이상	256.6	172.3	193.7	155.2	62.8	63.6	( 352)
취업 여부			**		**		
취업	170.8	147.7	123.8	129.9	47.0	51.2	(1,213)
미취업	164.9	180.7	103.3	109.2	61.6	138.9	( 326)
직업	***		***		**		
관리/전문/사무	287.4	183.6	231.4	163.6	56.0	62.4	( 226)
판매/서비스	145.6	121.3	99.6	102.8	45.9	46.7	( 677)
기능/노무	144.6	130.5	104.9	117.3	39.7	44.1	( 256)
농림어업/기타	124.0	120.9	65.8	96.5	58.2	74.2	( 54)
미취업	164.9	180.7	103.3	109.2	61.6	138.9	( 326)
종사상지위	***		***		***		
상용근로자	223.7	173.5	182.2	158.9	41.6	46.2	( 412)
임시/일용근로자	115.7	114.0	82.2	99.5	33.5	40.4	( 142)
고용주/단독자영업자	150.7	126.5	98.1	101.2	52.6	54.2	( 613)
무급가족종사자/기타	135.0	110.7	71.7	72.6	63.3	66.6	( 46)
미취업	164.9	180.7	103.3	109.2	61.6	138.9	( 326)

주: 1) 무응답은 평균으로 대체하여 계산함.

2) \* p &lt; 0.05, \*\* p &lt; 0.01, \*\*\* p &lt; 0.001



### 제3절 영역별 노후준비수준 진단

#### 1. 노후준비수준 진단 개요

□ 영역별 노후준비수준의 진단과정은 [그림 5-1] 과 같음.

- 하위영역별로 지표를 10점으로 표준화한 후, 보건복지부(2012a)에서 개발한 하위영역별 가중치를 곱함. 그리고 하위영역별 최대값으로 나눈 후 합산하면 최종 노후준비수준이 계산됨.
- 지표표준화 과정은 선택문항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그림 5-2] 에서 자세히 볼 수 있음.
  -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이웃의 수(A7)는 보건복지부(2012a)에서 0명과 1명을 1점으로 하였으나, 친구가 없는 것(0명)과 1명이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이므로 0명에 0점, 1명에 1점을 부여하며 5명 이상 5점이 되도록 조정함.
    - 보건복지부(2012a)에서는 0점 0~1명, 1점 2명, 2점 3명, 3점 4명, 4점 5명, 5점 6명 이상임.
  -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모임의 수도 마찬가지로 없음에 0점, 1개에 1점을 부여하며 5개 이상 5점이 되도록 조정함.
    - 보건복지부(2012a)에서는 0점 없음/1개, 1점 2개, 2점 3개, 3점 4개, 4점 5개, 5점 6개 이상임.
  - 평소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B3)의 선택문항은 기존 4개에서 5개로 조정함.
    - 보건복지부(2012a)에서는 1점 대단히 많이 느낀다, 2점 많이 느끼는 편이다, 3점 조금 느끼는 편이다, 4점 거의 느끼지 않는다임.
    - ‘보통이다’를 추가하여 3점으로 하고, ‘조금 느끼는 편이다’는 4점, ‘거의 느끼지 않는다’는 5점으로 변경됨.
  - 제2의 일을 위한 본인 준비여부(D5)는 보건복지부(2012a)에서 이미 제2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 10점을 부여하였으나, 해당 문항은 조사 시 선택문항



에서 삭제하여 지표 환산과정에서 반영하지 않음.

- 따라서 제2의 일을 위한 본인 준비여부는 최소 0점에서 최대 8점이 됨(그림 5-2 참조).

[그림 5-1] 영역별 노후준비수준 진단과정

영역	하위영역	지표	지표표준화(a) <sup>1)</sup>	하위영역가중치(b)	하위영역최대값(c) <sup>2)</sup>	노후준비수준
사회적관계(A)	배우자관계	A1.배우자와의 대화 충분성 A2.배우자와의 동반 외출 빈도	선택문항×2점	37	20	하위영역별 'a×b/c' 점수 합산
	자녀관계	A3.자녀와의 대화 정도	선택문항×2점	23	10	
	형제자매관계	A4.본인(배우자) 형제자매와의 접촉연락 빈도 A5.형제자매의 도움 정도	선택문항×2점	15	20	
	친구이웃관계	A6.친구와 만남 빈도 A7.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이웃의 수 A8.친구이웃의 도움 정도	선택문항×2점	15	30	
	단체활동	A9.자발적으로 참석하는 모임의 수	선택문항×2점	10	10	
건강한생활습관(B)	현재건강상태	B1.동년배와 비교한 주관적 건강상태 B2.현재 앓고 있는 만성질환의 수 B3.평소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B8.비만지수(BMI)	선택문항×2점 (단 B2는×25점)	53	40	하위영역별 'a×b/c' 점수 합산
	건강생활실천	B4.현재 흡연 여부 B5.최근 6개월간 음주 정도 B6.최근 6개월간 규칙적 운동 정도 B7.균형적인 영양 섭취를 위한 노력 정도 B9.최근 6개월간 건강 체중 유지 노력 정도 B10.1일 수면시간 충분 정도 B11.정기적 건강검진 정도	선택문항×2점 (단 B5는×25점)	47	70	
여가활동(C)	노후여가생활인식	C1.노후 취마여가활동 고려 여부 C2.노후를 고려한 취마여가활동 참여 경험 C3.노후 취마여가활동 변화 예상	선택문항×2점 (단 C2는×25점)	48	30	하위영역별 'a×b/c' 점수 합산
	현재여가생활	C4.동년배와 비교한 취마여가활동 정도 C5.취마여가활동 지속 기간	선택문항×2점	52	20	
소득과자산(D)	준비여건 및 인식	D1.본인의 예상 은퇴 연령 D2.배우자의 예상 은퇴 연령 D3.본인의 소득 안정성 D4.배우자의 소득 안정성 D5.제2의 일을 위한 본인 준비여부	선택문항×1점 <sup>3)</sup>	54	38	하위영역별 'a×b/c' 점수 합산
	현재자산상태	D6.본인(배우자)의 월평균 예상 노후소득	응답액 반영 최대 50	46	50	

주: 1) 지표표준화과정에서 지표별 선택문항은 [그림 5-2] 참조

2) 하위영역별 최대값임.

3) 노후소득의 준비여건 및 인식 관련 지표는 본인과 배우자 지표는 각각 최대 10점과 5점이며, 제2의 일을 위한 본인 준비여부는 최대 8점임.



[그림 5-2] 노후준비지표별 선택문항의 점수

영역	하위 영역	지표	선택문항 점수
사회적 관계 (A)	배우자 관계	A1. 배우자와의 대화 충분성 A2. 배우자와의 동반 외출 빈도	A1 '0점: 배우자 없음,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별로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대체로 그런 편이다, 5점: 매우 그렇다' A2 '0점: 배우자 없음, 1점: 6개월에 1번 미만, 2점: 3개월에 1번 정도, 3점: 한 달에 1번 정도, 4점: 격주에 1번 정도, 5점: 매주 1번 정도'
	자녀 관계	A3. 자녀와의 대화 정도	A3. 0점: 자녀 없음,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별로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대체로 그런 편이다, 5점: 매우 그렇다
	형제·자매 관계	A4. 본인(배우자) 형제자매와의 접촉연락 빈도 A5. 형제자매의 도움 정도	A4 '0점: 형제자매 없음, 1점: 6개월에 1번 미만, 2점: 3개월에 1번 정도, 3점: 한 달에 1번 정도, 4점: 격주에 1번 정도, 5점: 매주 1번 정도' A5 '0점: 형제자매 없음,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별로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대체로 그런 편이다, 5점: 매우 그렇다'
	친구·이웃 관계	A6. 친구와 만남 빈도 A7.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이웃의 수 A8. 친구이웃의 도움 정도	A6 '0점: 친구 없음, 1점: 6개월에 1번 미만, 2점: 3개월에 1번 정도, 3점: 한 달에 1번 정도, 4점: 격주에 1번 정도, 5점: 매주 1번 정도' A7 '0점: 친구 없음, 1점: 1명, 2점: 2명, 3점: 3명, 4점: 4명, 5점: 5명 이상' A8 '0점: 친구이웃 없음,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별로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대체로 그런 편이다, 5점: 매우 그렇다'
	단체 활동	A9. 정기적·자발적으로 참석하는 모임의 수	A9 '0점 없음, 1점: 1개, 2점: 2개, 3점: 3개, 4점: 4개, 5점: 5개 이상'
건강한 생활 습관 (B)	현재 건강 상태	B1. 동년배와 비교한 주관적 건강상태 B2. 현재 앓고 있는 만성질환의 수 B3. 평소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B8. 비만지수(BMI)	B1 '1점: 대단히 나쁘다, 2점: 조금 나쁜 편이다, 3점: 보통이다, 4점: 대체로 건강한 편이다, 5점: 매우 건강한 편이다' B2 '1점: 3개 이상, 2점: 2개, 3점: 1개, 4점: 없다' B3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별로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대체로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 B8 '2점: 고도비만(35점 이상), 5점: 중등도 비만(30~35점 미만), 7점: 경도비만(25~30점 미만) 또는 저체중(18.5미만), 9점: 과체중(23~25미만), 11점: 정상(18.5~23미만)
	건강 생활 실천	B4. 현재 흡연 여부 B5. 최근 6개월간 음주 정도 B6. 최근 6개월간 규칙적 운동 정도 B7. 균형적인 영양 섭취를 위한 노력 정도 B9. 최근 6개월간 건강 체중 유지 노력 정도 B10. 1일 수면시간 충분 정도 B11. 정기적 건강검진 정도	B4 '1점: 매일 피운다, 2점: 가끔 피운다, 3점: 과거에 피웠으나 현재는 피우지 않는다, 4점: 전혀 피우지 않는다' B5 '1점: 거의 매일, 2점: 1주일에 1번 정도, 3점: 한달에 1번 정도, 4점: 한달에 1번 미만, 5점: 전혀 없다' B6-B12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별로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대체로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



[그림 5-2] 노후준비지표별 선택문항의 점수(계속)

영역	하위 영역	지표	선택문항 점수
여가 활동 (C)	노후여가 생활인식	C1.노후 취마여가활동 고려 여부 C2.노후를 고려한 취마여가활동 참여 경험 C3.노후 취마여가활동 변화 예상	C1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별로 그렇지 않다, 3점 보통 이다, 4점 대체로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 C2 '1점 전혀 없다, 2점 시작한 적은 있으나 현재는 하고 있 지 않다, 3점 한 가지 정도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하고 있다, 4점 두 가지 이상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하고 있다' C3 '1점 지금보다 상당히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2점 지 금보다 조금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3점 큰 변화가 없 을 것으로 예상한다, 4점 지금보다 조금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5점 지금보다 상당히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여가생활	C4.동년배와 비교한 취마여가활동 정도 C5.취마여가활동 지속 기간	C4 '1점 매우 활발하지 않다, 2점 별로 활발하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대체로 활발하다, 5점 매우 활발하다' C5 '1점 없음, 2점 1년 이내, 3점 1~3년 이내, 4점 3~5년 이내, 5점 5년 이상'
소득 과 자산 (D)	노후소득 준비여건 및 인식	D1.본인의 예상 은퇴 연령 D2.배우자의 예상 은퇴 연령 D3.본인의 소득 안정성 D4.배우자의 소득 안정성 D5.제2의 일을 위한 본인 준비여부	D1 '0점 미취업, 2점 49세 이하, 4점 50~54세, 6점 55~59 세, 8점 60~64세, 10점 65세 이상' D2 '0점 미취업, 1점 49세 이하, 2점 50~54세, 3점 55~59 세, 4점 60~64세, 5점 65세 이상' D3 '0점 미취업, 2점 매우 불안정하다, 4점 비교적 불안정하 다, 6점 보통이다, 8점 비교적 안정적이다, 10점 매우 안 정적이다' D4 '0점 미취업, 1점 매우 불안정하다, 2점 비교적 불안정하 다, 3점 보통이다, 4점 비교적 안정적이다, 5점 매우 안 정적이다' D5 '0점 미취업, 2점 필요성이 없어 별다른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 4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6 점 제2의 일을 준비하기 위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8점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단계이다
	현재 자산상태	D6.본인(배우자)의 월평균 예상 노후소득	D6.응답액 ÷ 225(142) × 50점 *225만원(142만원)은 국민연금연구원의 제5차 국민노후보장 패널에서 조사된 적정생활비임 단 225만원은 부부, ( )의 142만원은 개인으로 혼인상태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적용함 *최대값이 50점을 넘지 않도록, 225(142)을 응답액의 상 한으로 설정

주: 본인(배우자)의 월평균 예상 노후소득에서 기준금액은 보건복지부(2012a)에서 130만원을 적용한 이후 변동이 없었으나, 2017년부터는 가장 최근 자료로 업데이트하여 활용. 송현주 외(2014)에서 "표준적인 노후생활의 유지하  
는 데 필요로 하는 적정 생활비는 부부 기준 약 225만원, 개인 기준 약 142만원(p.110)"으로 조사됨.



## 2. 영역별 노후준비수준

### 가. 노후준비수준

□ 영역별 노후준비수준을 살펴보면 4대 영역의 노후준비수준을 종합한 점수는 62.8점이며, 영역별로는 건강한 생활습관 영역이 73.1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사회적 관계 61.1점, 여가활동 60.2점, 소득과 자산 54.8점 순임(표 5-33 참조).

○ 노후준비는 각 영역을 모두 균형있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소득과 자산 영역에 대한 노후준비 제고 노력이 필요해 보임.

〈표 5-33〉 영역별 노후준비수준

(단위: 점)

영역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합	62.8	11.2	25.7	92.1
사회적 관계	61.1	18.7	6.0	99.0
건강한 생활습관	73.1	8.7	45.7	98.7
여가활동	60.2	16.1	20.8	100.0
소득과 자산	54.8	21.0	0	98.6

주: 1) 영역별로 100점 만점임.

2) (사회적 관계×17)+(건강한 생활습관×34)+(여가활동×14)+(소득과 자산×35)/100

□ 한편 2012년 노후준비수준 결과<sup>12)</sup>와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하면, 사회적 관계 영역은 변동이 없는 반면 건강한 생활습관 영역은 1.9점(2012년 75점) 하락, 여가활동 영역과 소득과 자산 영역은 각각 14.1점과 7.7점(2012년 각각 46.1점, 47.1점) 상승함.

○ 여가활동 영역과 소득과 자산 영역에서의 변화가 노후준비수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여가활동의 경우 현재 취미·여가생활 수준을 절대적인 기준에서 동년배와 비교하는 상대적인 기준으로 변경하였음.

－ 소득과 자산의 경우 조사대상의 일부는 이미 연금과 퇴직금을 수령하고 있

12) 홍백의 외(2012)의 노후준비실태조사 결과임. 단, 홍백의 외(2012)는 만 35~64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함에 따라 본 조사대상(만 35~69세 1,500명)과 차이를 둬.



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이므로, 노후준비수준의 상승은 예상된 결과임.

□ 응답자의 제특성별로 노후준비수준의 차이가 있는데, 성별로는 여성(63.5점)이 남성(62.1점)보다 노후준비수준이 1.4점 높고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자(65.2점)가 무배우자(50.6점)보다 14.6점 높음(표 5-34 참조).

○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노후준비수준이 높고, 학력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자가 미취업자에 비해 노후준비수준이 높은 특성이 있음.

-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취업자의 직종별 노후준비수준의 차이가 가장 큰데, 관리/전문/사무직의 노후준비수준이 70.6점으로 가장 높음.
-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기타가 각각 66.7점으로 가장 높음.

□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영역별 노후준비수준을 살펴보면, 혼인상태는 모든 영역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유배우자가 무배우자에 비해 노후준비수준이 더 양호함.

○ 특히 배우자 유무가 노후준비지표로 구성되는 사회적 관계 영역에서 유배우자의 노후준비수준은 67.2점으로 무배우자 29.2점에 비해 38점이 높게 나타남.

○ 그 외에는 각 영역별로 노후준비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제특성이 다르며, 사회적 관계는 성별과 연령, 학력, 취업자의 직종과 종사상지위 등이 영향을 미침.

- 여성인 경우, 40~50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관리/전문/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 종사상지위가 무급가족종사자/기타인 경우 사회적 관계에 대한 노후준비수준이 더 높음.
- 건강한 생활습관 영역은 여성(75.6점)이 남성(70.6점)에 비해 높음.
- 여가활동 영역은 성별과 지역, 학력, 직종에 따라 노후준비수준이 다름.
  - 성별로 남성(61.5점)이 여성(58.8점)보다 노후준비수준이 양호하고, 지역별로는 도시(대도시 59.3점, 중소도시 61.5점)가 농어촌(57.5점)보다 양호함.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관리/전문/사무직에 종사할 경우 노후준비 수준이 더 양호함.
- 소득과 자산 영역은 연령과 학력, 취업 관련 특성에 따라 노후준비수준의 차이가 확인됨.
-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자인 경우, 관리/전문/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 종사상지위가 상용근로자인 경우 소득과 자산의 노후준비수준이 더 양호함.



〈표 5-34〉 일반특성별 노후준비 정도

(단위: 점, %, 명)

구분	종합	사회적 관계	건강한 생활습관	여가 활동	소득과 자산	계(명)
전체	62.8	61.1	73.1	60.2	54.8	100.0(1,539)
성별	*	***	***	***		
남성	62.1	59.2	70.6	61.5	55.6	100.0( 776)
여성	63.5	63.1	75.6	58.8	54.0	100.0( 763)
혼인상태	***	***	***	**	***	
유배우자	65.2	67.2	73.8	60.7	57.7	100.0(1,292)
무배우자	50.6	29.2	69.3	57.5	39.9	100.0( 247)
연령	***	***			***	
30대	63.0	59.3	73.0	59.8	56.4	100.0( 230)
40대	64.0	63.0	72.8	60.1	57.5	100.0( 518)
50대	64.2	62.0	73.6	60.6	57.7	100.0( 486)
60대	58.5	58.0	72.7	59.9	44.4	100.0( 305)
지역				**		
대도시	62.3	61.4	72.9	59.3	53.6	100.0( 701)
중소도시	63.3	60.4	73.1	61.5	56.0	100.0( 716)
농어촌	63.2	63.9	73.6	57.5	55.0	100.0( 122)
학력	***	***		***	***	
초졸 이하	54.2	52.9	70.9	53.2	38.9	100.0( 118)
중졸	57.4	56.1	72.5	56.9	43.5	100.0( 148)
고졸	62.3	60.4	72.9	59.6	53.9	100.0( 746)
전문대졸	63.9	63.3	73.5	59.8	56.6	100.0( 175)
대졸 이상	68.7	66.4	74.1	65.4	65.8	100.0( 352)
취업 여부	***				***	
취업	64.7	61.2	72.6	60.3	60.5	100.0(1,213)
미취업	55.9	60.9	74.8	59.8	33.7	100.0( 326)
직업	***	***		**	***	
관리/전문/사무	70.6	66.2	74.0	63.9	72.1	100.0( 226)
판매/서비스	63.6	60.7	72.5	59.5	58.2	100.0( 677)
기능/노무	62.4	57.4	71.6	60.0	56.7	100.0( 256)
농림어업/기타	64.1	63.8	73.4	56.5	58.1	100.0( 54)
미취업	55.9	60.9	74.8	59.8	33.7	100.0( 326)
종사상지위	***	***			***	
상용근로자	66.7	61.2	72.6	61.4	65.9	100.0( 412)
임시/일용근로자	60.3	55.6	72.5	58.7	51.4	100.0( 142)
고용주/단독자영업자	64.2	61.8	72.4	60.1	58.9	100.0( 613)
무급가족종사자/기타	66.7	68.5	75.4	56.9	61.3	100.0( 46)
미취업	55.9	60.9	74.8	59.8	33.7	100.0( 326)

주: \* p &lt;0.05, \*\* p &lt;0.01, \*\*\* p &lt;0.001



## 나. 영역별 노후준비수준의 상중하 분포

□ 노후준비수준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의 준비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도록 상중하 기준을 적용하여 제시함.

〈표 5-35〉 영역별 노후준비수준 상중하 기준

(단위: 점)

구분	상	중	하
종합	66.1	48.6 ~ 66.0	48.5
사회적 관계	70.2	44.0 ~ 70.1	43.9
건강한 생활습관	79.8	61.7 ~ 79.7	61.6
여가활동	72.6	40.6 ~ 72.5	40.5
소득과 자산	60.7	33.5 ~ 60.6	33.4

주: 1) 영역별 노후준비 상중하 기준은 홍백의 외(2012)의 영역별 상중하 기준(전문가 의견)을 기초로 하였음. 단, 여가활동의 점수는 본 연구의 노후준비수준에 맞춰 홍백의 외(2012)에 14점 상향 조정함.  
2) 종합 노후준비수준은 영역별 노후준비수준에 가중치를 곱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됨. 영역별 가중치는 보건복지부(2012)의 사회적 관계 17%, 건강한 생활습관 34%, 여가활동 14%, 소득과 자산 35%를 적용함.

자료: 홍백의 외(2012)의 〈표 46〉 각 영역별 상중하 기준(전문가 의견), p. 88에 기초함.

□ 노후준비수준은 영역별 균형이 중요하므로 영역별 상중하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홍백의 외(2012)의 상중하 기준을 적용한 결과,<sup>13)</sup> 4대 영역을 종합한 노후준비수준은 ‘상’이 41.7%, ‘중’ 46.3%, ‘하’ 12.0%임(표 5-36 참조).

– 응답자의 제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인 경우 상의 비중이 높고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자의 상의 비중이 높음.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자인 경우, 취업자의 직종과 종사상지위가 각각 관리/전문/사무직과 상용근로자인 경우 상의 비중이 높음.

○ 영역별로 살펴보면, 사회적 관계 영역은 상이 35.7%, 중 47.0%, 하 17.3%이며, 4대 영역 중에서 ‘하’의 비중이 가장 높음(표 5-37~표 5-40 참조).

– 제특성별로는 성별과 혼인상태, 연령, 학력수준, 취업자의 직종과 종사상지

13) 다만 여가활동 영역의 경우 홍백의 외(2012)를 적용할 경우 ‘상’ 38.3%, ‘중’ 60.2%, ‘하’ 1.5%임. 즉 상과 중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하가 낮는데, 노후준비지표의 변화로 인해 노후준비수준이 2012년과 비교시 14.1점 증가한 부분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 2012년 대비 2016년에 증가한 여가활동 영역 노후준비점수 7~14점을 상향 조정하여 상중하 기준을 적용함.



위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자의 직종이 관리/전문/사무직인 경우, 종사상지위가 무급가족종사자/기타인 경우 상중하 기준으로 사회적 관계 영역의 노후준비수준이 양호함(표 5-37 참조).

○ 건강한 생활습관 영역은 상 24.2%, 중 65.6%, 하 10.2%으로, 노후준비 4대 영역에서 ‘중’의 비중이 가장 높음.

- 응답자의 제특성별로는 여성, 유배우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미취업자의 경우 상의 분포가 더 높음.

○ 여가활동 영역은 상 24.2%, 중 61.1%, 하 14.7%이며, 응답자의 제특성별로는 성별과 지역, 학력, 취업자의 직종에 따라 노후준비수준 차이가 있음.

- 사회적 관계, 건강한 생활습관 영역과 반대로 남성(27.2%)이 여성(21.1%)에 비해 상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29.5%)이 도시 지역(중소도시 27.4%, 대도시 20.0%)에 비해 상의 비중이 높음.
- 고학력일수록 상의 비중이 높아지고, 취업자가 농림어업/기타직에 종사하는 경우 상의 비중이 가장 높음.

○ 소득과 자산 영역은 4대 영역 중에서 상중하의 분포가 가장 고른 편이며, 타 영역에 비해 ‘상’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 특징임.

- 상 40.8%, 중 43.5%, 하 15.7%이며, 응답자의 제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자의 ‘상’ 비중이 높음.
- 연령별로는 60대가 다른 연령에 비해 ‘하’의 비중이 높고, 학력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상’의 비중이 높음.
- 대출 이상의 ‘상’의 비중이 63.6%로 매우 높은 편인데, 이는 초졸 이하의 4배(16.1%), 중졸의 3배(20.3%)임.
- 취업자의 ‘상’의 비중이 51.7%로 높은 반면, 미취업자는 그 비중이 0%임.
- 취업자의 직종과 종사상지위에서 ‘상’의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는 관리/전문/사무직과 상용근로자임.



〈표 5-36〉 일반특성별 종합 노후준비수준의 상중하 분포

구분	(단위: %, 명)			
	상	중	하	계(명)
전체	41.7	46.3	12.0	100.0(1,539)
성별**				
남성	38.9	47.3	13.8	100.0( 776)
여성	44.4	45.4	10.2	100.0( 763)
혼인상태***				
유배우자	47.8	46.1	6.1	100.0(1,292)
무배우자	9.3	47.4	43.3	100.0( 247)
연령***				
30대	42.2	46.5	11.3	100.0( 230)
40대	45.4	44.8	9.8	100.0( 518)
50대	47.3	43.6	9.1	100.0( 486)
60대	25.9	53.1	21.0	100.0( 305)
지역				
대도시	38.9	49.2	11.9	100.0( 701)
중소도시	44.0	44.0	12.0	100.0( 716)
농어촌	43.4	43.5	13.1	100.0( 122)
학력***				
초졸 이하	19.5	45.8	34.7	100.0( 118)
중졸	19.6	57.4	23.0	100.0( 148)
고졸	38.4	50.9	10.7	100.0( 746)
전문대졸	46.3	42.9	10.8	100.0( 175)
대졸 이상	63.1	33.8	3.1	100.0( 352)
취업 여부***				
취업	47.1	45.1	7.8	100.0(1,213)
미취업	21.5	50.9	27.6	100.0( 326)
직업***				
관리/전문/사무	73.5	25.2	1.3	100.0( 226)
판매/서비스	42.4	49.0	8.6	100.0( 677)
기능/노무	37.9	50.4	11.7	100.0( 256)
농림어업/기타	38.9	53.7	7.4	100.0( 54)
미취업	21.5	50.9	27.6	100.0( 326)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57.8	36.9	5.3	100.0( 412)
임시/일용근로자	35.2	43.0	21.8	100.0( 142)
고용주/단독자영업자	42.4	50.7	6.9	100.0( 613)
무급가족종사자/기타	50.0	50.0	0.0	100.0( 46)
미취업	21.5	50.9	27.6	100.0( 326)

주: \* p &lt; 0.05, \*\* p &lt; 0.01, \*\*\* p &lt; 0.001



〈표 5-37〉 일반특성별 사회적 관계 영역의 노후준비수준 상중하 분포

구분	(단위: %, 명)			
	상	중	하	계(명)
전체	35.7	47.0	17.3	100.0(1,539)
성별**				
남성	34.9	43.8	21.3	100.0( 776)
여성	36.6	50.2	13.2	100.0( 763)
혼인상태***				
유배우자	42.6	53.7	3.7	100.0(1,292)
무배우자	0.0	11.7	88.3	100.0( 247)
연령***				
30대	38.7	34.8	26.5	100.0( 230)
40대	39.6	46.9	13.5	100.0( 518)
50대	36.2	49.6	14.2	100.0( 486)
60대	26.2	52.1	21.7	100.0( 305)
지역				
대도시	34.8	47.9	17.3	100.0( 701)
중소도시	35.1	46.9	18.0	100.0( 716)
농어촌	45.1	41.8	13.1	100.0( 122)
학력***				
초졸 이하	20.3	45.8	33.9	100.0( 118)
중졸	25.7	50.7	23.7	100.0( 148)
고졸	31.9	52.0	16.1	100.0( 746)
전문대졸	41.1	44.0	14.9	100.0( 175)
대졸 이상	50.6	36.6	12.8	100.0( 352)
취업 여부				
취업	35.5	47.2	17.2	100.0(1,213)
미취업	36.5	46.0	17.5	100.0( 326)
직업***				
관리/전문/사무	47.8	38.9	13.3	100.0( 226)
판매/서비스	32.8	50.1	17.1	100.0( 677)
기능/노무	30.9	46.1	23.0	100.0( 256)
농림어업/기타	40.7	51.9	7.4	100.0( 54)
미취업	36.5	46.0	17.5	100.0( 326)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38.6	40.5	20.9	100.0( 412)
임시/일용근로자	20.4	57.0	22.6	100.0( 142)
고용주/단독자영업자	35.7	49.4	14.9	100.0( 613)
무급가족종사자/기타	52.2	47.8	0.0	100.0( 46)
미취업	36.5	46.0	17.5	100.0( 326)

주: \* p &lt;0.05, \*\* p &lt;0.01, \*\*\* p &lt;0.001



〈표 5-38〉 일반특성별 건강한 생활습관 영역의 노후준비수준 상중하 분포

구분	(단위: %, 명)			
	상	중	하	계(명)
전체	24.2	65.6	10.2	100.0(1,539)
성별***				
남성	15.6	69.2	15.2	100.0( 776)
여성	33.0	62.0	5.0	100.0( 763)
혼인상태***				
유배우자	26.9	65.0	8.1	100.0(1,292)
무배우자	10.5	68.8	20.7	100.0( 247)
연령				
30대	26.5	61.3	12.2	100.0( 230)
40대	24.9	64.3	10.8	100.0( 518)
50대	24.1	67.9	8.0	100.0( 486)
60대	21.7	67.5	10.8	100.0( 305)
지역				
대도시	22.8	66.6	10.6	100.0( 701)
중소도시	25.8	64.4	9.8	100.0( 716)
농어촌	23.0	67.2	9.8	100.0( 122)
학력**				
초졸 이하	13.6	74.6	11.8	100.0( 118)
중졸	18.2	70.3	11.5	100.0( 148)
고졸	24.3	64.5	11.2	100.0( 746)
전문대졸	30.9	57.7	11.4	100.0( 175)
대졸 이상	27.0	67.0	6.0	100.0( 352)
취업 여부***				
취업	21.4	68.5	10.1	100.0(1,213)
미취업	34.7	54.9	10.4	100.0( 326)
직업***				
관리/전문/사무	27.4	65.0	7.5	100.0( 226)
판매/서비스	20.1	70.0	9.9	100.0( 677)
기능/노무	18.8	69.1	12.1	100.0( 256)
농림어업/기타	25.9	61.1	13.0	100.0( 54)
미취업	34.7	54.9	10.4	100.0( 326)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20.9	69.4	9.7	100.0( 412)
임시/일용근로자	21.8	65.5	12.7	100.0( 142)
고용주/단독자영업자	21.5	68.4	10.1	100.0( 613)
무급가족종사자/기타	23.9	71.7	4.4	100.0( 46)
미취업	34.7	54.9	10.4	100.0( 326)

주: \* p &lt; 0.05, \*\* p &lt; 0.01, \*\*\* p &lt; 0.001



〈표 5-39〉 일반특성별 여가활동 영역의 노후준비수준 상중하 분포

구분	(단위: %, 명)			
	상	중	하	계(명)
전체	24.2	61.1	14.7	100.0(1,539)
성별***				
남성	27.2	60.8	12.0	100.0( 776)
여성	21.1	61.3	17.6	100.0( 763)
혼인상태				
유배우자	24.7	61.3	14.0	100.0(1,292)
무배우자	21.5	59.9	18.6	100.0( 247)
연령				
30대	13.5	78.7	7.8	100.0( 230)
40대	20.4	66.8	12.4	100.0( 518)
50대	28.4	54.5	17.1	100.0( 486)
60대	31.2	48.5	20.3	100.0( 305)
지역*				
대도시	20.0	65.6	14.4	100.0( 701)
중소도시	27.4	59.6	13.0	100.0( 716)
농어촌	29.5	43.4	27.1	100.0( 122)
학력***				
초졸 이하	21.2	44.9	33.9	100.0( 118)
중졸	25.0	48.0	27.0	100.0( 148)
고졸	22.0	64.2	13.8	100.0( 746)
전문대졸	20.0	64.6	15.4	100.0( 175)
대졸 이상	31.5	63.7	4.8	100.0( 352)
취업 여부				
취업	24.2	60.4	15.4	100.0(1,213)
미취업	24.2	63.5	12.3	100.0( 326)
직업*				
관리/전문/사무	28.8	62.4	8.8	100.0( 226)
판매/서비스	21.9	61.4	16.7	100.0( 677)
기능/노무	24.6	60.2	15.2	100.0( 256)
농림어업/기타	31.5	40.7	27.8	100.0( 54)
미취업	24.2	63.5	12.3	100.0( 326)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23.3	65.0	11.7	100.0( 412)
임시/일용근로자	20.4	62.0	17.6	100.0( 142)
고용주/단독자영업자	25.9	57.4	16.7	100.0( 613)
무급가족종사자/기타	19.6	54.3	26.1	100.0( 46)
미취업	24.2	63.5	12.3	100.0( 326)

주: \* p &lt;0.05, \*\* p &lt;0.01, \*\*\* p &lt;0.001



〈표 5-40〉 일반특성별 소득과 자산 영역의 노후준비수준 상중하 분포

구분	(단위: %, 명)			
	상	중	하	계(명)
전체	40.8	43.5	15.7	100.0(1,539)
성별**				
남성	44.6	40.5	14.9	100.0( 776)
여성	36.8	46.7	16.5	100.0( 763)
혼인상태***				
유배우자	44.3	44.5	11.2	100.0(1,292)
무배우자	22.3	38.4	39.3	100.0( 247)
연령***				
30대	44.8	40.0	15.2	100.0( 230)
40대	44.6	43.2	12.2	100.0( 518)
50대	46.3	42.2	11.5	100.0( 486)
60대	22.3	48.9	28.8	100.0( 305)
지역				
대도시	37.4	48.3	14.3	100.0( 701)
중소도시	44.0	39.4	16.6	100.0( 716)
농어촌	41.0	40.2	18.8	100.0( 122)
학력***				
초졸 이하	16.1	40.7	43.2	100.0( 118)
중졸	20.3	50.7	29.0	100.0( 148)
고졸	38.2	47.1	14.7	100.0( 746)
전문대졸	39.4	48.0	12.6	100.0( 175)
대졸 이상	63.6	31.8	4.6	100.0( 352)
취업 여부***				
취업	51.7	40.8	7.5	100.0(1,213)
미취업	0.0	53.7	46.3	100.0( 326)
직업***				
관리/전문/사무	81.0	17.7	1.3	100.0( 226)
판매/서비스	46.2	45.2	8.6	100.0( 677)
기능/노무	42.2	47.7	10.1	100.0( 256)
농림어업/기타	42.6	50.0	7.4	100.0( 54)
미취업	0.0	53.7	46.3	100.0( 326)
중사상지위***				
상용근로자	65.3	29.9	4.8	100.0( 412)
임시/일용근로자	36.6	42.3	21.1	100.0( 142)
고용주/단독자영업자	46.3	47.0	6.7	100.0( 613)
무급가족종사자/기타	47.8	52.2	0.0	100.0( 46)
미취업	0.0	53.7	46.3	100.0( 326)

주: \* p &lt; 0.05, \*\* p &lt; 0.01, \*\*\* p &lt; 0.001



#### 다. 영역별 노후준비 유형

□ 영역별 노후준비수준은 상담과 교육, 연계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유형화가 필요함.

○ 사회적 관계 영역은 관계의 크기와 유형에 따라 고립형, 친족 중심형, 소규모 다층형, 대규모 다층형으로 구분함.

－ 고립형은 친족(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 및 비친족(친구·이웃)과의 관계가 모두 활발하지 못하며, 친족 중심형은 친족과의 관계는 활발한 반면 비친족과의 관계는 활발하지 못한 유형임.

－ 소규모 다층형은 친족과의 관계는 활발하지만 비친족과의 관계는 활발하지 않거나, 친족 및 비친족과의 관계가 모두 활발하지만 사회적 관계 규모가 작은 유형임.

－ 마지막으로 대규모 다층형은 친족 및 비친족과의 관계도 활발하고 사회적 관계 규모도 큰 유형임.

○ 건강한 생활습관 영역은 현재의 건강상태와 건강생활 실천행위를 기준으로 건강군 실천형, 건강군 비실천형, 건강주의군 실천형, 건강주의군 비실천형으로 유형화함.

○ 여가활동 영역은 현재 여가생활의 적극성과 노후 여가생활에 대한 인식을 기준으로 노후여가인식이 낮은 소극형, 노후여가인식이 낮은 적극형, 노후여가인식이 높은 소극형, 노후여가인식이 높은 적극형으로 유형화함.

○ 소득과 자산 영역은 노후소득준비(예상)규모와 공적자산 비율을 기준으로 노후준비가 충분한 공적자산형, 노후준비가 부족한 공적자산형, 노후준비가 충분한 사적자산형, 노후준비가 부족한 사적자산형으로 분류함.



〈표 5-41〉 영역별 노후준비 유형

영역	유형	
	기준	결과
사회적관계	· 사회적 관계의 크기(대/소) · 사회적 관계의 유형(고립/친족중심/다층)	① 고립형                      ② 친족 중심형 ③ 소규모 다층형          ④ 대규모 다층형
건강한 생활습관	· 현재 건강상태(건강/건강주의) · 건강생활 실천행위(실천/비실천)	① 건강군 실천형              ② 건강군 비실천형 ③ 건강주의군 실천형        ④ 건강주의군 비실천형
여가활동	· 노후 여가생활 인식(높음/낮음) · 현재 여가생활 적극성(적극적/소극적)	① 노후여가인식이 낮은 소극형 ② 노후여가인식이 낮은 적극형 ③ 노후여가인식이 높은 소극형 ④ 노후여가인식이 높은 적극형
소득과 자산	· 노후소득준비(예상)규모(충분/부족) · 자산 구성(공적/사적)	① 노후준비가 충분한 공적자산형 ② 노후준비가 부족한 공적자산형 ③ 노후준비가 충분한 사적자산형 ④ 노후준비가 부족한 사적자산형

□ 사회적 관계 영역의 노후준비수준 유형 분포를 살펴보면, 대규모 다층형이 41.4%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소규모 다층형 30.0%, 친족 중심형 27.4%, 고립형 1.2% 순임(표 5-42 참조).

○ 성별로는 여성,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자의 대규모 다층형 비중이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규모 다층형의 비중이 줄어들며 소규모 다층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학력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대규모 다층형 비율이 높고, 관리/전문/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 또한 대규모 다층형의 비율이 높음.

□ 건강한 생활습관 영역은 건강군 실천형이 44.9%로 가장 많고, 그 다음 건강군 비실천형 34.9%, 건강주의군 실천형 10.3%, 건강주의군 비실천형 9.9% 순임(표 5-43 참조).

○ 응답자의 제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자, 학력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군 실천형의 비율이 더 많음.

○ 연령별로는 연령이 많을수록 건강주의군 실천형과 건강주의군 비실천형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단, 50대 제외).



□ 다른 영역과 비교하여 여가활동 영역은 유형간 분포가 고른 편이며, ‘노후여가인식이 높은 적극형’ 33.0%, ‘노후여가인식이 높은 소극형’ 15.3%, ‘노후여가인식이 낮은 적극형’ 30.8%, ‘노후여가인식이 낮은 소극형’ 20.9% 임(표 5-44 참조).

○ 응답자의 제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과 지역, 학력 등에서 여가활동의 노후준비 수준 유형 차이가 있음.

- 연령이 젊을수록 노후여가인식이 높은 편이며, 현재 여가활동에도 적극적인 경향이 있음.
- 지역별로는 도시가 농어촌에 비해 ‘노후여가인식이 높은 적극형’의 비중이 많고, ‘노후여가인식이 낮은 소극형’의 비중이 적음.
- 학력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후여가인식이 높은 적극형’의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노후여가인식이 낮은 소극형’은 감소함.

□ 소득과 자산영역의 노후준비수준 유형을 살펴보면, ‘노후준비가 부족한 공적자산형’이 30.9%로 가장 많고 그 다음 ‘노후준비가 부족한 사적자산형’ 26.4%, ‘노후준비가 충분한 사적자산형’과 ‘노후준비가 충분한 공적자산형’이 각각 21.5%와 21.2% 순임(표 5-45 참조).

○ 다른 영역에 비해 소득과 자산영역의 노후준비수준 유형은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짐.

- 먼저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자의 경우 무배우자에 비해 노후준비가 충분한 비율이 높고, 연령별로는 연령이 적을수록 노후준비가 충분한 비율이 높음.
  - ‘노후준비가 충분한 공적자산형’과 ‘노후준비가 충분한 사적자산형’을 합산한 비율은 유배우자 45.4%, 무배우자 28.3%임.
-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의 노후소득 준비수준이 가장 양호하고, 대도시의 공적자산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이 특징임.
  - ‘노후준비가 충분한 공적자산형’과 ‘노후준비가 충분한 사적자산형’의 합이 중소도시 47%, 대도시 39.9%, 농어촌 33.6% 순임.
  - ‘노후준비가 충분한 공적자산형’과 ‘노후준비가 부족한 공적자산형’의 합



이 대도시 47.4%, 농어촌 54.9%, 중소도시 56.3%임.

- 학력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후소득 준비수준이 좋고, 취업한 경우 미취업자에 비해 공적자산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음.
- 취업자의 직종과 종사상지위별로는 각각 관리/전문/사무직과 상용근로자의 ‘노후준비가 충분한 공적자산형’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은 특징이 있음.



〈표 5-42〉 일반특성별 사회적 관계 영역의 노후준비수준 유형

(단위: %, 명)

구분	고립형	친족 중심형	소규모 다중형	대규모 다중형	계(명)
전체	1.2	27.4	30.0	41.4	100.0(1,539)
성별					
남성	1.9	24.4	33.8	39.9	100.0( 776)
여성	0.5	30.6	26.2	42.7	100.0( 763)
혼인상태***					
유배우자	0.1	27.3	23.5	49.2	100.0(1,292)
무배우자	7.3	28.3	64.4	0.0	100.0( 247)
연령*					
30대	1.3	21.7	27.4	49.6	100.0( 230)
40대	1.3	30.3	23.4	45.0	100.0( 518)
50대	1.4	25.7	34.2	38.7	100.0( 486)
60대	0.7	29.5	36.7	33.1	100.0( 305)
지역					
대도시	1.1	27.5	26.0	45.4	100.0( 701)
중소도시	1.4	27.6	33.1	37.9	100.0( 716)
농어촌	0.8	25.4	35.3	38.5	100.0( 122)
학력***					
초졸 이하	2.5	34.8	35.6	27.1	100.0( 118)
중졸	1.4	29.0	42.6	27.0	100.0( 148)
고졸	1.2	29.6	30.0	39.2	100.0( 746)
전문대졸	2.3	27.4	20.6	49.7	100.0( 175)
대졸 이상	0.3	19.6	27.5	52.6	100.0( 352)
취업 여부					
취업	1.2	26.3	31.3	41.2	100.0(1,213)
미취업	1.2	31.6	25.5	41.7	100.0( 326)
직업*					
관리/전문/사무	1.3	21.2	26.6	50.9	100.0( 226)
판매/서비스	0.9	27.6	30.7	40.8	100.0( 677)
기능/노무	2.3	27.7	36.0	34.0	100.0( 256)
농림어업/기타	0.0	24.1	35.2	40.7	100.0( 54)
미취업	1.2	31.6	25.5	41.7	100.0( 326)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1.9	23.8	31.6	42.7	100.0( 412)
임시/일용근로자	2.1	32.4	34.5	31.0	100.0( 142)
고용주/단독자영업자	0.6	26.6	31.0	41.8	100.0( 613)
무급가족종사자/기타	0.0	26.1	21.7	52.2	100.0( 46)
미취업	1.2	31.6	25.5	41.7	100.0( 326)

주: \* p &lt;0.05, \*\* p &lt;0.01, \*\*\* p &lt;0.001



〈표 5-43〉 일반특성별 건강한 생활습관 영역의 노후준비수준 유형

(단위: %, 명)

구분	건강군 실천형	건강군 비실천형	건강주의군 실천형	건강주의군 비실천형	계(명)
전체	44.9	34.9	10.3	9.9	100.0(1,539)
성별***					
남성	30.7	50.2	5.8	13.3	100.0( 776)
여성	59.4	19.3	14.9	6.4	100.0( 763)
혼인상태***					
유배우자	47.8	33.9	10.0	8.3	100.0(1,292)
무배우자	30.0	40.1	11.7	18.2	100.0( 247)
연령**					
30대	46.5	39.6	3.0	10.9	100.0( 230)
40대	43.6	40.7	5.4	10.3	100.0( 518)
50대	47.3	32.9	12.4	7.4	100.0( 486)
60대	42.0	24.6	21.0	12.4	100.0( 305)
지역					
대도시	46.5	34.0	9.1	10.4	100.0( 701)
중소도시	43.7	35.9	10.6	9.8	100.0( 716)
농어촌	42.6	34.4	15.6	7.4	100.0( 122)
학력***					
초졸 이하	32.2	24.6	29.6	13.6	100.0( 118)
중졸	39.2	31.8	18.2	10.8	100.0( 148)
고졸	45.3	35.9	8.5	10.3	100.0( 746)
전문대졸	45.7	36.6	8.0	9.7	100.0( 175)
대졸 이상	50.3	36.6	5.7	7.4	100.0( 352)
취업 여부					
취업	42.4	38.9	9.1	9.6	100.0(1,213)
미취업	54.3	20.0	15.0	10.7	100.0( 326)
직업					
관리/전문/사무	47.3	38.1	6.2	8.4	100.0( 226)
판매/서비스	42.7	35.8	11.5	10.0	100.0( 677)
기능/노무	37.1	48.8	4.3	9.8	100.0( 256)
농림어업/기타	42.6	35.2	12.9	9.3	100.0( 54)
미취업	54.3	20.0	15.0	10.7	100.0( 326)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40.8	44.2	5.6	9.4	100.0( 412)
임시/일용근로자	45.1	34.5	9.2	11.3	100.0( 142)
고용주/단독자영업자	41.4	38.4	10.6	9.6	100.0( 613)
무급가족종사자/기타	60.9	13.0	19.6	6.5	100.0( 46)
미취업	54.3	20.0	15.0	10.7	100.0( 326)

주: \* p &lt;0.05, \*\* p &lt;0.01, \*\*\* p &lt;0.001



〈표 5-44〉 일반특성별 여가활동 영역의 노후준비수준 유형

(단위: %, 명)

구분	노후여가인식이 낮은 소극형	노후여가인식이 낮은 적극형	노후여가인식이 높은 적극형	노후여가인식이 높은 적극형	계(명)
전체	20.9	30.8	15.3	33.0	100.0(1,539)
성별					
남성	18.3	34.4	13.1	34.2	100.0( 776)
여성	23.6	27.1	17.4	31.9	100.0( 763)
혼인상태					
유배우자	20.3	30.9	15.2	33.6	100.0(1,292)
무배우자	23.9	30.3	15.8	30.0	100.0( 247)
연령***					
30대	12.2	23.0	21.3	43.5	100.0( 230)
40대	21.3	29.3	16.0	33.4	100.0( 518)
50대	22.4	33.1	13.4	31.1	100.0( 486)
60대	24.6	35.4	12.5	27.5	100.0( 305)
지역*					
대도시	18.2	30.7	16.4	34.7	100.0( 701)
중소도시	22.2	31.0	14.3	32.5	100.0( 716)
농어촌	28.7	30.3	14.8	26.2	100.0( 122)
학력***					
초졸 이하	37.3	33.9	11.0	17.8	100.0( 118)
중졸	25.7	32.4	14.9	27.0	100.0( 148)
고졸	23.5	30.0	14.5	32.0	100.0( 746)
전문대졸	18.9	25.1	20.6	35.4	100.0( 175)
대졸 이상	9.1	33.5	15.9	41.5	100.0( 352)
취업 여부					
취업	20.7	31.3	14.4	33.6	100.0(1,213)
미취업	21.8	29.1	18.4	30.7	100.0( 326)
직업**					
관리/전문/사무	15.0	29.7	16.8	38.5	100.0( 226)
판매/서비스	20.0	30.4	15.2	34.4	100.0( 677)
기능/노무	25.4	35.1	9.8	29.7	100.0( 256)
농림어업/기타	31.5	29.6	16.7	22.2	100.0( 54)
미취업	21.8	29.1	18.4	30.7	100.0( 326)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18.0	29.8	15.5	36.7	100.0( 412)
임시/일용근로자	26.8	33.8	12.7	26.7	100.0( 142)
고용주/단독자영업자	20.9	32.1	13.7	33.3	100.0( 613)
무급가족종사자/기타	23.9	23.9	19.6	32.6	100.0( 46)
미취업	21.8	29.1	18.4	30.7	100.0( 326)

주: \* p &lt;0.05, \*\* p &lt;0.01, \*\*\* p &lt;0.001



〈표 5-45〉 일반특성별 소득과 자산 영역의 노후준비수준 유형

(단위: %, 명)

구분	노후준비가 충분한 공적자산형	노후준비가 부족한 공적자산형	노후준비가 충분한 사적자산형	노후준비가 부족한 사적자산형	계(명)
전체	21.2	30.9	21.5	26.4	100.0(1,539)
성별					
남성	20.2	31.1	22.7	26.0	100.0( 776)
여성	22.2	30.8	20.3	26.7	100.0( 763)
혼인상태***					
유배우자	23.0	30.6	22.4	24.0	100.0(1,292)
무배우자	11.7	32.8	16.6	38.9	100.0( 247)
연령***					
30대	32.2	26.9	22.6	18.3	100.0( 230)
40대	26.2	33.0	20.5	20.3	100.0( 518)
50대	18.5	30.9	23.9	26.7	100.0( 486)
60대	8.5	30.5	18.7	42.3	100.0( 305)
지역***					
대도시	17.8	29.6	22.1	30.5	100.0( 701)
중소도시	24.2	32.1	22.8	20.9	100.0( 716)
농어촌	22.9	32.0	10.7	34.4	100.0( 122)
학력***					
초졸 이하	5.1	37.3	7.6	50.0	100.0( 118)
중졸	8.1	39.2	13.5	39.2	100.0( 148)
고졸	17.4	34.7	19.3	28.6	100.0( 746)
전문대졸	29.1	30.3	21.7	18.9	100.0( 175)
대졸 이상	36.1	17.6	34.1	12.2	100.0( 352)
취업 여부**					
취업	22.3	31.6	21.2	24.9	100.0(1,213)
미취업	16.9	28.5	22.7	31.9	100.0( 326)
직업***					
관리/전문/사무	47.8	16.4	29.2	6.6	100.0( 226)
판매/서비스	16.1	35.7	20.1	28.1	100.0( 677)
기능/노무	19.5	35.6	17.2	27.7	100.0( 256)
농림어업/기타	7.4	24.1	20.4	48.1	100.0( 54)
미취업	16.9	28.5	22.7	31.9	100.0( 326)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40.3	25.5	22.1	12.1	100.0( 412)
임시/일용근로자	16.2	44.4	12.0	27.5	100.0( 142)
고용주/단독자영업자	12.6	32.4	23.2	31.8	100.0( 613)
무급가족종사자/기타	10.9	34.8	15.2	39.1	100.0( 46)
미취업	16.9	28.5	22.7	31.9	100.0( 326)

주: \* p &lt;0.05, \*\* p &lt;0.01, \*\*\* p &lt;0.001



## 제4절 노후준비정도 및 서비스 이용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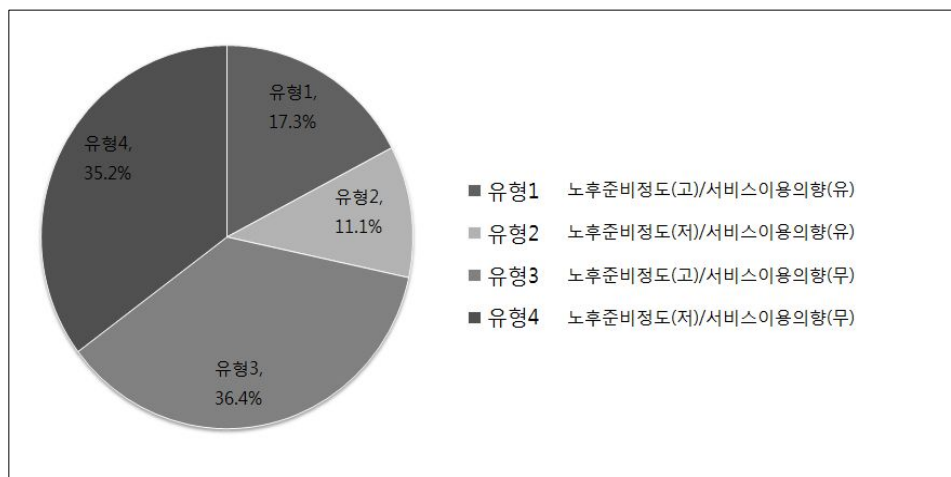
□ 현재 노후준비정도 및 향후 서비스 이용의향에 대해, 총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그림 5-3 참조).

- (유형1) 노후준비정도가 높고, 서비스 이용의향이 있는 유형(17.3%)
- (유형2) 노후준비정도가 낮지만, 서비스 이용의향이 있는 유형(11.1%)
- (유형3) 노후준비정도가 높지만, 서비스 이용의향이 없는 유형(36.4%)
- (유형4) 노후준비정도가 낮고, 서비스 이용의향도 없는 유형(35.2%)

○ 유형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유형 3(노후준비정도는 높지만, 서비스 이용의향이 없는 유형)이 전체의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유형 4(노후준비정도가 낮고, 서비스 이용의향도 없는 유형)가 35.2%임.

- 한편, 유형1(노후준비정도가 높고, 서비스 이용의향이 있는 유형)은 17.3%에 그치고 있음.
- 유형2는 서비스 이용을 독려함으로써 노후준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타겟 집단이며, 유형4는 개인의 삶의 질 저하와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할 것임.

[그림 5-3] 현재 노후준비정도 및 향후 서비스 의향에 대한 유형별 분포





□ 일반특성별로 주관적 노후준비정도와 서비스 이용의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유형별 편차를 보임(표 5-46 참조).

○ 성별에 있어 남성의 경우 유형4(노후준비정도가 낮고, 서비스 이용 의향도 없음)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여성은 유형3(노후준비정도가 높지만, 서비스 이용의향이 없는 유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남녀 모두 서비스 이용의향이 없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유인책 마련이 요구되며, 특히 남성의 경우 노후준비정도 역시 낮은 유형에 많이 속해 있어 이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이 요구됨.

○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는 유형4가 46.5%, 38.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상대적으로 은퇴시기와 가까운 50대와 60대는 유형3이 40.3%, 45.2%를 차지함.

－ 향후 성별·연령별 맞춤형 노후준비서비스 개발 시, 생애주기별로 적극적인 참여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지역별로는 대도시와 농어촌의 경우, 유형3을 차지한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중소도시는 유형4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한편, 농어촌의 경우 유형3 다음으로 유형1(노후준비정도가 높고 서비스 이용 의향 있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별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자원연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종사상지위에 있어 임시/일용직, 미취업자일 경우 유형4에 많이 포함됨. 상대적으로 노후준비에 취약할 수 있는 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요구됨.



〈표 5-46〉 일반특성별 주관적 노후준비정도와 서비스 이용의향

(단위: %, 명)

구분	노후준비정도가 높고 서비스 이용 의향 있음 (유형1)	노후준비정도가 낮지만 서비스 이용 의향 있음 (유형2)	노후준비정도가 높고 서비스 이용 의향 없음 (유형3)	노후준비정도가 낮고 서비스 이용 의향도 없음 (유형4)	계(명)
전체	17.3	11.1	36.4	35.2	100.0(1,539)
성별					
남성	16.6	10.7	35.2	37.5	100.0( 776)
여성	18.0	11.5	37.6	32.9	100.0( 763)
연령					
30대	12.2	15.7	25.7	46.5	100.0( 230)
40대	16.4	13.3	32.2	38.0	100.0( 518)
50대	19.8	9.5	40.3	30.5	100.0( 486)
60대	18.7	6.6	45.2	29.5	100.0( 305)
지역					
대도시	19.7	13.0	34.1	33.2	100.0( 701)
중소도시	13.7	10.5	36.7	39.1	100.0( 716)
농어촌	24.6	4.1	47.5	23.8	100.0( 122)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18.4	11.7	34.5	35.4	100.0( 412)
임시/일용근로자	14.1	17.6	26.8	41.5	100.0( 142)
고용주/단독자영업자	19.2	9.6	40.5	30.7	100.0( 613)
무급가족종사자/기타	19.6	4.3	39.1	37.0	100.0( 46)
미취업	13.2	11.3	35.0	40.5	100.0( 326)



# 제 3 부

##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

제6장 제1차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제7장 각 분야별 세부계획







# 제 6 장

## 제1차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

제1절 수립 방향

제2절 영역별 추진과제

제3절 종합







# 6

## 제1차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



### 제1절 수립 방향

#### 1. 장기발전방향

- 2030년까지 균형잡힌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사회구성원의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후생활과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 구현
- 장기발전방향 모색에 맥락에서의 1차 기본계획의 중점 사업 정립
  - 기반 마련을 통한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2차 기본계획)를 위한 출발점 제시
  - 인식에서 행동으로의 이행 독려

[그림 6-1] 노후준비서비스의 장기발전방향

시기	추진목표
1차 (‘16-’20)	노후준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	↓
2차 (‘21-’25)	노후준비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	↓
3차 (‘26-’30)	노후준비서비스의 공사협력체계



## 2. 1차 기본계획의 방향

### 가. 지향성

#### □ 비전 및 핵심목표

- 비전: 전 국민의 체계적 준비를 통한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후생활
- 핵심목표
  - － 누구나 원하면 언제, 어디서나 신뢰할 수 있는 노후준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반 조성

#### □ 기본원칙

- 삶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적이며, 생애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존의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연계체계** 마련
- 생애단계별로 **지속적인 점검·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서비스 제공기반 구축
  - － 향후 예견되는 지속적인 고령화와 길어진 노년기 고려시, 생애단계별로 노후준비 관심도 및 지속적인 점검·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후준비 실태조사 등의 경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
  - － 특정 연령대만이 아닌 ‘교육, 노동시장 참여, 결혼’ 등 중요한 생애사건마다 자신의 노년기까지의 삶을 점검하고 수정·완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생애주기’를 고려한 대책 마련
- 사회구성원이 **인식**과 **경험**을 나누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나. 개요

### □ 1차 기본계획임을 감안한 전략적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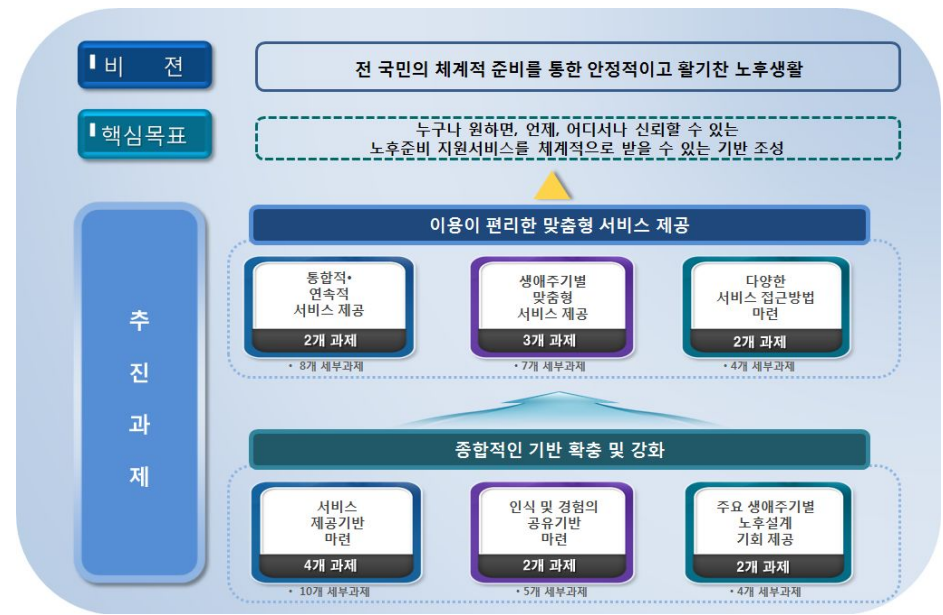
- 2010년부터 시작된 정책적 관심으로 인하여 노후준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노후준비 인식도 및 자체 만족도’에 의하면 2013년 85.7점에서 2015년 92.8점으로 상승
    - 인식제고에 비해 실제 노후준비를 위한 행동으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
- 따라서 초기단계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매우 중요
  - 이를 위하여 오피니언 리더의 관심과 참여 촉진 방안 모색과,
  - 기존 공적 서비스와의 연계성 강화를 1차 기본계획의 초점으로 설정하며,
  -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강조
    - 공적 전달체계 공고화와 더불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여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 국민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 1차 기본계획의 기본 구성

- 생애주기별 맞춤형서비스와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여,
  - 서비스의 심리적·물리적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접근방법 마련
-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별로 노후준비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공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인식 및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생애단계별로 서비스 대상자에게 통합적·연속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물적·인적 기반과 인식·경험 공유 기반 구축



[그림 6-2] 1차 기본계획의 추진과제 개요





## 제2절 영역별 추진과제

□ 총 6개의 영역 하에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

- 첫째, 모든 국민이 맞춤형 서비스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연속적인 서비스 제공,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 다양한 서비스 접근방법의 마련이라는 3개의 영역을 설정
- 둘째,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설, 인력·문화적 기반 확충 및 강화를 위해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인식 및 경험의 공유 기반 마련, 주요 생애주기별 노후준비 기회제공이라는 3개의 영역 제시

### 1. 통합적·연속적 서비스 제공

□ 종합적인 노후준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속적 서비스 체계와 지역사회 자원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됨.

□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2개의 과제 하에 8개 세부과제를 설정함.

#### ① 연속적인 서비스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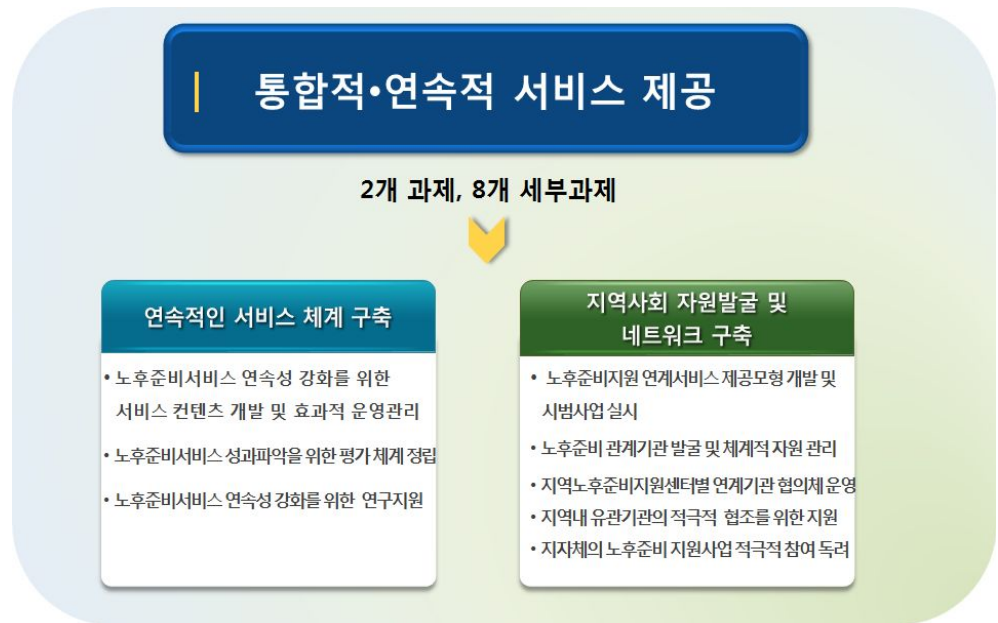
- － 노후준비서비스의 연속성 강화를 위한 서비스 콘텐츠 개발 및 효과적인 운영관리
- － 노후준비서비스의 성과 파악을 위한 평가체계 정립
- － 노후준비서비스의 연속성 강화를 위한 연구지원

#### ② 지역사회 자원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 － 노후준비지원 연계 서비스 제공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
- － 노후준비 관계 기관 발굴 및 체계적 자원 관리
-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별 연계기관 협의체 운영
- － 지역내 유관 기관의 적극적 참여 및 협조를 위한 지원
- － 지자체의 노후준비 지원사업의 적극적 참여 독려



[그림 6-3] 통합적·연속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과제





## 2.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가족주기와 경제활동 진입을 큰 축으로 하여 구성되는 다양한 생애주기별 욕구와 특성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 및 추진, 기업의 참여 독려 및 기존의 공적 사업과의 연계가 요구됨.

□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3개의 과제 하에 7개 세부과제를 제시함.

### ①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관리 기능 강화
- 정기적 평가를 통한 노후준비서비스의 지속적인 질적 개선

### ② 기업의 참여 독려

- 기업 주관 노후준비 교육 실시
- 노후준비 휴가제도의 단계적 도입
-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③ 기존 공적 사업과의 연계

- 주요 생애단계별 주요 서비스 이용시 노후준비 진단 포함
- 주요 서비스 대상자에게 노후준비서비스 안내 및 단계적으로 맞춤형 상담 제공

[그림 6-4] 생애주기별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과제





### 3. 다양한 서비스 접근 방법 마련

□ 전 국민의 정보 접근성 차이를 고려할 때 디지털 접근 방법의 강화와 찾아가는 서비스 개발을 통하여 다양한 접근 경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2개의 과제 하에 4개 세부과제를 제시함.

#### ① 디지털 접근 방법 강화

- 종합정보시스템 통합DB 구축 및 홈페이지개선
- 노후준비 진단 앱 개발

#### ② 찾아가는 서비스 개발

- 찾아가는 서비스의 타겟 설정
- 노후준비서비스 전담 콜센터(전담 번호) 운영

[그림 6-5] 다양한 서비스 접근 방법 마련을 위한 정책과제





#### 4.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후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의 확보 및 양성과 진단지표 고도화가 함께 요구됨.

□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4개의 과제 하에 10개 세부과제를 제시함.

##### ①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전달체계 확립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독자성 확보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와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역할 정립

##### ②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확보

- 기존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독자성 확보
- 다양한 공공기관의 참여 지원

##### ③ 전문성 있는 인력 확보 및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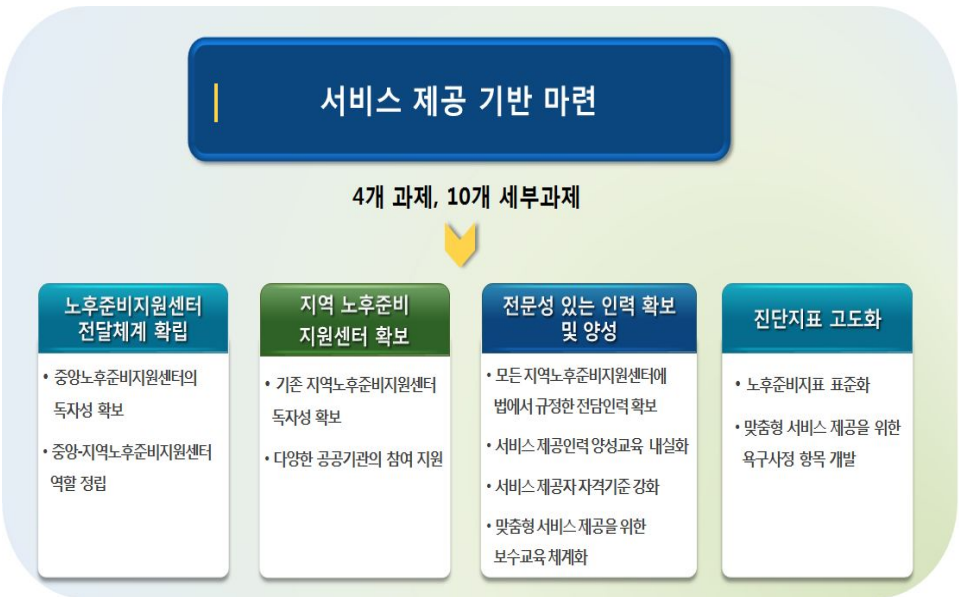
- 모든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법에서 규정한 전담인력 확보
- 서비스 제공인력 양성교육 내실화
-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강화
-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수교육 체계화

##### ④ 진단지표 고도화

- 노후준비 지표 표준화
-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욕구사정 항목 개발



[그림 6-6]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과제





## 5. 인식 및 경험의 공유 기반 마련

□ 체계적인 홍보전략 마련을 통한 노후준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용자간의 노후준비 실천경험 공유를 통해 노후준비 계획의 구체화 및 실현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2개의 과제 하에 5개 세부과제를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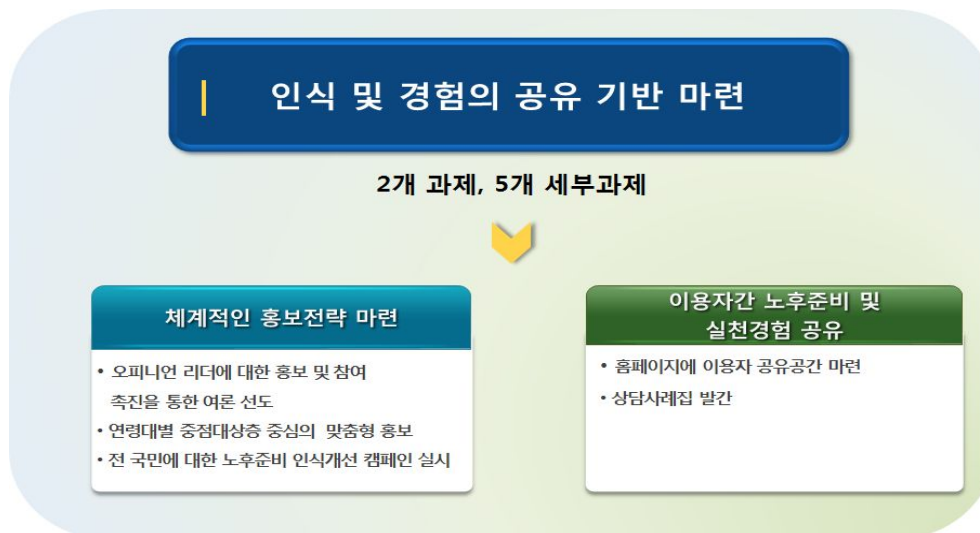
### ① 체계적인 홍보전략 마련

- 오피니언 리더에 대한 홍보와 참여 촉진을 통한 여론 선도
- 연령대별 중점대상층 중심의 맞춤형 홍보
- 전 국민에 대한 노후준비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 ② 이용자간의 노후준비 및 실천경험 공유

- 홈페이지에 이용자 공유공간 마련
- 상담사례집 발간

[그림 6-7] 인식 및 경험의 공유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과제





## 6. 주요 생애주기별 노후준비 기회 제공

□ 교육과정별 노후준비 기회 제공과 주요 생애주기별 노후준비 진단 및 설계 유도라는 2개의 과제를 통하여 주요 생애주기별 노후준비 기회를 제공하도록 설계함.

□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2개의 과제 하에 4개 세부과제를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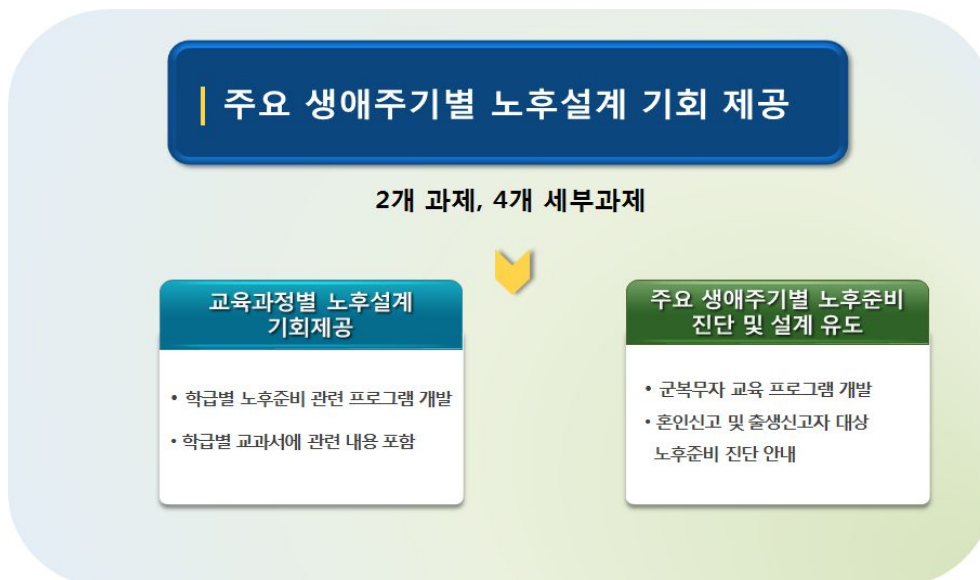
### ① 교육과정별 노후준비 기회 제공

- 학급(초·중·고등 및 대학교)별 노후준비관련 프로그램 개발
- 학급(초·중·고등 및 대학교)별 교과서에 관련 내용 포함

### ② 주요 생애주기별 노후준비 진단 및 설계 유도

- 군복무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자 대상 노후준비 진단 안내

[그림 6-8] 주요 생애주기별 노후준비 기회 제공을 위한 정책과제





## 제3절 종합

## 1. 영역-과제-세부과제

□ 종합하면 6개 영역에 15개의 과제이며, 이에는 38개 세부과제가 포함됨.

〈표 6-1〉 제1차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개요

	영역	과제	세부과제
이용이 편리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통합적· 연속적 서비스 제공	1.연속적인 서비스 체계 구축	1-1. 노후준비서비스의 연속성 강화를 위한 서비스 콘텐츠 개발 및 효과적인 운영관리 1-2. 노후준비서비스의 성과 파악을 위한 평가체계 정립 1-3. 노후준비서비스의 연속성 강화를 위한 연구지원
		2.지역사회 자원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2-1. 노후준비지원 연계 서비스 제공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 2-2. 노후준비 관계 기관 발굴 및 체계적 자원 관리 2-3.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별 연계기관 협의체 운영 2-4. 지역내 유관 기관의 적극적 참여 및 협조를 위한 지원 2-5. 지자체의 노후준비 지원사업의 적극적 참여 독려
	생애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3.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3-1.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관리 기능 강화 3-2. 정기적 평가를 통한 노후준비서비스의 지속적인 질적 개선
		4.기업의 참여 독려	4-1. 기업 주관 노후준비 교육 실시 4-2. 노후준비 휴가제도의 단계적 도입 4-3.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5.공적 사업과의 연계	5-1. 주요 생애단계별 주요 서비스 이용시 노후준비 진단 포함 5-2. 주요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노후준비서비스 안내 및 단계적으로 맞춤형 상담 제공
	다양한 서비스 접근방법 마련	6.디지털 접근 방법의 강화	6-1. 종합정보시스템 통합DB 구축 및 홈페이지개선 6-2. 노후준비 진단 앱 개발
		7.찾아가는 서비스 개발	7-1. 찾아가는 서비스의 타겟 설정 7-2. 노후준비서비스 전담 콜센터(전담 번호) 운영
종합적인 기반 확충 및 강화	서비스 제공 기반마련	8.노후준비지원센터의 전달체계 확립	8-1.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독자성 확보 8-2.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와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역할 정립
		9.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확보	9-1. 기존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독자성 확보 9-2. 다양한 공공기관의 참여 지원
		10.전문성 있는 인력확보 및 양성	10-1. 모든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법에서 규정한 전담인력 확보 10-2. 서비스 제공인력 양성교육 내실화 10-3.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강화 10-4.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수교육 체계화
		11.진단지표 고도화	11-1. 노후준비 지표 표준화 11-2.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욕구사정 항목 개발
		12.체계적인 홍보전략 마련	12-1. 오피니언 리더에 대한 홍보 및 참여 촉진을 통한 여론선도 12-2. 연령대별 중점대상층 중심의 맞춤형 홍보 12-3. 전 국민에 대한 노후준비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인식 및 경험의 공유 기반마련	13.이용자간의 노후준비 및 실천경험 공유	13-1. 홈페이지에 이용자 공유공간 마련 13-2. 상담사례집 발간
		14.교육과정별 노후준비 기회 제공	14-1. 학급(초·중·고등 및 대학교)별 노후준비관련 프로그램 개발 14-2. 학급(초·중·고등 및 대학교)별 교과서에 노후준비 관련 내용 포함
		15.주요 생애주기별 노후준비 수준 진단 및 설계 유도	15-1. 군복무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15-2.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자 대상 노후준비 진단 안내
	6영역	15개 과제	38개 세부과제



## 2. 대상별 서비스 적용 및 기대효과

- 생애단계별 특징을 반영할 때 제시된 정책과제는 <표 6-2> 와 같이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생애주기별로 진단, 상담, 연계, 사후관리의 상대적 중요성에도 차이가 있을 것임.
- 1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변화가 가능할 것임.
  - 정보 접근성이 강화되어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신의 다양한 경제적 노후준비 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활용 가능한 정책에 대한 정보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임.
  - 연령 등 개인의 상황별 노후준비 진단을 통한 맞춤형 상담이 진행되어 양질의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임.
  - 노후준비진단에 기초하여 개인의 노후를 설계하고 구현하는데 필요한 서비스 기관으로의 연계와 사후관리를 통하여 지속적인 노후준비의 수정·보완작업이 가능할 것임.



〈표 6-2〉 대상별 서비스 적용사례

	특징	진단	상담	연계	사후관리	교육
고등학생	-노년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 구체적인 관심 부족	-생애설계의 관점에서의 접근 필요				-교과과정에 포함하여 교육 실시
출산을 앞둔 30대 여자 직장인	-출산에 따른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문제 당면 -자녀출산에 따른 재무설계 필요	-노후준비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 앱을 홈페이지를 활용한 자가진단	-앱을 활용한 예약후 -노후준비 휴가제도 활용한 상담 실시			-기업주관 노후준비 교육 실시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와 교육프로그램 논의 및 강사 파견 -홈페이지상의 경험공유를 통한 심리적 지지
40대 남자 자영업자	-유동성이 높으므로 맞춤형 접근 필요 -체계적인 재무설계에 어려움 경험 -가족관계에 대한 취약성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진단(기존 공적서비스와 연동)	-광역센터 방문을 통한 심층상담 + 관련서비스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은퇴를 앞둔 50대 남자 직장인	-은퇴를 앞두고 퇴직후 생활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설계와 실천 필요	-앱, 홈페이지를 통한 자가진단	-앱을 활용한 예약후 -노후준비 휴가제도 활용한 상담 실시	-각 영역의 다양한 자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 지원	-설계의 실천 여부에 대한 조밀한 사후관리를 통한 성공적인 노년기 진입 지원	-기업주관 노후준비 교육 실시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와 교육프로그램 논의 및 강사 파견
농촌지역 거주 60대 여자 노인	-낮은 정보 접근성 -이미 노후준비는 때가 지났다는 소극적인 태도 -후기 노년기에 대한 이해와 준비 필요	-기초연금 수급시작/생애전환기 건강검진진단(기존공적서비스와 연동)	-찾아가는 상담 -(주민센터 활용)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안내		-지역단위의 찾아가는 교육







# 제 7 장

## 각 분야별 세부계획

- 제1절 통합적·연속적 서비스 제공
- 제2절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제3절 다양한 서비스 접근방법 마련
- 제4절 서비스 제공 기반마련
- 제5절 인식·경험의 공유 기반 마련
- 제6절 주요 생애주기별 노후준비 기회 제공







## 제1절 통합적·연속적 서비스 제공

### 1. 연속적 서비스 체계 구축

#### 가. 배경

□ 노년기 삶의 질을 위해 균형적이고 연속적인 노후준비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연계 및 사후관리 서비스의 내실화를 통해 체계적이며 연속적, 단계적인 노후 준비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노후준비 교육이 대상자의 인식변화는 물론 노후준비를 위한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함.

• 그러나 현재 상담 이후 연계를 희망하는 고객들에 대한 연계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공단에서는 현재 사후관리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음(시범사업 실시 중).

○ 진단 및 상담, 교육 중심의 편향된 노후준비서비스의 보완을 통한 균형적인 서비스가 요구됨.

－ 현재 공단에서 제공되는 노후준비서비스는 진단 및 상담과 교육에 집중됨.

－ 상담 및 교육도 재무영역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균형적인 노후준비서비스가 미흡함.



## 나. 현황 및 문제점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는 노후준비서비스를 진단 및 상담, 교육, 연계, 사후관리  
의 다섯 단계를 설정함.
- 진단: 진단지 측정을 통한 분야별(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노후준비수준을  
진단하고 취약점 파악
  - － 공단지사 방문을 통한 진단
  - － 온라인 자가진단
    -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예상금액 조회
    - 자가 재무설계, 노후준비 종합진단 등 프로그램 운영
- 상담: 개인별 노후준비수준 및 분야별 취약점 보완을 위한 1:1 맞춤형 상담
  - － 노후준비 상담: 노후준비 상담직원이 종합진단 등을 통해 고객의 현재 노후준  
비 수준을 진단하고 향후 노후 대비 전략에 대해 최소 30분 이상 이루어지는  
상담
  - － 온라인상담: 노후준비서비스 포털사이트에서 재무설계사, 사회복지사, 노후  
준비상담사 등 공단의 전문 컨설턴트가 재무, 건강, 일/취업, 취미/여가, 주  
거,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노후준비에 관한 1:1 맞춤상담
    - 하지만, 주로 국민연금과 관련된 재무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음.
- 교육: 2014년부터 성장기(학생), 활동기(30~50대), 은퇴기(60대 이상) 등 생  
애주기별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에 대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 강화
    - (성장기) 인생의 출발시기인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등의 사  
회보장체제와 노후준비 관련 내용 등을 수록하여 이해 도모
    - (활동기)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자영업자, 농어  
민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노후준비 교육 실시



## (활동기 교육내용(안))

- (근로자) 신규 입사자, 40~50대, 전문직 등에 대한 노후준비 교육
- (자영업자) 직능단체의 정기 교육일정 참여로 노후준비 교육
- (취약계층) 복지부·서울시(기초수급자 등), 여성가족부(경력단절여성), 고용센터(실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노후준비 교육
- (농어민) 농지연금 안내, 농한기 등을 활용하여 농어민 맞춤형 교육

- (은퇴기) 고령자 대상 행복한 노후생활 관련 교육 실시 및 은퇴예정자 대상 은퇴설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 (은퇴기 교육내용(안))

- (고령자) 자녀 출가 등으로 사회적·경제적·심리적 불안 상태 고려하여 건강, 대인관계, 여가, 자원봉사 등 행복한 노후생활 교육
- (은퇴예정자) 베이비부머 등 노후준비가 시급한 은퇴예정자 대상 맞춤형 노후준비 교육 패키지 형태로 제공

## - 찾아가는 교육

- 정부, 지자체 등의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재무중심의 노후준비 교육
- 개별 기관, 사업장 등과 접촉하여 현장 교육 실시

## - 정기강좌

- 기초연금 청구자 대상 노후준비 안내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노후준비 전반에 대해 6~10회차 상설 교육과정 운영

## - 합동설명회: 주택금융공사 등 유관기관 대상으로 합동 전국노후준비설명회 개최

- 연계: 노후준비 상담 후 준비가 부족한 분야에 대해 심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기관에 연계

## -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 지역 사회자원 정보를 DB에 구축하여 고객에게 맞춤형 정보제공

- 사후관리: 개인의 실제적인 행태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보 제공



- 상담 시 계획한 실천사항을 주기적으로(3개월, 6개월 후)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정보 제공
- 일반적인 정보 제공(정기 간행물, 이메일, SNS) 및 개인별 맞춤형 정보제공과 모니터링(전화상담, 설문조사) 실시
- 재무·건강·여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행태변화 사례수집 및 관리(대인관계 영역의 행태변화는 빠져있음)

○ 단계별 노후준비서비스 수행

- 노후준비서비스는 진단 및 상담, 연계, 사후관리 등 3단계로 진행됨.
- 이와는 별도로 노후준비교육은 생애주기별로 대상을 차별화하여 진행되며, 찾아가는 교육, 정기강좌, 합동설명회 등의 방식으로 실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진단 및 상담, 연계, 사후관리 등 3단계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함.

□ 현황

○ 노후준비서비스 현황

① 상담 현황

- 공단의 상담 건수는 2012년 53,123 건에서 2016년에는 79,146건으로 증가함.
- 전년 대비 상담 건수 증가율을 보면, 2013년을 제외하고, 2014년에는 8.3%, 2015년은 19.7%, 2016년은 18.1%로 꾸준히 증가추세임. 전년 대비 상담 건수 평균 증가율은 10.9%로 나타남.

〈표 7-1〉 연도별 상담 건수 및 전년대비 증가율

	계/ 평균증가율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상담 (건수)	260,644	53,123	51,676	55,965	67,001	79,146
전년대비 증가율(%)	10.9	-	-2.7	8.3	19.7	18.1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 2015년의 경우에 노후준비 상담은 상담직원이 노후준비 진단을 통해 재무, 비재무 분야 노후준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전체 상담건수는 67,001건임.<sup>14)</sup>
  - 2015년도 상담 건수(67,001건) 중에 종합진단지를 활용하여 상담한 경우는 13,104건으로 전체 상담의 19.6% 밖에 되지 않음.<sup>15)</sup>
- 2015년의 경우, 107개 지사 당 평균 상담 건수는 627건 임. 즉, 지사별로 1년에 627건의 상담이 이루어짐.
  - 2015년도 노후준비서비스 담당인력의 1일 평균 상담건수는 약 2.4건 (=67,001건/114명/247일)\*
  - 107개 지사 상담사 1명과 종합상담사 7명을 합하여 상담인력은 114명/법정 근무일 247일
- 노후준비서비스 분야별 상담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상담 건수 중에 80.2%가 재무영역, 그 다음으로 건강(10.8%)으로 나타나, 상담내용의 90% 이상이 재무와 건강 영역에 치우쳐져 있음.
  - 그 다음으로 여가(1.0%), 일(0.6%), 대인관계(0.3%) 등의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이들 영역에 대한 상담은 매우 미흡한 수준임.

---

14) 국민연금공단(2016). 노후준비 지원사업 설명자료.

15)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2016).



〈표 7-2〉 노후준비서비스 분야별 상담 건수 및 비율(연도별)

(단위: 건, %)

구 분		계	재무	건강	일	여가	주거	대인관계	노후준비진단
계	건수(건)	1,377,202	978,290	307,315	38,128	8,922	1,049	2,877	40,621
	비율(%)	(100.0)	(71.0)	(22.3)	(2.8)	(0.6)	(0.1)	(0.2)	(2.9)
'16년	건수(건)	79,146	63,468	8,583	468	803	21	252	5,551
	비율(%)	(100.0)	(80.2)	(10.8)	(0.6)	(1.0)	(0.0)	(0.3)	(7.0)
'15년	건수(건)	67,001	52,328	6,492	573	305	29	114	7,160
	비율(%)	(100.0)	(78.1)	(9.7)	(0.9)	(0.5)	(0.0)	(0.2)	(10.7)
'14년	건수(건)	55,965	39,668	7,952	340	738	37	302	6,928
	비율(%)	(100.0)	(70.9)	(14.2)	(0.6)	(1.3)	(0.1)	(0.5)	(12.8)
'13년	건수(건)	673,933	501,028	130,428	24,679	3,660	578	1,114	12,446
	비율(%)	(100.0)	(74.3)	(19.4)	(3.7)	(0.5)	(0.1)	(0.2)	(1.8)
'12년	건수(건)	501,157	321,798	153,860	12,068	3,416	384	1,095	8,536
	비율(%)	(100.0)	(64.2)	(30.7)	(2.4)	(0.7)	(0.1)	(0.2)	(1.7)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 ② 교육 현황

-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교육 횟수와 교육인원은 꾸준히 증가함.

- 연간 평균 교육 횟수는 약 9,220회, 교육 인원은 평균 385,923명임.
- 2015년과 2016년 생애주기별 교육에서는 성장기 학생대상으로 평균 740회, 교육인원 평균 23,215명, 활동기의 일반 대상은 평균 3,455회, 교육인원 135,181명, 활동기의 취약계층은 평균 4,792회, 교육인원 216,092명, 은퇴기 고령자는 평균 545회, 교육인원 32,587명으로 조사됨.
- 가장 많은 교육 횟수와 교육인원은 활동기의 취약계층이며, 그 다음으로 활동기의 일반계층, 성장기 학생, 은퇴기 고령자 순으로 나타남.
- 2015년과 2016년도 교육인원을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활동기 취약계층이 53.1%, 활동기 일반이 33.2%로 30대에서 50대가 주요 대상인 활동기 교육인원이 전체 86.3%를 차지하고 있음. 그 다음으로 60대 이상의 은퇴기 교육인원이 8.0%였으며, 학생 대상인 성장기의 교육인원은 5.7%로 가장 낮았음.



〈표 7-3〉 연도별 노후준비 교육 현황(횟수 및 인원)

(단위: 회, 명)

구분	계		성장기 (학생)		활동기				은퇴기	
					일반		취약계층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2016년	9,631	418,505	668	19,038	3,545	132,491	4,961	237,815	457	29,161
2015년	9,431	395,643	811	27,391	3,365	137,871	4,623	194,369	632	36,012
2014년	9,454	387,317	1,055	30,873	3,633	160,755	3,917	152,078	849	43,611
2013년	8,931	383,573	808	18,704	3,936	180,633	3,411	145,307	776	38,929
2012년	8,651	344,576	1,326	30,651	3,629	159,912	2,617	118,379	1,079	35,634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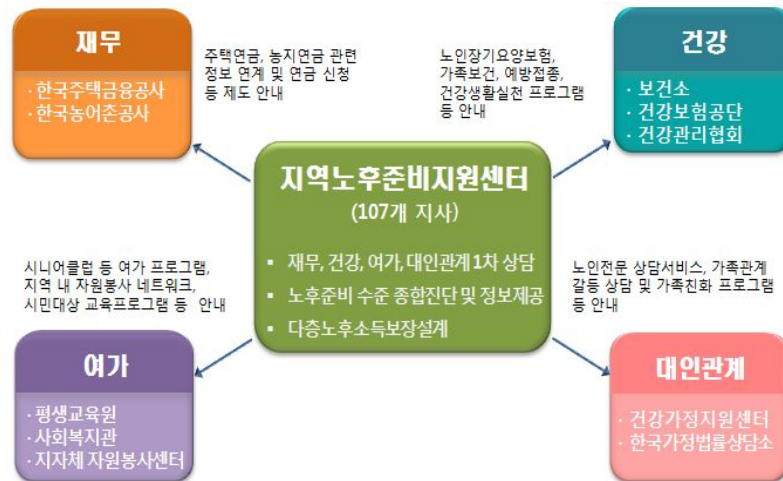
- 2016년 기준으로 공단의 지역본부에 배치된 노후준비 전문강사가 73명으로 1년에 강사 1명 당 약 130회 정도, 5,4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 전문강사는 법정 휴일을 제외하면 이틀에 한 번 정도 강의함.
- 2016년 9월 현재 전문강사는 지역본부 및 10개 거점지사에 63명이 배치되어 있음.

## ③ 연계 서비스 현황

- 연계 서비스에 대한 실적 및 관련 통계자료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연계시스템 구축을 2017년부터 추진해갈 예정임.
- 연계 서비스를 위해 공단본부(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는 정부 부처 및 지자체 혹은 산하기관, 공기업, 협회 등과 MOU를 체결하는 동시에 공단지사(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는 지역자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은 노후준비서비스의 4개 영역과 관련하여 32개 기관 및 단체와 MOU 체결함.
- 노동부 고용센터('08), 한국건강관리협회('08), 주택금융공사('09), 전국자원봉사센터중앙회('10), 금융감독원('11), 한국사회복지협의회('11),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16), 서울50+재단('16), 공무원연금공단('16), 서울50+재단('16), 한국소비자원('16) 등



[그림 7-1] 연계 서비스 현황



- 연계 서비스를 위한 공단지사(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별 지역자원 현황자료는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음.

#### ④ 사후관리 서비스 현황

- 2016년 5월부터 희망고객을 대상으로 우편(반기별), 이메일 및 SMS(월별) 등을 통하여 노후준비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2016년 5월~7월 중 희망고객 대상 1,279건(노후준비매거진, SMS, 이메일 등) 정보제공
  - 노후준비 상담고객에 대한 사후 정보제공 확대 추진
- 2016년 하반기에 서비스를 제공받은 고객의 인식·행태변화 상담사례 관리
  - 우수 상담사례 754건 발굴·관리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공유



〈표 7-4〉 재무 및 비재무 영역의 행태변화 측정(안)

구분	내용	행태변화 측정(안)
재무	국민연금	• 공단 전산에 등록된 지역·임의(임의계속) 가입 건수, 반납·추납 신청 건수
	사적연금	• 사후관리 차원의 설문조사(개인·퇴직·주택·농지연금 가입건수 등)
비재무	건강, 여가 등	• 사회자원 연계 건수
		• 사후관리 차원의 설문조사(비재무 분야 실천여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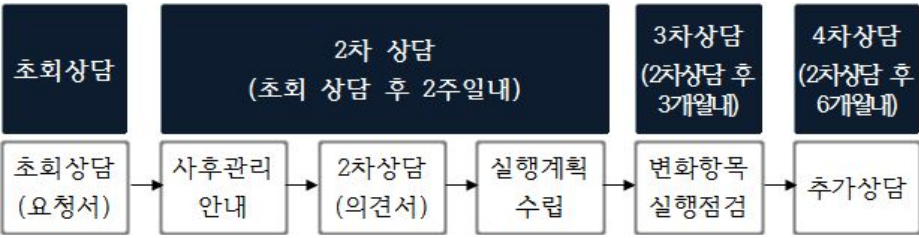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 노후준비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행태변화 독려를 위한 사후관리 및 효과성 측정 등 시범운영을 통해 노후준비서비스 표준모델 정립<sup>16)</sup>
  - 2016년 하반기(7월~11월)에 사후관리 대상자를 선정(노후준비 상담 고객 350명)하여 2회 이상 추가 상담 후 행태변화를 점검할 예정
  - 1차(초회) 상담에서 요청서 및 사후관리안내, 종합진단지 작성, 2차 상담은 고객과 상담사가 함께 목표조정, 실행과제, 내용, 정도 등을 결정, 3차 상담에서 목표달성 점검 및 행태변화 측정, 필요시 추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4차 상담 실시
  - 1차(초회) 상담 후 2주일 이내 2차 상담 실시, 2차 상담 이후 3개월 이내 3차 상담 실시, 3차 상담 이후 6개월 이내에 4차 상담 실시
  - 2차 상담까지는 대면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3차 상담부터는 여건에 맞게 대면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재접촉하여 상담하거나 정보 전달

16)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2016). 노후준비서비스 사후관리 및 행태변화 측정계획(안).



[그림 7-2] 노후준비서비스 표준모델(안)



〈표 7-5〉 상담회차별 세부내용

구분	절차별 수행내용
초회상담	*재무설계 요청서 작성, 사후관리에 대한 안내 및 정보제공 동의 (※개인정보보호 동의는 「노후준비 기본설계 및 서비스 신청서」 뒷면 활용) *4대영역의 균형잡힌 준비, 노후연금의 중요성 등에 대해 기본적인 상담 진행 *종합진단지를 작성하고 리포트를 출력하여 비재무분야 상담 준비 *2차 상담일자 예약
2차상담	*재무설계 요청서(초회상담내용)를 기반으로 고객의 목표를 확인 *상담사의 시각에서 고객이 고려할 사항, 재무목표 권장, 실행방법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상담 및 재무설계 의견서 제공 *목표조정, 우선 실행과제 선정, 실행내용과 실행정도에 따른 점수 산정 등을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 *원활한 목표달성을 위해 사회자원 연계, 정보제공 등을 지원 *3차 상담일자 예약
3차상담	*목표달성여부를 점검하고 추가 서비스 필요 여부 확인 및 상담 *추가활동을 통해 개선된 사항 또는 정도를 분석하고 상담일지 작성 *3차를 초과하여 관리가 필요없는 경우 상담 종료와 행태변화 측정에 대해 안내 *추가 관리가 필요한 경우 4차 상담일자 예약, 관리사항 등에 대해 안내
4차상담	*인식개선(행태변화)를 위해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추가적인 서비스는 사회자원 연계 (※ 해당 종합상담은 종료됨을 안내)
최종보관 서류	①재무설계 요청서, 의견서 ②「노후준비 기본설계 및 서비스 신청서」 뒷면 개인정보보호 동의서 ③고객별 노후준비서비스 상담일지(상담사용) ④고객별 재무·비재무 목표 점검표(고객용) 사본
고객제공 서류	*재무설계 의견서 *고객별 재무·비재무 목표 점검표(고객용) *상담 관련 콘텐츠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 □ 문제점

### ○ 상담서비스의 문제점

#### － 상담인력의 부족

- 2016년말 기준으로 107개 공단 지사에 배치된 상담인력은 상담사 107명과 종합상담사 9명임.
- 상담사는 공단지사의 민원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원 중 107개 지사별 1명이 노후준비 상담업무를 겸직중임(노후준비 상담업무 비중이 50%).

#### － 상담의 질적 수준 미흡

- 진단지를 활용한 상담이 전체 상담의 19.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으로써 노후준비 종합진단 결과를 토대로 한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민원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원(상담사)의 상담으로 인해 상담의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노후준비 상담사는 노후준비 진단 등을 통한 노후준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상담 건수가 67,001건임. 민원 상담업무와의 겸직으로 인해 노후준비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이용자는 질 낮은 상담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것임.
- 상담 횟수를 통한 실적뿐 아니라 상담의 성과(노후준비 인식의 변화, 연계 건수 등)를 달성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및 개선이 요구됨.

#### － 재무영역 중심의 편향적 상담

- 노후준비서비스 분야별 상담 건수를 살펴보면, 연도별 전체 상담 건수 중에 80.2%가 재무영역에 치우쳐 있으며, 일, 여가, 대인관계, 주거 등 다른 영역은 전체 상담내용의 10%도 되지 않음.

#### － 상담서비스의 접근성 문제

- 2015년 107개 지사의 1년 상담 건수에 대한 공단 내부자료에 의하면, 가장 많은 상담 건수가 1,162건(고양지사)인 반면에, 가장 적은 상담 건수는 98건(서귀포지사)로 조사됨.



- 노후준비 및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미흡도 원인이지만, 지사와의 먼 거리 및 교통 불편 등으로 인해 방문상담이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자가진단 및 상담이 용이할 수 있어야 함.

#### ○ 교육서비스의 문제점

##### － 전문강사 인력의 부족

- 공단의 지역본부에 배치된 전문강사 63명이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생애주기별(성장기, 활동기, 은퇴기)로 교육 수요처 발굴, 차별화된 교육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교안개발, 이들에 한 번 정도의 출장강의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역부족

##### － 재무영역에 비중이 높은 편향적 교육내용

- 재무영역 중심의 교육에서 점차 비재무영역(건강, 대인관계, 여가 등)의 교육 비중을 확대하면서 총체적으로 균형성있는 노후준비 교육으로 개선
- 균형있는 교육을 통해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이 비재무 영역에 대한 인식변화로 인해 종합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

##### － 교육에 대한 성과(효과성) 입증 미흡

- 찾아가는 교육, 정기강좌, 합동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대한 성과(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의 질 개선
- 특히, 교육을 통해 상담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노후준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 ○ 연계 서비스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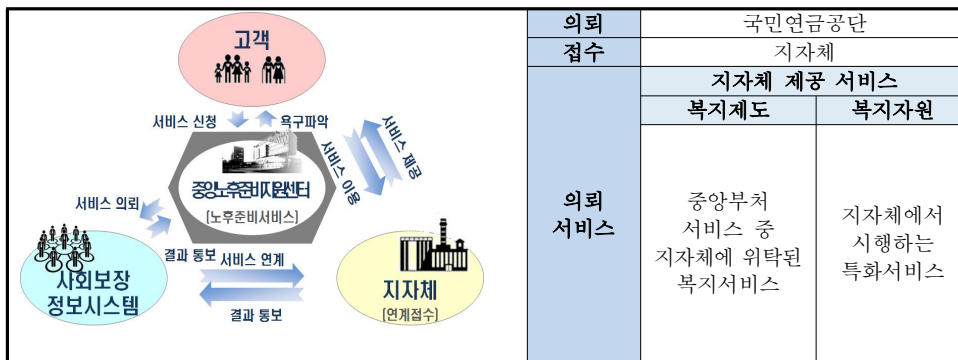
- － 공단지사(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별 연계 서비스를 위한 지역자원 현황자료는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음.
- － 대부분이 인터넷 상의 자료를 활용하여 관련 기관의 연락처와 주요사업에 관한 정보만 제공하고 있음.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연계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와 이에 대한 보완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관심을 갖고 있는 연계기관의 이용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특성, 연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등이 제시되지 못할 경우, 고객입장에서 연계 서비스의 실효성이 높지 않음.

[그림 7-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관계기관 연계 서비스 의뢰 체계도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 ○ 사후관리 서비스의 문제점

- 현재 시점에서 사후관리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 이메일이나 SNS를 통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을 위해 전산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함.
- 사후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상담(초회상담~4차 상담)을 수행하기 위해 상담 제공자를 위한 매뉴얼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
  - 사후관리를 통해서 고객 개인의 실제적인 행태변화를 유도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개발이 필요함.
  - 행태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영역을 재무와 비재무로 구분해야 하며, 현재 비재무 분야에서는 대인관계 영역이 빠져 있음. 전반적으로 노후준비서비스 4개 영역이 균형성있게 사후관리 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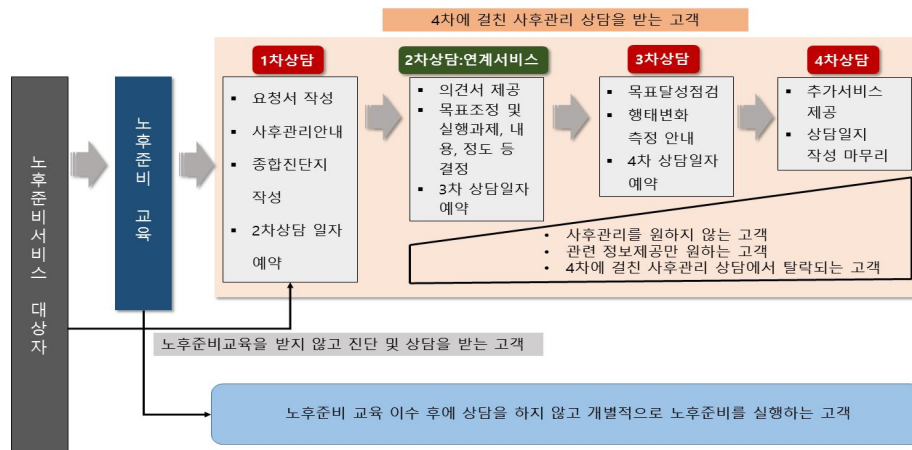
○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시한 노후준비서비스 사후관리 계획에 따른 단계별 서비스 내용

－ 단계별 노후준비서비스의 지속적인 과정들을 고객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단계에서는 지역본부 및 거점 지역센터에서 노후준비서비스 대상자에게 노후준비교육을 수행함.
- 2단계에서는 노후준비 교육을 통해 종합진단 및 상담을 수행하는 1차 상담이 실시됨(4대 영역의 균형잡힌 준비, 노후연금의 중요성 등에 대한 기본적인 상담 진행).
- 3단계는 1차 상담 이후 2주일 이내에 노후준비 종합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재무 및 비재무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실시함. 노후준비를 위한 향후 목표를 조정하고, 이를 위한 실행과제, 내용, 정도 등을 조정하여 결정함. 2차 상담에서 목표달성을 위해 지역 내 사회자원을 연계하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함.
- 4단계는 2차 상담 이후 3개월 이내에 3차 상담을 실시하여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고,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고객의 행태변화를 측정함.



[그림 7-4] 노후준비서비스 사후관리 계획에 따른 단계별 서비스 내용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 사후관리에 대한 공단의 계획에 따르면, 1차 상담과 2차 상담은 상담서비스에 해당되며, 2차 상담시에 지역 내 사회자원의 연계 서비스가 이루어짐. 3차 상담에서 사후관리의 성과를 점검하고 측정함.
- 단, 4차 상담에 걸친 사후관리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고객들이 발생함.
  - 1차 상담 이후 일체의 사후관리를 원하지 않는 고객, 2차 상담에서 연계 서비스를 원하지 않고 관련 정보제공만 원하는 고객
  - 지속되는 상담과정에서 탈락되는 고객
  - 노후준비 교육을 받지 않고 온라인이나 센터방문을 통해 직접 상담을 받는 고객
  - 노후준비 교육을 받았으나 상담을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노후준비를 실행하는 고객
- 공단에서 제시한 사후관리 서비스 계획에서는 1차 상담 이후 2주일 이내에 실시되는 2차 상담에서 종합진단지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총괄적인 상담이 진행되고, 지역 내 사회자원들의 연계 서비스가 이루어짐.
  - 하지만 고객의 입장에서 두 번에 걸친 방문상담이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탈락되는 고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원활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위해 단계별로 분절적인 노후준비서비스 개선

－ 단계별로 연속적인 노후준비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진단 및 상담에 대한 실적은 DB로 구축되어 있으나,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연계 및 사후관리 서비스의 실행 미흡 및 실적자료 부재로 인해 단계별로 노후준비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음.
- 원활한 연계 서비스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자원들을 발굴하여 DB를 구축하는 동시에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과 기관 이용을 통한 노후준비의 기대효과까지도 제시되어야 함.
- 연계 서비스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연계기관을 소개한 이후에 연계기관의 담당자와 주기적인 연락을 통해 해당 고객의 활동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재무분야는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상담사에 의해서 전문적으로 실행과제 수립 및 점검이 가능하지만, 비재무영역에서는 해당 연계기관의 실무자 의견이 매우 중요함.

○ 진단 및 상담,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와는 달리 독자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노후준비 교육의 성과평가 미흡

－ 교육에 대한 성과로 공단에서는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인식의 변화이후에 나타나는 행태적 변화(진단 및 상담 실시여부) 역시 노후준비 서비스의 연속성에 중요한 요소임.

- 노후준비 교육의 성과로 교육을 받은 이후에 온라인 혹은 방문을 통한 진단 및 상담 등 행태적 변화로 이어지는 경우도 포함시켜야 함.
- 노후준비 교육을 이수한 후에 상담을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노후준비를 실행하는 고객들도 노후준비 교육의 성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향후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다. 추진계획

### □ (세부과제 1-1) 노후준비서비스의 연속성 강화를 위한 서비스 콘텐츠 개발 및 효과적인 운영관리

#### ○ 단계별 노후준비서비스의 연속성이 강화될 수 있는 서비스 콘텐츠 개발 및 효과적인 운영관리

－ 노후준비교육이 진단 및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매뉴얼 개발

- 사후관리 서비스 체계에 대한 설명
- 사후관리 우수사례 발굴 및 소개

#### ○ 진단 및 상담서비스가 연계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는 운영매뉴얼 개발

－ 고객의 센터방문을 통해 대면상담이 이루어지는 1차와 2차 상담으로 인해 고객 탈락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번의 초기 상담을 통해서 종합상담과 연계 서비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종합진단 및 상담을 통해 고객의 목표를 조정하고 실행과제 및 내용, 정도 등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비재무영역에 대한 상담내용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실효성있고 구체적인 상담매뉴얼 개발과 상담사의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함.

#### ○ 고객의 욕구에 맞는 사회자원 연계 서비스와 연계기관 담당자와의 협력체계 구축

－ 관련기관의 이용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특성, 연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등 관련기관에 대한 정보를 고객입장에서 제공

－ 사후관리 서비스의 3차 상담시 고객의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행태변화를 측정하고자 할 때, 연계기관의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들과의 정기적인 협력체계 수립



□ (세부과제 1-2) 노후준비서비스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평가체계 정립

○ 노후준비교육에 대한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

- 기존의 노후준비교육은 횡수 및 인원을 파악하는 실적과 교육대상자의 인지도 변화에 그치고 있음.
- 서비스 지속성 강화를 위해 노후준비교육의 성과로 교육 이후에 온라인 혹은 센터 방문을 통한 진단 및 상담으로 이어졌는지를 성과지표에 포함
- 1차 상담 이후 2차 상담(연계 서비스)으로 이어지는 실적, 2차 상담 이후 3차 상담(목표달성 점검)으로 이어지는 실적 등을 평가지표에 포함
- 4차에 걸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상담사의 전문성을 성과지표에 포함

□ (세부과제 1-3) 노후준비서비스의 연속성 강화를 위한 연구지원

○ 노후준비서비스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연구지원

- 단계별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참여여부 관련 종단적 연구
- 노후준비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의 특성, 욕구 및 동기 등
- 1차 상담부터 4차 상담까지 참여한 사람들의 특성, 욕구 및 동기, 만족도, 불만요인 등
- 상담과정에서 중도포기한 사람들의 특성, 중도포기한 이유 등에 대한 종단적 연구 지원



## 2. 지역사회 자원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 가. 배경

□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노후준비서비스”란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로 정의됨.

○ 따라서 국민이 노후준비의 진단과 상담에서 나타난 결과를 실천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을 연계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계임.

○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제9조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노후준비지원 사업)에 따르면 ‘지역사회 내 노후준비서비스 관련 자원의 발굴’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제9조 (지역센터 노후준비지원 사업) 법 제10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2. 지역사회 내 노후준비서비스 관련 자원의 발굴

□ 그러나 현재 노후준비서비스는 상담을 통해 노후준비수준을 진단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노후준비 상담 이후 직접적인 실천을 위한 타 기관이나 서비스 연계 체계는 부족한 상태임.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 관계 기관 연계를 위한 사업을 추진중이나, 아직까지 사업 초기단계로 원활하고 풍부한 연계는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도 지역별 관계 기관 연계를 위한 자원발굴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역별 자원 수준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관계 기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단위의 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노후준비 실천을 위한 연계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영역별(소득, 건강, 여가, 대인관계) 노후준비 실천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구축되어있는 기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노후준비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직접 행동할 수 있도록 기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나. 현황 및 문제점

-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자원 연계의 명확한 개념과 방법, 범위에 대한 기준설정 부족
- 노후준비 지원사업에서 의미하는 ‘연계 서비스’가 어떤 내용의 서비스를 의미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이므로, 노후준비 지원사업에서의 연계 서비스에 대한 정의와 연계내용의 정책적 결정 요구
  - 연계의 수준 (내용)은 단순 기관 소개에서부터, 보다 자세한 내용의 정보 제공, 기관에 서비스 이용 등록까지 지원 등 단계별 수준이 다양할 수 있음.
    - 단순 기관 소개-기관의 서비스, 프로그램 등 소개-기관서비스 이용 등록
  - 또한 지역 내 자원수준에 따라 기준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연계하는 수준이거나, 노후준비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새롭게 운영하도록 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수도 있음.
    - 기존 운영 프로그램(사업) 운영 - 새로운 사업 운영
    - 기관의 정보에 대한 공유, 사례에 대한 공유 등
  - 지역 내 자원을 연계할 때, 노후준비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관 중에서 어느 곳과 연계할 것인가 하는 것 또한 연계 서비스의 수준을 결정하게 됨.
    - 공공/비영리 서비스
    - 민간 영리서비스



## □ 연계사업의 현황

○ 연계 서비스는 상담 후 심화상담, 교육,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영역별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것을 의미하나(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현재의 연계 서비스는 관계 기관의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임.

－ 준비가 부족한 영역 또는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 개인별 상황에 가장 적합한 지역내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재무, 건강, 대인관계, 여가 등 영역별 지역사회 자원 정보를 공단 DB에 구축하여 고객에게 맞춤형 정보제공

○ 영역별 대표적 연계기관과 연계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재무) 주택금융공사, 농어촌공사: 개인연금정보제공, 주택농지연금 신청 등 제도 안내
- (건강)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협회: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족보건, 예방접종,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등 안내
- (여가) 평생교육원, 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시니어 클럽 등 여가프로그램, 지역내 자원봉사 네트워크, 시민대상 교육프로그램 등 안내
- (대인관계)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 노인전문상담서비스, 가족관계 갈등 상담 및 가족친화 프로그램 등 안내

○ 연계를 위해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또는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연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는 계속적으로 노후준비 관련 기관과의 MOU를 통해 연계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나,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단위에서 동일 기관까지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함.

- 예를 들면,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는 노동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고용센터와의 업무협약을 이루었으나, 지역별로는 업무협약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로 A 지역의 노후준비지원센터와 고용센터는 별도의 업무협약을 필요로 하게 됨.
- 따라서 전국적인 전달체계를 갖고 있는 기관과의 업무협약의 경우, 전국적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임.



## □ 노후준비지원센터별 지역사회 자원 연계 현황

- 전국 노후준비지원센터가 연계하거나 또는 연계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는 자원을 조사한 결과, 총 1,489개의 기관과 연계(또는 연계 가능)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이 중 사회적 관계 기관은 225개, 건강관련 408개소, 재무(고용) 관련 561개소, 여가관련 333개소로, 재무(고용)관련 기관과 건강관련 기관과의 연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들 기관과의 MOU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총 1,489개 기관 중 46.8%인 697개소가 체결을 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1,215개소인 81.6%와는 공식적인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음.

〈표 7-6〉 노후준비지원센터 관할지역별 인프라 분석

(단위 개소, %)

구분		개소수	비율
총연계기관수		1,489	100.0
제공서비스	사회적관계	225	15.1
	건강	408	27.4
	재무(고용)	561	37.7
	여가	333	22.4
MOU 체결현황	현재체결	697	46.8
	체결준비중	1	0.1
	계획없음	512	34.4
	무응답	279	18.7
연계현황	공식적 서비스 연계	1,215	81.6
	형식적 서비스 연계	439	29.5
	비공식적 서비스 연계	17	1.1
	무응답	14	0.9

주: 1)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지원센터 총 107개소에서 응답한 1,489개의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함.

2) 노후준비지원센터별 연계기관 현황은 중복응답이며, 단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포털, 지역 내 관광명소 등은 본 분석에서 제외함.

3) 제공서비스 및 연계현황의 경우, 중복응답임.

자료 :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 노후준비지원센터 1개소당 평균 연계기관수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 13.9개 연계기관을 갖고 있으며, 사회영역 2.1개 기관, 건강 3.8개 기관, 재무 5.2개 기관, 여가 3.1개 기관으로 나타남.
  - 노후준비지원센터가 담당하는 지역 특성에 따라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할 때,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노후준비지원센터가 연계하는 기관의 수는 14.8개소로 도시지역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여가영역의 관계 기관 수가 도시에 비해 많음.
  - 이는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역범위가 농촌지역일수록 2~5개 이상의 시군구를 담당하고 있어서 나타난 결과임. 따라서 국민이 실거주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연계 기관은 도시지역이 더 많을 것임.
    - 예를 들어, 인구가 많은 서울의 강남구는 서울남부지원센터와 서울강남지원센터의 2개소가 있는 반면, 전남 해남지원센터에서는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강진군, 장흥군의 5개 군을 담당하고 있음.
- 8대 광역시 지역 내에서도 지원센터별 연계기관의 수는 큰 편차를 보임. 대전은 1개 지원센터당 평균 21.3개 기관과 연계하고 있는 반면, 인천은 7.8개 기관으로 낮게 나타남. 특히 영역별로 차이가 나타나며, 이 중 여가영역에서의 편차가 큼.
  - 영역별로 살펴보면, 사회적 관계 영역은 광주에 위치한 지원센터에서 평균 3개 기관과 연계하고 있어 가장 높으며, 세종이 가장 낮은 1개 기관으로 나타남.
  - 건강영역에서는 대전의 지원센터가 기관별 평균 4.7개 기관과 연계하며, 세종이 가장 낮은 2.0개 기관으로 나타남.
  - 재무영역에서는 대전이 8.0개 기관으로 가장 높으며, 인천이 3.3개 기관으로 낮게 나타남.
  - 여가영역에서는 대전이 6.0개 기관인 반면, 인천과 광주는 0.5, 0.7개 기관으로 낮게 나타남.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별 평균 1개 미만인 지역의 경우 여가관련 연계를 할 자원이 없음을 의미함.



〈표 7-7〉 노후준비지원센터 평균 연계기관수

(단위 : 개소)

구분	개소수	총연계기관수				
		(1개 지사 평균)	사회영역 관계기관수	건강영역 관계기관수	재무영역 관계기관수	여가영역 관계기관수
전국	107	13.9	2.1	3.8	5.2	3.1
도시	59	13.9	2.0	3.7	5.3	2.8
농촌포함	48	14.8	2.3	3.9	5.1	3.5
시도						
서울	19	13.3	1.6	4.1	4.8	2.9
부산	8	16.1	2.0	3.8	6.5	3.9
대구	5	12.4	1.8	3.8	4.4	2.4
인천	4	7.8	1.8	2.3	3.3	0.5
광주	3	13.0	3.0	3.7	5.7	0.7
대전	3	21.3	2.7	4.7	8.0	6.0
울산	2	11.5	1.5	4.5	4.0	1.5
세종	1	9.0	1.0	2.0	6.0	—
경기	20	15.2	2.7	3.7	5.0	3.8
강원	5	14.2	1.0	4.0	5.6	3.6
충북	4	12.3	1.8	4.0	5.5	1.0
충남	5	15.6	2.4	3.2	5.6	4.4
전북	5	22.8	2.0	4.8	7.6	8.4
전남	5	11.4	2.4	3.4	4.8	0.8
경북	8	12.1	2.3	4.0	4.4	1.5
경남	8	15.9	2.8	3.8	5.5	3.9
제주	2	10.5	1.0	4.0	4.5	1.0

주: 1)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지원센터 총 107개소에서 응답한 1,489개의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함.

2) 노후준비지원센터별 연계기관 현황은 중복응답이며, 단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포털, 지역 내 관광명소 등은 본 분석에서 제외함.

3) 1개소당 연계하고 있는 평균기관수를 의미함.

자료 :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 도 지역의 노후지원센터별 연계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전북은 1개 지원센터 평균 22.8개의 기관과 연계를 하고 있으며, 이외의 도에서는 12~15개, 제주는 10.5개로 나타남.

- 영역별 연계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영역 관계 기관수는 경남지역이 2.8개로 가장 많으며, 강원, 제주의 경우 센터별 1개 기관이 있음.
- 건강영역에서는 지역별 편차가 거의 없어, 충남 3.2개소~전북 4.8개소로 나타남.
- 재무영역에서는 전북의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별 연계기관이 가장 많은 7.6개소이며, 경북이 4.4개 기관임.
- 여가영역에서는 전북의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가 8.4개소이며, 전남이 0.8개로 가장 적게 나타남.



□ 노후준비지원센터별 관계 기관과의 MOU 현황 및 교류현황

- 노후준비지원센터는 평균적으로 6.5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있으며, 도시는 6.3개소, 농촌지역은 6.8개소임.
  - － 시도별로 1개 지원센터당 평균 MOU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대략 6~7개 기관과 체결을 하고 있으나 인천과 울산 지역은 다소 낮게 나타남.
  - － 노후준비지원센터의 교류현황을 살펴보면, 지원센터별 평균 15.6개 기관과 교류를 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11.4개 기관과 공식적 교류 중이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정보만을 제공하는 경우가 4.1개소임.
  - － 지역별로는 대전과 전북의 경우 1개 지원센터에서 교류하는 기관의 수가 20개를 넘어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천의 경우 가장 낮게 나타남.
    - 대전과 전북의 경우 교류기관 수가 많지만, 연계 양상은 다르게 나타남. 대전은 1개 지원센터당 평균 23.0개 기관과 연계를 하고 있으며 이 중 11.7개의 경우 공식적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으나, 11.3개소는 홈페이지의 정보만을 제공하는 수준임.
    - 반면 전북은 1개 지원센터당 평균 24.6개 기관과 연계를 하고 있으며, 18.2개 기관은 공식적 연계, 6.4개 기관은 단순 홈페이지 활용으로 나타남.
    - 즉,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현재 지원센터별로 연계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표 7-8〉 노후준비지원센터 평균 MOU 체결기관수 및 교류기관수

(단위 : 개소)

구분	개소수	MOU 체결현황				교류현황			
			체결중	체결준비중	계 획 없음		공식적 서비스연계	홈페이지 활용	비공식적 교류
전국	107	11.3	6.5	—	4.8	15.6	11.4	4.1	0.2
도시	59	10.8	6.3	—	4.6	14.8	10.5	4.2	0.1
농촌포함	48	11.9	6.8	—	5.1	16.6	12.4	4.0	0.2
시도									
서울	19	10.0	6.1	—	3.9	14.7	10.3	4.3	0.2
부산	8	12.6	7.3	—	5.4	17.3	14.8	2.4	0.1
대구	5	10.2	7.0	—	3.2	13.2	8.8	4.4	—
인천	4	7.3	3.8	—	3.5	8.8	7.0	1.8	—
광주	3	10.7	7.3	—	3.3	14.7	12.0	2.7	—
대전	3	12.7	6.3	—	6.3	23.0	11.7	11.3	—
울산	2	10.5	4.5	—	6.0	13.5	10.0	3.5	—
세종	1	7.0	6.0	—	1.0	10.0	7.0	3.0	—
경기	20	11.9	6.2	—	5.7	16.0	10.5	5.2	0.3
강원	5	11.2	7.4	—	3.8	16.0	12.2	3.2	0.6
충북	4	10.0	6.3	0.3	3.5	12.3	9.0	3.3	—
충남	5	13.6	7.8	—	5.8	18.2	15.2	2.8	0.2
전북	5	14.0	6.8	—	7.2	24.6	18.2	6.4	—
전남	5	10.8	7.6	—	3.2	13.6	11.0	2.6	—
경북	8	10.3	6.8	—	3.5	13.4	10.3	2.8	0.4
경남	8	14.1	6.8	—	7.4	17.6	12.5	5.1	—
제주	2	10.0	6.0	—	4.0	11.5	10.0	1.5	—

주: 1)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지원센터 총 107개소에서 응답한 1,489개의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함.

2) 노후준비지원센터별 연계기관 현황은 중복응답이며, 단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포털, 지역 내 관광명소 등은 본 분석에서 제외함.

3) 1개소당 MOU 체결 및 기타 교류하고 있는 평균기관수를 의미함.

자료 :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 다. 추진계획

### □ (세부과제 2-1) 노후준비지원 연계 서비스 제공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

#### ○ 노후준비지원 연계 서비스 제공 모형개발

- 노후준비 연계 서비스는 해당 지역의 자원, 주민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로 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노후준비를 위해 연계할 수 있는 자원의 양과 종류, 주민의 종사직종과 연령구성 등에 따라 요구되는 연계 서비스 내용의 차별화가 필요함.
- 지역별 특성과 노후준비서비스가 공공서비스라는 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성숙도 등을 고려한 연계 서비스 모형 개발이 요구되어짐.

- 연계 서비스의 수준, 연계 기관 선정, 연계 내용 등의 단계적 모형 개발
- 대부분 연계기관의 노후준비 관련 서비스 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사항 및 사업, 프로그램 정보 제공 수준에서 점차적으로 사례관리 개념을 도입한 연계 서비스로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모형 개발
- 연계 서비스 기관 : 공공/비영리 기관 중심의 모형 개발
  - ※ 노후준비 관련 기관으로 영리기관에 연계를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이 가능하지만, 노후준비서비스의 공공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음. 따라서 1차 기본계획에서는 공공/비영리 기관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연계를 우선으로 하며, 이후 영리기관에 대한 확대 가능성을 진단하도록 함.

#### ○ 연계 서비스 개발 모형별로 지역단위의 시범사업 실시

- 연계기관의 자원, 국민의 특성 등을 고려한 모형별 지역단위의 시범사업 실시
- 시범사업시 지역별 주민의 특성 및 욕구에 대한 심층 조사 실시

### □ (세부과제 2-2) 노후준비 관계 기관 발굴 및 체계적 자원 관리

#### ○ 지역사회 단위의 다양한 노후준비 영역별 연계 기관 발굴

- 연계기관에 대한 노후준비서비스 필요성 및 사업개발을 위한 홍보, 교육 실시
- 연계기관과의 MOU체결 등 연계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노후준비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공공기관 역할 개발 및 사업 추진
- 연계기관 : 시군구 (주민센터), 건강보험공단, 고용지원센터, 복지관, 여성회관, 교회 및 교육기관(대학) 등의 비영리기관
- 공공기관에서의 노후준비지원을 위한 역할 개발, 이에 따른 사업 개발과 추진

#### ○ 연계기관 정보 DB 구축,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정보의 업데이트 방식 개발

####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전국단위 기관과의 업무협약 실시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전국단위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해당 기관과의 연계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약 체결



- MOU를 체결한 전국단위 기관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해당 사항 전달을 통한 업무 효율성 확대

#### □ (세부과제 2-3)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별 연계기관 협의체 운영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협의체와 같은 공식적 조직체계를 필요로 함.
  - 지역단위 협의체 구성의 목적: 지역 주민의 노후준비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노후준비 독려
  - 협의체 구성(안): 노후준비지원센터, 지자체, 고용센터, 건강관리협회, 지역복지관, 여성회관 등 지역내 노후준비 관련 기관
  - 협의체 역할: 노후준비 관련 정보 공유, 지역 주민 욕구에 따른 노후준비 프로그램 계획, 적극적 연합 홍보 및 교육, 정기적 회의 등
- 지역노후준비지원기관 협의체의 설치방식과 운영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다음의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1안) 지역복지협의체의 분과 형태로 운영방안
    - 기존 시군구 단위의 지역복지협의체의 분과형태로 설치하는 방식이며, 기존 운영되는 협의체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단, 기존 지역복지협의체는 복지기관 이외의 다양한 기관을 포괄하지 못하므로 별도로 추가해야 하는 점, 현재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와 시군구가 1:1로 설치되지 못함으로써 여러 시군구 지역을 담당하는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경우 여러 시군구의 지역복지협의체에서 활동해야 하는 단점이 있음.
  - (2안) 별도의 지역노후준비지원협의체 설치 방안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기준으로 별도의 지역노후준비지원협의체를 설치 운영하는 방식임.
    - 지원센터의 관할 지역 구역을 기준으로 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사업 추진 등의 범위가 명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단,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업무의 일환으로 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지원센터 업무의 증가, 새로운 협의체 마련을 위해 지역자원을 조직화 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음.

#### □ (세부과제 2-4) 지역내 유관 기관의 적극적 참여 및 협조를 위한 지원

- 지역내 유관 기관에서 노후준비 지원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연계에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내 유관 기관에서 새로운 노후준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시 지역투자 사회서비스 사업(바우처 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현 노후준비 연계 기관이 부족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서비스가 개발되기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 지침화)
  - 노후준비지원센터 MOU기관 직원에 대한 우선적 노후준비 상담 실시

#### □ (세부과제 2-5) 지자체의 노후준비 지원사업 적극적 참여 독려

- 지자체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의 노후준비 연계 네트워킹 및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하도록 독려
  - 노후준비 지원 우수지자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통해 모형 개발 및 확산



## 제2절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3.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 가. 배경

□ 대상에 따라 개별화된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연령별·생애주기별에 따른 차별화된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 연령대에 따라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및 준비 수준이 상이하며, 노년기에 접어드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연령대에 적절한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30~40대 싱글, 은퇴 예정자 등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 대상자의 성별(남성 vs. 여성), 결혼상태(배우자 vs. 무배우자), 지역별(도시 vs. 농어촌), 업종별에 따른 개별화된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생애주기별로 구분)

〈표 7-9〉 연령별·생애주기별 주요서비스 사례

연령	생애주기	특징	재무	여가	일자리	대인관계	건강
30대	장년 1기	사회초년생 신혼기					
40대	장년 2기	직장안정기 자녀교육기					
50대	중년기	직장은퇴기 자녀독립기					
60대~	노년기						

주: 이소정 외(2014). 노후설계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및 컨텐츠 개발 연구: 노후설계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한국노인인력개발원·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표 2-2> 재인용.

○ 노후준비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 프로그램 개발

- 노후준비에 취약한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농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사업장 근로자 및 지역주민에 따른 차별화된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 －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을 통해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제도화하고 이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 － 지역주민은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나 지자체(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 노후준비의 네 가지 영역에 따른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 노후준비서비스 영역(대인관계, 건강, 여가, 재무)에 따라 상담, 교육, 연계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 제공이 요구됨.
  - － 영역별로 제공되는 개별적인 노후준비서비스 이외에도 네 가지 영역의 복합적인 특성(노후준비 유형)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필요

## 나. 현황 및 문제점

□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노후에 대한 인식과 준비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맞춤형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며, 노후준비 취약계층을 표적화(Targeting)한 서비스 전략이 필요함.
- 단순한 연령별 구분에서 벗어나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30~40대 싱글, 은퇴 예정자 등 생애단계별에 따라 요구되는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 2014년부터 생애주기(성장기, 활동기, 은퇴기)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인생의 전환기(사회진출기, 신혼시기, 은퇴시기, 빈둥지시기), 직업형태나 종사상 직위, 이외에도 장애인이나 1인 가구(40·50대 싱글 및 독거노인) 등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 노후준비가 매우 미흡한 집단에 대한(대상자의 12%<sup>17)</sup>) 차별화된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

17) 본 보고서의 제 5장 노후준비 실태조사의 조사결과 참조



□ 노후준비를 위한 네 가지 영역간에도 노후준비도 차이를 보임.

○ 건강영역과 재무영역의 노후준비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여가 및 대인관계영역의 노후준비 정도는 낮게 나타남.

- 단, 대인관계영역과 건강영역의 지표는 현재시점에서의 행태나 상황에 기반을 둔 반면에 경제영역과 여가영역은 은퇴 이후에 대한 인식과 계획정도가 포함되어 있음.
- 또한 건강영역과 재무영역은 사회적으로 노후준비의 대상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는 반면에 대인관계영역이나 여가영역은 그렇지 못한 경향이 있음.
- 노후진단지표를 통한 진단에서 노후준비 점수를 향상시키는 것에 있어서도 영역별 차이를 보임. 예를 들면, 재무영역의 경우에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소득이나 자산과 관련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여가나 대인관계, 건강영역은 개인의 의지에 따라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음.

□ 한편, 노후준비에 있어서 영역별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남.

○ 대인관계와 재무, 여가영역의 관련성이 일반적인 현상이라면 영역별로 구분된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각 영역을 연계하거나 총괄할 수 있는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연구에서 노후준비도를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제시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러한 유형에 따른 상담 및 교육 매뉴얼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
- 노후준비 유형에 따른 상담, 교육, 연계 및 사후관리 매뉴얼이 구축될 필요가 있음.

〈표 7-10〉 노후준비수준 영역별 상관계수

영역	사회적 관계	건강한 생활습관	여가활동	소득과 자산
사회적 관계(대인관계 영역)	1.00	0.34**	0.28***	0.36***
건강한 생활습관(건강 영역)		1.00	0.30***	0.21***
여가활동(여가 영역)			1.00	0.23***
소득과 자산(경제 영역)				1.00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 □ 대상별 노후준비서비스의 차별적 접근성

- 사업장 근로자(상용근로자)와 지역주민(자영업, 전업주부, 은퇴자 및 미취업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등)간 노후준비서비스 접근성에 차이를 보임.
  - － 사업장을 통한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은퇴설계 및 Replacement교육)이 사업장별로 제공유무에서부터 서비스의 질적 차원까지 다양함.
  - － 사업장의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사업장의 기준을 1,000명 이상에서부터 실시하여 점차 사업장 규모를 줄여 확대실시
    - 사업장의 노후준비서비스 내용을 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 지원(강사지원, 상담 및 교육내용의 매뉴얼화 등)
  - － 지역주민들은 강제성 없이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나 지자체, 지역복지관 및 교육기관 등을 통해 노후준비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불리한 상황
    - 지역주민들의 노후준비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효성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표 7-11〉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추진 및 계획 상황

협력 및 연계체계구축	교육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	연계 프로그램	사후관리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연금 정보연계: 원스톱 연금 정보 조회서비스 활성화('16.4월 이후)</li> <li>-정부 및 지자체 협력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무(금융위), 건강(복지부), 여가(문광부), 대인관계(여가부) 등</li> <li>·서울시, 경기도, 전북, 충청도, 전남 등 지자체와 연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전환 교육 후 1:1 상담으로 연계추진('16.5월~7월 중 교육 후 4.1% 상담으로 연계)</li> <li>-취약계층(저소득층, 경력단절 여성, 실업자)을 대상으로 한 교육 실시 및 상담으로 연계(교육생 10%) 강화</li> <li>-공공기관, 사업장 등과 연계, 근로자 대상으로 노후준비서비스 강화(40~50대 은퇴설계 프로그램 운영): 공공기관 116개소 및 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 600개소 대상 우선 추진('16.8월~10월)</li> <li>-찾아가는 교육·상담서비스 확대('16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확대</li> <li>·노후준비 교육홍보 브로셔 1만부 제작, 공공기관, 지자체, 지역사회 등 배포('16.9월~)</li> <li>-은퇴예정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연구원, '16.9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후준비서비스 분야별 핸드북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무('15.8월), 건강('15.12월), 대인관계('16.4월), 여가('16.7월)</li> </ul> </li> <li>-노후준비 상담 고객 대상 노후준비 인식도 조사('16.5월)</li> <li>-수요자중심 상담서비스 방향성 검토(연구원, '16.10월)</li> <li>-노후자금 자가진단 프로그램 구축 및 서비스 제공('16.10월): 노후준비 상담 예약 및 직원 연결 기능도 함께 구축</li> <li>-고객 특성을 분류, 유형에 따른 상담컨텐츠 개발('16.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령별, 성별, 배우자 유무, 지역별(도시vs 농어촌)</li> </ul> </li> <li>-연령별, 성별, 업종별로 맞춤형 재무 컨텐츠 지속 개발(~'16. 하반기)</li> <li>-진단결과 노후준비 유형에 따른 상담 컨텐츠 개발<sup>1)</sup></li> <li>-노후준비 낙후집단을 위한 상담컨텐츠 개발<sup>1)</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자체 등 노후준비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약(MOU) 등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연계 서비스 기반 마련('16.9월 현재 32개 기관 및 단체와 MOU체결)</li> <li>-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로 지자체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모델 마련하여 관계기관과 서비스연계 추진('16 하반기)</li> <li>-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연계시스템 구축('16 하반기)</li> <li>-복지부 복지정보과에 노후준비 맞춤형 복지서비스 의뢰시스템 구축 요청('16.7.2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희망고객 대상으로 우편, 이메일 등 노후준비 관련정보 정기적 제공('16. 5월~)</li> <li>-서비스 제공받은 고객의 인식행태변화 상담사례 관리(분기별): '16 상반기 우수상담 사례 754건 공유</li> <li>-사후관리 시범사업(~'16.1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50명 대상으로 초기상담에서 6개월 이내 4차 상담까지 실시.</li> <li>·재무와 비재무로 구분하여 2차 상담시 목표조정, 실행과제 결정. 3차 상담시 측정 및 추가 상담예약</li> </ul> </li> </ul>

주: 1)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추진상황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서비스 내용임.

자료: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2016).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추진상황



## 다. 추진계획

### □ (세부과제 3-1)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관리 기능 강화

- (가칭)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추진 위원회」를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에 구성하여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운영·관리
  -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 내부 및 외부전문가(학계 및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
    -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추진 위원회」는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관리에 대한 자문, 연구결과에 대한 공식인정, 향후 관련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컨설팅 등의 역할을 수행
-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는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위한 연구용역 지원
  -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관련하여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노후준비서비스 제공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관리를 위한 정책·연구자료로 활용
  - 조사내용은 서비스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욕구,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 여부(특히 상담 및 교육) 및 이용자 만족도, 노후준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등으로 구성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는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맞춤형 노후준비서비스 표준매뉴얼 개발·보급
  -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는 노후준비서비스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관리를 위한 연구용역 지원
  - － 연구팀은 노후준비서비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은 물론, 지역사회 유관기관들의 연계 및 사후관리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동시에 사업장을 통한 노후준



비서서비스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운영·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연구수행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는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노후준비서비스 관련기관(사업장, 교육기관, 복지관 등) 등에 노후준비서비스 표준매뉴얼 보급

□ (세부과제 3-2) 정기적 평가를 통한 노후준비서비스의 지속적인 질적 개선

○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추진 위원회」는 현장 모니터링과 평가결과의 피드백을 통해 노후준비서비스 표준매뉴얼의 지속적 개선 도모

- 현장 모니터링 및 실적 평가 팀 구성과 운영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는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추진 위원회」의 승인 하에 내부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팀을 구성하고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
- 현장 평가를 통한 질적 개선 유도
  - 정기적인 현장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맞춤형 노후준비서비스의 질적 개선 도모
  - 현장 모니터링 팀은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대상으로 노후준비서비스 운영관리에 대한 컨설팅 수행
  -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토대로 노후준비서비스 표준매뉴얼의 지속적인 개선



#### 4. 기업의 참여 독려

##### 가. 배경

- 노후준비지원사업 대상의 연령층은 35~69세의 중장년층으로 상당수가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특히 남성의 경우 대부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서 현재 근무시간에 제공되고 있는 노후준비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움.
  -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중장년층의 경우 장시간 근로 등으로 인하여 현재 제공되는 상담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이를 위한 지원이 요구됨.
- 고용기관의 직원들이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준비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 고용기관의 노후준비 지원은 근로자가 불안한 노후에 대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조직에 대한 충성심 및 근로 몰입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 또한 기업의 국가 정책에 대한 지지와 사회적 기여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짐.
- 국가적 차원에서 노후준비 장려를 위한 제도 실시 초기로 노후준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므로 기업 차원에서도 협조가 요구됨.

##### 나. 현황 및 문제점

- 근로자의 노후준비가 어려운 상황
  - 노후준비 상담 실적 결과 남성은 28천명, 여성은 38천명이 상담을 받았으며, 특히 30~50대의 경우 여성에 비해 남성의 이용건수는 50%미만으로 나타남.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여성에 비해 남성 이용건수가 높게 나타남.
    - 이는 30~50대의 경우 대부분의 남성이 근로활동을 함으로써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휴가를 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보임.



〈표 7-12〉 성별·연령별 노후준비 상담 건수(2016년 기준)

(단위 : 건)

구 분		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소계	65,944	10,296	15,074	26,301	14,273
	남성	28,026	3,832	4,998	10,858	8,338
	여성	37,918	6,464	10,076	15,443	5,935

자료 :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 근로계층의 노후준비를 위한 지원은 고용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과 일부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되는 프로그램이 있음.

○ 고용노동부에서는 45세 이상을 대상으로 ‘생애설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중장년층의 생애전반에 걸친 진단을 통해 향후 인생에 대해 새롭게 계획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임.

– 중장년층이 오랜 기간 일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인생을 재설계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경제활동에 초점이 맞춰진 노후준비 프로그램임.

○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의 개별적인 프로그램은 다음의 사례가 있음

- 퇴직준비교육프로그램과 고령자 고용촉진정책 : 재취업준비프로그램, 건강생활 및 노후재테크 관련 교육, 가족관계 복원·힐링 프로그램 등 운영(A 기업)
- 예비시니어 부부학교 프로그램 진행(B 기업), 퇴직자 프로그램으로 인생목표 설정, 체험학습, 부부동반 워크숍 참여, E-Learning 상시 지원으로 심리상담, 진로탐색, 창업컨설팅 등 진행, 생애설계자격취득축하금 제도 등(C 기업)

□ 해외 사례

○ 일본 H 기업 : 전 연령에 걸친 생활계획지원프로그램 바탕으로 노후 뿐 아니라 전 생애에 대해 계획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업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카페테리아 플랜, 자사주식 프로그램, 자산형성저축 프로그램, 집단보험, 건강 프로그램, 기업연금제도 등

– 일본 H 기업은 직원의 안정적 노후준비를 위해 노후설계프로그램(라이프플랜연수)을 실시하고 있음. 정년연령인 60세 이전 50세, 58세, 59세 총 3회에 걸쳐 각 시기별로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일본 T기업은 노후준비 지원 프로그램으로 세컨드 라이프 지원제도, 특별 퇴직자 피보험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세컨드 라이프 지원제도는 고령층의 능력개발·직무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50세 이후부터 개인의 정년후의 생활 이미지를 정확히 설계하여 본인이 선택한 코스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하는 제도임.
  - 재취업 코스(관계회사 희망), 재취직 코스(사내 재고용), 재취직 코스(사회전직 희망), 프리계약(회사와 계약에 의한 자영적 코스), 마이플랜 코스(조기퇴직 제도), 스탠다드 코스(정년을 맞이하는 코스)의 6개 코스로 구분됨.
  - 특별 퇴직자 피보험자 제도의 운영을 통해 퇴직후 직원들의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음.
- 미국 S사는 은퇴 후 직원들이 은퇴 기간을 자신 및 가족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고, 자유롭게 여행과 공부를 하며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은퇴자 대상 건강센터 서비스, 은퇴 후 공적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보제공, 사회참여 지원, 사내 각종 서비스 이용 등과 같은 은퇴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은퇴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미국 H사는 은퇴한 직원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은퇴자들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이들이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에 대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제공하고 있음.
  - 은퇴한 직원들의 건강 및 은퇴계획에 대한 정보제공, 건강보험 지원, 연금지원, 자산관리 교육, 자동차 및 주택보험, 각종 할인혜택 제공, 은퇴자 클럽운영, 자원봉사 연계와 같은 다양한 은퇴자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
- 근로연령층의 적극적 노후준비 상담, 지원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고용주) 차원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 노후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일과 생활의 균형



(Work-Life Balance)’에 대해 국가 전체가 인식하고 실천해야 함.

○ 기업차원의 제도적 실시를 통하여 국가의 인식 개선에 일조할 수 있을 것임.

#### 다. 추진계획

##### □ (세부과제 4-1) 기업 주관 노후준비 교육 실시

○ 근로자에 대한 연령대별 노후준비 교육 실시

－ 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 교육 강사 지원

○ 중소기업 및 자영업 근로자에 대한 노후준비 교육은 중소기업협회 등에서 추진  
토록 지지

##### □ (세부과제 4-2) 노후준비 휴가제도의 단계적 도입

○ 노후준비서비스의 주기적 이용(년 1회)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도입 확대

○ 노후준비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시범 적용

－ 추후 기업규모 등을 고려한 단계적 확대

##### □ (세부과제 4-3)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노후준비 휴가제도 및 노후준비 교육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금전적, 비금전  
적 인센티브 제공 : (예) 법인세 감면, 우수사례에 대한 정부차원에서 홍보

※ 타 영역의 사례

－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공공부문과 대기업에서 우선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선도하도록 공공기관 평가시  
남성육아휴직 사용률 반영

•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남성에 대한 육아휴직지원금 제공(월 30만원)

• 가족친화인증 사업장 제도, 공공부문 전사업장 가족친화 인증 의무화



## 5. 공적 사업과의 연계

### 가. 배경

- 기존의 공적 서비스와 노후준비서비스의 연계 강화를 통하여 노후준비서비스 이용의 활성화 및 효과적인 파급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서비스 이용에 따른 생활상의 변화를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 기존의 공적 서비스와의 시너지를 통하여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아직 노후준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수준이 높지 않음.
  - － 노후준비서비스를 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고 구현할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초점으로 할 경우 서비스 확산이 용이할 수 있음.

### 나. 현황 및 문제점

- 다양한 공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각 공적 서비스가 직접적인 목적으로 설정한 내용에 대해서만 활용되는 경향이 있음.
- 노후준비가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하여야 하며 각 생애단계별로 설계 및 보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공적 서비스를 노후준비의 관점에서 활용하려는 시도가 필요함.

### 다. 추진계획

- (세부과제 5-1) 주요 생애단계별 주요 서비스 이용시 노후준비 진단 포함
  - 학령기: 교과과정에 노후준비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생애설계 관점에서 접근
  - 신혼 및 자녀출산기 :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시 노후준비서비스 안내 및 진단 실시



- 생애전환기: 생애전환기건강검진을 받는 만40세 대상자에게 노후준비서비스 안내 및 진단 실시
- 노년기 진입: 기초연금 수급 개시 대상자(만65세)에게 노후준비서비스 안내 및 진단 실시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 서비스 이용자 교육시 노후준비서비스 안내 및 실시

#### □ (세부과제 5-2) 주요 공적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노후준비서비스 안내

- 주요 대상자별로 서비스 이용시 노후준비서비스 안내
  - 향후 서비스 대상자 여부 판단시 기본상담 후 실천 여부를 반영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함.

〈표 7-13〉 자립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공공서비스

대상	서비스	
	연금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중장년층	근로 연계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 /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I, II 및 내일키움통장)
		근로장려금 /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취업성공패키지(취업성공수당, 참여수당, 생계지원수당)
		창작준비금 지원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지원사업(두루누리)
		장기복무제대군인 취업지원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
	장애인	장애수당
		중증장애인지원고용/직업재활지원(훈련수당)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장애인 특화형 일자리 제공
	여성	여성창업지원
	산재	산재근로자직업훈련 / 창업점포지원 / 직장복귀지원
	유공자	국가유공자등 대부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지원
	농어촌	농어업인건강보험료지원
	주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주거안정 월세대출
노년	-	기초연금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신청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주: 복지로의 중장년, 노년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안내중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사업임.



### 제3절 다양한 서비스 접근방법 마련

#### 6. 디지털 접근 방법의 강화

##### 가. 배경

- 노후준비서비스는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서비스로, 정보의 접근성 강화 측면에서 노후준비 온라인포털, 타기관 연계정보 관리시스템, 코드정보 관리 시스템 등의 종합정보시스템 통합 DB 구축이 필요함.
- 현재는 각 부처 및 지자체/기관에서 시행하는 노후준비서비스 관련 정보가 산발적으로 탑재되어 있고, 개인별로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의 노후준비서비스 과정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없음.
- 노후준비종합정보시스템은 모든 노후준비 지원 정책과 서비스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며, 개인별로 노후준비서비스를 받은 이력을 추적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함.
- 종합정보시스템의 통합 DB는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를 거쳐 향후 전사적인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구축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종합정보시스템에서는 연금정보 연계범위 확대, 개인별 서비스 신청 및 단계별 서비스 진행 조회, 관계기관에 의뢰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탑재하고자 함.
- 노후준비종합정보시스템에 노후준비 관련 관계부처 및 기관들의 사업과 서비스의 모든 내용을 탑재하여 정보제공 및 연계를 강화하고자 함.

##### 나. 현황 및 문제점

- 종합정보시스템 통합 DB는 2020년 구축예정으로, 그 전까지는 국민연금공단의



서브도메인으로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현재의 노후준비 온라인서비스는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정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설계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등, 연금 위주의 포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건강설계, 여가설계, 대인관계 설계에 대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고 있음.

○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주로 50~60대)를 주 대상으로 제공됨.

– 상대적으로 온라인에 취약한 세대이며, 따라서 온라인 서비스의 활용방안 모색이 적극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음.

○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조회 등 국민연금과 관련된 관심에서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되는 과정상 독자적인 노후준비 전문사이트로서 인식되지 못하고 있음.

– 단, 재무 분야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의 ‘내연금’사이트와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을 연계하여 전용회선을 통해 실시간으로 개인의 공·사연금(국민, 퇴직, 개인, 주택연금) 예상 연금액 정보를 확인하고 재무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연금간 정보 연계 범위를 넓히, 직역연금으로 확대할 예정에 있음.

– 비재무 분야의 경우, 콘텐츠 부족으로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서브 도메인 방식인 노후준비 온라인서비스와 더불어 메인 도메인(www.nps.or.kr)에서 적극적 홍보가 병행되어야 함.

〈표 7-14〉 시스템 구축방안 비교

구분	개요	장점	단점
독립 시스템 방안	HW, SW를 독자적으로 구축하여 운영 하는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 운영기준 및 원칙에 의한 자율성 확보</li> <li>– 사이트의 기능, 특성표현 및 운영의 유연성 확보</li> <li>– 홍보매체로 적극적 활용 가능(상용포털 등에서 사이트 소개가능)</li> </ul>	– 많은 비용 소요
서브 도메인 방안	HW 및 SW의 일부를 메인도메인과 같이 사용하며 메인도메인의 서브도메인 으로서 운영하는 방식 ex) data.kihasa.re.kr csa.nps.or.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의 페이지 구성 시 사이트의 기능 및 특성표현, 운영의 유연 성 확보</li> <li>– 홍보매체로 적극적 활용 가능(상용포털 등에서 사이트 소개가능)</li> </ul>	– 메인도메인의 운영기준, 원칙에 의해 영향 받을 가능성 존재



구분	개요	장점	단점
서브 폴더 방안	HW 및 SW를 메인도메인과 같이 사용 하며 메인 도메인의 서브폴더형태로 운영하는 방식 (ex) data.kihasa.re.kr/socialstat	-별도의 페이지 구성 시 사이트의 기능 및 특성표현, 운영의 유연 성 확보	-메인도메인의 운영기준, 원칙에 의해 영향 받을 가능성 존재 -홍보매체로 활용에 어려움 (상용 포털 등에서 사이트 소개 불가능)

자료 : 정영철 외(2014),사회보장통계 데이터 관리 및 운영방안,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참고하여 작성함.

## 다. 추진계획

### □ (세부과제 6-1) 종합정보시스템 통합DB 구축 및 홈페이지 개선

#### ○ 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관계부처, MOU 체결기관, 노후준비 관계기관 등)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내연금 홈페이지를 링크할 수 있도록 조치

-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노후준비 관련 정보를 한 곳에 집약하여 온라인상에 안내하여 대국민 접근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 이러한 맥락에서 공단과 금융감독원 간 전용회선을 연결, 건별 실시간으로 공·사연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을 구축한 바 있음.
  - 재무·일자리 분야는 공사적연금, 재무설계서비스, 일자리, 전직·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의 관련 정보 연계 필요
  - 건강 분야는 건강검진, 가족보건, 예방접종, 건강생활실천, 장기요양보험 등의 관련 정보 연계 필요
  - 여가 분야는 여가 프로그램, 자원봉사 프로그램,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의 관련 정보 연계 필요
  - 대인관계 분야는 고령자 전문 상담서비스, 가족관계 상담 프로그램, 가족친화 프로그램 등의 관련 정보 연계 필요

#### ○ 관련 정보 집적 후, 특정 서비스나 정책 정보 제공 시 노후준비서비스 안내 등 연계 실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함.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시(40세, 66세), 기초연금 수급 개시(65세), 장기요양보험 이용 신청 시 노후준비서비스를 안내해 주는 시스템 구축



○ 지역사회 자원 연계시스템 전산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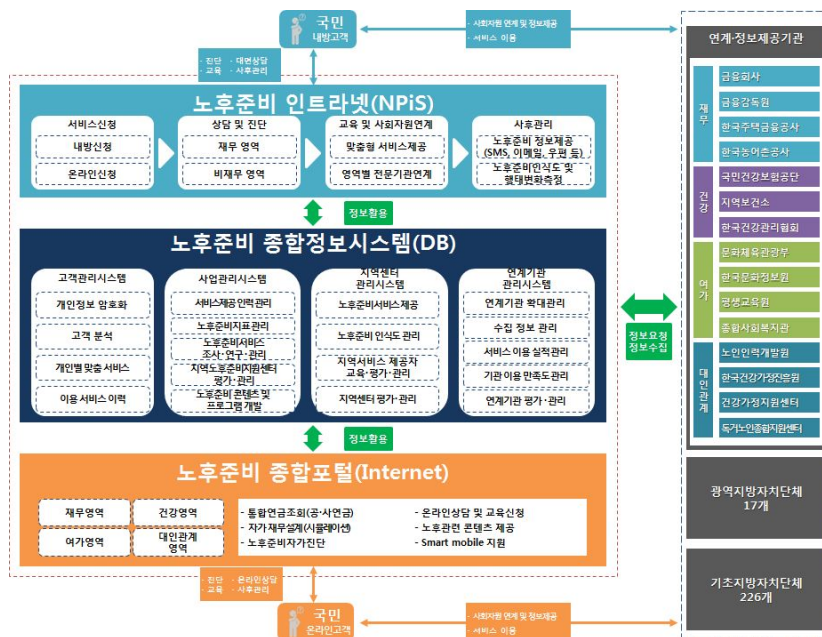
- 상담 과정에서 지역 사회자원 안내 등을 용이하게 하도록 NPIS 내 사회자원 연계 프로그램 구축

○ 노후준비 교육 내용의 강의를 온라인 사이트에 탑재하여 지속적인 홍보 강화

○ 종합정보시스템 통합 DB 추진일정

- 2018 BPR/ISP → 2018 예산 신청 → 2019 예산 반영 → 2019 구축 → 2020 시범운영예정

[그림 7-5] 종합포털 구성(안)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 웹페이지 개선

- 노후준비서비스 웹페이지의 현재상황, 문제점(AS-IS)과 개선사항(TO-BE)을 함께 제시함.



[그림 7-6] 국민연금공단 메인 도메인(AS-IS)



#### ■ 메인 도메인에서의 노출

- 노후준비(내연금) 타이틀로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 연구원, 국민연금 통계와 하단에 함께 제시됨

[그림 7-7] 국민연금공단 메인 도메인(TO-B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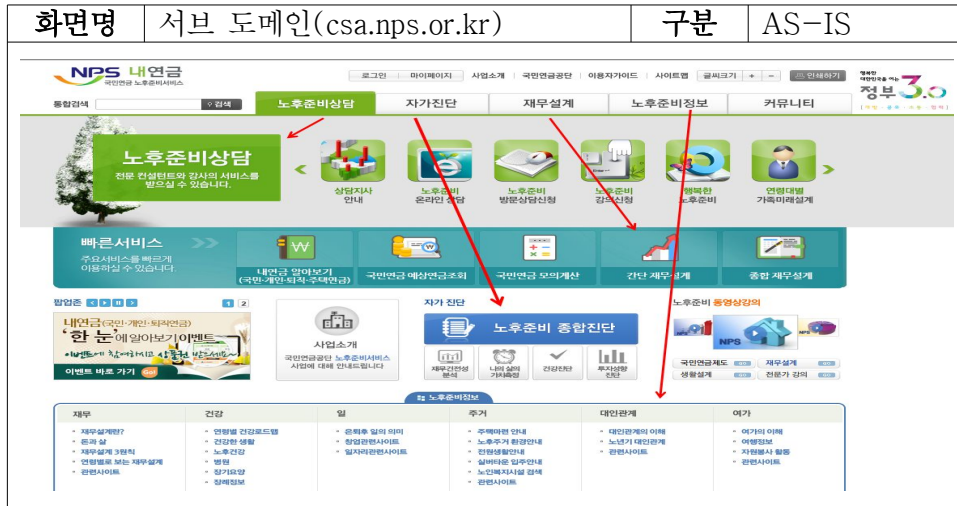


#### ■ 메인 도메인에서의 노출

- 노후준비(내연금) → “노후준비서비스” 로 명시
- 위치를 국민연금 신고센터 위치로 변경하여, 노후준비 온라인서비스에 대한 홍보 강화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 연구원은 조직이므로 국민연금 신고센터를 동일한 위치로 변경



[그림 7-8] 국민연금공단 서브 도메인(AS-IS)



■ 서브 도메인 메뉴

- 노후준비상담, 자가진단, 재무설계, 노후준비정보의 대메뉴의 상세내용이 메인화면에 전부 노출되어 있음

[그림 7-9] 국민연금공단 서브 도메인(TO-BE)



■ 서브 도메인 메뉴

- 대메뉴의 상세내용이 메인화면에 전부 노출되어 있는 형태를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재무설계의 경우 “빠른 서비스” 영역에 배치되어 있는데, 노후준비 온라인 서비스의 목적이 다양한 영역에서의 정보제공이라고 한다면, 재무설계 영역이 부각되지 않도록 해야 함



[그림 7-10]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상담 메뉴(1)(AS-IS)



#### ■ 노후준비상담 메뉴

- 상담지사안내, 온라인상담, 방문상담 신청, 강의신청 등 지사안내와 상담신청에 대한 내용 위주이며 행복한 노후준비 및 연령대별 가족미래설계 부분은 콘텐츠 부족

[그림 7-11]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상담 메뉴(1)(TO-BE)

화면명	노후준비상담 메뉴	구분	TO-BE
<b>■ 노후준비상담 메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복한 노후준비 메뉴에 대한 내용을 보강하여 노후준비상담 메뉴가 단순히 방문상담신청에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함</li> </ul>			



[그림 7-12]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상담 메뉴(2)(AS-IS)

**화면명** 노후준비상담 메뉴 **구분** AS-IS

**노후 준비상담** 온라인상담

온라인 상담코너에서는  
재무설계사(CFP, AFPK), 사회복지사, 노후준비상담사 등 공단의 전문 컨설턴트가 노후준비에 관한 1:1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무, 건강, 일/취업, 취미/여가, 주거,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해 상담신청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납부, 연금지급 등 제도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나 1355 상담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분야 ☒ 전체 ☐ 재무 ☐ 건강 ☐ 일/취업 ☐ 취미/여가 ☐ 주거 ☐ 대인관계 ☐ 기타

> 검색어 전체  > 검색기간  ~

전체 건수 : 3521

번호	상담분야	제목	작성일자	작성자	공개여부	처리상태
3521	재무	추납보험료 관련 문의입니다.	2017-02-24	김 **	비공개	<input type="button" value="접수중"/>
3520	재무	군인 - 국민연금	2017-02-24	이 **	비공개	<input type="button" value="접수중"/>
3519	재무	납부금 총액 가능한가요 ?	2017-02-23	이 **	비공개	<input type="button" value="상담완료"/>
3518	기타	소득자 국민연금 수령연기 방법과 소득금액이 있을 경우 수령액	2017-02-23	**	비공개	<input type="button" value="접수중"/>
3517	재무	추납보험료 상담입니다.1	2017-02-23	김 **	비공개	<input type="button" value="접수중"/>

#### ■ 노후준비상담 메뉴

- 온라인 상담 코너는 이용자가 질문을 올리면 답변을 해주는 방식으로 되어있는데, 주로 재무 관련 질문임
- 특히, 국민연금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7-13]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상담 메뉴(2)(TO-BE)

화면명	노후준비상담 메뉴	구분	TO-BE
<b>■ 노후준비상담 메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는 국민연금 사이트와의 차이점이 보이지 않음</li> <li>○ 재무뿐만 아니라, 여가, 건강, 대인관계 영역에 대한 상담내용도 담길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제공 필요</li> </ul>			



[그림 7-14]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정보 메뉴(1)(AS-IS)



#### ■ 노후준비정보 메뉴

- 재무, 건강, 주거, 일, 대인관계, 여가 콘텐츠에 대한 단순 정보 제공

[그림 7-15]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정보 메뉴(1)(TO-BE)

화면명	노후준비정보 메뉴	구분	TO-BE
<b>■ 노후준비정보 메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후준비정보의 6개 영역과 자가진단의 4개 영역과의 연계성이 필요</li> <li>○ 노후준비정보의 6개 영역 안에서 위계가 맞지 않으므로, 대인관계 영역을 보완하여야 함</li> </ul>			



[그림 7-16] 국민연금공단 자가진단 메뉴(AS-IS)



■ 자가진단 메뉴

- 자가진단에서 투자성향 진단, 건강 진단, 취업적성 진단, 여가활동 진단, 대인관계 진단 등으로 현재의 노후준비수준을 파악할 수 있게 함

[그림 7-17] 국민연금공단 자가진단 메뉴(TO-BE)

화면명	자가진단 메뉴	구분	TO-BE
■ 자가진단 메뉴			
○ 노후준비정보의 6개 영역과 자가진단의 4개 영역(사회적 관계, 건강한 생활습관, 여가활동, 소득과 자산)과의 연계성이 필요			
○ 자가진단에서 취업적성 진단과 투자성향 진단은 4개 영역과 위계가 맞지 않으므로, 이를 sub 로 표현해야 함			



[그림 7-18] 국민연금공단 재무설계 메뉴(AS-IS)



#### ■ 재무설계 메뉴

- 재무설계 메뉴와 빠른서비스 메뉴 유사

[그림 7-19] 국민연금공단 재무설계 메뉴(TO-BE)

화면명	재무설계 메뉴	구분	TO-BE
<b>■ 재무설계 메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설계 메뉴와 빠른 서비스 메뉴가 일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빠른 서비스 메뉴에는 다양한 영역의 중요한 콘텐츠가 포함되게 설계되어야 함</li> </ul> </li> <li>○ 현재는 재무설계 메뉴가 국민연금 관련 정보 중심으로 되어있는데, 보다 포괄적인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메뉴 개발 필요</li> </ul>			



[그림 7-20] 국민연금공단 커뮤니티 메뉴(AS-IS)



■ 커뮤니티 메뉴

- “국민연금 새소식” 클릭하면 연금공단 홈페이지로 이동
- “내연금 이벤트”는 내용 부실
- “사이트 개선의견” 클릭하면 연금공단 홈페이지로 이동

[그림 7-21] 국민연금공단 커뮤니티 메뉴(TO-BE)

화면명	커뮤니티 메뉴	구분	TO-BE
<p>■ 커뮤니티 메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커뮤니티 용어 수정 및 내용 전반에 대한 개편 필요</li> </ul>			

□ (세부과제 6-2) 노후준비 진단 앱 개발

- 모바일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층의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폰을 통하여 자가진단 및 상담 예약, 연계가능한 자원 파악 등이 가능하도록 앱 개발
  -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인력 및 자원 확보가 필수적임.



## 7. 찾아가는 서비스 개발

### 가. 배경

□ 노후준비 지원법의 시행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가 설치되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가 설치되었음.

○ 노후준비서비스는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 질병, 무위, 고독 등에 대해 사전에 대처하기 위한 서비스로서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의 영역에서 노후에 대해 준비할 수 있도록 진단, 상담, 교육,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모든 국민들은 궁극적으로 노년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점에서 노후준비서비스는 명실상부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며, 법에 의해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공적 서비스이기에 서비스가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 해야 함.

○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중심으로 제공된다는 전달체계의 한계로 인해 연금 수급자들이 서비스의 일차적인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

– 뿐만 아니라 연금공단 지사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밖에 없는데 공단 지사의 개수는 전 국민을 포괄하기에 충분치 않음.

□ 따라서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지사에 내방하는 연금 수급자들을 넘어 연금 미가입자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를 포함해 전 지역사회 주민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Out-reaching 서비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나. 현황 및 문제점

□ 법의 시행에 따라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 전 국민연금공단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행복노후설계센터를 폐지하고 국민연금공단 본부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전담부서인 노후준비지원실을 설치, 22명의 공단 직원이 노후준비 업무수행을 위해 배치됨.



□ 이러한 인프라 현황은 노후준비서비스가 명실상부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임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국민들의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수준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다수의 국민들은 포괄적인 노후준비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법의 존재 및 그 시행주체가 국민연금 공단 지사임을 알지 못함.

– 따라서 현재 서비스는 국민연금 상담을 위해 내방하거나 공단지사와 접촉을 취하는 연금 고객에게 노후준비 진단 및 상담을 권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그 대상이 다분히 연금 가입자들에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 뿐만 아니라 연금공단을 내방해 연금에 대해 상담하는 주 연령집단이 노년기를 목전에 두고 있거나 퇴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현재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의 범주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음.

○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찾아가는 노후준비 교육서비스’라는 목표 하에 노후준비를 위한 교육 수요처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16년말 기준 총 418,505명을 대상으로 9,631회에 걸쳐 교육 제공

○ 교육은 주로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전환 교육 및 교육 후 1:1 상담으로 연계되되나, 상담 연계비율은 미미한 수준임.

– 2016년 5월 ~ 12월 기준 288,923명 대상 교육 후 12,842명(4.4%)만이 상담으로 연계되었음.

〈표 7-15〉 노후준비 교육 현황

계	성장기(학생)	활동기(30~50대)	은퇴기(60대 이상)
9,631회(418,505명)	668회(19,038명)	8,506회(370,306명)	457회(29,161명)

○ 그밖에 지자체, 공공기관, 사업장 등과 연계하여 은퇴설계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센터,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시킬 계획임.



- 국민연금 공단의 찾아가는 서비스는 주로 집단 교육 위주인데 이러한 방식은 개인별 맞춤형 내용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어, 결국 교육 후 상담서비스로 연계되는 실적이 낮을 수밖에 구조임.

#### 다. 추진계획

##### □ (세부과제 7-1) 찾아가는 서비스의 타겟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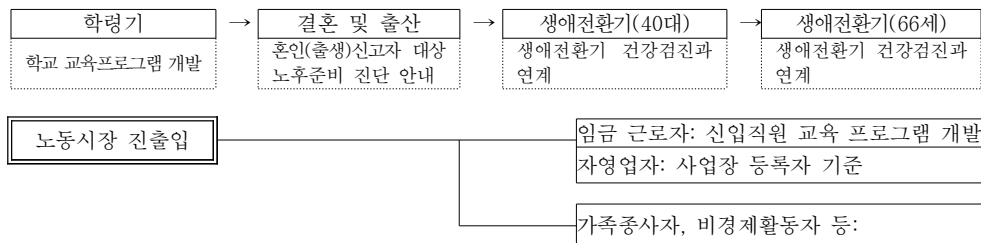
- 각 연령별, 생애주기별로 관심사와 집중적으로 제공할 프로그램이 달라야 함. 따라서 각 생애주기에 특화된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개발하고 교육 및 상담서비스 권유시 타겟화 된 전략에 따라 수행해야 함(그림 7-22 참조).
- － (학령기) 향후 진로 계획과 더불어 대인관계가 확립되는 시기이며, 노후준비에 대한 이해와 인식 변화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여가영역 이외에는 직접적으로 노후준비를 실행에 옮기지는 않는 시기임.
  - 따라서 학령기는 학교 교과과정에서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본인의 노후와 가족(부모 등)의 노후생활을 고찰해볼 수 있는 시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교과서에 학령별로 특화된 내용을 수록하도록 하며, 각 학년별로 최소 연 1회의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함.
- － (30대) 직장 초년생이자 결혼하거나 신혼을 맞이하는 시기로, 본격적으로 노후준비를 위한 실행에 착수하게 되는 연령대라는 점에서 중요한 시기임. 반면 현실에서 국민들은 30대에 노후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 못함.
  - [그림 7-23] 에 제시된 바와 같이 30대는 본격적인 재산의 형성 시기이나 동시에 결혼자금, 주택자금 마련과 그로 인한 부채 발생, 그리고 자녀 교육비 등의 지출로 재무적 균형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따라서 이 시기에는 맞벌이에 대한 의사결정, 합리적인 소비지출을 비롯해 이 연령대에 맞는 각종 재무 상품(예: 보험 및 개인연금, 세제혜택상품, 장기저축계획 등)을 소개할 필요가 있음.
  - 뿐만 아니라 30대는 가족형성으로 인해 개인의 여가문화를 개발하기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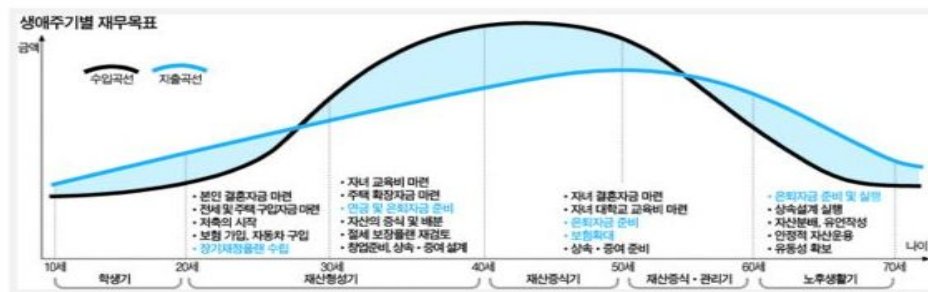
렵거나 기존에 유지되어 오던 여가경력의 상실을 경험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가족생활과 병행할 수 있는 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여가 향유 노하우, 사내 동호회 중심의 여가활동 프로그램 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함.

- 30대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신입직원 교육 내용에 노후준비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그림 7-22] 생애단계별 서비스 타겟



[그림 7-23] 생애단계별 재무목표



자료 : 한국경제(2011). “(자산배분 전략) 보수적 투자자, 이익 실현 주기 짧게 관리”.(2011.4.19.) 재인용.

－ (40대) 직장이 안정되고 자녀교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기임.

- 이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노후준비서비스는 30대와 마찬가지로 직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무엇보다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가 지역사회 내의 사업장(연금 가입 사업장 + 특수직역연금 사업장 포함)과 적극적인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 (세부과제 7-2) 노후준비서비스 전담 콜센터(전담 번호) 운영

○ 국민 다수가 지사에 내방해야 할 당위성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연금 미가입자인 국민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진단, 상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임.

－ 따라서 콜센터를 설치해 전화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별도의 번호 확보

- 현재 공단 전체에 상담사, 종합상담사, 전문강사를 모두 포함해 총 188명의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인력이 존재함.

- 이 중 상담사 인력은 107개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센터별 1~2명씩 배치되어 총 117명 존재하나 타 업무와의 겸임제 인력임. 따라서 이들이 콜센터라고 하는 추가적인 업무를 분담하기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콜센터 설치 시 콜센터 업무를 담당할 인력(콜 응대 직원 및 행정담당자 등) 확보가 중요한 관건임.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추가 인력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콜센터 업무 담당 인력은 일정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은퇴자를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음. 국민연금 수급자 모임을 활성화해 수급자 가운데 자격요건과 학력, 유관 경력을 갖춘 사람들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 일종의 성과 인정형 자원봉사로 업무 수행

- 콜센터의 주요 업무 : 노후준비와 관련된 전화 상담 수행. 전화상담이라는 형식적 제약상 노후준비에 대한 일반적 안내와 정보 제공 중심의 서비스 제공. 진단을 비롯한 심층적 면접은 가까운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내방할 수 있도록 안내



## 제4절 서비스 제공 기반마련

### 8.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전달체계 확립

#### 가. 배경

- 급속한 고령화 및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정책적 대응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음.
- 정부는 2차례에 걸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의 추진과 각종 정책의 확충을 통해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지난 십년간 노인빈곤율, 노인자살률은 여전히 높고 낮은 노후 삶의 질은 개선의 여지를 보이고 있지 않음.
  - 이는 이미 노년기에 진입한 이후 빈곤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비용 대비 산출 효과가 크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임.
  - 전체 인구의 1/5이 노인이 되는 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고령사회를 위한 해법은 사전적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음.
- 성공적인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해 전 국민의 내실있는 노후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과 이를 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후준비 지원법이 제정 및 시행('15.12.23) 됨.
- 동법에 의하면 국민의 노후준비를 위한 서비스 제공의 핵심 전달체계는 각 지역별로 지정된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와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임.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는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제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명실상부한 노후준비지원사업의 가장 중점에 있는 전달체계로,
  -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을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하도록 규정(노후준비지원 시행령 제7조)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관리, 조사·연



구·교육, 홍보 및 국제협력,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개발·보급, 지역노후준비 지원센터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노후준비 지원법 제9조)하도록 규정됨.

- 한편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노후준비 인식 제고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노후준비 지원법 제10조)되며,
  -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지정받을 수 있음.
  - － 또한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는 시·군·구별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2개 이상의 시·군·구를 묶어 권역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노후준비 지원법 제10조3항).
  - －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노후준비 서비스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됨(노후준비 지원법 제10조5항).

□ 노후준비 지원법에서는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와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대략적인 역할과 지정의 원칙 등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어 이들이 국민들의 실질적인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전달체제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현실적합성, 유관기관과의 역할 및 기능 분담 등의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함.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와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명확한 역할과 기능 및 지정의 원칙 등이 선결될 때 국민들의 실질적인 노후준비도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서비스가 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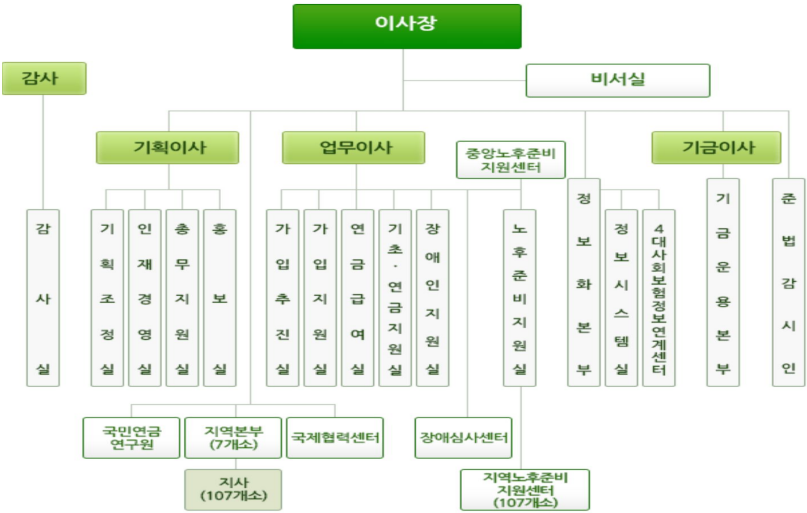
## 나.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 전 국민연금공단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행복노후설계센터는 폐지



[그림 7-24] 국민연금공단 본부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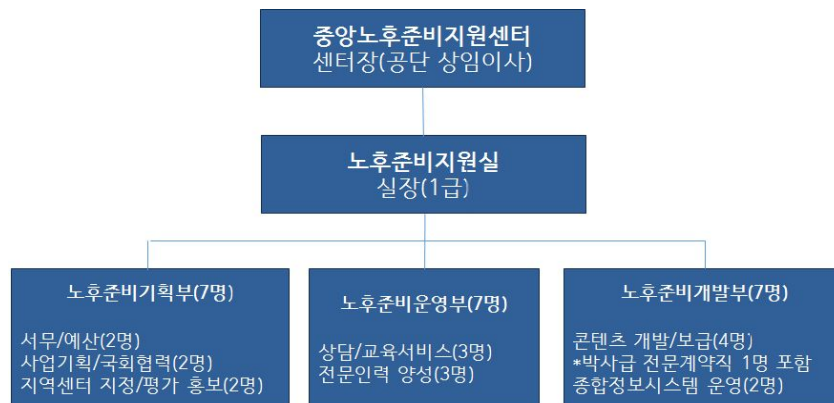
주: 2016년 기준임.

- 법에 의해 국민연금공단 본부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전담부서인 노후준비지원실(22명) 설치
  - 107개 공단 지사를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 75개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는 전담부서설치
-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지원실 산하 3개 부 22명의 직원으로 구성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장은 노후준비서비스 직무를 관장하는 업무이사가 겸직
  - 현재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지원실(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주요 역할 규정
    -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및 국제협력
    - 노후준비지원사업의 표준 매뉴얼 구축
    - 정보시스템 구축(DB 구축 및 관리) 및 노후준비 종합포털사이트 구축·운영
    - 노후준비연구소를 설립하여 노후준비지원사업에 관련된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실시



- 노후준비서비스 연계대상 기관의 중앙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MOU 체결 등)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실시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운영 예산지원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및 운영관리 등
- － 노후준비기획부는 노후준비서비스 사업계획 수립을 비롯해 관련 규정의 제/개정, 홍보 및 국제협력,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원 및 평가, 노후준비 통계 생산 등의 업무 담당
- － 노후준비운영부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 및 관리, 노후준비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개발보급, 사회자원 관리 등의 업무 담당
- － 노후준비개발부는 노후준비서비스 조사연구, 실태조사 및 인식도 조사, 노후준비지표 개발, 외국 동향 조사, 공사연금 정보연계 및 내연금사이트 개발 운영,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업무 담당

[그림 7-25]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구성도



자료 :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2016).



#### □ 문제점

- 현금서비스(국민연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내 현물서비스(노후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음.
  - 노후준비지원 업무는 국민연금공단의 기존 업무와 교집합도 있지만 성격이 매우 다른 이질성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기존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와 조직구조 내에서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독자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됨.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와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역할분담 불명확성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과 홍보 및 인식 제고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업무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7개 지역본부가 운영중이지만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지역본부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음.
  - 현재 지역본부에 종합상담직원을 배치하여 심층상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사 상담과 종합상담간의 연계고리가 약함.
  - 지역본부와 지방센터간의 역할분담 및 연계에 관한 구체화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못함.

#### 다. 추진방안

##### □ (세부과제 8-1) 국민연금공단 내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독자성 확보

- 조직 및 인력관리의 독자성 확보
  - 별도 직렬 또는 공단내 성과관리에 있어서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지역별 자원 DB 관리, 정보화 시스템 구축, 통계자료 구축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중앙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하기에 는 무리가 있으므로 광역센터에서 분담할 필요가 있음.



## □ (세부과제 8-2)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와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역할 정립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는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인식 제고와 서비스 제공의 중장기 전략 마련,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함.

－ 서비스 제공의 기반 마련과 관련한 주요 역할

- 인력 양성·관리 체계 구축 및 구현
- 조사·연구·교육사업 실시
- 매뉴얼,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개발·보급
- 신규 서비스 개발

－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노후준비 지원 서비스의 확산을 위한 노력

- 홍보전략 마련 및 지역밀착형 홍보전략의 구체화
- 노후준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멘토링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효과적인 관리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평가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상시관리(현황 및 문제점 파악 등)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역할

－ 지역주민에 대한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 관할 지역내의 자원 파악 및 연계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 마련한 서비스 및 매뉴얼의 구현상황 및 문제점 평가



## 9. 지역 노후준비지원센터 확보

### 가. 배경

- 노후준비 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후준비서비스를 이용자 중심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함.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는 노후준비지원사업 본연의 기능으로 제시된 기본서비스를 지역사회 일선에서 일차적으로 수행하는 동시에,
  - 지역사회 노후준비지원사업의 수행기관(예, 주민자치센터) 및 연계기관(교육 및 활동)과 관련된 지원사업을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것임.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설치 기준(노후준비 지원법 제8조제1항 관련 별표1)
  -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수요,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분포의 적절성, 교통편의 등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배치해야 함.
  -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관리 업무 등에 필요한 공간과 통신설비, 집기 등의 설비 및 비품을 갖추어야 함.

### 나. 현황 및 문제점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양적 부족으로 인한 접근성의 문제 발생
  - 국민연금공단은 2016년 현재 전국 107개의 국민연금지사를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노후준비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센터는 75개에 불과함.
  - 노후준비서비스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임을 고려할 때 국민들이 타 시군구의 공단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찾아가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별 인프라의 격차 및 자원 불균등성의 문제가 발생함(표



7-6~표 7-8 참조).

－ 1개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가 관할해야 하는 시군구가 2개~31개까지 다양함.

- 1개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주 서비스 대상인 35~69세 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가 13개소인 반면, 45만명 이상인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가 6개 등 편차가 존재함.

○ 노후준비서비스 미충족욕구가 약 28%에 달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욕구의 구현이 가능한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그림 5-3 참조).

□ 서비스 내용의 재무중심성, 서비스 제공자인 직원의 정체성, 서비스 수요자의 심리적 접근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노후준비는 노년기 생활 전반에 대한 준비를 포괄하는 것으로 소득과 자산, 건강, 생활습관, 여가활동, 사회적 관계의 각 영역간 균형이 중요함.

○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 상담건수(2016년 기준)를 노후준비 분야별로 구분해 보면 전체 상담 건수 79,146건 중 80.2%(63,468건)이 재무영역, 다음으로 건강(8,583건, 10.8%) 순으로 편중되어 있음(표 7-2 참조).

－ 반면 여가(803건, 1.0%), 일(468건, 0.6%), 대인관계(252건, 0.3%) 등으로 나머지 영역은 매우 미흡한 상담실적을 보임.

○ 국민연금공단의 업무 성격상 서비스 대상자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수급권자로 한정되어 왔음.

－ 노후준비 지원법의 시행과 함께 이러한 특성도 변화해야 함.

－ 국민연금공단이 아니라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서 서비스를 수행해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느끼는 심리적 접근성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별 서비스 질 관리의 문제 : 전문성, 지속성, 적절성, 책임성 등에서 문제가 제기됨.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별 인프라 및 자원 불균등성의 문제가 존재하는 가운데 센터별 적절한 기준의 서비스 질을 유지 및 관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부재함.



## 다. 추진방안

### □ (세부과제 9-1) 기존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독자성 확보

- 현재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된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업무독자성 확보를 통한 내실화
  - － 현재 75개의 지사에만 독자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노후준비 지원업무를 107개 지사에 모두 독립 부서로 설치 확대하여 위상 확립

### □ (세부과제 9-2) 다양한 공공기관의 참여 지원

- 노후준비 지원법에 의하면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신청하여 지정받을 수 있음.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공공기관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모델 개발
  - －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지원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노후준비와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는 서비스 확산에 있어 매우 중요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받기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설계단계부터 노하우가 있는 공단의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와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지원
    - 또한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가능한 방안 모색 필요
  - － 영역별 대표적인 공공기관의 시범사업 실시
    - ① (대인관계)
      - 건강가정지원센터: 대인관계에 대한 전문성을 중심으로 하여 타 영역에 대한 관심도 강화한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참여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
    - ② (건강)
      - 건강보험공단지사: 건강에 대한 전문성을 중심으로 하여 타 영역에 대한



관심도 강화한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참여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

③ (여가활동)

- 사회복지관: 여가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중심으로 하여 타 영역에 대한 관심도 강화한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참여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
- 이외에도 지자체 모델, 각종 공공기관의 참여를 공모절차를 통하여 다각적으로 모색

○ 현재의 107개 지사 외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할 시,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정



## 10. 전문성 있는 인력확보 및 양성

### 가. 배경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인력배치기준(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제8조 별표1)에 의하면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는, 관리책임자 1명(상근)과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인력 3명 이상(상근, 전담)이 배치되어야 함.

○ 단 인구 50만명 이상 80만명 미만 지역은 4명 이상, 인구 80만명 이상 지역은 5명 이상

－ 그러나 이러한 인구규모 대비 필요 인력을 설정한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음.

•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제8조 별표1(지역센터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가. 인력의 배치기준

1) 관리책임자 : 1명

2)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인력: 3명 이상. 다만 인구 50만명 이상 80만명 미만인 지역에는 4명 이상, 인구 80만명 이상인 지역에는 5명 이상일 것

나. 인력의 자격기준

1) 관리책임자

가)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할 것

나) 지역센터 소속 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람일 것

2)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인력

가) 상근하면서 노후준비서비스 업무를 전담할 것

나) 지역센터의 장 또는 지역센터 소속 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람일 것

□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노후준비서비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역량있는 서비스 제공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성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서 중요한 과제가 됨.



- 전 국민(35~69세)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노후준비서비스가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임.
- 노후준비서비스가 전국적인 서비스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 인력을 중심으로 관련 인력체계를 노후준비 지원법에 적합한 수준으로 전환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인력의 양성과 전문성 관리의 체계화가 필요함.
-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공인력의 양적확대가 최우선 과제가 될 수 있으나, 동시에 제공인력의 질적 수준 관리를 병행함으로써 노후준비서비스의 전문성과 균형성 확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유용한 사회서비스로 안착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나. 현황 및 문제점

### □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자격증 소지 현황(2016년말 기준)

- 공단 직원들 중 노후준비 전문 내부 자격증인 CSA를 소지한 경우는 급수와 관계없이 총 4,528명에 해당하였으며, 기타 노후소득영역과 관련한 CFP(32명), AFPK(773명) 등으로 나타남.
- 즉, CSA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외에는 국제재무설계사와 한국재무설계사 등 모두 재무 영역과 관련된 자격증에 집중되어 있음.

### □ 현황

#### 1) 노후준비 지원법의 서비스 제공자 교육훈련

- 노후준비 지원법에서는 서비스 제공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교육기관, 교육세부내용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 노후준비 지원법 제11조에서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 보수교육의 의무화와 교육과정 운영방식에 대해 제시
- 시행령 제12조에서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교육을 대학, 전문대학, 사



이버 대학, 평생교육시설, 노후준비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 위탁받아 운영이 가능함을 제시

-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양성과정과 보수교육의 최소 시간과 노후준비서비스 양성과정에 대한 교육방법, 교육내용 등도 제시하고 있음.

〈표 7-16〉 노후준비 지원법의 서비스 제공자 교육훈련 내용

노후준비 지원법 제11조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시행령 제12조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교육의 위탁)	시행규칙 제6조 (노후준비서비스 교육과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있다.	① 법제11조제3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조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의 대학, 전문대학 또는 사이버대학 2. 「평생교육법」 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평생교육 시설 3. 중앙센터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노후서비스 제공자가 되려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②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 과정을 2년마다 2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양성과정은 이러닝 교육 33시간 및 소집교육 32시간, 총 65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주요 과목은 노후준비 총론, 재무설계, 건강설계, 여가설계, 대인관계 설계, 경력관리 설계, 주거설계 등 총 7개로 구성됨(시행규칙 제6조제1항 관련).

- 이러닝 교육과 소집 교육 모두 교육시간의 90% 이상을 참여해야 하며, 이러닝 교육은 과제 및 시험 등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인 경우 수료 가능
- 보유 자격에 따라 이러닝 교육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음.
- 예)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인자는 노후준비 총론 제외, 보건교육사는 건강설계 제외 등



〈표 7-17〉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교육과목

과목	주요 내용	합계	이러닝 교육	소집 교육		
				소계	이론	실습
계		65	33	32	16	16
노후준비 총론	노후준비의 필요성 및 노후준비 진단지표 생애전환기 이해 및 노인의 심리·사회적 특성 변화 상담에 대한 이해	13	11	2	2	-
재무설계	노후소득보장 일반 및 3층보장체계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개인신용 관리 및 부채 관리	20	10	10	4	6
건강설계	노후 건강생활의 이해 의료보장제도 및 노인장기요양제도 노인복지서비스 이해	8	4	4	2	2
여가설계	여가의 개념과 특성 노후의 여가생활 사회활동서비스	6	2	4	2	2
대인관계 설계	부부관계 및 사회적 관계 노후 대인관계 상담사례	7	3	4	2	2
경력관리 설계	노년기 일의 의미와 실태 노인일자리 정책	5.5	1.5	4	2	2
주거설계	노후주거의 이해 노후주거 계획	5.5	1.5	4	2	2

자료: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자료

## 2)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자격요건 및 수행업무

### ○ 상담사 및 전문강사 자격 요건과 배치기준

- 공단은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노후준비 상담사 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한 직원을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로 선발·배치
-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이 규칙 시행 전에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  
32조의3제4호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노후준비서비스를  
위한 상담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교  
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표 7-18〉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상담직원 및 전문강사 현황

(2016년 말 기준, 단위: 명)

중앙 노후준비지원센터	지역 노후준비지원센터	상담직원			전문강사
		소계	상담사 <sup>1)</sup>	종합상담사	
22	179	116	107	9	63

주: 상담사는 지사 민원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원 중 107개 지사별 1명이 노후준비 상담업무를 겸직하는 형태임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 ○ 국민연금공단 내 전문인력 현황

- 노후준비상담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인력은 CSA 2급을 포함하여 4,528명이며, 이들은 노후준비 지원법상의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전환 가능
- 전 직원(5,319명)의 70.8%(3,765명)이 1개 이상의 자격증 보유

〈표 7-19〉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노후준비 관련 자격증 보유 현황(2016년말 기준)

(단위: 명)

구분	노후종합 설계		노후소득 영역		노후생활 영역
	CSA 1급	CSA 2급	CFP (국제재무설계사)	AFPK (한국재무설계사)	사회복지사
취득자(명)	1,317	3,105	32	773	925

주: CSA(Consultant on Successful Aging), CFP(Certified Financial Planner), AFPK(Associate Financial Planner Korea)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 ○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상담직원 및 전문강사 선발·수행직무

## ① 노후준비 상담사

- 근속기간이 2년 이상 혹은 2년 미만자 중 재무 관련 자격증 취득자로 노후준비상담사 2급 이수자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 지사 민원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원 중 107개 지사별 1명이 노후준비 상담 업무를 겸직하는 형태임. 즉, 지사별 노후준비 상담 담당 직원은 임의(임계), 반·추납, 각종 신청·신고 접수, 제증명 발급 등의 업무 병행(노후준비 상담 업무비중은 50%)
- 노후준비 관련 업무는 간단 재무설계, 비재무진단 상담, 홍보 및 인식제고 등

## ② 종합상담사(심층재무설계)

- 사무직 3급 이하자로서 근속기간이 2년이상이며, 재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해야 함. 그러나 노후준비상담사(CSA) 이수 요건은 없음.
- 주요 업무는 종합설계(종합 재무설계, 비재무진단 상담), 서비스표준모델개발, 상담사 교육, 직무수행 보고서 작성 등임.
- 직무수행 보고서: 공모직 상담직의 역할 강화를 위해 반기 1회 작성



③ 전문강사<sup>18)</sup>

- 자격요건은 노후준비상담사 2급 이수하고 근속기간이 3년 이상인 자임.
- 노후준비에 관심이 많고 능력이 우수한 인재발굴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전직원 공모를 통해 신청한 직원 중 심사위원회에서 선발(서류 20%, 면접 40%, 시연 40%)
  - 기존 강사 등을 대상으로 강의 실시 후 ‘만족’ 이상이 80%인 신규강사만 현장 투입
- 7개 지역본부 및 11개 거점지사에 배치되어 있으며, 장기근무한 강사의 순환 배치로 능력있는 인재의 강사 진입장벽이 완화되는 추세
  - 예: 동일 지역본부에서 일정기간 근무 시 거점지사 또는 타 권역 전보(강사 업무 유지)
- 강사 경력에 따라 맞춤형 교육 실시(외부전문기관 위탁, 자체 양성과정 운영 등)

〈표 7-20〉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상담 및 전문강사 현황

구분	선발인원	자격요건	수행직무
노후준비 상담사	107명 (지사별 1명)	- 사무직 4급 이하 - 근속기간이 2년 이상 또는 2년 미만 자 중 재무 관련 자격증 취득자 - 노후준비상담사(CSA 2급) 이수자	- 간단 재무설계 및 비 재무영역 진단 및 상담 - 사회자원 연계 및 사후관리 - 홍보 및 인식제고 - 서비스 신청자 기록 관리 및 유지 - 지역사회내 자원발굴 등
노후준비 종합상담사 ‘직무 가’	7명 (지역본부별 1명)	- 사무직 3급 이하 - 근속기간 2년 이상인 자 - CSA, AFPK, CFP, 사회복지사 자격증 하나 이상 취득자 - 선발된 지사에서 2년 이상 해당직무 가능자	- 노후준비 종합설계 - 사회자원 연계 및 사후관리 - 권역내 노후준비 상담사 대상 교육 및 자문 - 사회자원 업데이트 관리 - 직무수행보고서 작성(반기1회) - 지자체 찾아가는 노후준비 (시범)서비스 등
노후준비 종합상담사 ‘직무 나’	2명 (서울, 경인 지역본부)	- 사무직 3급 이하 자 - 근속기간 2년 이상자 - CFP 자격 취득자 - 선발된 지사에서 2년 이상 해당직무 가능자	- ‘직무 가’ 종합상담사 지원 - 서울, 경인권 노후준비 종합설계 업무 지원 - ‘직무 가’ 종합상담사 정기교육(연2회) - 공단 전 지사 노후준비 상담사 자문 - 직무수행 보고서 작성(반기 1회) 등
전문강사	73명	- 노후준비상담사(CSA 2급) 교육과정 이수하고 근속기간이 3년 이상자 - 노후준비전문자격증 소지자, 노후준비 상담 및 강의 경력자 우대	- 전 국민 노후준비 교육 실시 - 권역별 베이비부머 은퇴설계 콘서트 추진 - 영역별, 생애주기별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활용, 교육수요처 발굴 등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18) 국민연금공단(2015), 2016년도 종합사업 계획(안)



## □ 노후준비 전문강사 배치현황

- 전국에 총 63명의 노후준비 전문강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45명은 지역본부에, 18명은 거점지사에 배치

〈표 7-21〉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전문강사 배치 현황(2016년말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서울북부	서울남부	경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계	63	9	10	11	7	8	7	10
지역본부	45	9	8	8	3	4	6	7
거점지사	18	—	춘천(1) 삼척(1)	남동연수(4)	청주(2) 천안아산(2)	전주원주(2) 순천(1) 제주(1)	포항(1)	창원(3)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 교육강사 또한 부족. 63명의 강사 인력만으로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노후준비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 이와 같이 절대적인 교육인력이 적은 것도 문제지만, 지역별 편차도 심한 상황임.

- 서울은 최다 인원으로 17명이지만, 아예 한 명도 없거나(세종시) 광역시가 없는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단 2명만이 배치되어 있는 등 인력 배치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음.

## 3) 교육훈련 현황

-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상담사(consultant on successful aging, CSA) 양성과정을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른 서비스 제공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개발 추진 중에 있음.



- CSA 2급 과정을 개편하여 서비스 제공자 양성과정(기본교육, 65시간) 으로 운영
  - 기본교육은 온라인(33시간), 소집교육(32시간)
- CSA 1급 이러닝 과정을 심화교육으로 개편·운영
  - 현재 노후준비서비스 보수교육 과정 시간을 확대하여 서비스 제공자 보수교육(2년마다 20시간 이상)으로 개편

현재 공단 교육과정		개편
CSA 2급	→	노후준비 지원법에서 제시한 서비스제공자 양성과정(기본교육)으로 개편(65시간, 온라인 및 소집교육)
CSA 1급	→	심화 교육으로 개편
보수교육(이러닝 7시간)	→	노후준비 지원법에서 제시한 서비스제공자 보수교육으로 개편(2년마다 20시간 이상)

#### ○ 전담인력(상담사, 전문강사) 교육훈련 현황<sup>19)</sup>

- 2015년 상담인력의 교육훈련
  - 연간 2회 소집교육, 연간 1회 재무교육, 연간 4회 분기별 그룹스터디 등 실시
- 2016년 교육훈련 추진계획
  - ① 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해 인사이동에 따른 집합 교육 추진
    - 상담실습, 전산프로그램 및 4대 영역 콘텐츠 숙지, 재무설계방법 등 현장 상담 자신감 제고를 위한 교육 추진
    - 교육 효과성 점검을 위해 교육 후 시험 도입
  - 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외부 위탁교육 추진
    - (종합상담사) 1:1 재무컨설팅, 코칭교육, 금융교육, 비재무 분야 등 종합 교육 커리큘럼 마련 후 상반기 집중 교육
    - (상담사) 공모 상담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단계적 위탁교육

19) 국민연금공단(2015), 2016년도 종합사업 계획(안)



③ 종합상담사와 상담사 1:1 대면교육 추진

- 연 2회 지사 방문을 통해 콘텐츠 활용방법 등 직접 교육
- 연중 상담직원 교체시 구체적 상담방법 즉시 1:1 교육
- 전임자 업무인계 사항 중 상담방법은 종합상담사에 의한 일률적인 교육 추진으로 상담모델 표준화 지속 추진

④ 그룹 스터디 정례화 및 명칭 선정, 주요 커리큘럼, 개최시기 등을 명확화 하여 추진

- 예시) ‘화요 스터디, 화요 공부방’, 분기 첫달의 첫 번째 화요일 실시 등

⑤ 상담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교재 제작 및 활용

- 상담 표준매뉴얼(’15년 내용 갱신), 4대 영역(재무, 건강, 대인관계, 여가) 핸드북 온·오프라인 교재 제작

○ 전문강사 전문성 강화

① 노후준비 전문교수제 운영(안)

- (선발) 전문강사 경력 3년차 이상자 중 자격증 보유, 발전가능성, 조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본부별 1명씩 선발(영역별 고려)
- (주요업무) 전문강사 교육, 교안 개발, 자료 수집·전파, 언론 기고 등
- (지원내용) 교수기법 등 역량향상 등을 위한 외부 전문교육 차등 지원, 주요 업무 집중을 위해 교육 목표건수 하향 조정

② 노후준비 대표강사제 운영(안)

- (선발) 노후준비서비스 인식 확산을 위해 강의 경험이 풍부하고 조직 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선발하여 방송 출연 등 언론 전담
  - \* 2016년 시범운영(2명), 2017년 전 지역본부별 1명씩 배치
- (지원내용) 노후준비 관련 폭넓은 지식과 언론 응대 기법 습득 등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 지원
  - \* 언론 아카데미, 대학교(고려대 평생교육원 등) 전문교육, 해외연수 등



## □ 문제점

## ○ 양성교육으로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전능력 배양 불가능

- 노후준비 지원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양성교육은 65시간으로 온라인 교육(33시간)과 집합교육(32시간)으로 구성됨. 노후준비의 네 영역과 경력관리, 주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65시간 중 재무설계가 20시간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건강설계, 여가설계, 대인관계 설계는 각각 6~8시간 교육으로 실제 서비스 실천현장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함.
-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이론적인 교육내용에 치중되어 있어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내용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 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및 민간서비스, 지역사회 기관, 네트워킹,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교육 보강 필요

## ○ 느슨한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는 양성교육 65시간만 이수하면 서비스 제공자로 자격 부여
-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교육수준(고등학교 졸업 이상, 대학교 졸업 이상)이나 관련 자격증 기준(사회복지사, 보건교육사 등) 등 제시 부재
  - 요양보호사 등과 같이 학력에 관계없이 일정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누구나 서비스 제공 가능

## ○ 비재무영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 역량 부족

- 재무영역 중심의 노후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비재무영역(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미흡
  - 국민연금공단의 직원훈련내용도 재무설계 중심으로 진행됨.
- 노후준비 제공인력의 개선사항으로 정기적인 교육과 비재무영역에 대한 전문성 강화 등이 제기됨(성혜영 외, 2013).



○ 노후준비 대상계층의 욕구 대응을 위한 교육 체계 부재

-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노후준비 인력을 대상으로 인사이동시 집합교육, 외부 위탁교육, 상담매뉴얼 및 영역별 핸드북 제작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음.
- 그러나 일관된 교육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해마다 산발적으로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민연금 업무와의 겹무로 인해 관련 교육 참여나 제공되는 매뉴얼, 핸드북을 숙지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 맞춤형 노후준비 상담 혹은 교육에 맞는 서비스 제공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직무교육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다. 추진방안

□ (세부과제 10-1) 모든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법에서 규정한 전담인력 확보

- 현재 75개 지사에만 독자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노후준비지원 업무를 107개 지사에 모두 독립 부서로 설치 확대 및 지사별 1인 정도로 배치되어 있는 전문 상담 인력을 107개 지사 모두에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
- 인력충원의 원칙은 해당 지역에서 포괄해야 하는 지역 범위와 지역내 인구규모 등 수요를 조사하여 충원해야 함. 공단 내 CSA자격증 소지 직원 수가 4,500명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직원들의 이동을 통해 필요인원을 보충하는 데 큰 무리는 없으나 추가 인력의 채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기존 연금업무, 서비스 대상자 확대 등).
- 우선 자격을 갖춘 공단의 기존 직원들로 인력 재배치를 실시한 후 부족한 인력에 대해 정확한 수요 예측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따라 추가 채용 등의 후속 조치실시
  - 공단 퇴직자 등을 중심으로 노후준비 교육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모색



## □ (세부과제 10-2) 서비스 제공인력 양성교육 내실화

- 노후준비 영역별 이론교육과 함께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과정인 ‘진단, 상담, 교육, 연계, 사후관리’ 체계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각 과정에 실무적으로 활용가능한 교육내용 강화
  - 진단: 진단 방법, 노후준비 일반유형, 진단결과에 따른 상담방식 등
  - 상담: 의사소통기술, 상담 기법, 주요 내용 등
  - 연계: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및 민간서비스 현황, 지역사회 기관 정보, 지역사회 네트워킹 방법 등
  - 사후관리: 목적, 방법, 내용 등
- 실무교육 내용 강화에 따른 필수교육 시간 및 시수 증가 필요
- 비재무영역에 대한 교육 강화
  - 건강, 여가, 대인관계를 중심으로 비재무영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제공
    - 전반적으로 노년기 건강, 여가, 대인관계, 경력관리에 치중되어 교육과정 이 설계됨.
  - 건강설계: 청년 및 중년층의 건강관리 및 예방에 관한 교육과정 보완
  - 여가설계: 청년 및 중년층의 여가생활, 직장 및 지역사회 동호회 활동, 자원 봉사활동 등에 관한 내용 강화
  - 대인관계: 최근 1인가구(비혼, 이혼 등)의 증가에 따른 대인관계 형성과 유지에 관한 내용 포함
  - 경력관리: 중년기의 조기퇴직, 인생이모작 준비 등 인생전환기에 관한 교육 내용 보완
- 초기에는 외부교육 참여나 외부강사 활용 등을 통해 비재무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하되, 중장기적으로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내에서의 비재무영역에 대한 커리큘럼 개발 및 제공



□ (세부과제 10-3)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강화

- 경제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보건학, 심리상담학, 교육학 등의 전공자(4년제 대학 졸업 이상) 또는 최소 2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자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양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마련

□ (세부과제 10-4) 맞춤형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수교육 체계화

- 연령대별, 계층별(취약계층, 근로자, 지역주민), 직종별 상담 및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수교육 체계 및 상담·교육 매뉴얼 마련
  - 생애주기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중장년, 은퇴예정자, 은퇴자 등
  - 인구특성별: 성별, 결혼상태(1인 가구 포함), 지역(도시, 농어촌 등), 업종별 등
  - 노후준비 취약계층: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농어업인, 비정규직, 저소득층 등



## 11. 진단지표 고도화

### 가. 배경

- 국민의 노후준비 정도를 객관적으로 진단함으로써 향후 어떠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진단지표를 개발한 바 있음.
- 2012년에 개발하여 현장에서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제시되거나, <표 4-7>에 제시된 것과 같이 영역별 점수 계산방식에 미세한 수정보완 작업이 이루어져 왔음.

### 나.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사용중인 진단지표를 노후준비 지원법에 기초하여 공식적으로 노후진단지표를 공표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영역명칭이나 영역순서가 진단지와 노후준비 종합진단 리포트, 노후준비 실태조사에서 통일되지 않고 있어 통일이 필요함.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와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 현재 이용중인 지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수정이 요구됨.
- 맞춤형 진단지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는 있으나 그 필요성과 어떤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개발해야 하는지에 대한 경험적 근거가 부족함.
- 공통 진단지표 발표 후 적용된 사례 분석에 기초하여 2차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할 수 있는 연구수행 필요

### 다. 추진방안

#### □ (세부과제 11-1) 노후준비 지표 표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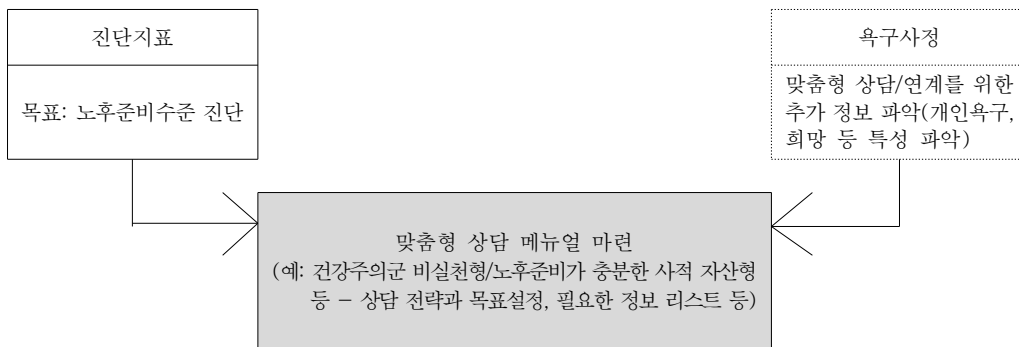
- 현재 활용되고 있는 진단지표를 1차기본계획 기간 동안 보완하여 공식화



- 2012년 기준의 진단지표를 활용하고 있으나, 그 동안 전문가의 의견에 기초하여 수정보완된 진단지표가 공단에서 활용하는 노후준비 진단에는 미반영되어 있어 수정 필요성이 제기됨.
  - 또한 개별지표의 세부적용방법(연도별 연동이 필요한 사항 등)도 기술하여 표준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노후준비진단 방식이 달라야 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
- 이를 위한 별도의 연구와 누적된 상담자료의 심층분석이 요구됨.

#### □ (세부과제 11-2)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욕구사정 항목 개발

- 맞춤형 상담과 연계를 위한 욕구사정 항목 개발
- 현재는 노후준비수준을 진단하는 지표 중심임.
    - 이에 더하여 욕구를 사정할 필요성이 제기됨(예: 건강주의군 비실천형 → 이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상담을 하고 어떠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인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추가 정보 파악).





## 제5절 인식·경험의 공유 기반 마련

### 12. 체계적인 홍보전략 마련

#### 가. 배경

- 지속적인 기대수명 증가로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은퇴 이후의 노후생활을 미리 준비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준비가 안 된 노후는 고령사회 삶의 질 저하와 후세대 재정부담 가중으로 연결
- 국가는 '15년부터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국민인지도는 상당히 미약한 수준임.
- 낮은 노후준비수준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도 불구하고,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마저 낮은 수준
-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제고 및 노후준비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의 강화가 필요함.
-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해서는 노후준비가 필수라는 전제하에, 인식강화(K), 태도변화(A), 실천유도(P)를 통해 노후준비를 전 국민에게 확산
- 이를 통해, 정책적 목표인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및 후세대 재정부담 완화의 효과와 세대가 통합·공존하는 사회의 구현이 가능할 것임.

#### 나. 현황 및 문제점

- 제한된 범위지만, 다양한 가용채널을 통한 대국민 홍보활동 수행(2015년 기준)
- 그간,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 미디어 채널 1종(특집기사 1회), 광고매체 5종, 뉴미디어 2종 등을 활용하여 홍보활동 수행
  - － 전광판 광고 1,054회, 국민대상 '뉴스레터' 활용 매월 정보제공 월 18만명, 국민연금 계간지 분기별 10만부, 공사연금 홍보 리플릿 32만부, 가입내역



안내서 월 175만부

- 뉴미디어 2종(인터넷 동영상 광고 약 60만회 노출, 연합광고 메일 700만통 발송)

○ 아울러, 대인 채널을 통해 여론선도층, 집중대상층에 노후준비 관련 정보 제공

- 정책고객, 오피니언 리더 대상 정보제공(월 300명)
- 국민연금 상담 시 부가적으로 노후준비에 대한 정보 안내 64,711건

○ 향후, 미디어 채널 2종(노후행복 캠페인, 노후준비콘서트) 추진 예정

□ 현재까지는 홍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 미흡

○ 홍보대상층이 국민연금 이용자에 치중되어 있는 경향

- 노후준비는 특정계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포함한 전 국민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홍보대상을 확대하고 이들을 상담현장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해야 함.
- 현재는 노후준비 상담에 대한 단순한 정보제공에 그치고 있는 상황임.
  -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상담과정을 통해 노후준비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홍보전략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 노후준비 상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효과 등을 메시지에 담아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 공단 자체적으로 활용가능한 기존 홍보채널에 의존하는 경향

- 다른 기관의 사업과 연계하는 등 추가적으로 활용가능한 홍보채널 확보 검토 필요
- 파급효과가 큰 SNS 등 뉴미디어 활용을 통한 홍보활동도 적극 검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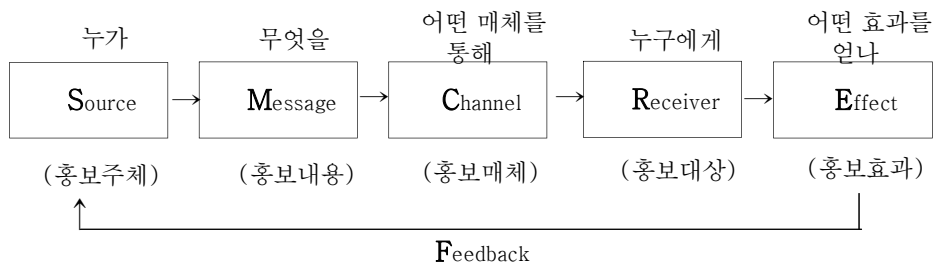
## 다. 추진방안

### 1) 기본틀<sup>20)</sup>

#### □ 홍보 모델

- 홍보(PR; Public Relation)는 일반대중에게 알리고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커뮤니케이션 과정
  - 라스웰의 S-M-C-R-E 모형에 따른 홍보 수행

[그림 7-26] 라스웰의 S-M-C-R-E 모형



#### □ 홍보 대상자 분류

- (사회적 지도층) 일반국민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계층이므로 우선적 홍보
- (중점대상층) 현재 또는 조만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한 사람들이 주축이 된 계층이며, 향후 새로운 문화 형성 주도
  - 노년기 이전 청장년층(40세±20세)
- (불특정 다수의 일반국민) 일회적인 노출의 반복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관리를 통해 노후준비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시키고, 전파효과를 기대
- (미래세대) 장기적으로 노후준비에 대응하는 태도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

20) 본 내용은 오두범(1995), 조계현(2005), 조남훈 외(2006), 한은영(2000)의 내용 등을 참고하여 작성함.



## □ 홍보계획

### ○ 홍보접근방법

- 정보전달(홍보), 교육, 설득, 대화 등을 중첩 사용할 수 있으나, 초기에는 정보전달(홍보)에 중점
-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국민인지도가 낮은 상황에서는 정보전달을 통한 인지도 제고가 중요하며, 이를 통해 서비스 접근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 ○ 메시지

- 메시지는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정이 아닌 긍정적인 면의 내용을 담아 작성할 필요
- 아울러, 대상자들이 어떠한 것을 기대하는가에 따라 메시지도 달라져야 함.
- 작성된 메시지는 매체 및 이용자 특성을 감안하여 서로 다르게 가공하여 송출

〈표 7-22〉 메시지 작성 예시

구분	목표	메시지
노후준비 전반	노후준비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해 노후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li> <li>-스스로 준비하는 노후는 자녀부담을 덜어준다</li> <li>-균형잡힌 식사가 중요한 것처럼 균형있는 노후준비가 필요하다.</li> <li>-노후준비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li> <li>-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li> </ul>
건강	운동강화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젊음을 유지하는 것에는 운동만한 것이 없고, 젊어서부터 운동습관을 만들어야 한다.</li> <li>-규칙적인 운동은 심혈관계 질환 등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준다</li> </ul>
여가	여가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은 삶을 윤택하게 한다.</li> </ul>
대인관계	대인관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더불어 사는 삶은 두배로 즐겁고, 이를 위해서는 어울려 살아가는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li> </ul>
재무	재무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년간 준비하면 돈걱정 없는 노후는 기본이다.</li> </ul>
기타	서비스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후준비 진단부터 설계까지 '노인준비지원센터'가 도와준다.</li> <li>-안락한 노후를 위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에 대해 궁금한 것은 '노인준비지원센터'에 물어보라.</li> </ul>
	성공사례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년간 착실히 노후준비를 한 A씨는 어느 누구보다 즐거운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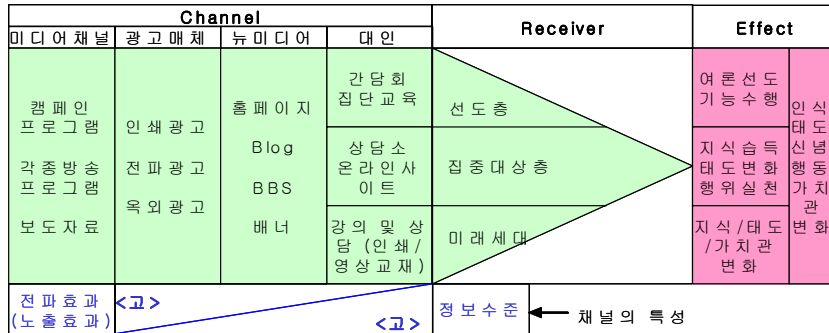
### ○ 매체 선택

-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각의 대상자에게 가장 효율적·효과적인 채널을 선택하여 정보 전달



- 전파효과(노출효과)는 미디어채널이 높고, 정보수준(정보전달효과)은 대인채널이 높지만, 대상자 접근성, 사업기간, 소요비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적합매체 선택 필요

[그림 7-27] 채널의 특성



- TV, 인터넷 등과 같은 매스미디어는 최단 시간내에 다수의 사람들에게 다량의 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나, 비용 측면을 고려할 경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자료나 뉴미디어 채널의 사용이 합리적
- 향후 추가적으로 직역연금(4종)·사회보험(3종) 사업과 연계하여 홍보하고, SNS 활용을 통한 간접적 홍보 등 추진 검토

##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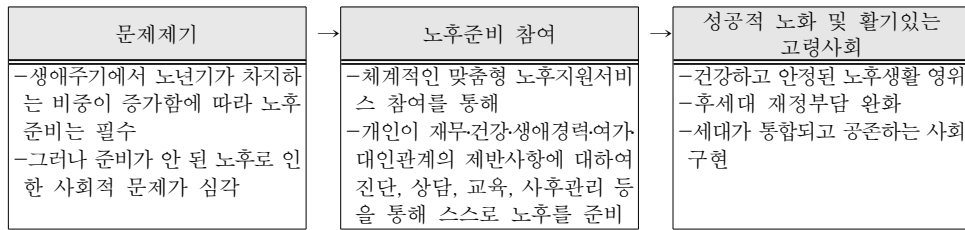
## ○ 노후준비 홍보로드맵

- 사회적 이슈화 → 사회적 공감 확산 → 사회 전반에 안착

## ○ 홍보 Concept



[그림 7-28] 홍보 Concept



## 2) 추진방안

### □ (세부과제 12-1) 오피니언 리더에 대한 홍보 및 참여촉진을 통한 여론 선도

○ 일반국민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계층이므로 우선적 홍보

- 노후준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수준 제고를 위하여 사회지도층의 선도적 역할 촉진
- 정부지도자(장관 및 국회의원, 도, 시의원 등), 관련공무원, 기업가, 사회지도자, 지식층(법조계, 의료계, NGO 등), 교육자, 일선 교육강사 등 사회지도층
- 활동 내용: 홍보를 통한 관심 제고 및 다양한 참여 촉진(재능기부 형식의 공익광고 출연, 실질적인 노후준비서비스 활용 선도: 성공사례 & 실천 경험 공유, (교육) 강사 활동 등)

### □ (세부과제 12-2) 연령대별 중점대상층에 대한 맞춤형 홍보

○ 노후준비는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제문제(빈곤, 질병, 무위, 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이므로 우선대상자는 청장년층

- (20~30대) 노후준비 인식 제고를 통해 부모의 노후준비에 긍정적 기여가 가능하고, 본인의 노후준비도 서두를 수 있는 대상자
- (40대) 4대영역에 대해 균형있는 노후준비가 가능한 최우선대상자
- (50대) 사전대응으로 은퇴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대상자
- (60대) 사전대응으로 건강·여가 등 비재무영역의 준비가 가능하고, 필요시 주택·농지연금 등 재무영역의 일부에 대해 활용이 가능한 대상자



- 최우선대상자의 인식 및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들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노후준비 확산에 가장 효과적일 것임(특집 프로그램 제작, 기획기사 송출 등).

□ (세부과제 12-3) 전 국민에 대한 노후준비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 노후준비 정도는 높지만, 서비스 이용의향이 없는 유형이 노후준비수준의 변동이 생길 개연성이 있으므로 전 국민에 대한 노후준비 인식개선 캠페인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시
- ‘노후준비 실천사례 국민공모전’, ‘상담서비스를 한 마디로 규정할 수 있는 명칭 공모’ 등을 통한 대대적 캠페인 홍보행사 추진 등



### 13. 이용자간의 노후준비 및 실천경험 공유

#### 가. 배경

- 노후준비는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
  - 특히 경제적 측면의 노후준비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과 공개하기를 꺼리는 심리적 기제로 인하여 적절한 노후준비 방법과 경험의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각 구성원이 생애주기별 또는 주요 관심사별로 노후준비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경험의 공유 방안 모색이 요구됨.
  - 직원들도 상담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용이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요구됨.

#### 나. 현황 및 문제점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직원에 의한 개별상담 위주의 사업이 수행되고 있고, 이러한 상담결과는 서류로만 정리되어 이용자간에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를 지지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못함.
  - 디지털 및 아날로그적인 방법을 활용한 경험 공유 방안 모색이 요구됨.

#### 다. 추진방안

- (세부과제 13-1) 홈페이지에 이용자 공유공간 마련
  - 현재의 국민연금공단의 서브도메인/향후 구축된 통합시스템에 이용자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직원, 전문가 등의 멘토링단 운영



□ (세부과제 13-2) 상담사례집 발간

- 대표적인 유형의 상담사례, 기업의 우수한 지원사례 등을 인쇄물로 발간하여  
경험 공유
- 연간 상담사례집 발간을 통하여 유형화 및 성공/실패사례의 원인 파악



## 제6절 주요 생애주기별 노후준비 기회 제공

### 14. 교육과정별 노후준비 기회 제공

#### 가. 배경

□ 국가의 대응책 마련 외에도 개인적 차원의 대응 또한 중요

○ 향후 예견되는 지속적인 고령화와 길어진 노년기를 생각해볼 때 생애주기적 접근은 매우 중요함. 즉, 생애단계별로 노후준비 관련 관심도와 지속적인 점검과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 제공이 요구됨.

○ 특정 연령대에서만 노후를 고민하고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노동시장 참여, 결혼 등 중요한 생애사건마다 자신의 노년기까지의 삶을 점검하고 수정보완해가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 나. 현황 및 문제점

□ 베이비부머의 은퇴를 계기로 하여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었으나 실제 노후준비는 생애설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학령기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임.

○ 또한 고령화에 대응한 적절한 교과과정 설계를 위해서는 노후준비관련 내용이 교과서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 다. 추진방안

□ (세부과제 14-1) 학급(초·중·고등 및 대학교)별 노후준비관련 프로그램 개발

○ 학령별 교육과정에 포함

□ (세부과제 14-2) 학급(초·중·고등 및 대학교)별 교과서에 관련 내용 포함

○ 학령별로 적절한 내용으로 교과서 내용 개발



## 15. 주요 생애주기별 노후준비 진단 및 설계 유도

### 가. 배경

- 생애주기는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교육과정과 결혼·출산이라는 가족주기적 특징으로 구성됨.
- 따라서 각 주요 생애주기별로 단계적인 노후준비와 노후준비를 실시한다면 각 사회구성원의 체계적인 노후준비가 가능할 것임.

### 나. 현황 및 문제점

- 결혼 및 출산의 경우 주민센터를 통하여 혼인 및 출생 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신고시 노후준비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를 실시할 수 있을 것임.
-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군복무가 의무로 되어 있어 추가적인 비용 없이 노후준비에 대한 교육과 인식제고를 실시할 수 있음.

### 다. 추진방안

#### □ (세부과제 15-1) 군복무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 군복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입·제대시 교육프로그램에 노후준비 관련 사항 및 안내 포함
  - 20대 남성에 대한 특화된 프로그램으로서의 맞춤형 교재 개발 필요

#### □ (세부과제 15-2)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자 대상 노후준비 진단 안내

- 혼인(출생)신고시 노후준비 진단과 관련 서비스에 대한 안내문 배포
  - 평균 초혼연령은 2015년 기준 남자 32.6세, 여자 30.0세이므로 30대 남녀를 대상으로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 제고 및 노후준비수준 진단 등의 기회로 활용 가능







## 제 8 장

## 종합

제1절 서비스 이용자 관점에서 본 정책 과제

제2절 주체별 주요 역할







## 제1절 서비스 이용자 관점에서 본 정책 과제

□ 본 연구는 노후준비실태조사와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검토,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노후준비 5개년 기본계획(안)을 제시하였음.

○ 제안한 정책제안을 서비스 이용자의 관점에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 1. 정확한 진단을 위한 진단지표의 고도화

□ 기본계획이 지향하는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생애주기 및 처해진 상황에 대응하는 맞춤형 노후준비가 가능하기 위해서, 첫 단계인 진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 2016년 노후준비 실태조사를 통해, 진단지표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항목에 대한 변경(안)을 제안함.

○ 여가활동 영역에서 ‘현재 취미·여가생활 수준’ 지표가 ‘동년배와 비교한 취미·여가활동 정도’로 변경될 필요성이 있음.

— 동년배와의 비교를 통해 본인의 여가활동 상태를 보다 적극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음.

○ 소득과 자산 영역에서는 설문지 논리적 구성을 위해 세부적으로 아래 지표 등에서 변경이 요구됨.

— 본인(배우자)의 개인연금 및 장기저축금액을 지표에서 제외하는 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개인연금 및 장기저축금액은 노후소득원천별 예상 수령액과 중복 측정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노후 필요생활비를 지표에서 제외하는 안 역시 고려되어야 함.
  - 주관적인 노후 필요생활비에 대한 인식을 노후준비 진단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이 역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제2의 일을 위한 본인 준비여부에서 선택 문항(‘이미 제2의 일을 하고 있다’) 제외 등의 수정보완 작업이 요구됨.
  - 노후준비의 관점에서는, 현재 기준에서의 일자리 이후의 일에 대한 계획을 고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 그간 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과정을 통해 축적한 사례(2012년 이후 누적 상담건수 280,1447건) 분석을 기반으로, 지표 적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진단지표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됨.

○ 현재 노후준비 진단지표가 생애주기 및 경제활동 상황 등 서비스 이용자의 개별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맞춤형 상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진단지표 외에도 대상자의 다각적인 욕구를 정확히 사정할 수 있는 항목 개발이 요구됨.

○ 노후준비수준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서비스 관련 욕구 및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욕구사정 항목 개발이 필요함.

□ 이러한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마련된 진단지표는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통하여 확정·보급되어야 할 것임.

## 2. 콘텐츠 개발 및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한 내실있는 상담서비스 제공

□ 진단을 기반으로 하여 내실있는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는 상담 인력이 부족하여 질 높은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현재와 같은 재무영역 중심의 편향적 상담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건강한 생활습관, 여가활동 등의 영역도 상담이 이루어져 상담의 성과(노후준비 인식의 변화, 연계 건수 등)가 가시화될 수 있어야 할 것임.
- 이를 통하여 진단과 상담의 일관성이 확보되고, 국민 개개인의 균형있는 노후준비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인력의 확보와 양성교육의 내실화가 선결되어야 함.
- 업무분석 등을 통하여 적절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를 산정하고 이를 노후준비지원법에 반영하는 변화가 요구됨.
- 생애주기 및 경제활동 상태, 노후준비수준 및 영역별 노후준비 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 콘텐츠 개발 및 운영 매뉴얼 개발 작업이 필요함.

### 3.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자원의 연계

- 현재 노후준비서비스는 개인의 노후준비 수준을 진단하고 기본상담을 실시하는 단계로 실제 개개인의 실천에 필요한 타 기관의 서비스 연계는 부족한 상태임.
- 노후준비 연계 서비스는 지역별로 필요로 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노후준비 영역별 연계기관을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형성·유지할 수 있는 연계 서비스 모형 개발이 요구됨.
- 자원 연계가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행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별 연계기관 협의체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4. 행태변화를 위한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노후준비서비스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행태변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지만, 현재 명실상부한 사후관리 서비스는 제공되지 못하고 있어 체계적인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적절한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제공을 위한 전산시스템 및 상담 매뉴얼 개발, 고객 개인의 실제적인 행태변화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개발 등이 요구됨.

### 제2절 주체별 주요 역할

- 정책제안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의 관심과 참여가 요구됨.
- 중앙정부,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및 기업의 참여가 중요하며, 이를 근간으로 마련된 노후준비서비스를 출발점으로 하여 사회 구성원이 각자의 노후를 적절히 준비해갈 수 있을 것임.

#### 1. 정부

-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됨.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가 양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프라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양질의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긴요함.
- 현재 수립되어 진행 중인 종합정보시스템 통합 DB의 원활한 구축과 충분한 인력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됨.



- 기존 다양한 공적 서비스와 노후준비서비스간 연계를 위해서는, 관계 부처의 관심과 협력이 필수적임.
-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노후준비의 기회를 제공하고 군복무자나 혼인신고 및 출생 신고자를 대상으로 노후준비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나 행정자치부 등과 같은 다양한 중앙부처의 협력과 관심이 요구됨.
-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유관기관간 네트워크가 적절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함.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별 연계기관 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제안된 안(지역복지협의체의 분과 형태로 운영하는 안, 별도의 지역노후준비지원협의체를 설치하는 안)중 어떤 안으로 추진하던 간에 시군구의 관심과 지원이 선결 조건임.

## 2. 노후준비지원센터

-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후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전달체계가 확립되고,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와 지방노후준비지원센터의 역할이 적절히 수행되어야 함.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는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에 가장 중점에 있는 전달체계로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서비스 제공의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함.
- 이러한 역할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가들과의 활발한 소통과 연구지원이 필수적임.
- 또한 노후준비서비스 관련 체계적인 정보관리를 위해서 지역별 자원 DB 관리, 정보화 시스템 구축, 통계자료 구축 및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적 관계가 유지되어야 함.
- 더불어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는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
  - 지역노후준비센터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효과적·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장기적인 방향성 하에서 현실가능성을 염두한 노후준비서비스의 수정보완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 한편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일선에서 노후준비지원사업 본연의 기능인 서비스 제공을 수행하는 동시에,

○ 지역사회 내 노후준비지원 관련 수행기관(예, 주민자치센터) 및 연계기관(교육 및 활동)과 관계된 지원사업을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함.

- 따라서 지역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역의 공공 및 민간자원과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에 힘써야 할 것임.

### 3. 시민사회 및 기업

□ 노후준비의 중요성 홍보 및 인식 제고를 위해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이 중요함.

○ 오피니언 리더는 노후준비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뿐 아니라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됨.

□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은 정부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의 활동이나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노후준비 인식개선 캠페인을 함께 실시할 경우 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을 것임.

□ 기업의 경우 근로자에 대하여 노후준비 교육을 사내 프로그램으로 정착하고, 노후준비 휴가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이러한 관심과 노력은 참여 기업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기업에 대한 홍보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참고문헌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5). 2015년도 진료비 심사실적 통계.
- 교육부(2012). 제3차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
- 교육인적자원부(2002). 제1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
- \_\_\_\_\_ (2007). 제2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
-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2016).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추진상황
- 국민연금공단(2016).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 \_\_\_\_\_ (2015). 2016년도 종합사업 계획(안).
- 기동민(2016). “각박한 세대. 무연고 사망자(고독사) 매년 증가”. 기동민 의원실 보도자료 (2016.9.14.)
- 김춘진(2016). “2015년 무연고 사망자, 1,245명 역대 최대치”. 김춘진 의원실 보도자료 (2016.3.18.)
- 권혁창·신혜라·김진수(2012). 중고령자들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여부와 노후준비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2(4), pp.219~248.
- 김백수·이정화(2010). 중년층의 사회적 노후준비 결정요인분석: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지*, 21(3) pp.411~425.
- 김종승(2011). “(자산배분 전략) 보수적 투자자, 이익 실현 주기 짧게 관리”. 한국경제 (2011.4.19.)
- 김주성·최수일(2010). 라이프스타일이 노후준비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5(3), pp.97~119.
- 대한민국 정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6~'20).
- 박지승(2013). 베이비부머의 노후소득준비 현실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pp.63~72.
- 박창제(2008a).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60(3), 275~297.
- 박창제(2013). 은퇴결정 형태와 노후준비가 은퇴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노인복지연구*, 59, pp.115~138.
- 배문조(2012). 성인들의 노화사실인지에 따른 노후준비인식과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 *노인복지연구*, 58, pp.111~132.
- 법제처. 노후준비 지원법·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2008). 제1차 치매종합관리대책.
- \_\_\_\_\_ (2012a). 2012년 노후준비지표 소개 및 해설



- \_\_\_\_\_ (2012b). 제1차 노인장기요양기본계획.
- \_\_\_\_\_ (2012c). 제2차 국가치매관리 종합계획(2013~2015).
- \_\_\_\_\_ (2015a).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_\_\_\_\_ (2015b). 2015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총괄).
- \_\_\_\_\_ (2015c).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
- \_\_\_\_\_ (2016). “국가건강검진, 스마트하게 바뀐다”. (2016.7.28. 보도자료).
- 보험개발원(2015). “우리나라 30~50대 은퇴준비자, 은퇴 예상나이는 62~65세, 은퇴 후 소득은 은퇴 전의 50~79% 희망”. (2015.10.12. 보도자료)
- 석상훈·권혁창·송현주·이은영·오지연·신혜리 외(2012).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노후준비 실태와 기대. 국민연금연구원.
- 성혜영(2013). 노후설계서비스는 왜 필요한가. 국민연금연구원.
- 송현주·이은영·임란·김호진(2014).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제5차(2013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 분석보고서. 국민연금연구원
- 안기선, 김윤정(2012). 중고령취업자의 노후생활계획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단기·중단적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3(7), pp.3007-3015.
- 오두범(1995). PR 커뮤니케이션론. 서울:나남출판.
- 이삼식 외(201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김재호·강은나·박수자·정경희·이윤경·이소정·염주희·이선화·배혜원(2013). 성별 생애주기별 노후준비지표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선형·최은희(2010). 안정적 노후준비 가계의 특성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예비노인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4), pp.193~212.
- 이소정·김수영·김은하·이금룡·한정란·류원철·이수정(2014). 노후설계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및 콘텐츠 개발 연구: 노후설계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한국노인인력개발원·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이신영(2009). 도시거주 노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사회과학논총*, 28(1), pp.205~224.
- 이윤경, 정경희, 정홍원, 염주희, 김세진(2013). 노후준비 지원 평가지표 개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정화(2009). 광주·전남 중년층의 노년기 인식과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노후준비: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0(2), pp.275~289.
- 이혜영(2011). 정책결정에서 온정주의의 이해. 한국행정학회. 2011년 하계학술대회.



- 임우택, 최혜련(2013). 노년기의 여가활동참여와 노후준비도 및 생활만족도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2(3), pp.447-460.
- 장훈·윤소영(2014). 여가활동의 효과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정경희(2013). 고령화 시대의 노년기 준비의 의의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10월호, pp.6-14.
- 정경희·강은나·이윤경·황남화·양찬미(2016). 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발전전략 모색. 한국보건사회연구원(발간예정).
- 정경희·오영희·강은나·김재호·선우덕·오미애·이윤경외(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이윤경·박보미·이소정·이윤환(2012).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심층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순돌, 김성원(2013). 베이비부머와 예비노인의 신체적 노후준비 영향요인: Andersen과 Newman모델의 적용. *노인복지연구*, 59, pp.237-256.
- 정영철 외(2014). 사회보장통계 데이터 관리 및 운영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홍원 외(2012). 인구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 및 고령화 대응지수 개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계현(2005). PR 실전론.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 조남훈·김태현·이삼식·오영희·김용현·김정식·구성열 외(2006).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이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추용·송미영·이근선(2009).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43, pp.135-156.
- 최명화·최수일(2012). 근로자의 개인적·직업적 특성과 노후준비와의 관계-만월·시화공단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국컨텐츠학회논문지*, 12(6), pp.249-264.
- 통계청(2015a). 가계금융복지조사.
- \_\_\_\_\_(2015b). 사회조사 결과 보도자료.
- \_\_\_\_\_(2015c). 혼인이혼통계.
- \_\_\_\_\_(2016a). 사회조사 결과 보도자료.
- \_\_\_\_\_(2016b). 2016년 고령자통계.
- \_\_\_\_\_(2016c). 2015년 생명표 보도자료(2016.12.2.)
- \_\_\_\_\_(2016d). 장래가구추계.
- 하춘광(2006). 중년층의 노후준비도 및 실버타운 선호도가 실버타운 입주의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24, pp.201-224.
- 한국경제(2011). “(자산배분 전략) 보수적 투자자, 이익 실현 주기 짧게 관리”. (2011.4.19.)



한은영(2000). 인간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서울:한나래.

행정안전부(2008). 자원봉사 진흥 제1차 국가기본계획.

\_\_\_\_\_ (2012). 자원봉사 진흥 제2차 국가기본계획.

홍백의·이소정·박미희(2012).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후준비지표 개발. 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2016.5.31.반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3). 2013 한국 비은퇴 가구의 노후준비 실태.

\_\_\_\_\_ (2015). 2015 한국 비은퇴 가구의 노후준비 실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www.nps.or.kr/>)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http://basicpension.mohw.go.kr>)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

통계청 KOSIS 홈페이지 ([www.kosis.kr](http://www.kosis.kr))




# 부 록 <

## 부록 1. 노후준비 실태조사 설문지

2016년도 노후준비 실태조사 

국가기초구역  
관리번호

ID



### 2016년도 노후준비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론조사 전문회사인 한국리서치의 면접원입니다.  
 저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뢰로 2016년도 노후준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일반 국민의 노후준비 정도에 대해 파악하고, 향후 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노후 정책 입안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므로 설문 내용 및 응답자에 대한 모든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이 조사의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가 여쭙는 질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께서 대답해 주신 내용은 다른 여러 사람들의 의견과 함께 '무엇이 몇%'하는 식으로 집계될 뿐입니다.  
 시간을 내시어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원경화 주무관 ☎ 044-202-3367
- 수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선희 연구원 ☎ 044-287-8167
- 조사기관 : 한국리서치
- 문 의 처 : 한국리서치 여론조사1부 성현정 차장 ☎ 02-3014-0168  
 한국리서치 자료조사부 이진주 실사연구원 ☎ 02-3014-0116

응답자 이름				응답자 연락처	- -		
응답자 성별	① 남    ② 여	응답자 나이	만    세 → 만 34세 이하 또는 만 70세 이상 면접중단				
지역구분	※ 코드 참조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세부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도로명) (                      아파트                      동                      호)						
총가구원수	총 (                      ) 명    * 동거가구원을 모두 포함하여 응답						
교육수준	① 무학    ② 초졸    ③ 중졸    ④ 고졸    ⑤ 전문대졸    ⑥ 대졸    ⑦ 대학원이상						
자녀유무 및 자녀수	① 있음⇔ 총 (    ) 명 ② 없음 * 동거, 비동거 자녀 모두 포함하여 응답	자 녀 관 련 보 고	첫째	① 남 ② 여	만    세	① 기혼 ② 미혼	① 동거 ② 비동거
	둘째		① 남 ② 여	만    세	① 기혼 ② 미혼	① 동거 ② 비동거	
	셋째		① 남 ② 여	만    세	① 기혼 ② 미혼	① 동거 ② 비동거	
	넷째		① 남 ② 여	만    세	① 기혼 ② 미혼	① 동거 ② 비동거	
	다섯째 이상		① 남 ② 여	만    세	① 기혼 ② 미혼	① 동거 ② 비동거	
부모부양여부	① 부양하고 있음    ② 부양하지 않음 *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부양할 경우, '부양하고 있음'에 응답해 주십시오.						
취업유무	① 취업    ② 미취업						
현직업 종류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종사자 ⑤ 판매종사자    ⑥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⑦ 농림어업숙련종사자 ⑧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⑨ 단순노무종사자    ⑩ 군인						
종사상 지위	① 상용근로자    ② 임시근로자    ③ 일용근로자    ④ 고용주 ⑤ 단독자영업자    ⑥ 무급가족종사자    ⑦ 기타						
면접시간	분		최종면접일시	월    일    시    분			
면접원 성명				면접원 ID			
수퍼바이저 검증				검증결과			

Hankook Research

1



## 사회적 관계

※ 다음은 귀하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문항입니다.

문A1. 귀하의 현재 혼인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                                    |       |
|------------------------------------|-------|
| ① 미혼                               | ➡ 문A4 |
| ② 유배우(기혼) ⇒ 배우자 연령 만 (         ) 세 | ➡ 문A2 |
| ③ 별거(기혼)                           | ➡ 문A2 |
| ④ 이혼(기혼)                           | ➡ 문A4 |
| ⑤ 사별(기혼)                           | ➡ 문A4 |

문A2. [유배우(기혼), 별거(기혼)이신 분만] 귀하께서는 배우자와 충분히 대화하고 계십니까?

※ '충분함'은 주관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귀하가 배우자에게 기대하거나 그래야 한다고 느끼는 대화의 양과 질에 비추어 충분하다고 느끼는가 여부입니다.

- |              |             |        |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 ④ 대체로 그런 편이다 | ⑤ 매우 그렇다    |        |

문A3. [유배우(기혼), 별거(기혼)이신 분만] 귀하께서는 최근 1년 동안 배우자와 동반 외출을 몇 번 하셨습니까?

※ 동반 외출이란 함께 장을 보거나 외식을 하는 등의 단순 외출부터 여행처럼 특별한 목적을 가진 동반 외출까지 특정 목적을 위해 배우자와 함께하는 모든 외출을 포함합니다.

- |              |              |              |
|--------------|--------------|--------------|
| ① 6개월에 1번 정도 | ② 3개월에 1번 정도 | ③ 한 달에 1번 정도 |
| ④ 격주에 1번 정도  | ⑤ 매주 1번 정도   |              |

➡ 응답 후 자료가 있으신 분은 문A6으로, 자료가 없으신 분은 문A7으로 가십시오

문A4. [미혼, 이혼(기혼), 사별(기혼)이신 분만] 귀하께서는 동반자 혹은 이성친구가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그 분과 충분히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 '충분함'은 주관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귀하가 동반자 혹은 이성친구에게 기대하거나 그래야 한다고 느끼는 대화의 양과 질에 비추어 충분하다고 느끼는가 여부입니다.

※ 현재 동반자 혹은 이성친구가 없으신 분은 ⑨비해당(동반자나 이성친구 없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 |              |             |                     |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 ④ 대체로 그런 편이다 | ⑤ 매우 그렇다    | ⑥ 비해당(동반자나 이성친구 없음) |

➡ ①~⑤로 응답하신 분은 문A5로 가십시오

➡ ⑥로 응답하신 분 중 자료가 있으시면 문A6으로

자료가 없으시면 문A7로 가십시오

문A5. [미혼, 이혼(기혼), 사별(기혼)이신 분만] 귀하께서는 동반자 혹은 이성친구와 얼마나 자주 만나십니까?

※ 현재 동반자 혹은 이성친구가 없으신 분은 ⑨비해당(동반자나 이성친구 없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 |           |              |                     |
|-----------|--------------|---------------------|
| ① 두 달에 1번 | ② 한 달에 1번    | ③ 한 달에 2번           |
| ④ 일주일에 1번 | ⑤ 일주일에 2번 이상 | ⑥ 비해당(동반자나 이성친구 없음) |

➡ 응답 후 자료가 있으신 분은 문A6으로, 자료가 없으신 분은 문A7로 가십시오



## 2016년도 노후준비 실태조사

문A6. [현재 자녀가 있으신 분만] 귀하께서는 자녀들과 충분히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 '충분함'은 주관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귀하가 배우자에게 기대하거나 그래야 한다고 느끼는 대화의 양과 질에 비추어 충분하다고 느끼는가 여부입니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문A7. 귀하께서는 최근 1년 동안 본인 혹은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얼마나 자주 만나거나 통화하십니까?

※ 가장 자주 만나는 본인 혹은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횟수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 본인과 배우자 둘 다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⑨비해당(형제자매 없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 ① 6개월에 1번 정도                      ② 3개월에 1번 정도                      ③ 한 달에 1번 정도  
④ 격주에 1번 정도                      ⑤ 매주 1번 정도                      ⑥ 비해당(형제자매 없음)

문A8. 귀하께서 갑자기 도움을 요청하면 본인 혹은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기꺼이 도와주십니까?

※ 가장 자주 만나는 본인 혹은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본인과 배우자 둘 다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⑨비해당(형제자매 없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⑥ 비해당(형제자매 없음)

문A9. 귀하께서는 최근 1년 동안 얼마나 자주 친구를 만나셨습니까?

※ 친구의 범주에는 업무 등의 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제외되며 일상적으로 만나는 이웃도 제외됩니다.  
단, 직장 동료라고 하더라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만난다면 친구의 범주에 해당합니다.

- ① 6개월에 1번 정도                      ② 3개월에 1번 정도                      ③ 한 달에 1번 정도  
④ 격주에 1번 정도                      ⑤ 매주 1번 정도                      ⑥ 비해당(친구 없음)

문A10. 귀하께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나 이웃은 몇 명입니까?

※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나 이웃이 없으시면 0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                      )명

문A11. 귀하께서 갑자기 도움을 요청하면 친구나 이웃이 기꺼이 도와주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⑥ 비해당(알고 지내는 친구나 이웃 없음)



## 2016년도 노후준비 실태조사

문A12. 귀하께서 최근 1년 1회 이상 정기적·자발적으로 참석하는 모임(단체, 동호회, 종교 모임 등)의 수는  
몇 개입니까?  
( )개

문A13. [만35세~49세 응답자만] 귀하의 현재 대인관계는 노후에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 ① 지금보다 상당히 협소해질(소극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② 지금보다 조금 협소해질(소극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③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④ 지금보다 조금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⑤ 지금보다 상당히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응답 후 문A15로 가십시오

문A14. [만50세~69세 응답자만] 귀하는 노후의 대인관계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 편이십니까?

- ①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②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노력한다                              ⑤ 매우 노력한다

문A15. 동년배의 다른 분들에 비하여 귀하의 대인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협소한 편이다                      ② 조금 협소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 ④ 다소 원만한 편이다                      ⑤ 매우 원만한 편이다

문A16. 노후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의 각 사항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 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주십시오. 각 항목 (1) 현재 대인관계 상태 (2) 노후 대인관계에 대한 인식 및 실천을 더하여 총합이 100점이 되도록 응답해 주십시오.

노후준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1) 현재 대인관계 상태	점
2) 노후 대인관계에 대한 인식 및 실천	점
총합	100점



## 2016년도 노후준비 실태조사

## 건강한 생활습관

※ 다음은 귀하의 건강한 생활습관에 대한 문항입니다.

문B1. 동년배의 다른 분들에 비하여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대단히 나쁜 편이다      ② 조금 나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건강한 편이다      ⑤ 매우 건강한 편이다

문B2. 현재 3개월 이상 앓고 있으면서 의사에게 진단받은 만성질병은 몇 개입니까?

※ 만성질병이라 함은 암,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중풍), 심근경색증, 협심증, 관절염, 골다공증, 소화성궤양, 만성간염, 폐결핵, 만성기관지염, 당뇨병, 갑상선 장애, 백내장, 만성신장질환 등이 포함됩니다.

- ① 3개 이상      ② 2개      ③ 1개  
④ 없다

문B3. 귀하의 하루 수면시간은 피로회복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B4. 귀하께서는 평소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십니까?

- ① 대단히 많이 느낀다      ② 조금 느낀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느끼지 않는다      ⑤ 전혀 느끼지 않는다

문B5. 귀하의 현재 키와 몸무게를 기록해 주십시오. 소수점 없이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입해 주십시오.

- ① 키(      )cm  
② 몸무게(      )kg

문B6. 귀하께서는 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 또는 과거에 피우셨습니까?

- ① 매일 피운다  
② 가끔 피운다  
③ 과거에 피웠으나 현재는 피우지 않는다  
④ 전혀 피우지 않는다

문B7. 귀하께서 지난 6개월간 한 번의 술자리에서 소주 7잔(또는 맥주 5캔 정도) 이상을 마신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 단 여자의 경우, 소주 5잔 또는 맥주 3캔 정도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① 거의 매일      ② 1주일에 1번 정도      ③ 한 달에 1번 정도  
④ 두 달에 1번 정도      ⑤ 전혀 없다



## 2016년도 노후준비 실태조사

문B8. 귀하께서는 지난 6개월간 규칙적으로 체조나 운동 등을 하셨습니까?

※ 규칙적 운동이란 1회 30분 이상, 1주 3회 이상 지속적으로 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B9. 귀하께서는 다양한 식품(곡류, 두류, 과일, 채소, 생선, 육류, 우유 등)을 골고루 섭취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B10. 귀하께서는 지난 6개월간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까?

※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체중 줄이기, 늘리기, 유지하기 등이 포함됩니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B11. 귀하는 본인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②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노력한다                      ⑤ 매우 노력한다

문B12. 귀하께서는 귀하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거나 만성질환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최소한 2년에 1회 이상) 병원, 보건기관 등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최소한 2년에 1회 이상, 병의원이나 보건기관 등을 통하여 비만·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과 같은 건강위험요인을 체크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B13. 동년배에 비하여 귀하는 노후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재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다                      ② 별로 노력하고 있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노력하고 있다                      ⑤ 매우 노력하고 있다

문B14. [만35세~49세 응답자만] 귀하는 노후 건강을 대비하여, 본인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아래 서비스를 이용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 건강 및 질병상담, 건강교육, 식이 및 운동처방, 스트레스와 우울증관리, 약물오용관련 교육상담, 질병관리서비스, 온라인 건강관리서비스(U-헬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응답 후 문B16으로 가십시오



## 2016년도 노후준비 실태조사

문B15. [만50세~69세 응답자만] 귀하는 노후에 간병이나 수발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어느 정도 준비(간병이나 수발제공자, 경제적 준비, 관련 정책인지 등)가 되어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B16. 노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다음의 각 사항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 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주십시오. 각 항목 (1) 현재의 건강상태 (2) 노후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및 실천행위를 더하여 총합이 100점이 되도록 응답해 주십시오.

노후준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1) 현재의 건강상태	점
2) 노후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및 실천행위	점
총합	100점

## 여가활동

※ 다음은 귀하의 여가활동에 관한 문항입니다.

문C1.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다음과 같은 취미·여가활동을 몇 개나 하셨습니까? 아래 취미·여가활동 유형 중에서 지난 1년간 하셨던 취미·여가활동의 개수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취미·여가활동 유형>		
01) 책읽기	02) 글쓰기	03) 산책
04) 등 산	05) 낚시	06) 스포츠 관람
07) 컴퓨터 및 인터넷	08) 게임	09) 바둑, 장기, 체스, 윗놀이
10) 화투, 카드	11) 문학행사와 참여	12) 미술 등 전시회 감상
13) 클래식·오페라 공연 관람	14) 연극(뮤지컬)공연 관람	15) 무용공연 관람
16) 영화보기/영화감상	17) 연예(쇼·콘서트·마술쇼)공연관람	18) 전통문화재 감상
19) 문예창작/독서토론	20) 그림그리기/조각/도예	21) 악기연주
22) 노래부르기/노래교실	23) 음악듣기	24) 전통예술(사물놀이 등 배우기)
25) 춤추기	26) 무용(발레, 방송댄스 등) 배우기	27) 사진찍기
28) 생활공예(십자수, 비즈공예)	29) 디자인 도안	30) 서예
31) 다도/요리하기	32) 화초 가꾸기	33) 운동(스포츠 참여)
34) 여행(관광활동)	35) 교양강좌수강	

※ 위의 취미·여가활동 유형 중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경우 0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_\_\_\_\_ 개 **0인 경우 문C5로 가십시오**

문C1-1. 그 중에 주된 취미·여가활동은 무엇입니까? 위에서 응답하신 취미·여가활동 중 주된 활동을 순서대로 최대 세 가지만 번호로 응답해 주십시오.

■ 1순위  ■ 2순위  ■ 3순위



## 2016년도 노후준비 실태조사

문C2. 귀하께서 현재 꾸준히 하고 있는 취미·여가 활동이 있다면 얼마동안 하셨습니까?

- ① 취미·여가 활동을 시작한 지 1년 이내  
 ② 취미·여가 활동을 시작한 지 1년~ 3년 이내  
 ③ 취미·여가 활동을 시작한 지 3년~ 5년 이내  
 ④ 취미·여가 활동을 시작한 지 5년 이상

문C3. 귀하께서는 현재 취미·여가활동을 주로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 ① 혼자서  
 ② 배우자와 함께  
 ③ 배우자 외 가족과 함께  
 ④ 친구들과 함께  
 ⑤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문C4. 귀하께서는 현재 취미·여가활동을 위해 경제적 지출을 하고 계십니까?

- ① 지출을 하고 있다  
 ② 지출을 하고 있지 않다

문C5. 동년배에 비하여 귀하의 취미·여가활동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활발하지 않다  
 ② 별로 활발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활발하다  
 ⑤ 매우 활발하다

문C6. 귀하께서는 노후에 어떠한 취미·여가 활동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C7. 귀하께서는 노후를 고려하여 취미·여가 활동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시작한 적은 있으나 현재는 하고 있지 않다  
 ③ 한 가지 정도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하고 있다  
 ④ 두 가지 이상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하고 있다

문C8. 현재 귀하의 취미·여가 활동은 노후에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 ① 지금보다 상당히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② 지금보다 조금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③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④ 지금보다 조금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⑤ 지금보다 상당히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C9. 노후의 여가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다음의 각 사항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 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주십시오. 각 항목 (1) 노후 여가생활에 대한 인식 (2) 여가 실천행위를 더하여 총합이 100점이 되도록 응답해 주십시오.

노후준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1) 노후 여가생활에 대한 인식	점
2) 여가 실천행위	점
총합	100점



## 2016년도 노후준비 실태조사

## 소득과 자산

※ 귀하의 근로 상황에 대한 문항입니다.

문D1. 귀하께서는 현재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으십니까?

- ① 현재 일을 하고 있다 ➡ 문D1-1  
②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다 ➡ 문D1-6

문D1-1. 귀하께서 현재 하고 있는 일(수입이 있는 일)을 몇 세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세

문D1-2. 귀하께서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종(하고 있는 일)에서의 소득은 안정적입니까?

※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일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종(하고 있는 일의 종류)의 소득 안정성에 대해 응답하여 주십시오.

- ① 매우 불안정하다                      ② 비교적 불안정하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안정적이다                      ⑤ 매우 안정적이다

문D1-3. 귀하께서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종에서의 월평균 소득(세후소득)은 얼마입니까?  
월평균( )만원

문D1-4. 귀하께서는 현재의 소득활동을 중단한다면, 이후 제2의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① 필요성이 없어 별다른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  
②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③ 제2의 일을 준비하기 위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④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단계이다

문D1-5. (아직 등을 고려한 전체 근로기간을 생각했을 때), 귀하는 몇 세까지 수입을 목적으로 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세

☞ 응답 후 배우자가 있으신 분(유배우(기혼), 별거(기혼)이신 분)은 문D2로,  
배우자가 없으신 분은 문D3으로 가십시오

문D1-6.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구직 활동을 하셨습니까?

- ① 예 ➡ 문D1-7  
② 아니오 ➡ 배우자가 있으신 분(유배우(기혼), 별거(기혼)이신 분)은 문D2로,  
배우자가 없으신 분은 문D3로 가십시오



## 2016년도 노후준비 실태조사

문D1-7. 귀하는 구직을 염두에 두고 현재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아래 구직을 위한 노력 중 귀하에게 해당하는 보기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구직을 위해 하고 있는 노력>	하고 있다	하고 있지 않다
1) 직업 교육훈련(직업 기초교육, 자격증 취득, 직종 특화훈련)	①	②
2) 1:1 직업상담	①	②
3) 집단상담프로그램	①	②
4) 구직자 정보 등록	①	②
5)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관련 컨설팅	①	②
6) 취업 알선	①	②
7) 동행 면접	①	②

※ 다음은 귀하의 배우자의 근로 상황에 대한 문항입니다. 아래 질문에 대하여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유배우(기혼), 별거(기혼)이신 분만), 배우자의 근로 상황에 대해 응답하여 주십시오.

※ 배우자가 없으신 분은 문D3으로 가십시오.

문D2. [유배우(기혼), 별거(기혼)이신 분만] 귀하의 배우자는 현재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 ① 현재 일을 하고 있다 **문D2-1**  
 ②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다 **문D2-6**

문D2-1. 귀하의 배우자께서는 현재 하고 있는 일(수입이 있는 일)을 몇 세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세

문D2-2. 귀하의 배우자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종(하고 있는 일)에서의 소득은 안정적입니까?

※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일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종(하고 있는 일의 종류)의 소득 안정성에 대해 응답하여 주십시오.

- ① 매우 불안정하다      ② 비교적 불안정하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안정적이다      ⑤ 매우 안정적이다

문D2-3. 귀하의 배우자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종에서의 월평균 소득(세후소득)은 얼마입니까?  
 월평균( )만원

문D2-4. 귀하의 배우자께서는 현재의 소득활동을 중단한다면, 이후 제2의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① 필요성이 없어 별다른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  
 ②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③ 제2의 일을 준비하기 위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④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단계이다



### 2016년도 노후준비 실태조사

문D2-5. (이직 등을 고려한 전체 근로기간을 생각했을 때), 귀하의 배우자께서는 몇 세까지 수입을 목적으로 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세

☞ 응답 후 문D3으로 가십시오

문D2-6. 귀하의 배우자는 지난 1년 동안 구직 활동을 하셨습니까?

① 예

☞ 문D2-7

② 아니오

☞ 문D3

문D2-7. 귀하의 배우자는 구직을 염두에 두고 현재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아래 구직을 위한 노력 중 귀하의 배우자에게 해당하는 보기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구직을 위해 하고 있는 노력>	하고 있다	하고 있지 않다
1) 직업 교육훈련(직업 기초교육, 자격증 취득, 직종 특화훈련)	①	②
2) 1:1 직업상담	①	②
3) 집단상담프로그램	①	②
4) 구직자 정보 등록	①	②
5)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관련 컨설팅	①	②
6) 취업 알선	①	②
7) 동행 면접	①	②



## 2016년도 노후준비 실태조사

※ 다음은 공적연금에 대한 문항입니다. 아래 질문에 대하여 1)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유배우(기혼), 별거(기혼)이신 분만),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한 내용에 응답해 주시고, 2) 배우자가 없으신 경우, ⑥비해당(배우자 없음)에 체크하시고 본인에 해당되는 내용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D3. 귀하(귀하의 배우자)는 현재 국민연금이나 특수직역연금에 가입되어 있으십니까? 가입되어 있으신 분은 월평균 납부액과 총 예상 납부기간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수령 금액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 특수직역연금이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직역(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연금입니다.  
예로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이 있습니다.  
※ 월평균 납부액은 매달 납부하시는 국민연금 금액이며, 총 예상 납부기간은 현재까지 납부한 기간과 향후 납부 기간을 합한 총 예상 납부 기간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구분	공적 연금	문D3-1 가입여부		문D3-2 월평균 납부액 (문D3-1이 ①인 경우만)	문D3-3 총 예상 납부기간 (문D3-1이 ①인 경우만)	문D3-4 향후 예상 수령 금액 (문D3-1이 ①인 경우만)	
		가입 하고 있다	가입 하고 있지 않다				
본인	1) 국민 연금	①	②	만원	년	① 매월 _____ 만원 ② 일시금 _____ 만원	
	2) 특수직역연금	①	②	만원	년	① 매월 _____ 만원 ② 일시금 _____ 만원	
배우자	1) 국민 연금	①	②	만원	년	① 매월 _____ 만원 ② 일시금 _____ 만원	⑥비해당 (배우자 없음)
	2) 특수직역연금	①	②	만원	년	① 매월 _____ 만원 ② 일시금 _____ 만원	

문D4. 귀하(귀하의 배우자)는 국민연금이나 특수직역연금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받은 경험이 있으신 분은 매월 받고 있으신 금액 또는 일시금 총 수령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 특수직역연금이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직역(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연금입니다.  
예로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이 있습니다.

구분	공적 연금	문D4-1수급여부		문D4-2 수급 금액 (문D4-1이 ①인 경우만)	
		수급 하고 있다 (수급한 적이 있다)	수급하지 않고 있다		
본인	1) 국민 연금	①	②	① 매월 _____ 만원 ② 일시금 _____ 만원	
	2) 특수직역연금	①	②	① 매월 _____ 만원 ② 일시금 _____ 만원	
배우자	1) 국민 연금	①	②	① 매월 _____ 만원 ② 일시금 _____ 만원	⑥비해당 (배우자 없음)
	2) 특수직역연금	①	②	① 매월 _____ 만원 ② 일시금 _____ 만원	



# 2016년도 노후준비 실태조사

※ 다음은 퇴직금(퇴직연금)에 대한 문항입니다. 아래 질문에 대하여 1)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유배우(기혼), 별거(기혼)이신 분만),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한 내용에 응답해 주시고, 2) 배우자가 없으신 경우, ③비해당(배우자없음)에 체크하시고 본인에 해당되는 내용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D5. 귀하는(귀하의 배우자는)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향후 예상 수령액은 얼마입니까?

※ 퇴직연금은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제도를 대체하여,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해당금액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기업에서 사내에 적립하여 퇴직 시 퇴직금을 받는 것은 퇴직금(일시불)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구분	종류	문D5-1수령가능성여부		문D5-2향후 예상 수령 금액 (문D5-1이 ①인 경우만)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본인	1) 퇴직연금	①	②	① 매월 _____만원 ② 일시금 _____만원	
	2) 퇴직금(일시불)	①	②	① 일시금 _____만원	
배우자	1) 퇴직연금	①	②	① 매월 _____만원 ② 일시금 _____만원	③비해당 (배우자없음)
	2) 퇴직금(일시불)	①	②	① 일시금 _____만원	

문D6. 귀하는(귀하의 배우자는) 생의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은퇴)하면서,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을 받으신 적이 있거나 현재 받고 계십니까? 받은 경험이 있으신 분은 매월 받고 있으신 금액 또는 일시금 총 수령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 퇴직연금은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제도를 대체하여,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해당금액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기업에서 사내에 적립하여 퇴직 시 퇴직금을 받는 것은 퇴직금(일시불)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구분	종류	문D6-1수령여부		문D6-2 수령 금액 (문D6-1이 ①인 경우만)	
		받고 있다 (받았다)	현재 받고 있지 않다		
본인	1) 퇴직연금	①	②	① 매월 _____만원 ② 일시금 _____만원	
	2) 퇴직금(일시불)	①	②	① 일시금 _____만원	
배우자	1) 퇴직연금	①	②	① 매월 _____만원 ② 일시금 _____만원	③비해당 (배우자없음)
	2) 퇴직금(일시불)	①	②	① 일시금 _____만원	



## 2016년도 노후준비 실태조사

※ 다음은 자산과 부채에 관한 문항입니다.

문D7. 귀하(귀하의 배우자)는 개인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향후 예상 수령액은 얼마입니까?

※ 국민연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제외한 개인연금에 대해서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구분	문 D7-1수령가능성여부		문 D7-2향후 예상 수령 금액 (문 D7-1이 ①인 경우만)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본인	①	②	① 매월 _____만원 ② 일시금 _____만원	
배우자	①	②	① 매월 _____만원 ② 일시금 _____만원	③비해당 (배우자없음)

문D8. 귀하(귀하의 배우자)는 개인연금을 받으신 적이 있거나 현재 받고 계십니까? 받은 경험이 있으신 분은  
매월 받고 있으신 금액 또는 일시금 총 수령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 국민연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제외한 개인연금에 대해서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구분	문 D8-1수령여부		문 D8-2 수령 금액 (문 D8-1이 ①인 경우만)	
	받고 있다 (받았다)	현재 받고 있지 않다		
본인	①	②	① 매월 _____만원 ② 일시금 _____만원	
배우자	①	②	① 매월 _____만원 ② 일시금 _____만원	③비해당 (배우자없음)

문D9. 귀하(귀하와 귀하의 배우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자산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총액은 얼마입니까? 그 중에서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몇 %입니까?

※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 각각의 총액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자산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개인연금을 제외한 것으로  
예금, 적금(CMA포함), 주식, 채권, 신탁, 저축성 보험, 아직 타지 않은 게,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포함합니다.

※ 단,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받은 전세금은 다시 갚아야 하는 돈이므로 부동산 자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구분	문 D9-1 자산 보유 유무		문 D9-2 총액 (문 D9-1이 ①인 경우만)	문 D9-3 노후 활용 가능 비율
	있다	없다		
1) 금융 자산	①	②	총액 _____만원	%
2) 부동산 자산	①	②	총액 _____만원	%



## 2016년도 노후준비 실태조사

문D10. 귀하(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자가입니까? 혹은 전세 또는 월세입니까?

- ① 자가 (시가 \_\_\_\_\_ 만원)
- ② 전세 (보증금 \_\_\_\_\_ 만원)
- ③ 월세 (보증금 \_\_\_\_\_ 만원/ 월세 \_\_\_\_\_ 만원)
- ④ 기타

문D11. 귀하(귀하와 귀하의 배우자는) 부채가 있으십니까? 부채가 있으시다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채 총액은 얼마입니까?

※ 부채에는 주택융자금, 마이너스 통장, 카드 대출, 사채, 회사를 통해 친구 또는 친지에게 빌린 돈, 임대해주고 받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 미리 타고 앞으로 부여야 할 계 등이 포함됩니다.

- ① 부채 있음 (총액 \_\_\_\_\_ 만원)
- ② 부채 없음

➡ 문D12로

➡ 만35세~49세는 문D13으로, 만50세~69세는 문D14로 가십시오

문D12. 귀하(귀하와 귀하의 배우자는) 부채 해소에 대해 얼마나 부담을 느끼고 계십니까?

(부채 해소 가능성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① 매우 부담을 느낀다                      ② 다소 부담을 느낀다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⑤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문D13. [만35세~49세 응답자만] 귀하(자녀 교육비 지출에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십니까?

현재 자녀가 없으신 분은 ⑨비해당(자녀없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 ① 매우 부담을 느낀다                      ② 다소 부담을 느낀다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⑤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⑥ 비해당(자녀없음)

➡ 응답 후 문D15로 가십시오

문D14. [만50세~69세 응답자만] 귀하(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학비, 용돈, 생활비 지원 등)에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십니까? 현재 자녀가 없으신 분은 ⑨비해당(자녀없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 ① 매우 부담을 느낀다                      ② 다소 부담을 느낀다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⑤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⑥ 비해당(자녀없음)

문D15. 귀하(부모(배우자 부모 포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료비, 생활비 지원 등)에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십니까? 현재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분은 ⑨비해당(부모님 모두 안 계심)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 ① 매우 부담을 느낀다                      ② 다소 부담을 느낀다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⑤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⑥ 비해당(부모님 모두 안 계심)

문D16. 귀하께서(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께서) 은퇴 이후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 생활비는 얼마입니까?

매월 총( )만원



## 2016년도 노후준비 실태조사

문D17. 노후의 경제상태를 위해, 다음의 각 사항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 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주십시오. 각 항목 (1) 노후준비여건 및 인식 (2) 노후 재정안정성을 위한 실천행위를 더하여 총합이 100점이 되도록 응답해 주십시오.

노후준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1) 노후준비여건 및 인식	점
2) 노후 재정안정성을 위한 실천행위	점
총합	100점

## 노후준비 및 노후준비서비스 인식

※ 다음은 귀하의 노후준비 및 노후준비서비스 인식에 대한 문항입니다.

문E1. 노후생활과 관련된 전반적인 준비를 100점이라고 했을 때, 다음의 각 항목들을 중요도 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주십시오. 각 항목 (1) 사회적 관계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 (2) 건강상태(건강한 생활습관)를 관리하는 것 (3) 노후의 여가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 (4) 경제적인 준비를 하는 것을 더하여 총합이 100점이 되도록 응답해 주십시오.

노후준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1) 사회적 관계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	점
2) 건강상태(건강한 생활습관)를 관리하는 것	점
3) 노후의 여가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	점
4) 경제적인 준비를 하는 것	점
총합	100점

문E2. 귀하께서 평가하시기에, 본인은 노후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0점을 만점으로 볼 때, 귀하의 노후준비 정도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100점 만점 기준에 현재 나의 노후준비 정도는 ( )점

문E3. 귀하께서는 현재 노후준비와 관련된 다음 사항들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노후준비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	보통이다	→	매우 준비를 잘하고 있다
1) 노후 사회적 관계를 위한 점검 및 준비	①	②	③	④	⑤
2) 노후 건강(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준비	①	②	③	④	⑤
3) 노후 여가생활을 위한 준비	①	②	③	④	⑤
4) 노후 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	①	②	③	④	⑤



## 2016년도 노후준비 실태조사

문E4. 귀하께서는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노후준비서비스란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말합니다(노후준비지원법 제2조).

- ① 예 **문E4-1**                      ② 아니오 **문E5**

문E4-1. 귀하께서는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노후준비서비스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E5. 귀하께서는 향후 또는 계속해서 노후준비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예 **문E5-1**                      ② 아니오  **설문종료**

문E5-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노후준비서비스 중 어떠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십니까? **중류별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노후준비서비스 종류>	이용할 의향이 있다	이용할 의향이 없다
1)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 진단	①	②
2)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 상담	①	②
3)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 교육	①	②
4)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 관계기관과의 연계	①	②
5)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 사후관리	①	②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에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은 절대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아래의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하여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응답해주신 개인정보는 제3자에게 절대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설문에 참여하셨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알려주신 연락처로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인은 위의 조사 목적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주)한국리서치  
강남구 논현동 192-19 H-Tower 2-7층  
실사 담당 : 이진주 실사연구원  
대표 전화 : (02)3014-0116

●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부록 2.영역별 및 유형별 노후준비수준 기준선

〈부표 2-1〉 영역별 및 유형별 노후준비수준 기준선

영역	내용	비고
사회적 관계	① 배우자/자녀/형제자매관계 각각의 평균점수 모두 3점 미만, 친구이웃관계 3점 미만이고 단체활동 4개 이하 참여 ② 배우자/자녀/형제자매관계 각각의 평균점수 중 1개 이상이 3점 이상, 친구이웃관계 3점 미만 & 단체활동 4개 이하 참여 ③ 배우자/자녀/형제자매관계 각각의 평균점수 중 1개 이상이 3점, 친구이웃관계 3점 이상 또는 단체활동 5개 이상 참여, 사회적 관계 평균 미만, 또는 배우자/자녀/형제자매관계 각각의 평균점수 모두 3점 미만, 친구이웃관계 3점 이상 또는 단체활동 5개 이상 참여 ④ 배우자/자녀/형제자매관계 각각의 평균점수 중 1개 이상이 3점, 친구이웃관계 3점 이상 또는 단체활동 5개 이상 참여, 사회적 관계 평균 이상	① 고립형 ② 친족 중심형 ③ 소규모 다층형 ④ 대규모 다층형
건강한 생활습관	① 건강상태 점수와 건강생활실천 점수 각각 36점과 32점 이상 ② 건강상태 점수와 건강생활실천 점수 각각 36점 이상과 32점 미만 ③ 건강상태 점수와 건강생활실천 점수 각각 36점 미만과 32점 이상 ④ 건강상태 점수와 건강생활실천 점수 각각 36점과 32점 미만	① 건강군 실천형 ② 건강군 비실천형 ③ 건강주의군 실천형 ④ 건강주의군 비실천형
여가활동	① 노후여가인식 평균 3점 이하, 현재 여가생활의 적극성 평균 3점 이하 ② 노후여가인식 평균 3점 이하, 현재 여가생활의 적극성 평균 3점 초과 ③ 노후여가인식 평균 3점 초과, 현재 여가생활의 적극성 평균 3점 이하 ④ 노후여가인식 평균 3점 초과, 현재 여가생활의 적극성 평균 3점 초과	① 노후여가인식이 낮은 소극형 ② 노후여가인식이 낮은 적극형 ③ 노후여가인식이 높은 소극형 ④ 노후여가인식이 높은 적극형
소득과 자산	① 현재 자산상태(노후소득준비(예상)규모)가 35점 <sup>1)</sup> 이며, 전체자산 중 공적자산(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비율 50% 이상 ② 현재 자산상태(노후소득준비(예상)규모)가 35점 <sup>1)</sup> 미만이며, 전체자산 중 공적자산(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비율 50% 이상 ③ 현재 자산상태(노후소득준비(예상)규모)가 35점 <sup>1)</sup> 이며, 전체자산 중 사적자산(퇴직연금, 개인연금,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비율 50% 이상 ④ 현재 자산상태(노후소득준비(예상)규모)가 35점 <sup>1)</sup> 미만이며, 전체자산 중 사적자산(퇴직연금, 개인연금,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비율 50% 이상	① 노후준비가 충분한 공적자산형 ② 노후준비가 부족한 공적자산형 ③ 노후준비가 충분한 사적자산형 ④ 노후준비가 부족한 사적자산형

주: 1) 소득과 자산의 하위영역 중 현재 자산상태의 최대 점수 50점의 70% 수준임.



## 부록 3. 노후준비 실태조사 결과표

\*노후준비 진단지표는 부표에서 제외(본문 참조)

〈부표 3-1〉 2016년 노후준비 실태조사 설문항목별 관련 표번호

영역 명칭		노후준비 실태조사	국민연금공단 진단지표	본문 표번호	부록 표번호
사회적 관계 (대인 관계 영역)	응답자 일반특성 및 가구현황	표지	—	<표 5-1>	—
	응답자 혼인상태	문A1	—	—	—
	배우자와의 대화정도	문A2	A1	<표 5-2>	—
	최근1년간 배우자와 동반외출빈도	문A3	A2	<표 5-3>	—
	동반자나 이성친구와의 대화정도	문A4	—	—	<부표 3-2>
	동반자나 이성친구와 접촉 빈도	문A5	—	—	<부표 3-3>
	자녀와의 대화 정도	문A6	A3	<표 5-4>	—
	최근 1년간 본인(배우자) 형제자매접촉빈도	문A7	A4	<표 5-5>	—
	본인(배우자) 형제자매 도움정도	문A8	A5	<표 5-6>	—
	최근 1년간 친구를 만나는 빈도	문A9	A6	<표 5-7>	—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이웃)수	문A10	A7	<표 5-8>	—
	친구(이웃) 도움정도	문A11	A8	<표 5-9>	—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모임의 수	문A12	A9	<표 5-10>	—
	현재 대인관계의 노후변화	문A13	—	—	<부표 3-4>
	노후 대인관계를 위한 노력 정도	문A14	—	—	<부표 3-5>
	동년배와 비교한 주관적 대인관계	문A15	—	—	<부표 3-6>
	현재 대인관계와 노후 대인관계에 대한 인식 및 실천의 중요도	문A16	—	—	<부표 3-34>
건강한 생활 습관 (건강 영역)	동년배와 비교한 주관적 건강상태	문B1	B1	<표 5-11>	—
	만성질환 여부	문B2	B2	<표 5-12>	—
	1일 수면시간 충분성	문B3	B9	<표 5-19>	—
	평소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	문B4	B3	<표 5-13>	—
	BMI 지수	문B5	B11	<표 5-21>	—
	흡연정도	문B6	B4	<표 5-14>	—
	음주정도	문B7	B5	<표 5-15>	—
	지난 6개월간 규칙적 운동여부	문B8	B6	<표 5-16>	—
	균형잡힌 식품섭취	문B9	B7	<표 5-17>	—
	지난 6개월간 체중유지 노력	문B10	B8	<표 5-18>	—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노력	문B11	—	—	<부표 3-7>
	정기검진 경험여부	문B12	B10	<표 5-20>	—
	동년배와 비교한 노후건강 노력 정도	문B13	—	—	<부표 3-8>
	노후건강을 대비한 건강서비스 이용 의사	문B14	—	—	<부표 3-9>
	노후건강퇴치 대비 준비정도	문B15	—	—	<부표 3-10>
	현재 건강상태와 노후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및 실천행위의 중요도	문B16	—	—	<부표 3-34>
여가 활동 (여가 영역)	지난1년간 취미, 여가활동 참여수	문C1	—	—	<부표 3-11>
	지난1년간 주된 취미, 여가활동	문C1-1	—	—	<부표 3-12>
	취미여가활동 참여기간	문C2	D5	<표 5-26>	—
	취미여가활동 동반자	문C3	—	—	<부표 3-13>
	취미여가활동 경제적 지출 여부	문C4	—	—	<부표 3-14>
	동년배와 비교한 취미여가활동	문C5	D4	<표 5-25>	—
	노후 취미여가활동 고려 여부	문C6	D1	<표 5-22>	—
	노후를 고려한 취미여가활동 참여여부	문C7	D2	<표 5-23>	—
	취미여가활동 변화 예측	문C8	D3	<표 5-24>	—
소득과 자산 (재무)	노후 여가생활에 대한 인식 및 여가 실천행위의 중요도	문C9	—	—	<부표 3-34>
	취업유무	문D1	C1, C2	—	<부표 3-15> <부표 3-20>



영역 명칭		노후준비 실태조사	국민연금공단 진단지표	본문 표번호	부록 표번호
영역)	본인(배우자)의 현재 일 예상 은퇴연령	문D1-1 문D2-1	C1-1 C2-1	<표 5-27> <표 5-28>	—
	본인(배우자)의 소득의 안정성	문D1-2 문D2-2	C1-2 C2-2	<표 5-29> <표 5-30>	—
	본인(배우자)의 현 직종의 근로 소득	문D1-3 문D2-3	— —	— —	<부표 3-16> <부표 3-21>
	본인(배우자)의 제2의 일 준비상태	문D1-4 문D2-4	C1-3 —	<표 5-31> —	<부표 3-22>
	본인(배우자)의 최종 은퇴예상 연령	문D1-5 문D2-5	— —	— —	<부표 3-17> <부표 3-23>
	본인(배우자)의 구직활동 유무	문D1-6 문D2-6	— —	— —	<부표 3-18> <부표 3-24>
	본인(배우자)의 구직활동 노력	문D1-7 문D2-7	— —	— —	<부표 3-19> <부표 3-25>
	본인(배우자) 국민(특수직역)연금 가입여부, 월평균 납부액, 납부기간, 예상수령금액	문D3	C3	<표 5-32>	—
	본인(배우자) 국민(특수직역)연금 수급여부 및 수급액	문D4	—	<표 5-32>	—
	퇴직(연)금 향후 수령여부 및 수령액	문D5	C4	<표 5-32>	—
	퇴직(연)금 수급여부 및 수급액	문D6	—	<표 5-32>	—
	개인연금(장기저축) 투자여부 및 투자액	문D7	C5	<표 5-32>	—
	개인연금 향후 수령여부 및 수령액	문D8	C7	<표 5-32>	—
	개인연금 수급여부 및 수급액	문D9	—	<표 5-32>	—
	금융자산 및 부동산 자산 현황, 노후 활용비율	문D9	C8, C9	<표 5-32> <표 5-32>	—
	거주주택 점유 형태 및 주택 가격	문D10	—	—	<부표 3-26> <부표 3-27>
	부채 유무 및 액수	문D11	—	—	<부표 3-28>
	부채 해소에 부담을 느끼는 정도	문D12	—	—	<부표 3-29>
	자녀교육비 지출 부담정도	문D13	—	—	<부표 3-30>
	자녀관련 지출 부담정도	문D14	—	—	<부표 3-31>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부담정도	문D15	—	—	<부표 3-32>
노후 준비 및 노후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식	은퇴예상 생활비	문D16	C6	—	<부표 3-33> <sup>1)</sup>
	노후준비여건 및 인식 및 노후 재정안정성을 위한 실천행위의 중요도	문D17	—	—	<부표 3-34>
	노후준비 영역별 중요도	문E1	—	—	<부표 3-33>
	노후준비 정도(100점 만점)	문E2	—	—	<부표 3-36>
	노후준비 영역별 준비정도	문E3	—	—	<부표 3-37> <부표 3-40>
	노후준비서비스 인지도	문E4	—	—	<부표 3-41>
	노후준비서비스 이용경험	문E4-1	—	—	<부표 3-42>
	노후준비서비스 이용 의향	문E5	—	—	<부표 3-43>
	노후준비서비스 종류별 이용 의향	문E5-1	—	—	<부표 3-44>

주: 1) 현재 산식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부표 3-2〉 일반특성별 동반자 또는 이성친구와의 대화 정도

(단위: %, 명)

구분	동반자나 이성친구 있음					비해당 (동반자나 이성친구 없음)	계(명) <sup>1)</sup>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	1.2	4.9	14.2	3.6	76.1	100.0(247)
성별							
남성	—	1.4	4.8	15.1	3.4	75.3	100.0(146)
여성	—	1.0	5.0	12.9	4.0	77.2	100.0(101)
연령							
30대	—	0.0	11.9	20.3	6.8	61.0	100.0( 59)
40대	—	2.9	7.4	19.1	2.9	67.6	100.0( 68)
50대	—	1.6	0.0	6.6	1.6	90.2	100.0( 61)
60대	—	0.0	0.0	10.2	3.4	86.4	100.0( 59)
지역							
대도시	—	0.9	4.6	13.8	3.7	77.1	100.0(109)
중소도시	—	1.7	5.9	15.1	2.5	74.8	100.0(119)
농어촌	—	0.0	0.0	10.5	10.5	78.9	100.0( 19)
학력							
초졸 이하	—	0.0	0.0	9.7	3.2	87.1	100.0( 31)
중졸	—	0.0	0.0	5.4	2.7	91.9	100.0( 37)
고졸	—	2.6	6.1	14.9	3.5	72.8	100.0(114)
전문대졸	—	0.0	12.0	16.0	0.0	72.0	100.0( 25)
대졸 이상	—	0.0	5.0	22.5	7.5	65.0	100.0( 40)
취업 여부							
취업	—	1.0	6.1	14.8	4.1	74.0	100.0(196)
미취업	—	2.0	0.0	11.8	2.0	84.3	100.0( 51)
직업							
관리/전문/사무	—	0.0	18.5	14.8	3.7	63.0	100.0( 27)
판매/서비스	—	1.8	4.5	18.8	4.5	70.5	100.0(112)
기능/노무	—	0.0	3.9	7.8	2.0	86.3	100.0( 51)
농림어업	—	0.0	0.0	0.0	16.7	83.3	100.0( 6) <sup>2)</sup>
미취업	—	2.0	0.0	11.8	2.0	84.3	100.0( 51)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	0.0	10.0	16.3	5.0	68.8	100.0( 80)
임시/일용근로자	—	0.0	5.7	8.6	2.9	82.9	100.0( 35)
고용주/단독자영업자	—	2.5	2.5	16.3	3.8	75.0	100.0( 80)
기타	—	0.0	0.0	0.0	0.0	100.0	100.0( 1) <sup>2)</sup>
미취업	—	2.0	0.0	11.8	2.0	84.3	100.0( 51)

주: 1) 무배우 응답자(미혼, 이혼, 사별)를 대상으로 질문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 〈부표 3-3〉 일반특성별 동반자 또는 이성친구와의 만남 정도

(단위: %, 명)

구분	동반자나 이성친구 있음					비해당 (동반자나 이성친구 없음)	계(명) <sup>1)</sup>
	두 달에 1번	한 달에 1번	한 달에 2번	일주일에 1번	일주일에 2번 이상		
전체	1.2	1.2	3.2	10.5	7.7	76.1	100.0(247)
성별							
남성	0.0	0.7	3.4	12.3	8.2	75.3	100.0(146)
여성	3.0	2.0	3.0	7.9	6.9	77.2	100.0(101)
연령							
30대	0.0	3.4	5.1	15.3	15.3	61.0	100.0( 59)
40대	1.5	0.0	5.9	17.6	7.4	67.6	100.0( 68)
50대	1.6	0.0	1.6	4.9	1.6	90.2	100.0( 61)
60대	1.7	1.7	0.0	3.4	6.8	86.4	100.0( 59)
지역							
대도시	0.9	1.8	2.8	6.4	11.0	77.1	100.0(109)
중소도시	0.8	0.8	4.2	13.4	5.9	74.8	100.0(119)
농어촌	5.3	0.0	0.0	15.8	0.0	78.9	100.0( 19)
학력							
초졸 이하	3.2	0.0	0.0	3.2	6.5	87.1	100.0( 31)
중졸	0.0	2.7	0.0	5.4	0.0	91.9	100.0( 37)
고졸	0.9	0.9	5.3	11.4	8.8	72.8	100.0(114)
전문대졸	0.0	0.0	4.0	16.0	8.0	72.0	100.0( 25)
대졸 이상	2.5	2.5	2.5	15.0	12.5	65.0	100.0( 40)
취업 여부							
취업	1.0	1.5	3.6	12.2	7.7	74.0	100.0(196)
미취업	2.0	0.0	2.0	3.9	7.8	84.3	100.0( 51)
직업							
관리/전문/사무	3.7	7.4	11.1	14.8	0.0	63.0	100.0( 27)
판매/서비스	0.0	0.9	2.7	13.4	12.5	70.5	100.0(112)
기능/노무	0.0	0.0	2.0	9.8	2.0	86.3	100.0( 51)
농림어업	16.7	0.0	0.0	0.0	0.0	83.3	100.0( 6) <sup>2)</sup>
미취업	2.0	0.0	2.0	3.9	7.8	84.3	100.0( 51)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1.3	1.3	3.8	16.3	8.8	68.8	100.0( 80)
임시/일용근로자	2.9	0.0	5.7	8.6	0.0	82.9	100.0( 35)
고용주/단독자영업자	0.0	2.5	2.5	10.0	10.0	75.0	100.0( 80)
기타	0.0	0.0	0.0	0.0	0.0	100.0	100.0( 1) <sup>2)</sup>
미취업	2.0	0.0	2.0	3.9	7.8	84.3	100.0( 51)

주: 1) 무배우 응답자(미혼, 이혼, 사별)를 대상으로 질문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3-4〉 일반특성별 노후의 대인관계 변화 예상

(단위: %, 명)

구분	지금보다 상당히 협소해질것 으로 예상한다	지금보다 조금 협소해질것 으로 예상한다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보다 조금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보다 상당히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계(명) <sup>1)</sup>
전체	3.1	16.8	55.1	22.5	2.5	100.0(748)
성별						
남성	3.4	18.0	57.6	18.0	2.9	100.0(377)
여성	2.7	15.6	52.6	27.0	2.2	100.0(371)
혼인상태						
유배우자	2.9	16.1	53.8	24.2	3.1	100.0(621)
무배우자	3.9	20.5	61.4	14.2	0.0	100.0(127)
연령						
30대	2.6	17.0	52.2	25.7	2.6	100.0(230)
40대	3.3	16.8	56.4	21.0	2.5	100.0(518)
지역						
대도시	2.0	17.8	57.9	20.8	1.5	100.0(342)
중소도시	4.4	15.8	53.1	23.2	3.5	100.0(367)
농어촌	0.0	17.9	48.7	30.8	2.6	100.0( 39)
학력						
초졸 이하	0.0	0.0	100.0	0.0	0.0	100.0( 2) <sup>2)</sup>
중졸	0.0	20.0	80.0	0.0	0.0	100.0( 5) <sup>2)</sup>
고졸	2.9	20.0	52.9	21.8	2.4	100.0(340)
전문대졸	4.3	14.9	56.7	22.0	2.1	100.0(141)
대졸 이상	2.7	13.8	56.2	24.2	3.1	100.0(260)
취업 여부						
취업	3.0	17.2	54.6	22.3	3.0	100.0(610)
미취업	3.6	15.2	57.2	23.2	0.7	100.0(138)
직업						
관리/전문/사무	4.0	16.9	55.9	20.3	2.8	100.0(177)
판매/서비스	2.8	14.3	56.2	24.2	2.5	100.0(322)
기능/노무	2.0	26.0	47.0	22.0	3.0	100.0(100)
농림어업	0.0	33.3	55.6	0.0	11.1	100.0( 9)
기타(군인)	0.0	0.0	50.0	0.0	50.0	100.0( 2) <sup>2)</sup>
미취업	3.6	15.2	57.2	23.2	0.7	100.0(138)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3.1	20.6	55.1	18.5	2.8	100.0(287)
임시/일용근로자	3.2	14.3	57.1	23.8	1.6	100.0( 63)
고용주/단독자영업자	2.0	14.6	53.3	26.8	3.3	100.0(246)
무급가족종사자	18.2	9.1	63.6	9.1	0.0	100.0( 11)
기타	0.0	0.0	33.3	33.3	33.3	100.0( 3) <sup>2)</sup>
미취업	3.6	15.2	57.2	23.2	0.7	100.0(138)

주: 1) 만 35~49세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질문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 〈부표 3-5〉 일반특성별 노후의 대인관계를 위한 노력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대체로 노력한다	매우 노력한다	계(명) <sup>1)</sup>
전체	3.5	19.0	37.2	35.5	4.8	100.0(791)
성별						
남성	3.5	20.6	34.6	36.3	5.0	100.0(399)
여성	3.6	17.3	39.8	34.7	4.6	100.0(392)
혼인상태						
유배우자	2.5	18.3	38.0	37.0	4.2	100.0(671)
무배우자	9.2	22.5	32.5	27.5	8.3	100.0(120)
연령						
50대	2.7	18.5	36.8	36.8	5.1	100.0(486)
60대	4.9	19.7	37.7	33.4	4.3	100.0(305)
지역						
대도시	4.2	19.5	36.8	37.3	2.2	100.0(359)
중소도시	2.6	19.2	40.1	32.4	5.7	100.0(349)
농어촌	4.8	15.7	26.5	41.0	12.0	100.0( 83)
학력						
초졸 이하	5.2	25.0	35.3	30.2	4.3	100.0(116)
중졸	4.2	18.2	39.9	30.1	7.7	100.0(143)
고졸	3.2	18.0	38.2	36.7	3.9	100.0(406)
전문대졸	5.9	23.5	29.4	41.2	0.0	100.0( 34)
대졸 이상	1.1	15.2	33.7	43.5	6.5	100.0( 92)
취업 여부						
취업	2.8	18.9	37.1	36.2	5.0	100.0(603)
미취업	5.9	19.1	37.2	33.5	4.3	100.0(188)
직업						
관리/전문/사무	0.0	12.2	24.5	51.0	12.2	100.0( 49)
판매/서비스	3.4	18.9	38.9	34.4	4.5	100.0(355)
기능/노무	3.2	21.2	37.2	34.6	3.8	100.0(156)
농림어업	0.0	18.6	37.2	39.5	4.7	100.0( 43)
기타(군인)	5.9	19.1	37.2	33.5	4.3	100.0(188)
미취업						
종사상지위	1.6	20.8	35.2	36.0	6.4	100.0(125)
상용근로자	7.6	15.2	45.6	25.3	6.3	100.0( 79)
임시/일용근로자	2.5	19.6	36.0	38.1	3.8	100.0(367)
고용주/단독자영업자	0.0	11.5	38.5	46.2	3.8	100.0( 26)
무급가족종사자	0.0	16.7	33.3	16.7	33.3	100.0( 6) <sup>2)</sup>
기타	5.9	19.1	37.2	33.5	4.3	100.0(188)

주: 1) 만 50~69세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질문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3-6〉 일반특성별 동년배와 비교한 대인관계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협소한 편이다	조금 협소한 편이다	보통 이다	다소 원만한 편이다	매우 원만한 편이다	계(명)
전체	2.7	14.0	35.9	40.9	6.4	100.0(1,539)
성별						
남성	2.8	13.8	34.9	41.6	6.8	100.0( 776)
여성	2.5	14.3	37.0	40.2	6.0	100.0( 763)
혼인상태						
유배우자	1.9	12.5	36.8	42.4	6.4	100.0(1,292)
무배우자	6.9	22.3	31.2	33.2	6.5	100.0( 247)
연령						
30대	4.3	11.7	37.0	38.7	8.3	100.0( 230)
40대	2.9	14.5	38.4	38.4	5.8	100.0( 518)
50대	1.6	15.0	34.2	43.6	5.6	100.0( 486)
60대	2.6	13.4	33.8	42.6	7.5	100.0( 305)
지역						
대도시	2.6	14.4	37.2	41.2	4.6	100.0( 701)
중소도시	2.2	14.2	35.6	40.6	7.3	100.0( 716)
농어촌	5.7	10.7	30.3	41.0	12.3	100.0( 122)
학력						
초졸 이하	3.4	19.5	31.4	40.7	5.1	100.0( 118)
중졸	3.4	18.2	33.8	37.8	6.8	100.0( 148)
고졸	2.8	14.1	37.8	39.5	5.8	100.0( 746)
전문대졸	3.4	12.6	38.3	38.3	7.4	100.0( 175)
대졸 이상	1.4	11.1	33.2	46.6	7.7	100.0( 352)
취업 여부						
취업	2.1	13.0	35.3	42.4	7.2	100.0(1,213)
미취업	4.6	17.8	38.3	35.6	3.7	100.0( 326)
직업						
관리/전문/사무	0.9	8.8	36.3	44.2	9.7	100.0( 226)
판매/서비스	2.2	13.3	35.0	42.8	6.6	100.0( 677)
기능/노무	3.1	16.4	36.3	39.5	4.7	100.0( 256)
농림어업	1.9	11.5	30.8	42.3	13.5	100.0( 52)
기타(군인)	0.0	0.0	0.0	50.0	50.0	100.0( 2) <sup>1)</sup>
미취업	4.6	17.8	38.3	35.6	3.7	100.0( 326)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1.7	14.3	35.7	40.5	7.8	100.0( 412)
임시/일용근로자	4.2	16.9	32.4	41.5	4.9	100.0( 142)
고용주/단독자영업자	2.0	11.4	35.4	44.0	7.2	100.0( 613)
무급가족종사자	2.7	10.8	37.8	43.2	5.4	100.0( 37)
기타	0.0	11.1	44.4	22.2	22.2	100.0( 9) <sup>1)</sup>
미취업	4.6	17.8	38.3	35.6	3.7	100.0( 326)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 〈부표 3-7〉 일반특성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노력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다	별로 노력하고 있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노력하고 있다	매우 노력하고 있다	계(명)
전체	1.0	23.3	36.3	35.9	3.5	100.0(1,539)
성별						
남성	0.9	25.4	36.6	33.1	4.0	100.0( 776)
여성	1.2	21.2	35.9	38.7	3.0	100.0( 763)
혼인상태						
유배우자	0.8	23.1	36.0	36.7	3.5	100.0(1,292)
무배우자	2.4	24.7	37.7	31.6	3.6	100.0( 247)
연령						
30대	1.7	23.5	37.0	34.8	3.0	100.0( 230)
40대	1.4	24.3	33.6	37.5	3.3	100.0( 518)
50대	0.2	22.2	37.4	36.6	3.5	100.0( 486)
60대	1.3	23.3	38.4	32.8	4.3	100.0( 305)
지역						
대도시	1.1	20.8	36.2	39.7	2.1	100.0( 701)
중소도시	0.8	24.9	35.9	34.1	4.3	100.0( 716)
농어촌	1.6	28.7	38.5	24.6	6.6	100.0( 122)
학력						
초졸 이하	2.5	28.0	43.2	22.9	3.4	100.0( 118)
중졸	0.7	20.3	41.2	31.8	6.1	100.0( 148)
고졸	0.9	24.3	35.7	36.7	2.4	100.0( 746)
전문대졸	1.7	22.9	34.9	38.3	2.3	100.0( 175)
대졸 이상	0.6	21.3	33.8	38.9	5.4	100.0( 352)
취업 여부						
취업	0.7	23.6	35.8	36.4	3.5	100.0(1,213)
미취업	2.1	22.4	38.0	34.0	3.4	100.0( 326)
직업						
관리/전문/사무	0.4	18.1	34.5	42.9	4.0	100.0( 226)
판매/서비스	0.6	25.7	35.6	34.4	3.7	100.0( 677)
기능/노무	1.2	20.7	36.7	39.1	2.3	100.0( 256)
농림어업	1.9	34.6	38.5	19.2	5.8	100.0( 52)
기타(군인)	0.0	0.0	50.0	50.0	0.0	100.0( 2) <sup>1)</sup>
미취업	2.1	22.4	38.0	34.0	3.4	100.0( 326)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0.7	23.3	34.2	39.3	2.4	100.0( 412)
임시/일용근로자	0.7	25.4	38.0	33.1	2.8	100.0( 142)
고용주/단독자영업자	0.7	23.3	36.4	35.6	4.1	100.0( 613)
무급가족종사자	2.7	24.3	37.8	32.4	2.7	100.0( 37)
기타	0.0	22.2	22.2	22.2	33.3	100.0( 9) <sup>1)</sup>
미취업	2.1	22.4	38.0	34.0	3.4	100.0( 326)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3-8〉 일반특성별 노후건강 유지를 위한 현재 노력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다	별로 노력하고 있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노력하고 있다	매우 노력하고 있다	계(명)
전체	2.6	23.4	34.4	33.4	6.2	100.0(1,539)
성별						
남성	2.6	25.9	34.3	31.3	5.9	100.0( 776)
여성	2.6	20.8	34.5	35.5	6.6	100.0( 763)
혼인상태						
유배우자	1.9	22.5	34.5	35.1	6.0	100.0(1,292)
무배우자	6.1	27.9	33.6	24.7	7.7	100.0( 247)
연령						
30대	6.5	27.0	36.5	27.4	2.6	100.0( 230)
40대	2.3	27.0	34.6	31.3	4.8	100.0( 518)
50대	1.6	20.8	35.0	35.6	7.0	100.0( 486)
60대	1.6	18.7	31.5	38.0	10.2	100.0( 305)
지역						
대도시	2.0	25.4	31.4	38.1	3.1	100.0( 701)
중소도시	3.5	20.7	38.5	28.8	8.5	100.0( 716)
농어촌	0.8	27.9	27.0	33.6	10.7	100.0( 122)
학력						
초졸 이하	0.8	23.7	28.8	36.4	10.2	100.0( 118)
중졸	1.4	25.0	34.5	33.8	5.4	100.0( 148)
고졸	2.7	23.6	36.6	31.2	5.9	100.0( 746)
전문대졸	4.6	21.7	38.9	31.4	3.4	100.0( 175)
대졸 이상	2.6	23.0	29.3	37.8	7.4	100.0( 352)
취업 여부						
취업	2.2	24.3	34.3	33.6	5.6	100.0(1,213)
미취업	4.0	19.9	34.7	32.8	8.6	100.0( 326)
직업						
관리/전문/사무	1.3	20.4	31.4	38.9	8.0	100.0( 226)
판매/서비스	2.7	23.6	34.9	34.0	4.9	100.0( 677)
기능/노무	2.3	28.1	36.7	29.3	3.5	100.0( 256)
농림어업	0.0	32.7	26.9	25.0	15.4	100.0( 52)
기타(군인)	0.0	0.0	50.0	50.0	0.0	100.0( 2) <sup>1)</sup>
미취업	4.0	19.9	34.7	32.8	8.6	100.0( 326)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3.4	24.8	33.3	32.8	5.8	100.0( 412)
임시/일용근로자	0.7	23.9	42.3	28.2	4.9	100.0( 142)
고용주/단독자영업자	2.0	25.1	32.8	34.6	5.5	100.0( 613)
무급가족종사자	0.0	13.5	32.4	48.6	5.4	100.0( 37)
기타	0.0	0.0	66.7	22.2	11.1	100.0( 9) <sup>1)</sup>
미취업	4.0	19.9	34.7	32.8	8.6	100.0( 326)

주 :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 〈부표 3-9〉 일반특성별 노후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의향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명) <sup>1)</sup>
전체	7.2	24.6	30.3	33.7	4.1	100.0(748)
성별						
남성	8.5	28.4	31.3	28.1	3.7	100.0(377)
여성	5.9	20.8	29.4	39.4	4.6	100.0(371)
혼인상태						
유배우자	6.6	22.9	30.4	36.1	4.0	100.0(621)
무배우자	10.2	33.1	29.9	22.0	4.7	100.0(127)
연령						
30대	7.8	23.9	33.9	29.6	4.8	100.0(230)
40대	6.9	24.9	28.8	35.5	3.9	100.0(518)
지역						
대도시	3.2	28.7	30.7	33.6	3.8	100.0(342)
중소도시	11.4	19.6	30.0	34.3	4.6	100.0(367)
농어촌	2.6	35.9	30.8	28.2	2.6	100.0( 39)
학력						
초졸 이하	0.0	0.0	0.0	100.0	0.0	100.0( 2) <sup>2)</sup>
중졸	0.0	40.0	40.0	20.0	0.0	100.0( 5) <sup>2)</sup>
고졸	6.8	27.4	29.1	32.6	4.1	100.0(340)
전문대졸	6.4	19.1	34.0	34.8	5.7	100.0(141)
대졸 이상	8.5	23.8	30.0	34.2	3.5	100.0(260)
취업 여부						
취업	7.7	24.4	30.5	33.4	3.9	100.0(610)
미취업	5.1	25.4	29.7	34.8	5.1	100.0(138)
직업						
관리/전문/사무	7.3	24.3	27.1	35.0	6.2	100.0(177)
판매/서비스	8.7	23.0	32.0	32.9	3.4	100.0(322)
기능/노무	6.0	28.0	30.0	34.0	2.0	100.0(100)
농림어업	0.0	33.3	44.4	22.2	0.0	100.0( 9) <sup>2)</sup>
기타(군인)	0.0	50.0	50.0	0.0	0.0	100.0( 2) <sup>2)</sup>
미취업	5.1	25.4	29.7	34.8	5.1	100.0(138)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9.8	27.2	28.2	30.3	4.5	100.0(287)
임시/일용근로자	1.6	25.4	28.6	41.3	3.2	100.0( 63)
고용주/단독자영업자	6.9	21.1	33.3	35.0	3.7	100.0(246)
무급가족종사자	0.0	18.2	45.5	36.4	0.0	100.0( 11)
기타	33.3	33.3	0.0	33.3	0.0	100.0( 3) <sup>2)</sup>
미취업	5.1	25.4	29.7	34.8	5.1	100.0(138)

주: 1) 만 35~49세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질문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3-10〉 일반특성별 노후 건강 악화를 대비한 준비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명) <sup>1)</sup>
전체	9.9	29.1	35.4	22.5	3.2	100.0(791)
성별						
남성	8.5	30.1	33.8	24.6	3.0	100.0(399)
여성	11.2	28.1	37.0	20.4	3.3	100.0(392)
혼인상태						
유배우자	8.2	28.2	37.4	23.1	3.1	100.0(671)
무배우자	19.2	34.2	24.2	19.2	3.3	100.0(120)
연령						
50대	8.6	29.6	38.7	20.0	3.1	100.0(486)
60대	11.8	28.2	30.2	26.6	3.3	100.0(305)
지역						
대도시	11.1	30.1	33.1	24.2	1.4	100.0(359)
중소도시	9.7	30.1	36.4	19.2	4.6	100.0(349)
농어촌	4.8	20.5	41.0	28.9	4.8	100.0( 83)
학력						
초졸 이하	13.8	32.8	31.0	19.8	2.6	100.0(116)
중졸	14.0	31.5	33.6	18.9	2.1	100.0(143)
고졸	8.6	28.1	36.9	23.6	2.7	100.0(406)
전문대졸	17.6	29.4	32.4	20.6	0.0	100.0( 34)
대졸 이상	1.1	25.0	38.0	27.2	8.7	100.0( 92)
취업 여부						
취업	7.6	29.7	36.7	22.9	3.2	100.0(603)
미취업	17.0	27.1	31.4	21.3	3.2	100.0(188)
직업						
관리/전문/사무	2.0	22.4	36.7	26.5	12.2	100.0( 49)
판매/서비스	7.0	29.3	38.9	22.0	2.8	100.0(355)
기능/노무	10.3	34.0	30.1	25.0	0.6	100.0(156)
농림어업	9.3	25.6	41.9	18.6	4.7	100.0( 43)
기타(군인)	17.0	27.1	31.4	21.3	3.2	100.0(188)
미취업						100.0
종사상지위	6.4	26.4	38.4	25.6	3.2	(125)
상용근로자	10.1	31.6	39.2	17.7	1.3	100.0( 79)
임시/일용근로자	7.1	30.5	36.0	22.9	3.5	100.0(367)
고용주/단독자영업자	15.4	30.8	26.9	26.9	0.0	100.0( 26)
무급가족종사자	0.0	16.7	50.0	16.7	16.7	100.0( 6) <sup>2)</sup>
기타	17.0	27.1	31.4	21.3	3.2	100.0(188)

주: 1) 만 50~69세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질문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3-11〉 일반특성별 지난 1년간 참여한 취마·여가활동 수

(단위: 개,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계(명)
전체	2.56	2.10	0.0	16.0	100.0(1,539)
성별					
남성	2.58	2.04	0.0	15.0	100.0( 776)
여성	2.54	2.16	0.0	16.0	100.0( 763)
혼인상태					
유배우자	2.59	2.12	0.0	16.0	100.0(1,292)
무배우자	2.38	2.01	0.0	14.0	—( 247)
연령					
30대	3.10	2.18	0.0	16.0	100.0( 230)
40대	2.86	2.24	0.0	16.0	100.0( 518)
50대	2.38	2.02	0.0	15.0	100.0( 486)
60대	1.93	1.71	0.0	10.0	100.0( 305)
지역					
대도시	2.59	2.10	0.0	16.0	100.0( 701)
중소도시	2.68	2.11	0.0	16.0	100.0( 716)
농어촌	1.68	1.89	0.0	9.0	100.0( 122)
학력					
초졸 이하	1.50	1.45	0.0	7.0	100.0( 118)
중졸	1.73	1.55	0.0	8.0	100.0( 148)
고졸	2.50	2.07	0.0	15.0	100.0( 746)
전문대졸	2.93	2.24	0.0	13.0	100.0( 175)
대졸 이상	3.20	2.21	0.0	16.0	100.0( 352)
취업 여부					
취업	2.54	2.13	0.0	16.0	100.0(1,213)
미취업	2.63	1.99	0.0	16.0	100.0( 326)
직업					
관리/전문/사무	3.42	2.45	0.0	14.0	100.0( 226)
판매/서비스	2.38	2.01	0.0	16.0	100.0( 677)
기능/노무	2.37	2.04	0.0	15.0	100.0( 256)
농림어업	1.52	1.49	0.0	6.0	100.0( 52)
기타	3.50	3.54	1.0	6.0	100.0( 2) <sup>1)</sup>
미취업	2.63	1.99	0.0	16.0	100.0( 326)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2.83	2.07	0.0	13.0	100.0( 412)
임시/일용근로자	2.73	2.63	0.0	15.0	100.0( 142)
고용주/단독자영업자	2.32	2.01	0.0	16.0	100.0( 613)
무급가족종사자	1.86	1.84	0.0	9.0	100.0( 37)
기타	3.44	3.00	1.0	9.0	100.0( 9) <sup>1)</sup>
미취업	2.63	1.99	0.0	16.0	100.0( 326)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3-12〉 지난 1년간 참여한 가장 주된 취미·여가활동

구분	1순위 %(명)	2순위 <sup>1)</sup> %(명)	(단위: %, 명)
			3순위 <sup>2)</sup> %(명)
01.책읽기	5.5( 85)	3.3( 43)	3.1( 32)
02.글쓰기	0.3( 5) <sup>3)</sup>	0.8( 11)	0.1( 1) <sup>3)</sup>
03.산책	14.0( 215)	13.5( 177)	12.9( 132)
04.등산	13.8( 213)	10.6( 139)	4.2( 43)
05.낚시	2.3( 36)	2.3( 30)	2.2( 22)
06.스포츠 관람	1.4( 22)	3.4( 45)	3.4( 35)
07.컴퓨터 및 인터넷	8.3( 128)	7.9( 104)	5.5( 56)
08.게임	1.9( 29)	2.6( 34)	1.8( 18)
09.바둑, 장기, 체스, 윗놀이	0.4( 6) <sup>3)</sup>	1.2( 16)	2.0( 20)
10.화투, 카드	0.8( 12)	0.8( 10)	0.9( 9) <sup>3)</sup>
11.문학행사와 참여	0.1( 1) <sup>3)</sup>	0.6( 8) <sup>3)</sup>	0.8( 8) <sup>3)</sup>
12.미술 등 전시회 감상	0.1( 1) <sup>3)</sup>	0.3( 4) <sup>3)</sup>	0.1( 1) <sup>3)</sup>
13.클래식·오페라 공연 관람	0.0( 0)	0.2( 2) <sup>3)</sup>	0.4( 4) <sup>3)</sup>
14.연극(뮤지컬) 공연 관람	0.1( 2) <sup>3)</sup>	0.4( 5) <sup>3)</sup>	0.7( 7) <sup>3)</sup>
15.무용공연 관람	—	—	0.1( 1) <sup>3)</sup>
16.영화보기/영화감상	5.6( 86)	8.0( 105)	8.5( 87)
17.연예(쇼콘서트·마술 쇼) 공연 관람	0.1( 1) <sup>3)</sup>	0.1( 1) <sup>3)</sup>	0.1( 1) <sup>3)</sup>
18.전통문화재 감상	0.0( 0)	0.2( 2) <sup>3)</sup>	—
19.문예창작/독서토론	0.1( 2) <sup>3)</sup>	0.2( 2) <sup>3)</sup>	0.2( 2) <sup>3)</sup>
20.그림그리기/조각/도예	0.1( 2) <sup>3)</sup>	—	0.2( 2) <sup>3)</sup>
21.악기연주	0.8( 13)	0.6( 8) <sup>3)</sup>	0.3( 3) <sup>3)</sup>
22.노래부르기/노래교실	1.1( 17)	1.2( 16)	1.4( 14)
23.음악듣기	3.1( 47)	4.7( 61)	3.8( 39)
24.전통예술(사물놀이 등 배우기)	0.0( 0)	0.2( 3) <sup>3)</sup>	0.2( 2) <sup>3)</sup>
25.춤추기	0.2( 3) <sup>3)</sup>	0.6( 8)	0.3( 3) <sup>3)</sup>
26.무용(발레, 방춤 등) 배우기	0.1( 2) <sup>3)</sup>	0.1( 1) <sup>3)</sup>	0.1( 1) <sup>3)</sup>
27.사진찍기	0.1( 1) <sup>3)</sup>	0.5( 7) <sup>3)</sup>	0.9( 9) <sup>3)</sup>
28.생활공예(십자수, 비즈공예)	0.3( 5) <sup>3)</sup>	0.4( 5) <sup>3)</sup>	0.4( 4) <sup>3)</sup>
29.디자인 도안	0.1( 1) <sup>3)</sup>	0.1( 1) <sup>3)</sup>	0.1( 1) <sup>3)</sup>
30.서예	0.1( 2) <sup>3)</sup>	0.1( 1) <sup>3)</sup>	—
31.다도/요리하기	0.8( 13)	0.7( 9) <sup>3)</sup>	1.1( 11)
32.화초 가꾸기	1.2( 18)	2.0( 26)	2.8( 29)
33.운동(스포츠 참여)	16.9( 260)	6.7( 88)	6.2( 63)
34.여행(관광활동)	3.7( 57)	6.5( 85)	10.9( 111)
35.교양강좌수강	0.4( 6) <sup>3)</sup>	0.3( 4) <sup>3)</sup>	0.3( 3) <sup>3)</sup>
취미·여가활동 없음	16.1( 248)	18.9( 248)	24.3( 248)
계(명)	100.0(1,539)	100.0(1,309)	100.0(1,022)

주: 1) 2순위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함  
 2) 2, 3순위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함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3-13〉 일반특성별 취미·여가활동 동반자

(단위: %, 명)

구분	취미·여가활동 있음					비해당 (취미·여가 활동 없음)	계(명)
	혼자서	배우자와 함께	배우자 외 가족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전체	26.5	14.0	5.5	30.7	7.3	16.1	100.0(1,539)
성별							
남성	27.2	14.3	5.2	29.9	9.0	14.4	100.0( 776)
여성	25.8	13.6	5.8	31.5	5.5	17.8	100.0( 763)
혼인상태							
유배우자	24.2	16.6	6.3	30.2	7.2	15.6	100.0(1,292)
무배우자	38.5	0.4	1.2	33.2	7.7	19.0	100.0( 247)
연령							
30대	29.1	19.6	10.4	26.5	6.5	7.8	100.0( 230)
40대	29.3	15.3	7.1	28.4	7.3	12.5	100.0( 518)
50대	23.9	11.9	3.5	32.9	8.0	19.8	100.0( 486)
60대	23.9	10.8	2.0	34.1	6.6	22.6	100.0( 305)
지역							
대도시	27.5	14.3	4.1	32.2	6.0	15.8	100.0( 701)
중소도시	26.4	14.5	7.7	29.9	8.2	13.3	100.0( 716)
농어촌	21.3	9.0	0.0	26.2	9.0	34.4	100.0( 122)
학력							
초졸 이하	22.9	5.1	0.8	29.7	9.3	32.2	100.0( 118)
중졸	23.6	8.8	4.1	26.4	6.8	30.4	100.0( 148)
고졸	26.7	12.2	5.5	32.7	7.0	16.0	100.0( 746)
전문대졸	31.4	17.1	6.9	22.9	6.3	15.4	100.0( 175)
대졸 이상	26.1	21.3	6.8	32.4	8.0	5.4	100.0( 352)
취업 여부							
취업	25.6	14.8	5.3	29.3	8.1	17.1	100.0(1,213)
미취업	30.1	11.0	6.1	35.9	4.3	12.6	100.0( 326)
직업							
관리/전문/사무	19.0	23.9	5.8	31.0	11.1	9.3	100.0( 226)
판매/서비스	29.5	12.7	4.7	28.2	6.5	18.3	100.0( 677)
기능/노무	22.7	13.7	7.0	30.9	9.0	16.8	100.0( 256)
농림어업	17.3	5.8	1.9	28.8	9.6	36.5	100.0( 52)
기타	—	50.0	—	—	50.0	—	100.0( 2) <sup>1)</sup>
미취업	30.1	11.0	6.1	35.9	4.3	12.6	100.0( 326)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22.8	19.2	6.3	29.4	10.0	12.4	100.0( 412)
임시/일용근로자	24.6	10.6	4.2	35.9	6.3	18.3	100.0( 142)
고용주/단독자영업자	28.2	12.9	4.6	27.9	7.0	19.4	100.0( 613)
무급가족종사자	13.5	13.5	8.1	27.0	8.1	29.7	100.0( 37)
기타	33.3	11.1	11.1	22.2	22.2	—	100.0( 9) <sup>1)</sup>
미취업	30.1	11.0	6.1	35.9	4.3	12.6	100.0( 326)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3-14〉 일반특성별 취미·여가활동을 위한 경제적 지출 여부

(단위: %, 명)

구분	취미·여가활동 있음		비해당 (취미·여가활동 없음)	계(명)
	지출을 하고 있다	지출을 하고 있지 않다		
전체	60.9	22.9	16.1	100.0(1,539)
성별				
남성	64.2	21.4	14.4	100.0( 776)
여성	57.7	24.5	17.8	100.0( 763)
혼인상태				
유배우자	62.2	22.2	15.6	100.0(1,292)
무배우자	54.3	26.7	19.0	100.0( 247)
연령				
30대	73.9	18.3	7.8	100.0( 230)
40대	65.1	22.4	12.5	100.0( 518)
50대	59.3	21.0	19.8	100.0( 486)
60대	46.9	30.5	22.6	100.0( 305)
지역				
대도시	59.8	24.4	15.8	100.0( 701)
중소도시	64.9	21.8	13.3	100.0( 716)
농어촌	44.3	21.3	34.4	100.0( 122)
학력				
초졸 이하	33.9	33.9	32.2	100.0( 118)
중졸	34.5	35.1	30.4	100.0( 148)
고졸	61.0	23.1	16.0	100.0( 746)
전문대졸	62.9	21.7	15.4	100.0( 175)
대졸 이상	80.1	14.5	5.4	100.0( 352)
취업 여부				
취업	62.6	20.4	17.1	100.0(1,213)
미취업	54.9	32.5	12.6	100.0( 326)
직업				
관리/전문/사무	78.8	11.9	9.3	100.0( 226)
판매/서비스	59.1	22.6	18.3	100.0( 677)
기능/노무	60.2	23.0	16.8	100.0( 256)
농림어업	50.0	13.5	36.5	100.0( 52)
기타	50.0	50.0	—	100.0( 2) <sup>1)</sup>
미취업	54.9	32.5	12.6	100.0( 326)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69.9	17.7	12.4	100.0( 412)
임시/일용근로자	55.6	26.1	18.3	100.0( 142)
고용주/단독자영업자	59.7	20.9	19.4	100.0( 613)
무급가족종사자	48.6	21.6	29.7	100.0( 37)
기타	88.9	11.1	—	100.0( 9) <sup>1)</sup>
미취업	54.9	32.5	12.6	100.0( 326)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3-15〉 일반특성별 현재 본인의 근로상황

구분	(단위: %, 명)		
	현재 일을 하고 있다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다	계(명)
전체	78.8	21.2	100.0(1,539)
성별			
남성	90.7	9.3	100.0( 776)
여성	66.7	33.3	100.0( 763)
혼인상태			
유배우자	78.7	21.3	100.0(1,292)
무배우자	79.4	20.6	100.0( 247)
연령			
30대	77.8	22.2	100.0( 230)
40대	83.2	16.8	100.0( 518)
50대	84.2	15.8	100.0( 486)
60대	63.6	36.4	100.0( 305)
지역			
대도시	78.3	21.7	100.0( 701)
중소도시	78.6	21.4	100.0( 716)
농어촌	82.8	17.2	100.0( 122)
학력			
초졸 이하	64.4	35.6	100.0( 118)
중졸	68.2	31.8	100.0( 148)
고졸	80.2	19.8	100.0( 746)
전문대졸	77.1	22.9	100.0( 175)
대졸 이상	86.1	13.9	100.0( 352)
취업 여부			
취업	100.0	—	100.0(1,213)
미취업	—	100.0	100.0( 326)
직업			
관리/전문/사무	100.0	—	100.0( 226)
판매/서비스	100.0	—	100.0( 677)
기능/노무	100.0	—	100.0( 256)
농림어업	100.0	—	100.0( 52)
기타	100.0	—	100.0( 2) <sup>1)</sup>
미취업	—	100.0	100.0( 326)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100.0	—	100.0( 412)
임시/일용근로자	100.0	—	100.0( 142)
고용주/단독자영업자	100.0	—	100.0( 613)
무급가족종사자	100.0	—	100.0( 37)
기타	100.0	—	100.0( 9) <sup>1)</sup>
미취업	—	100.0	100.0( 326)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3-16〉 일반특성별 본인의 월평균 근로소득

(단위: 만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대상자 수(명) <sup>1)</sup>
전체	244.65	166.11	0.0	3,000.0	(1,213)
성별					
남성	294.96	180.10	10.0	3,000.0	( 704)
여성	175.17	112.30	0.0	1,000.0	( 509)
혼인상태					
유배우자	248.24	168.57	0.0	3,000.0	(1,017)
무배우자	225.93	151.65	20.0	1,500.0	( 196)
연령					
30대	270.39	148.05	20.0	1,500.0	( 179)
40대	267.65	149.35	0.0	1,000.0	( 431)
50대	247.95	195.86	0.0	3,000.0	( 409)
60대	162.99	117.12	0.0	700.0	( 194)
지역					
대도시	257.96	185.75	0.0	3,000.0	( 549)
중소도시	241.60	147.76	0.0	1,500.0	( 563)
농어촌	189.50	136.45	0.0	700.0	( 101)
학력					
초졸 이하	136.71	112.53	0.0	500.0	( 76)
중졸	153.98	79.75	0.0	400.0	( 101)
고졸	231.66	171.73	0.0	3,000.0	( 598)
전문대졸	246.56	117.19	0.0	700.0	( 135)
대졸 이상	326.70	168.30	0.0	1,500.0	( 303)
직업					
관리/전문/사무	310.69	162.79	20.0	1,500.0	( 226)
판매/서비스	230.18	138.47	0.0	1,000.0	( 677)
기능/노무	243.94	217.10	0.0	3,000.0	( 256)
농림어업	141.62	121.24	0.0	450.0	( 52)
기타	450.00	70.71	400.0	500.0	( 2) <sup>2)</sup>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278.16	179.44	20.0	3,000.0	( 412)
임시/일용근로자	141.37	78.95	20.0	700.0	( 142)
고용주/단독자영업자	257.74	157.23	0.0	1,500.0	( 613)
무급가족종사자	51.89	95.51	0.0	400.0	( 37)
기타	243.33	226.72	0.0	700.0	( 9) <sup>2)</sup>

주: 1) 현재 취업중인 자(1,213명)만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3-17〉 일반특성별 본인의 근로가능한 예상 연령

(단위: 세,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대상자 수(명) <sup>1)</sup>
전체	66.53	6.25	38.0	90.0	(1,213)
성별					
남성	67.60	5.62	50.0	90.0	( 704)
여성	65.05	6.75	38.0	80.0	( 509)
혼인상태					
유배우자	66.56	6.19	45.0	90.0	(1,017)
무배우자	66.36	6.52	38.0	80.0	( 196)
연령					
30대	63.33	6.68	38.0	80.0	( 179)
40대	64.63	6.15	45.0	90.0	( 431)
50대	67.74	5.33	55.0	80.0	( 409)
60대	71.17	4.17	60.0	80.0	( 194)
지역					
대도시	66.19	6.11	38.0	90.0	( 549)
중소도시	66.31	5.99	45.0	80.0	( 563)
농어촌	69.59	7.47	50.0	80.0	( 101)
학력					
초졸 이하	71.36	4.78	60.0	80.0	( 76)
중졸	69.54	4.73	60.0	80.0	( 101)
고졸	66.34	5.94	38.0	80.0	( 598)
전문대졸	64.06	6.81	45.0	80.0	( 135)
대졸 이상	65.80	6.39	46.0	90.0	( 303)
직업					
관리/전문/사무	64.21	6.56	46.0	90.0	( 226)
판매/서비스	66.50	6.08	38.0	80.0	( 677)
기능/노무	67.24	5.48	53.0	80.0	( 256)
농림어업	73.48	4.50	65.0	80.0	( 52)
기타	67.50	3.54	65.0	70.0	( 2) <sup>2)</sup>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64.81	6.31	45.0	90.0	( 412)
임시/일용근로자	65.35	6.70	38.0	80.0	( 142)
고용주/단독자영업자	67.71	5.74	50.0	80.0	( 613)
무급가족종사자	70.06	5.93	60.0	80.0	( 37)
기타	69.56	6.86	60.0	80.0	( 9) <sup>2)</sup>

주: 1) 현재 취업중인 자(1,213명)만을 대상으로 질문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3-18〉 일반특성별 지난 1년간 본인의 구직활동 여부

(단위: %, 명)

구분	구직활동 여부		비해당 (일자리 있음)	계(명)
	예	아니오		
전체	2.5	18.7	78.8	100.0(1,539)
성별				
남성	2.2	7.1	90.7	100.0( 776)
여성	2.8	30.5	66.7	100.0( 763)
혼인상태				
유배우자	2.2	19.1	78.7	100.0(1,292)
무배우자	4.0	16.6	79.4	100.0( 247)
연령				
30대	3.0	19.1	77.8	100.0( 230)
40대	2.1	14.7	83.2	100.0( 518)
50대	1.4	14.4	84.2	100.0( 486)
60대	4.3	32.1	63.6	100.0( 305)
지역				
대도시	2.4	19.3	78.3	100.0( 701)
중소도시	2.7	18.7	78.6	100.0( 716)
농어촌	1.6	15.6	82.8	100.0( 122)
학력				
초졸 이하	1.7	33.9	64.4	100.0( 118)
중졸	4.1	27.7	68.2	100.0( 148)
고졸	2.8	17.0	80.2	100.0( 746)
전문대졸	2.9	20.0	77.1	100.0( 175)
대졸 이상	1.1	12.8	86.1	100.0( 352)
취업 여부				
취업	0.0	0.0	100.0	100.0(1,213)
미취업	11.7	88.3	0.0	100.0( 326)
직업				
관리/전문/사무	0.0	0.0	100.0	100.0( 226)
판매/서비스	0.0	0.0	100.0	100.0( 677)
기능/노무	0.0	0.0	100.0	100.0( 256)
농림어업	0.0	0.0	100.0	100.0( 52)
기타	0.0	0.0	100.0	100.0( 2) <sup>1)</sup>
미취업	11.7	88.3	0.0	100.0( 326)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0.0	0.0	100.0	100.0( 412)
임시/일용근로자	0.0	0.0	100.0	100.0( 142)
고용주/단독자영업자	0.0	0.0	100.0	100.0( 613)
무급가족종사자	0.0	0.0	100.0	100.0( 37)
기타	0.0	0.0	100.0	100.0( 9) <sup>1)</sup>
미취업	11.7	88.3	0.0	100.0( 326)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3-19〉 일반특성별 본인의 구직 노력 활동

(단위: %, 명)

구분	구직 노력 활동							비해당 (구직 노력 안함)	계(명)
	직업 교육 훈련	1:1 직업 상담	구직자 정보 등록	이력서 면접관련 컨설팅	취업 알선	동행 면접	없음		
전체	0.3	0.2	0.8	0.7	1.1	0.3	0.5	97.5	100.0(1,539)
성별									
남성	0.0	0.1	1.0	0.6	0.6	0.1	0.5	97.8	100.0( 776)
여성	0.5	0.3	0.7	0.8	1.6	0.4	0.4	97.2	100.0( 763)
혼인상태									
유배우자	0.3	0.2	0.7	0.5	0.9	0.2	0.5	97.8	100.0(1,292)
무배우자	0.0	0.4	1.6	1.6	2.4	0.4	0.4	96.0	100.0( 247)
연령									
30대	0.4	0.0	1.3	0.9	1.3	0.4	0.0	97.0	100.0( 230)
40대	0.4	0.2	0.6	0.6	1.2	0.4	0.2	97.9	100.0( 518)
50대	0.2	0.0	0.6	0.6	0.8	0.2	0.2	98.6	100.0( 486)
60대	0.0	0.7	1.3	1.0	1.3	0.0	1.6	95.7	100.0( 305)
지역									
대도시	0.1	0.1	0.6	0.6	1.0	0.1	0.7	97.6	100.0( 701)
중소도시	0.4	0.3	1.3	0.8	1.3	0.4	0.3	97.3	100.0( 716)
농어촌	0.0	0.0	0.0	0.8	0.8	0.0	0.0	98.4	100.0( 122)
학력									
초졸 이하	0.0	0.0	0.8	0.0	1.7	0.0	0.0	98.3	100.0( 118)
중졸	0.0	0.7	2.0	1.4	1.4	0.0	2.0	95.9	100.0( 148)
고졸	0.3	0.1	0.9	0.8	1.3	0.3	0.4	97.2	100.0( 746)
전문대졸	0.6	0.0	0.0	0.6	1.1	0.6	0.6	97.1	100.0( 175)
대졸 이상	0.3	0.3	0.6	0.6	0.3	0.3	0.0	98.9	100.0( 352)
취업 여부									
취업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1,213)
미취업	1.2	0.9	4.0	3.4	5.2	1.2	2.1	88.3	100.0( 326)
직업									
관리/전문/사무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226)
판매/서비스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677)
기능/노무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256)
농림어업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52)
기타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2) <sup>1)</sup>
미취업	1.2	0.9	4.0	3.4	5.2	1.2	2.1	88.3	100.0( 326)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412)
임시/일용근로자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142)
고용주/단독자영업자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613)
무급가족종사자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37)
기타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9) <sup>1)</sup>
미취업	1.2	0.9	4.0	3.4	5.2	1.2	2.1	88.3	100.0( 326)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3-20〉 일반특성별 현재 배우자의 근로상황

(단위: %, 명)

구분	배우자의 근로상황		비해당 (배우자 없음)	계(명)
	현재 일을 하고 있다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다		
전체	63.2	20.7	16.0	100.0(1,539)
성별				
남성	47.7	33.5	18.8	100.0( 776)
여성	79.0	7.7	13.2	100.0( 763)
혼인상태				
유배우자	75.3	24.7	0.0	100.0(1,292)
무배우자	—	—	100.0	100.0( 247)
연령				
30대	60.9	13.5	25.7	100.0( 230)
40대	69.1	17.8	13.1	100.0( 518)
50대	69.8	17.7	12.6	100.0( 486)
60대	44.6	36.1	19.3	100.0( 305)
지역				
대도시	61.3	23.1	15.5	100.0( 701)
중소도시	63.8	19.6	16.6	100.0( 716)
농어촌	70.5	13.9	15.6	100.0( 122)
학력				
초졸 이하	50.8	22.9	26.3	100.0( 118)
중졸	43.9	31.1	25.0	100.0( 148)
고졸	67.8	16.9	15.3	100.0( 746)
전문대졸	70.3	15.4	14.3	100.0( 175)
대졸 이상	62.2	26.4	11.4	100.0( 352)
취업 여부				
취업	62.7	21.1	16.2	100.0(1,213)
미취업	65.0	19.3	15.6	100.0( 326)
직업				
관리/전문/사무	61.9	26.1	11.9	100.0( 226)
판매/서비스	66.0	17.4	16.5	100.0( 677)
기능/노무	52.0	28.1	19.9	100.0( 256)
농림어업	75.0	13.5	11.5	100.0( 52)
기타	100.0	—	—	100.0( 2) <sup>1)</sup>
미취업	65.0	19.3	15.6	100.0( 326)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56.3	24.3	19.4	100.0( 412)
임시/일용근로자	59.9	15.5	24.6	100.0( 142)
고용주/단독자영업자	65.3	21.7	13.1	100.0( 613)
무급가족종사자	100.0	—	—	100.0( 37)
기타	77.8	11.1	11.1	100.0( 9) <sup>1)</sup>
미취업	65.0	19.3	15.6	100.0( 326)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3-21〉 일반특성별 배우자의 월평균 근로소득

(단위: 만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대상자 수(명) <sup>1)</sup>
전체	241.06	148.36	0.0	1,000.0	(973)
성별					
남성	146.67	99.81	0.0	500.0	(370)
여성	298.82	143.56	0.0	1,000.0	(603)
연령					
30대	283.32	114.31	0.0	800.0	(140)
40대	279.73	136.18	0.0	1,000.0	(358)
50대	222.99	162.56	0.0	1,000.0	(339)
60대	140.07	113.61	0.0	700.0	(136)
지역					
대도시	260.63	163.97	0.0	1,000.0	(430)
중소도시	238.55	131.57	0.0	1,000.0	(457)
농어촌	156.51	117.74	0.0	500.0	( 86)
학력					
초졸 이하	137.12	99.53	0.0	600.0	( 60)
중졸	159.46	135.57	0.0	1,000.0	( 65)
고졸	232.41	135.33	0.0	1,000.0	(506)
전문대졸	288.29	145.51	0.0	900.0	(123)
대졸 이상	286.75	165.19	0.0	1,000.0	(219)
취업 여부					
취업	219.91	137.45	0.0	1,000.0	(761)
미취업	317.35	161.02	0.0	1,000.0	(212)
직업					
관리/전문/사무	281.00	128.89	0.0	800.0	(140)
판매/서비스	222.90	142.59	0.0	1,000.0	(447)
기능/노무	183.20	104.30	0.0	500.0	(133)
농림어업	100.51	76.50	0.0	250.0	( 39)
기타	45.00	7.07	40.0	50.0	( 2) <sup>2)</sup>
미취업	317.35	161.02	0.0	1,000.0	(212)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247.67	121.61	28.0	800.0	(232)
임시/일용근로자	241.29	109.74	30.0	500.0	( 85)
고용주/단독자영업자	196.93	145.70	0.0	1,000.0	(400)
무급가족종사자	219.46	117.71	0.0	600.0	( 37)
기타	356.43	258.76	20.0	700.0	( 7) <sup>2)</sup>
미취업	317.35	161.02	0.0	1,000.0	(212)

주: 1) 현재 취업중인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3-22〉 일반특성별 제2의 일을 위한 배우자 준비여부

(단위: %, 명)

구분	제2의 일 준비여부				비해당		계(명)
	별다른 준비 하지 않음	관심을 가지고 있음	방법을 모색 중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단계	일자리 없음	배우자 없음	
전체	39.8	19.2	3.0	1.3	20.7	16.0	100.0(1,539)
성별							
남성	32.5	12.2	2.2	0.8	33.5	18.8	100.0( 776)
여성	47.2	26.2	3.8	1.8	7.7	13.2	100.0( 763)
혼인상태							
유배우자	47.4	22.8	3.6	1.5	24.7	—	100.0(1,292)
무배우자	—	—	—	—	—	100.0	100.0( 247)
연령							
30대	34.8	21.3	3.0	1.7	13.5	25.7	100.0( 230)
40대	38.2	24.3	4.8	1.7	17.8	13.1	100.0( 518)
50대	46.5	19.5	2.7	1.0	17.7	12.6	100.0( 486)
60대	35.4	8.2	0.3	0.7	36.1	19.3	100.0( 305)
지역							
대도시	37.7	19.5	3.3	0.9	23.1	15.5	100.0( 701)
중소도시	38.0	21.1	3.1	1.7	19.6	16.6	100.0( 716)
농어촌	62.3	5.7	0.8	1.6	13.9	15.6	100.0( 122)
학력							
초졸 이하	44.1	5.1	0.8	0.8	22.9	26.3	100.0( 118)
중졸	31.8	10.1	1.4	0.7	31.1	25.0	100.0( 148)
고졸	42.4	22.1	2.4	0.9	16.9	15.3	100.0( 746)
전문대졸	40.6	22.9	5.1	1.7	15.4	14.3	100.0( 175)
대졸 이상	35.8	19.6	4.5	2.3	26.4	11.4	100.0( 352)
취업 여부							
취업	40.4	18.0	3.1	1.3	21.1	16.2	100.0(1,213)
미취업	37.4	23.6	2.8	1.2	19.3	15.6	100.0( 326)
직업							
관리/전문/사무	31.9	24.3	3.1	2.7	26.1	11.9	100.0( 226)
판매/서비스	44.0	17.3	3.7	1.0	17.4	16.5	100.0( 677)
기능/노무	33.2	16.0	1.6	1.2	28.1	19.9	100.0( 256)
농림어업	63.5	9.6	1.9	—	13.5	11.5	100.0( 52)
기타	100.0	—	—	—	—	—	100.0( 2) <sup>1)</sup>
미취업	37.4	23.6	2.8	1.2	19.3	15.6	100.0( 326)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31.8	19.7	2.7	2.2	24.3	19.4	100.0( 412)
임시/일용근로자	29.6	27.5	2.8	0.0	15.5	24.6	100.0( 142)
고용주/단독자영업자	45.8	15.0	3.3	1.1	21.7	13.1	100.0( 613)
무급가족종사자	83.8	13.5	2.7	—	—	—	100.0( 37)
기타	55.6	11.1	11.1	—	11.1	11.1	100.0( 9) <sup>1)</sup>
미취업	37.4	23.6	2.8	1.2	19.3	15.6	100.0( 326)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3-23〉 일반특성별 배우자의 근로가능한 예상 연령

(단위: 세,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대상자 수(명) <sup>1)</sup>
전체	65.56	5.89	40.0	83.0	(973)
성별					
남성	62.95	6.26	40.0	80.0	(370)
여성	67.16	5.02	50.0	83.0	(603)
연령					
30대	63.65	6.37	40.0	80.0	(140)
40대	63.86	5.44	50.0	80.0	(358)
50대	66.22	5.32	50.0	80.0	(339)
60대	70.38	4.75	59.0	83.0	(136)
지역					
대도시	65.38	5.74	40.0	83.0	(430)
중소도시	65.22	5.59	45.0	80.0	(457)
농어촌	68.27	7.36	50.0	80.0	( 86)
학력					
초졸 이하	71.93	5.16	60.0	80.0	( 60)
중졸	68.57	5.30	55.0	80.0	( 65)
고졸	65.71	5.58	40.0	83.0	(506)
전문대졸	63.72	5.57	45.0	75.0	(123)
대졸 이상	63.64	5.48	50.0	80.0	(219)
취업 여부					
취업	65.31	6.08	40.0	83.0	(761)
미취업	66.45	5.03	50.0	80.0	(212)
직업					
관리/전문/사무	63.49	5.34	50.0	75.0	(140)
판매/서비스	65.80	5.71	40.0	83.0	(447)
기능/노무	63.71	6.16	45.0	80.0	(133)
농림어업	71.95	6.76	50.0	80.0	( 39)
기타	60.00	14.14	50.0	70.0	( 2) <sup>2)</sup>
미취업	66.45	5.03	50.0	80.0	(212)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63.19	5.77	40.0	75.0	(232)
임시/일용근로자	66.45	5.89	45.0	80.0	( 85)
고용주/단독자영업자	65.74	5.89	50.0	83.0	(400)
무급가족종사자	70.89	5.36	60.0	80.0	( 37)
기타	67.86	5.67	60.0	75.0	( 7) <sup>2)</sup>
미취업	66.45	5.03	50.0	80.0	(212)

주: 1) 현재 취업중인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3-24〉 일반특성별 지난 1년간 배우자의 구직활동 여부

(단위: %, 명)

구분	구직활동 여부		비해당		계(명)
	예	아니오	일자리 있음	배우자 없음	
전체	0.5	20.2	63.2	16.0	100.0(1,539)
성별					
남성	0.5	33.0	47.7	18.8	100.0( 776)
여성	0.5	7.2	79.0	13.2	100.0( 763)
혼인상태					
유배우자	0.6	24.1	75.3	—	100.0(1,292)
무배우자	—	—	—	100.0	100.0( 247)
연령					
30대	—	13.5	60.9	25.7	100.0( 230)
40대	0.4	17.4	69.1	13.1	100.0( 518)
50대	1.0	16.7	69.8	12.6	100.0( 486)
60대	0.3	35.7	44.6	19.3	100.0( 305)
지역					
대도시	0.6	22.5	61.3	15.5	100.0( 701)
중소도시	0.4	19.1	63.8	16.6	100.0( 716)
농어촌	0.8	13.1	70.5	15.6	100.0( 122)
학력					
초졸 이하	—	22.9	50.8	26.3	100.0( 118)
중졸	1.4	29.7	43.9	25.0	100.0( 148)
고졸	0.4	16.5	67.8	15.3	100.0( 746)
전문대졸	—	15.4	70.3	14.3	100.0( 175)
대졸 이상	0.9	25.6	62.2	11.4	100.0( 352)
취업 여부					
취업	0.5	20.6	62.7	16.2	100.0(1,213)
미취업	0.6	18.7	65.0	15.6	100.0( 326)
직업					
관리/전문/사무	2.2	23.9	61.9	11.9	100.0( 226)
판매/서비스	0.1	17.3	66.0	16.5	100.0( 677)
기능/노무	—	28.1	52.0	19.9	100.0( 256)
농림어업	—	13.5	75.0	11.5	100.0( 52)
기타	—	—	100.0	—	100.0( 2) <sup>1)</sup>
미취업	0.6	18.7	65.0	15.6	100.0( 326)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0.7	23.5	56.3	19.4	100.0( 412)
임시/일용근로자	0.7	14.8	59.9	24.6	100.0( 142)
고용주/단독자영업자	0.3	21.4	65.3	13.1	100.0( 613)
무급가족종사자	—	—	100.0	—	100.0( 37)
기타	—	11.1	77.8	11.1	100.0( 9) <sup>1)</sup>
미취업	0.6	18.7	65.0	15.6	100.0( 326)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3-25〉 일반특성별 배우자의 구직 노력 활동

(단위: 명)

구분	구직 노력 활동								계 <sup>1)</sup>
	직업 교육훈련	1:1 직업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구직자 정보등록	이력서, 면접관련 컨설팅	취업 알선	동행 면접	없음	
전체	4	1	1	4	3	5	1	1	8
성별									
남성	3	1	1	1	1	3	1	—	4
여성	1	—	—	3	2	2	—	1	4
혼인상태									
유배우자	4	1	1	4	3	5	1	1	8
연령									
40대	1	1	1	2	2	2	1	—	2
50대	3	—	—	1	1	3	—	1	5
60대	—	—	—	1	—	—	—	—	1
지역									
대도시	1	1	1	3	2	2	1	1	4
중소도시	2	—	—	1	1	3	—	—	3
농어촌	1	—	—	—	—	—	—	—	1
학력									
중졸	—	—	—	1	—	1	—	—	2
고졸	1	—	—	1	1	1	—	1	3
대졸 이상	3	1	1	2	2	3	1	—	3
취업 여부									
취업	4	1	1	3	3	4	1	1	6
미취업	—	—	—	1	—	1	—	—	2
직업									
관리/전문/사무	4	1	1	3	3	4	1	—	5
판매/서비스	—	—	—	—	—	—	—	1	1
미취업	—	—	—	1	—	1	—	—	2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2	—	—	1	1	2	—	—	3
임시/일용근로자	1	—	—	1	1	1	—	—	1
고용주/단독자영업자	1	1	1	1	1	1	1	1	2
미취업	—	—	—	1	—	1	—	—	2

주: 1) 현재 배우자가 구직 노력활동을 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질문함.



〈부표 3-26〉 일반특성별 거주 주택 점유형태

구분	(단위: %, 명)				
	자가	전세	월세	기타	계(명)
전체	73.4	15.9	8.1	2.6	100.0(1,539)
성별					
남성	70.9	16.4	9.1	3.6	100.0( 776)
여성	76.0	15.5	6.9	1.6	100.0( 763)
혼인상태					
유배우자	79.3	14.6	5.0	1.1	100.0(1,292)
무배우자	42.9	22.7	23.9	10.5	100.0( 247)
연령					
30대	56.1	30.0	7.8	6.1	100.0( 230)
40대	68.5	20.3	8.7	2.5	100.0( 518)
50대	79.6	10.9	8.0	1.4	100.0( 486)
60대	84.9	5.9	7.2	2.0	100.0( 305)
지역					
대도시	71.6	18.0	7.7	2.7	100.0( 701)
중소도시	73.3	16.3	8.4	2.0	100.0( 716)
농어촌	84.4	1.6	8.2	5.7	100.0( 122)
학력					
초졸 이하	78.0	4.2	12.7	5.1	100.0( 118)
중졸	75.0	10.1	12.2	2.7	100.0( 148)
고졸	72.9	16.0	9.5	1.6	100.0( 746)
전문대졸	65.1	25.1	4.0	5.7	100.0( 175)
대졸 이상	76.4	17.6	3.7	2.3	100.0( 352)
취업 여부					
취업	74.4	15.9	7.2	2.6	100.0(1,213)
미취업	69.9	16.0	11.3	2.8	100.0( 326)
직업					
관리/전문/사무	73.5	21.2	3.1	2.2	100.0( 226)
판매/서비스	75.0	14.9	7.7	2.4	100.0( 677)
기능/노무	69.5	16.8	10.5	3.1	100.0( 256)
농림어업	92.3	1.9	1.9	3.8	100.0( 52)
기타	100.0	0.0	0.0	0.0	100.0( 2) <sup>1)</sup>
미취업	69.9	16.0	11.3	2.8	100.0( 326)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67.7	22.3	7.3	2.7	100.0( 412)
임시/일용근로자	62.0	16.9	16.9	4.2	100.0( 142)
고용주/단독자영업자	81.1	11.4	5.4	2.1	100.0( 613)
무급가족종사자	78.4	18.9	0.0	2.7	100.0( 37)
기타	100.0	0.0	0.0	0.0	100.0( 9) <sup>1)</sup>
미취업	69.9	16.0	11.3	2.8	100.0( 326)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3-27〉 일반특성별 거주주택의 시가 및 전·월세 금액

구분	자가		전세		(단위: 만원, 명)		
	시가	대상자 수	보증금	대상자 수	보증금	월세	대상자 수
전체	25,839	(1,130)	13,522	(245)	2,315	27	(124)
성별							
남성	25,942	( 550)	13,331	(127)	1,923	27	( 71)
여성	25,741	( 580)	13,727	(118)	2,832	27	( 53)
혼인상태							
유배우자	26,237	(1,024)	15,190	(189)	2,941	28	( 65)
무배우자	21,967	( 106)	7,889	( 56)	1,635	26	( 59)
연령							
30대	25,340	( 129)	16,377	( 69)	2,033	34	( 18)
40대	26,523	( 355)	12,558	(105)	2,386	27	( 45)
50대	26,544	( 387)	13,381	( 53)	2,551	26	( 39)
60대	24,091	( 259)	8,611	( 18)	1,964	24	( 22)
지역							
대도시	30,288	( 502)	15,128	(126)	2,495	26	( 54)
중소도시	24,110	( 525)	11,929	(117)	2,267	29	( 60)
농어촌	12,956	( 103)	5,500	( 2) <sup>1)</sup>	1,630	23	( 10)
학력							
초졸 이하	14,147	( 92)	5,900	( 5) <sup>1)</sup>	2,021	22	( 15)
중졸	19,625	( 111)	7,833	( 15)	1,718	23	( 18)
고졸	25,726	( 544)	11,364	(119)	1,951	27	( 71)
전문대졸	25,031	( 114)	12,625	( 44)	2,243	42	( 7) <sup>1)</sup>
대졸 이상	33,002	( 269)	20,290	( 62)	5,462	33	( 13)
취업 여부							
취업	25,223	( 902)	13,323	(193)	2,431	30	( 87)
미취업	28,263	( 228)	14,258	( 52)	2,034	20	( 37)
직업							
관리/전문/사무	30,602	( 166)	17,948	( 48)	6,686	29	( 7) <sup>1)</sup>
판매/서비스	25,612	( 508)	11,438	(101)	2,038	35	( 52)
기능/노무	21,913	( 178)	12,086	( 43)	2,137	21	( 27)
농림어업	15,250	( 48)	35,000	( 1) <sup>1)</sup>	1,000	60	( 1) <sup>1)</sup>
기타	11,000	( 2) <sup>1)</sup>	—	—	—	—	—
미취업	28,263	( 228)	14,258	( 52)	2,034	20	( 37)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26,301	( 279)	14,304	( 92)	2,417	24	( 30)
임시/일용근로자	21,693	( 88)	11,875	( 24)	1,646	27	( 24)
고용주/단독자영업자	25,553	( 497)	13,117	( 70)	3,015	38	( 33)
무급가족종사자	16,431	( 29)	7,457	( 7) <sup>1)</sup>	—	—	—
기타	36,667	( 9) <sup>1)</sup>	—	—	—	—	—
미취업	28,263	( 228)	14,258	( 52)	2,034	20	( 37)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3-28〉 일반특성별 부채 보유 여부 및 부채액

(단위: %, 만원, 명)

구분	있음			없음		계(명)
	%	금액	대상자 수	%	대상자 수	
전체	35.5	7,520	(547)	64.5	(992)	100.0(1,539)
성별						
남성	39.4	7,858	(306)	60.6	(470)	100.0( 776)
여성	31.6	7,091	(241)	68.4	(522)	100.0( 763)
혼인상태						
유배우자	37.3	7,872	(482)	62.7	(810)	100.0(1,292)
무배우자	26.3	4,947	( 65)	73.7	(182)	100.0( 247)
연령						
30대	46.5	7,376	(107)	53.5	(123)	100.0( 230)
40대	43.8	7,288	(227)	56.2	(291)	100.0( 518)
50대	32.7	8,611	(159)	67.3	(327)	100.0( 486)
60대	17.7	5,643	( 54)	82.3	(251)	100.0( 305)
지역						
대도시	36.2	8,539	(254)	63.8	(447)	100.0( 701)
중소도시	35.3	6,827	(253)	64.7	(463)	100.0( 716)
농어촌	32.8	5,503	( 40)	67.2	( 82)	100.0( 122)
학력						
초졸 이하	20.3	5,552	( 24)	79.7	( 94)	100.0( 118)
중졸	21.6	4,875	( 32)	78.4	(116)	100.0( 148)
고졸	35.0	7,177	(261)	65.0	(485)	100.0( 746)
전문대졸	49.7	6,608	( 87)	50.3	( 88)	100.0( 175)
대졸 이상	40.6	9,611	(143)	59.4	(209)	100.0( 352)
취업 여부						
취업	38.1	7,390	(462)	61.9	(751)	100.0(1,213)
미취업	26.1	8,221	( 85)	73.9	(241)	100.0( 326)
직업						
관리/전문/사무	41.2	7,903	( 93)	58.8	(133)	100.0( 226)
판매/서비스	37.5	7,662	(254)	62.5	(423)	100.0( 677)
기능/노무	38.3	6,545	( 98)	61.7	(158)	100.0( 256)
농림어업	32.7	5,412	( 17)	67.3	( 35)	100.0( 52)
기타	—	—	—	100.0	( 2) <sup>1)</sup>	100.0( 2) <sup>1)</sup>
미취업	26.1	8,222	( 85)	73.9	(241)	100.0( 326)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38.6	7,104	(159)	61.4	(253)	100.0( 412)
임시/일용근로자	31.0	5,807	( 44)	69.0	( 98)	100.0( 142)
고용주/단독자영업자	40.0	7,802	(245)	60.0	(368)	100.0( 613)
무급가족종사자	32.4	8,000	( 12)	67.6	( 25)	100.0( 37)
기타	22.2	11,000	( 2) <sup>1)</sup>	77.8	( 7) <sup>1)</sup>	100.0( 9) <sup>1)</sup>
미취업	26.1	8,221	( 85)	73.9	(241)	100.0( 326)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3-29〉 일반특성별 부채 해소에 부담을 느끼는 정도

(단위: %, 명)

구분	부채 해소에 부담을 느끼는 정도					계(명) <sup>1)</sup>
	매우 부담을 느낌	다소 부담을 느낌	보통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음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음	
전체	23.2	44.4	19.2	11.9	1.3	100.0(547)
성별						
남성	25.2	41.5	19.6	12.7	1.0	100.0(306)
여성	20.7	48.1	18.7	10.8	1.7	100.0(241)
혼인상태						
유배우자	21.2	45.9	18.9	12.7	1.5	100.0(482)
무배우자	38.5	33.8	21.5	6.2	—	100.0( 65)
연령						
30대	15.9	57.0	22.4	3.7	0.9	100.0(107)
40대	26.9	41.9	16.7	13.7	0.9	100.0(227)
50대	23.9	40.9	20.8	13.2	1.3	(159)
60대	20.4	40.7	18.5	16.7	3.7	( 54)
지역						
대도시	16.9	50.4	21.3	10.6	0.8	100.0(254)
중소도시	30.0	37.5	17.4	13.0	2.0	100.0(253)
농어촌	20.0	50.0	17.5	12.5	—	100.0( 40)
학력						
초졸 이하	12.5	50.0	29.2	8.3	—	100.0( 24)
중졸	40.6	34.4	18.8	6.3	—	100.0( 32)
고졸	26.1	45.6	17.2	10.3	0.8	100.0(261)
전문대졸	20.7	47.1	17.2	11.5	3.4	100.0( 87)
대졸 이상	17.5	42.0	22.4	16.8	1.4	100.0(143)
취업 여부						
취업	22.5	45.0	18.8	12.6	1.1	100.0(462)
미취업	27.1	41.2	21.2	8.2	2.4	100.0( 85)
직업						
관리/전문/사무	14.0	47.3	22.6	15.1	1.1	100.0( 93)
판매/서비스	23.2	44.5	19.3	11.8	1.2	100.0(254)
기능/노무	27.6	44.9	14.3	12.2	1.0	100.0( 98)
농림어업	29.4	41.2	17.6	11.8	—	100.0( 17)
기타	—	—	—	—	—	— —
미취업	27.1	41.2	21.2	8.2	2.4	100.0( 85)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19.5	49.1	19.5	11.3	0.6	100.0(159)
임시/일용근로자	36.4	38.6	13.6	11.4	—	100.0( 44)
고용주/단독자영업자	22.4	43.3	19.2	13.5	1.6	100.0(245)
무급가족종사자	16.7	58.3	16.7	8.3	—	100.0( 12)
기타	—	—	50.0	50.0	—	100.0( 2) <sup>2)</sup>
미취업	27.1	41.2	21.2	8.2	2.4	100.0( 85)

주: 1) 부채 해소에 부담을 느끼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3-30〉 일반특성별 자녀 교육비 지출 부담정도

(단위: %, 명)

구분	자녀 교육비 지출 부담정도					비해당 (자녀 없음)	계(명) <sup>1)</sup>
	매우 부담을 느낀	다소 부담을 느낀	보통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음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음		
전체 <sup>1)</sup>	13.6	39.6	14.2	10.0	4.8	17.8	100.0(748)
성별							
남성	13.3	30.8	13.3	10.1	4.2	28.4	100.0(377)
여성	14.0	48.5	15.1	10.0	5.4	7.0	100.0(371)
혼인상태							
유배우자	15.8	45.7	16.4	11.6	5.0	5.5	100.0(621)
무배우자	3.1	9.4	3.1	2.4	3.9	78.0	100.0(127)
연령							
30대	7.8	30.9	12.2	10.4	7.4	31.3	100.0(230)
40대	16.2	43.4	15.1	9.8	3.7	11.8	100.0(518)
지역							
대도시	11.7	43.0	14.3	7.0	5.0	19.0	100.0(342)
중소도시	16.1	36.0	13.4	13.4	4.9	16.3	100.0(367)
농어촌	7.7	43.6	20.5	5.1	2.6	20.5	100.0( 39)
학력							
초졸 이하	—	50.0	—	—	—	50.0	100.0( 2) <sup>2)</sup>
중졸	—	40.0	—	—	20.0	40.0	100.0( 5) <sup>2)</sup>
고졸	13.8	44.7	12.6	9.1	3.8	15.9	100.0(340)
전문대졸	19.1	35.5	14.9	9.2	4.3	17.0	100.0(141)
대졸 이상	10.8	35.0	16.2	11.9	6.2	20.0	100.0(260)
취업 여부							
취업	13.6	37.2	13.6	10.8	4.8	20.0	100.0(610)
미취업	13.8	50.0	16.7	6.5	5.1	8.0	100.0(138)
직업							
관리/전문/사무	11.9	35.0	16.4	15.3	4.0	17.5	100.0(177)
판매/서비스	13.4	39.4	11.8	8.7	5.3	21.4	100.0(322)
기능/노무	17.0	35.0	14.0	11.0	4.0	19.0	100.0(100)
농림어업	11.1	33.3	22.2	—	—	33.3	100.0( 9) <sup>2)</sup>
기타	50.0	—	—	—	50.0	—	100.0( 2) <sup>2)</sup>
미취업	13.8	50.0	16.7	6.5	5.1	8.0	100.0(138)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12.2	34.5	13.2	11.8	4.9	23.3	100.0(287)
임시/일용근로자	17.5	49.2	11.1	3.2	1.6	17.5	100.0( 63)
고용주/단독자영업자	13.4	37.4	14.2	11.4	5.7	17.9	100.0(246)
무급가족종사자	36.4	36.4	9.1	18.2	—	—	100.0( 11)
기타	—	33.3	66.7	—	—	—	100.0( 3) <sup>2)</sup>
미취업	13.8	50.0	16.7	6.5	5.1	8.0	100.0(138)

주: 1) 만 35~49세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질문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3-31〉 일반특성별 자녀 경제적 지원 부담정도

(단위: %, 명)

구분	자녀 경제적 지원 부담정도					비해당 (자녀 없음)	계(명) <sup>1)</sup>
	매우 부담을 느낀	다소 부담을 느낀	보통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음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음		
전체 <sup>2)</sup>	4.9	17.4	14.9	23.4	34.3	5.1	100.0(791)
성별							
남성	6.0	21.3	16.5	19.8	29.6	6.8	100.0(399)
여성	3.8	13.5	13.3	27.0	39.0	3.3	100.0(392)
혼인상태							
유배우자	5.2	19.5	15.1	23.7	34.4	2.1	100.0(671)
무배우자	3.3	5.8	14.2	21.7	33.3	21.7	100.0(120)
연령							
50대	7.8	25.1	16.3	21.6	23.7	5.6	100.0(486)
60대	0.3	5.2	12.8	26.2	51.1	4.3	100.0(305)
지역							
대도시	5.6	20.3	16.2	23.7	30.4	3.9	100.0(359)
중소도시	4.3	16.9	14.3	22.3	35.8	6.3	100.0(349)
농어촌	4.8	7.2	12.0	26.5	44.6	4.8	100.0( 83)
학력							
초졸 이하	0.9	2.6	7.8	26.7	52.6	9.5	100.0(116)
중졸	2.1	6.3	19.6	23.1	43.4	5.6	100.0(143)
고졸	5.4	22.7	15.5	21.7	30.3	4.4	100.0(406)
전문대졸	11.8	29.4	11.8	26.5	14.7	5.9	100.0( 34)
대졸 이상	9.8	26.1	15.2	26.1	21.7	1.1	100.0( 92)
취업 여부							
취업	6.0	19.4	15.6	23.1	31.8	4.1	100.0(603)
미취업	1.6	11.2	12.8	24.5	42.0	8.0	100.0(188)
직업							
관리/전문/사무	18.4	24.5	16.3	16.3	22.4	2.0	100.0( 49)
판매/서비스	6.5	17.5	17.5	23.1	32.1	3.4	100.0(355)
기능/노무	2.6	25.0	11.5	23.1	30.1	7.7	100.0(156)
농림어업	—	9.3	14.0	30.2	46.5	—	100.0( 43)
기타	—	—	—	—	—	—	—
미취업	1.6	11.2	12.8	24.5	42.0	8.0	100.0(188)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6.4	26.4	17.6	18.4	27.2	4.0	100.0(125)
임시/일용근로자	1.3	21.5	10.1	24.1	29.1	13.9	100.0( 79)
고용주/단독자영업자	6.8	18.3	16.6	22.9	33.0	2.5	100.0(367)
무급가족종사자	3.8	—	7.7	38.5	50.0	—	100.0( 26)
기타	16.7	—	16.7	50.0	16.7	—	100.0( 6) <sup>2)</sup>
미취업	1.6	11.2	12.8	24.5	42.0	8.0	100.0(188)

주: 1) 만 50~69세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질문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3-32〉 일반특성별 부모 경제적 지원 부담정도

(단위: %, 명)

구분	부모 경제적 지원 부담정도					비해당 (부모님 모두 안계심)	계(명)
	매우 부담을 느낀	다소 부담을 느낀	보통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음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음		
전체	1.2	13.2	27.2	23.9	11.6	22.9	100.0(1,539)
성별							
남성	0.9	12.9	28.2	26.4	9.3	22.3	100.0( 776)
여성	1.6	13.5	26.1	21.4	14.0	23.5	100.0( 763)
혼인상태							
유배우자	1.3	14.2	26.9	24.6	11.2	21.7	100.0(1,292)
무배우자	0.8	8.1	28.3	20.2	13.8	28.7	100.0( 247)
연령							
30대	0.9	17.4	37.4	27.0	12.6	4.8	100.0( 230)
40대	2.1	17.8	34.9	28.2	10.6	6.4	100.0( 518)
50대	1.0	11.5	24.9	24.7	12.8	25.1	100.0( 486)
60대	0.3	4.9	9.8	13.1	10.8	61.0	100.0( 305)
지역							
대도시	0.7	12.4	30.4	25.1	10.8	20.5	100.0( 701)
중소도시	1.8	15.4	25.1	23.5	12.4	21.8	100.0( 716)
농어촌	0.8	4.9	20.5	19.7	11.5	42.6	100.0( 122)
학력							
초졸 이하	0.8	3.4	11.0	11.9	13.6	59.3	100.0( 118)
중졸	0.7	4.1	13.5	12.2	13.5	56.1	100.0( 148)
고졸	1.3	14.9	27.1	24.4	12.1	20.2	100.0( 746)
전문대졸	1.7	15.4	40.0	22.3	11.4	9.1	100.0( 175)
대졸 이상	1.1	15.6	32.1	32.7	9.4	9.1	100.0( 352)
취업 여부							
취업	1.2	13.6	28.0	25.0	11.2	21.0	100.0(1,213)
미취업	1.5	11.7	23.9	19.9	13.2	29.8	100.0( 326)
직업							
관리/전문/사무	2.2	17.7	31.4	29.2	7.5	11.9	100.0( 226)
판매/서비스	0.9	12.9	27.6	26.4	12.9	19.4	100.0( 677)
기능/노무	0.8	12.9	27.7	19.5	11.3	27.7	100.0( 256)
농림어업	1.9	9.6	19.2	13.5	5.8	50.0	100.0( 52)
기타	—	—	50.0	50.0	—	—	100.0( 2) <sup>1)</sup>
미취업	1.5	11.7	23.9	19.9	13.2	29.8	100.0( 326)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1.0	17.2	31.6	26.2	10.2	13.8	100.0( 412)
임시/일용근로자	0.7	19.0	26.8	21.1	6.3	26.1	100.0( 142)
고용주/단독자영업자	1.5	10.3	26.6	25.0	13.1	23.7	100.0( 613)
무급가족종사자	—	5.4	16.2	24.3	13.5	40.5	100.0( 37)
기타	—	22.2	33.3	33.3	—	11.1	100.0( 9) <sup>1)</sup>
미취업	1.5	11.7	23.9	19.9	13.2	29.8	100.0( 326)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3-33〉 일반특성별 노후 필요생활비

(단위: 월, 만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계(명) <sup>1)</sup>
전체	210.7	78.8	30.0	600.0	100.0(1,539)
성별					
남성	212.8	78.4	30.0	600.0	100.0( 776)
여성	208.6	79.1	50.0	600.0	100.0( 763)
혼인상태					
유배우자	220.0	77.5	30.0	600.0	100.0(1,292)
무배우자	162.2	66.8	30.0	400.0	100.0( 247)
연령					
30대	243.7	76.2	100.0	600.0	100.0( 230)
40대	222.3	75.3	30.0	500.0	100.0( 518)
50대	205.9	78.3	50.0	600.0	100.0( 486)
60대	173.8	71.7	50.0	600.0	100.0( 305)
지역					
대도시	220.9	81.6	30.0	600.0	100.0( 701)
중소도시	208.8	74.3	30.0	500.0	100.0( 716)
농어촌	163.4	69.9	50.0	300.0	100.0( 122)
학력					
초졸 이하	141.1	59.6	60.0	400.0	100.0( 118)
중졸	160.7	51.3	70.0	300.0	100.0( 148)
고졸	208.4	70.4	30.0	600.0	100.0( 746)
전문대졸	231.5	79.5	70.0	600.0	100.0( 175)
대졸 이상	249.5	82.7	30.0	600.0	100.0( 352)
취업 여부					
취업	213.4	78.0	30.0	600.0	100.0(1,213)
미취업	200.7	81.0	50.0	600.0	100.0( 326)
직업					
관리/전문/사무	244.9	82.0	30.0	500.0	100.0( 226)
판매/서비스	214.6	74.1	30.0	600.0	100.0( 677)
기능/노무	192.4	67.1	50.0	500.0	100.0( 256)
농림어업	158.3	94.7	60.0	600.0	100.0( 52)
기타	350.0	70.7	300.0	400.0	100.0( 2) <sup>2)</sup>
미취업	200.7	81.0	50.0	600.0	100.0( 326)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222.1	74.1	30.0	500.0	100.0( 412)
임시/일용근로자	177.4	61.0	60.0	350.0	100.0( 142)
고용주/단독자영업자	218.0	80.2	30.0	600.0	100.0( 613)
무급가족종사자	173.2	81.8	50.0	400.0	100.0( 37)
기타	233.3	119.9	100.0	500.0	100.0( 9) <sup>2)</sup>
미취업	200.7	81.0	50.0	600.0	100.0( 326)

주: 1)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생활비를 합산하여 조사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3-34〉 일반특성별 노후준비에 있어서의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sup>1)</sup>

(단위: %, 명)

구분	사회적 관계	건강한 생활습관	여가활동	소득과 자산	계(명)
전체	14.42	34.37	13.80	37.41	100.0(1,539)
성별					
남성	14.49	34.03	14.04	37.44	100.0( 776)
여성	14.35	34.72	13.55	37.38	100.0( 763)
혼인상태					
유배우자	14.29	34.33	13.92	37.46	100.0(1,292)
무배우자	15.11	34.60	13.15	37.15	100.0( 247)
연령					
30대	14.51	34.96	13.40	37.13	100.0( 230)
40대	15.05	33.54	14.36	37.05	100.0( 518)
50대	14.09	34.32	13.72	37.87	100.0( 486)
60대	13.82	35.43	13.25	37.51	100.0( 305)
지역					
대도시	13.76	33.69	13.56	38.99	100.0( 701)
중소도시	15.47	34.16	14.47	35.89	100.0( 716)
농어촌	12.01	39.55	11.19	37.25	100.0( 122)
학력					
초졸 이하	12.97	36.91	11.06	39.07	100.0( 118)
중졸	14.42	34.73	13.11	37.74	100.0( 148)
고졸	14.24	34.23	13.93	37.60	100.0( 746)
전문대졸	13.84	34.43	13.53	38.20	100.0( 175)
대졸 이상	15.59	33.65	14.84	35.92	100.0( 352)
취업 여부					
취업	14.47	34.36	13.79	37.39	100.0(1,213)
미취업	14.23	34.43	13.83	37.50	100.0( 326)
직업					
관리/전문/사무	15.27	35.07	14.18	35.49	100.0( 226)
판매/서비스	14.43	33.98	14.13	37.47	100.0( 677)
기능/노무	13.95	34.45	12.96	38.63	100.0( 256)
농림어업	14.13	35.48	11.63	38.75	100.0( 52)
기타	15.00	40.00	15.00	30.00	100.0( 2) <sup>2)</sup>
미취업	14.23	34.43	13.83	37.50	100.0( 326)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14.86	34.98	13.44	36.72	100.0( 412)
임시/일용근로자	14.37	34.79	13.24	37.61	100.0( 142)
고용주/단독자영업자	14.27	33.80	14.23	37.69	100.0( 613)
무급가족종사자	11.49	35.41	11.22	41.89	100.0( 37)
기타	23.89	32.78	18.33	25.00	100.0( 9) <sup>2)</sup>
미취업	14.23	34.43	13.83	37.50	100.0( 326)

주: 1) 노후준비 전반에서 각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100점 만점의 평균)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3-35〉 일반특성별 노후준비에 있어서의 하위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sup>1)</sup>

(단위: %, 명)

구분	사회적 관계		건강한 생활습관		계(명)
	현재 대인관계 상태	노후 대인관계에 대한 인식 및 실천	현재 건강상태	노후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및 실천행위	
전체	58.01	41.99	63.05	36.95	100.0(1,539)
성별					
남성	58.73	41.27	63.70	36.30	100.0( 776)
여성	57.29	42.71	62.40	37.60	100.0( 763)
혼인상태					
유배우자	58.09	41.91	62.87	37.13	100.0(1,292)
무배우자	57.63	42.37	64.03	35.97	100.0( 247)
연령					
30대	58.35	41.65	62.35	37.65	100.0( 230)
40대	58.07	41.93	63.04	36.96	100.0( 518)
50대	57.92	42.08	62.96	37.04	100.0( 486)
60대	57.82	42.18	63.75	36.25	100.0( 305)
지역					
대도시	59.09	40.91	63.71	36.29	100.0( 701)
중소도시	57.52	42.48	62.23	37.77	100.0( 716)
농어촌	54.75	45.25	64.10	35.90	100.0( 122)
학력					
초졸 이하	57.88	42.12	65.00	35.00	100.0( 118)
중졸	55.84	44.16	62.50	37.50	100.0( 148)
고졸	57.99	42.01	62.66	37.34	100.0( 746)
전문대졸	56.69	43.31	61.59	38.41	100.0( 175)
대졸 이상	59.69	40.31	64.19	35.81	100.0( 352)
취업 여부					
취업	58.72	41.28	63.33	36.67	100.0(1,213)
미취업	55.38	44.62	62.01	37.99	100.0( 326)
직업					
관리/전문/사무	58.63	41.37	62.85	37.15	100.0( 226)
판매/서비스	59.25	40.75	63.14	36.86	100.0( 677)
기능/노무	58.09	41.91	64.00	36.00	100.0( 256)
농림어업	55.58	44.42	65.00	35.00	100.0( 52)
기타	55.00	45.00	55.00	45.00	100.0( 2) <sup>2)</sup>
미취업	55.38	44.62	62.01	37.99	100.0( 326)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58.98	41.02	63.74	36.26	100.0( 412)
임시/일용근로자	57.43	42.57	62.46	37.54	100.0( 142)
고용주/단독자영업자	58.87	41.13	63.09	36.91	100.0( 613)
무급가족종사자	56.89	43.11	65.35	34.65	100.0( 37)
기타	64.44	35.56	66.67	33.33	100.0( 9) <sup>2)</sup>
미취업	55.38	44.62	62.01	37.99	100.0( 326)



구분	여가활동		소득과 자산		계(명)
	노후 여가생활에 대한 인식	여가 실천행위	노후준비 여건 및 인식	노후 재정안정성을 위한 실천행위	
전체	48.05	51.95	45.93	54.07	100.0(1,539)
성별					
남성	47.63	52.37	45.59	54.41	100.0( 776)
여성	48.47	51.53	46.26	53.74	100.0( 763)
혼인상태					
유배우자	47.98	52.02	45.78	54.22	100.0(1,292)
무배우자	48.42	51.58	46.70	53.30	100.0( 247)
연령					
30대	48.00	52.00	45.17	54.83	100.0( 230)
40대	47.84	52.16	45.89	54.11	100.0( 518)
50대	47.74	52.26	45.81	54.19	100.0( 486)
60대	48.93	51.07	46.74	53.26	100.0( 305)
지역					
대도시	47.51	52.49	44.32	55.68	100.0( 701)
중소도시	48.24	51.76	47.36	52.64	100.0( 716)
농어촌	50.00	50.00	46.72	53.28	100.0( 122)
학력					
초졸 이하	48.39	51.61	45.85	54.15	100.0( 118)
중졸	49.22	50.78	48.28	51.72	100.0( 148)
고졸	47.75	52.25	45.33	54.67	100.0( 746)
전문대졸	47.97	52.03	45.77	54.23	100.0( 175)
대졸 이상	48.10	51.90	46.31	53.69	100.0( 352)
취업 여부					
취업	47.69	52.31	45.92	54.08	100.0(1,213)
미취업	49.39	50.61	45.95	54.05	100.0( 326)
직업					
관리/전문/사무	46.79	53.21	45.22	54.78	100.0( 226)
판매/서비스	48.71	51.29	46.12	53.88	100.0( 677)
기능/노무	46.25	53.75	46.27	53.73	100.0( 256)
농림어업	45.58	54.42	44.81	55.19	100.0( 52)
기타	40.00	60.00	40.00	60.00	100.0( 2) <sup>2)</sup>
미취업	49.39	50.61	45.95	54.05	100.0( 326)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46.72	53.28	46.14	53.86	100.0( 412)
임시/일용근로자	48.13	51.87	45.53	54.47	100.0( 142)
고용주/단독자영업자	48.23	51.77	45.87	54.13	100.0( 613)
무급가족종사자	45.81	54.19	43.38	56.62	100.0( 37)
기타	55.56	44.44	55.56	44.44	100.0( 9) <sup>2)</sup>
미취업	49.39	50.61	45.95	54.05	100.0( 326)

주: 1) 각 영역에서 각 하위영역이 차지하는 비중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3-36〉 일반특성별 본인의 노후준비 정도<sup>1)</sup>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계(명)
전체 <sup>1)</sup>	44.14	23.07	0.0	100.0	100.0(1,539)
성별					
남성	43.72	24.02	0.0	100.0	100.0( 776)
여성	44.56	22.06	0.0	100.0	100.0( 763)
혼인상태					
유배우자	46.00	22.23	0.0	100.0	100.0(1,292)
무배우자	34.37	24.88	0.0	100.0	100.0( 247)
연령					
30대	34.97	22.75	0.0	100.0	100.0( 230)
40대	41.14	21.31	0.0	90.0	100.0( 518)
50대	47.27	22.58	0.0	100.0	100.0( 486)
60대	51.15	23.92	0.0	100.0	100.0( 305)
지역					
대도시	43.26	22.69	0.0	100.0	100.0( 701)
중소도시	43.04	22.66	0.0	100.0	100.0( 716)
농어촌	55.57	24.66	0.0	100.0	100.0( 122)
학력					
초졸 이하	46.57	24.17	0.0	100.0	100.0( 118)
중졸	43.31	23.84	0.0	100.0	100.0( 148)
고졸	43.04	22.99	0.0	100.0	100.0( 746)
전문대졸	39.94	21.04	0.0	80.0	100.0( 175)
대졸 이상	48.08	22.98	0.0	100.0	100.0( 352)
취업 여부					
취업	44.79	22.62	0.0	100.0	100.0(1,213)
미취업	41.70	24.53	0.0	100.0	100.0( 326)
직업					
관리/전문/사무	49.76	23.01	0.0	100.0	100.0( 226)
판매/서비스	43.73	22.03	0.0	100.0	100.0( 677)
기능/노무	42.22	22.65	0.0	100.0	100.0( 256)
농림어업	49.13	25.35	0.0	100.0	100.0( 52)
기타	60.00	0.00	60.0	60.0	100.0( 2) <sup>2)</sup>
미취업	41.70	24.53	0.0	100.0	100.0( 326)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43.92	23.13	0.0	100.0	100.0( 412)
임시/일용근로자	36.80	22.08	0.0	95.0	100.0( 142)
고용주/단독자영업자	46.95	22.04	0.0	100.0	100.0( 613)
무급가족종사자	47.16	21.56	10.0	90.0	100.0( 37)
기타	54.44	23.51	10.0	80.0	100.0( 9) <sup>2)</sup>
미취업	41.70	24.53	0.0	100.0	100.0( 326)

주: 1) 100점 만점 기준임.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3-37〉 일반특성별 사회적 관계 영역의 현재 노후준비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별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보통이다	다소 준비를 잘하고 있다	매우 준비를 잘하고 있다	계(명)
전체	12.0	30.7	40.4	15.4	1.6	100.0(1,539)
성별						
남성	13.5	32.0	37.1	16.0	1.4	100.0( 776)
여성	10.4	29.4	43.8	14.8	1.7	100.0( 763)
혼인상태						
유배우자	10.2	30.7	41.4	16.3	1.5	100.0(1,292)
무배우자	21.1	30.8	35.2	10.9	2.0	100.0( 247)
연령						
30대	19.6	34.3	38.7	6.5	0.9	100.0( 230)
40대	14.1	30.5	39.8	15.1	0.6	100.0( 518)
50대	8.6	30.2	42.6	16.9	1.6	100.0( 486)
60대	7.9	28.9	39.3	20.3	3.6	100.0( 305)
지역						
대도시	12.0	34.0	39.8	13.0	1.3	100.0( 701)
중소도시	11.3	30.7	41.3	15.2	1.4	100.0( 716)
농어촌	15.6	11.5	38.5	30.3	4.1	100.0( 122)
학력						
초졸 이하	15.3	28.8	39.0	13.6	3.4	100.0( 118)
중졸	11.5	31.8	39.2	14.9	2.7	100.0( 148)
고졸	10.9	32.0	39.0	16.6	1.5	100.0( 746)
전문대졸	13.7	37.1	36.0	13.1	—	100.0( 175)
대졸 이상	12.5	24.7	46.6	14.8	1.4	100.0( 352)
취업 여부						
취업	11.7	30.4	40.3	16.1	1.5	100.0(1,213)
미취업	12.9	31.6	40.8	12.9	1.8	100.0( 326)
직업						
관리/전문/사무	8.8	24.3	45.6	19.5	1.8	100.0( 226)
판매/서비스	11.7	31.8	40.9	14.8	0.9	100.0( 677)
기능/노무	12.1	35.2	36.3	14.5	2.0	100.0( 256)
농림어업	21.2	15.4	30.8	26.9	5.8	100.0( 52)
기타	50.0	50.0	—	—	—	100.0( 2) <sup>1)</sup>
미취업	12.9	31.6	40.8	12.9	1.8	100.0( 326)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11.9	31.1	39.6	16.0	1.5	100.0( 412)
임시/일용근로자	16.9	26.1	40.8	14.1	2.1	100.0( 142)
고용주/단독자영업자	10.3	31.6	40.3	16.5	1.3	100.0( 613)
무급가족종사자	10.8	27.0	40.5	18.9	2.7	100.0( 37)
기타	22.2	—	66.7	11.1	—	100.0( 9) <sup>1)</sup>
미취업	12.9	31.6	40.8	12.9	1.8	100.0( 326)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3-38〉 일반특성별 건강한 생활습관 영역의 현재 노후준비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별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보통이다	다소 준비를 잘하고 있다	매우 준비를 잘하고 있다	계(명)
전체	8.3	24.6	40.5	24.7	1.9	100.0(1,539)
성별						
남성	10.2	23.3	40.3	24.4	1.8	100.0( 776)
여성	6.4	26.0	40.6	25.0	2.0	100.0( 763)
혼인상태						
유배우자	7.1	23.8	40.7	26.5	1.9	100.0(1,292)
무배우자	14.6	29.1	39.3	15.0	2.0	100.0( 247)
연령						
30대	15.2	30.0	37.0	16.5	1.3	100.0( 230)
40대	9.3	25.3	40.0	24.3	1.2	100.0( 518)
50대	6.0	22.6	43.6	25.9	1.9	100.0( 486)
60대	5.2	22.6	39.0	29.5	3.6	100.0( 305)
지역						
대도시	9.4	28.5	41.1	19.7	1.3	100.0( 701)
중소도시	8.2	23.7	40.5	25.6	2.0	100.0( 716)
농어촌	2.5	7.4	36.9	48.4	4.9	100.0( 122)
학력						
초졸 이하	7.6	22.0	44.1	22.9	3.4	100.0( 118)
중졸	6.8	26.4	37.2	27.7	2.0	100.0( 148)
고졸	7.8	25.6	39.7	25.2	1.7	100.0( 746)
전문대졸	13.7	24.6	40.0	21.7	—	100.0( 175)
대졸 이상	7.7	22.7	42.6	24.4	2.6	100.0( 352)
취업 여부						
취업	8.2	24.4	41.1	24.2	2.0	100.0(1,213)
미취업	8.6	25.5	38.0	26.4	1.5	100.0( 326)
직업						
관리/전문/사무	8.0	22.1	40.7	26.5	2.7	100.0( 226)
판매/서비스	7.5	26.3	41.5	23.2	1.5	100.0( 677)
기능/노무	9.8	24.6	41.0	22.3	2.3	100.0( 256)
농림어업	11.5	7.7	40.4	36.5	3.8	100.0( 52)
기타	—	50.0	—	50.0	—	100.0( 2) <sup>1)</sup>
미취업	8.6	25.5	38.0	26.4	1.5	100.0( 326)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8.3	24.0	42.2	23.1	2.4	100.0( 412)
임시/일용근로자	16.2	27.5	32.4	21.8	2.1	100.0( 142)
고용주/단독자영업자	6.5	24.5	42.1	25.1	1.8	100.0( 613)
무급가족종사자	2.7	21.6	45.9	29.7	—	100.0( 37)
기타	22.2	—	44.4	33.3	—	100.0( 9) <sup>1)</sup>
미취업	8.6	25.5	38.0	26.4	1.5	100.0( 326)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3-39〉 일반특성별 여가활동 영역의 현재 노후준비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별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보통이다	다소 준비를 잘하고 있다	매우 준비를 잘하고 있다	계(명)
전체	13.3	32.2	37.0	16.2	1.2	100.0(1,539)
성별						
남성	15.2	30.4	34.4	18.7	1.3	100.0( 776)
여성	11.4	34.1	39.7	13.8	1.0	100.0( 763)
혼인상태						
유배우자	11.6	31.5	38.5	17.2	1.2	100.0(1,292)
무배우자	22.3	36.0	29.1	11.3	1.2	100.0( 247)
연령						
30대	20.4	37.0	29.6	12.2	0.9	100.0( 230)
40대	14.1	32.6	39.0	13.5	0.8	100.0( 518)
50대	10.1	32.5	37.2	19.3	0.8	100.0( 486)
60대	11.8	27.5	39.0	19.0	2.6	100.0( 305)
지역						
대도시	13.1	33.0	38.9	13.7	1.3	100.0( 701)
중소도시	12.6	34.2	35.1	17.2	1.0	100.0( 716)
농어촌	18.9	16.4	37.7	25.4	1.6	100.0( 122)
학력						
초졸 이하	18.6	33.1	33.9	11.9	2.5	100.0( 118)
중졸	12.8	35.8	37.8	11.5	2.0	100.0( 148)
고졸	13.0	32.3	37.0	16.5	1.2	100.0( 746)
전문대졸	13.7	36.0	32.6	17.1	0.6	100.0( 175)
대졸 이상	12.2	28.4	40.1	18.8	0.6	100.0( 352)
취업 여부						
취업	13.2	32.1	37.7	16.0	1.1	100.0(1,213)
미취업	13.8	32.8	34.7	17.2	1.5	100.0( 326)
직업						
관리/전문/사무	10.2	24.8	42.0	22.1	0.9	100.0( 226)
판매/서비스	13.1	35.2	36.5	14.5	0.7	100.0( 677)
기능/노무	13.7	32.8	37.9	13.7	2.0	100.0( 256)
농림어업	25.0	19.2	32.7	21.2	1.9	100.0( 52)
기타	—	50.0	50.0	—	—	100.0( 2) <sup>1)</sup>
미취업	13.8	32.8	34.7	17.2	1.5	100.0( 326)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13.3	32.5	36.7	16.3	1.2	100.0( 412)
임시/일용근로자	21.1	32.4	33.8	11.3	1.4	100.0( 142)
고용주/단독자영업자	11.4	32.0	38.5	17.1	1.0	100.0( 613)
무급가족종사자	8.1	32.4	45.9	13.5	0.0	100.0( 37)
기타	22.2	11.1	55.6	11.1	0.0	100.0( 9) <sup>1)</sup>
미취업	13.8	32.8	34.7	17.2	1.5	100.0( 326)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3-40〉 일반특성별 소득과 자산 영역의 현재 노후준비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별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보통이다	다소 준비를 잘하고 있다	매우 준비를 잘하고 있다	계(명)
전체	11.2	27.6	37.9	20.7	2.5	100.0(1,539)
성별						
남성	13.5	27.7	34.1	21.6	3.0	100.0( 776)
여성	8.9	27.4	41.8	19.8	2.1	100.0( 763)
혼인상태						
유배우자	9.1	26.5	39.9	21.9	2.7	100.0(1,292)
무배우자	22.7	33.2	27.9	14.6	1.6	100.0( 247)
연령						
30대	17.4	28.3	35.7	17.0	1.7	100.0( 230)
40대	12.7	29.2	38.6	18.3	1.2	100.0( 518)
50대	8.0	28.8	37.2	23.0	2.9	100.0( 486)
60대	9.2	22.3	39.7	23.9	4.9	100.0( 305)
지역						
대도시	11.6	28.2	38.7	18.8	2.7	100.0( 701)
중소도시	11.7	29.5	35.6	21.1	2.1	100.0( 716)
농어촌	6.6	12.3	47.5	29.5	4.1	100.0( 122)
학력						
초졸 이하	9.3	31.4	43.2	13.6	2.5	100.0( 118)
중졸	12.2	28.4	37.8	18.9	2.7	100.0( 148)
고졸	11.1	28.3	37.7	20.1	2.8	100.0( 746)
전문대졸	13.1	30.9	37.1	18.3	0.6	100.0( 175)
대졸 이상	10.8	22.7	37.2	26.4	2.8	100.0( 352)
취업 여부						
취업	10.5	27.2	38.7	21.2	2.4	100.0(1,213)
미취업	14.1	28.8	35.0	19.0	3.1	100.0( 326)
직업						
관리/전문/사무	7.1	25.2	33.2	31.4	3.1	100.0( 226)
판매/서비스	10.2	27.8	40.8	19.5	1.8	100.0( 677)
기능/노무	13.7	30.9	36.7	15.2	3.5	100.0( 256)
농림어업	13.5	11.5	46.2	26.9	1.9	100.0( 52)
기타	—	—	50.0	50.0	—	100.0( 2) <sup>1)</sup>
미취업	14.1	28.8	35.0	19.0	3.1	100.0( 326)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12.1	26.7	36.4	21.8	2.9	100.0( 412)
임시/일용근로자	17.6	31.0	35.9	14.8	0.7	100.0( 142)
고용주/단독자영업자	8.0	27.2	39.6	22.7	2.4	100.0( 613)
무급가족종사자	2.7	24.3	56.8	16.2	—	100.0( 37)
기타	22.2	—	55.6	11.1	11.1	100.0( 9) <sup>1)</sup>
미취업	14.1	28.8	35.0	19.0	3.1	100.0( 326)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3-41〉 일반특성별 노후준비서비스 인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있음(들어본 적 있음)	없음(들어본적 없음)	계(명)
전체	12.2	87.8	100.0(1,539)
성별			
남성	11.9	88.1	100.0( 776)
여성	12.6	87.4	100.0( 763)
혼인상태			
유배우자	13.3	86.7	100.0(1,292)
무배우자	6.5	93.5	100.0( 247)
연령			
30대	11.7	88.3	100.0( 230)
40대	12.0	88.0	100.0( 518)
50대	13.6	86.4	100.0( 486)
60대	10.8	89.2	100.0( 305)
지역			
대도시	12.3	87.7	100.0( 701)
중소도시	12.6	87.4	100.0( 716)
농어촌	9.8	90.2	100.0( 122)
학력			
초졸 이하	5.9	94.1	100.0( 118)
중졸	7.4	92.6	100.0( 148)
고졸	12.2	87.8	100.0( 746)
전문대졸	15.4	84.6	100.0( 175)
대졸 이상	14.8	85.2	100.0( 352)
취업 여부			
취업	11.8	88.2	100.0(1,213)
미취업	13.8	86.2	100.0( 326)
직업			
관리/전문/사무	15.5	84.5	100.0( 226)
판매/서비스	11.7	88.3	100.0( 677)
기능/노무	10.2	89.8	100.0( 256)
농림어업	5.8	94.2	100.0( 52)
기타	—	100.0	100.0( 2) <sup>1)</sup>
미취업	13.8	86.2	100.0( 326)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12.9	87.1	100.0( 412)
임시/일용근로자	6.3	93.7	100.0( 142)
고용주/단독자영업자	12.2	87.8	100.0( 613)
무급가족종사자	8.1	91.9	100.0( 37)
기타	33.3	66.7	100.0( 9) <sup>1)</sup>
미취업	13.8	86.2	100.0( 326)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3-42〉 일반특성별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지원센터의 노후준비서비스 경험유무

(단위: %, 명)

구분	노후준비서비스 경험		비해당 (들어본 적 없음)	계(명)
	있음	없음		
전체	1.6	10.7	87.8	100.0(1,539)
성별				
남성	1.4	10.4	88.1	100.0( 776)
여성	1.7	10.9	87.4	100.0( 763)
혼인상태				
유배우자	1.8	11.5	86.7	100.0(1,292)
무배우자	0.4	6.1	93.5	100.0( 247)
연령				
30대	1.3	10.4	88.3	100.0( 230)
40대	1.4	10.6	88.0	100.0( 518)
50대	2.5	11.1	86.4	100.0( 486)
60대	0.7	10.2	89.2	100.0( 305)
지역				
대도시	2.1	10.1	87.7	100.0( 701)
중소도시	1.1	11.5	87.4	100.0( 716)
농어촌	0.8	9.0	90.2	100.0( 122)
학력				
초졸 이하	0.8	5.1	94.1	100.0( 118)
중졸	0.0	7.4	92.6	100.0( 148)
고졸	1.7	10.5	87.8	100.0( 746)
전문대졸	1.7	13.7	84.6	100.0( 175)
대졸 이상	2.0	12.8	85.2	100.0( 352)
취업 여부				
취업	1.6	10.1	88.2	100.0(1,213)
미취업	1.2	12.6	86.2	100.0( 326)
직업				
관리/전문/사무	3.1	12.4	84.5	100.0( 226)
판매/서비스	1.5	10.2	88.3	100.0( 677)
기능/노무	1.2	9.0	89.8	100.0( 256)
농림어업	—	5.8	94.2	100.0( 52)
기타	—	—	100.0	100.0( 2) <sup>1)</sup>
미취업	1.2	12.6	86.2	100.0( 326)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1.9	10.9	87.1	100.0( 412)
임시/일용근로자	0.7	5.6	93.7	100.0( 142)
고용주/단독자영업자	1.8	10.4	87.8	100.0( 613)
무급가족종사자	—	8.1	91.9	100.0( 37)
기타	—	33.3	66.7	100.0( 9) <sup>1)</sup>
미취업	1.2	12.6	86.2	100.0( 326)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3-43〉 일반특성별 노후준비서비스 향후 이용의향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계(명)
전체	28.4	71.6	100.0(1,539)
성별			
남성	27.3	72.7	100.0( 776)
여성	29.5	70.5	100.0( 763)
혼인상태			
유배우자	29.6	70.4	100.0(1,292)
무배우자	22.3	77.7	100.0( 247)
연령			
30대	27.8	72.2	100.0( 230)
40대	29.7	70.3	100.0( 518)
50대	29.2	70.8	100.0( 486)
60대	25.2	74.8	100.0( 305)
지역			
대도시	32.7	67.3	100.0( 701)
중소도시	24.2	75.8	100.0( 716)
농어촌	28.7	71.3	100.0( 122)
학력			
초졸 이하	22.0	78.0	100.0( 118)
중졸	20.3	79.7	100.0( 148)
고졸	28.6	71.4	100.0( 746)
전문대졸	29.7	70.3	100.0( 175)
대졸 이상	33.0	67.0	100.0( 352)
취업 여부			
취업	29.4	70.6	100.0(1,213)
미취업	24.5	75.5	100.0( 326)
직업			
관리/전문/사무	36.3	63.7	100.0( 226)
판매/서비스	27.6	72.4	100.0( 677)
기능/노무	29.3	70.7	100.0( 256)
농림어업	21.2	78.8	100.0( 52)
기타	100.0	—	100.0( 2) <sup>1)</sup>
미취업	24.5	75.5	100.0( 326)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30.1	69.9	100.0( 412)
임시/일용근로자	31.7	68.3	100.0( 142)
고용주/단독자영업자	28.9	71.1	100.0( 613)
무급가족종사자	21.6	78.4	100.0( 37)
기타	33.3	66.7	100.0( 9) <sup>1)</sup>
미취업	24.5	75.5	100.0( 326)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3-44〉 일반특성별 노후준비서비스 종류별 이용의향 비율

(단위: %, 명)

구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대상자 수(명) <sup>1)</sup>
전체 <sup>1)</sup>	85.1	86.0	86.5	77.1	81.2	(437)
성별						
남성	84.4	84.4	83.5	75.9	82.1	(212)
여성	85.8	87.6	89.3	78.2	80.4	(225)
혼인상태						
유배우자	85.1	86.4	85.9	77.0	81.2	(382)
무배우자	85.5	83.6	90.9	78.2	81.8	( 55)
연령						
30대	84.4	84.4	87.5	78.1	79.7	( 64)
40대	84.4	87.0	85.7	78.6	84.4	(154)
50대	83.8	83.1	85.9	73.9	79.6	(142)
60대	89.6	90.9	88.3	79.2	79.2	( 77)
지역						
대도시	87.8	87.8	87.3	76.0	80.3	(229)
중소도시	81.5	83.8	84.4	77.5	80.9	(173)
농어촌	85.7	85.7	91.4	82.9	88.6	( 35)
학력						
초졸 이하	88.5	92.3	96.2	76.9	84.6	( 26)
중졸	83.3	86.7	86.7	73.3	83.3	( 30)
고졸	86.4	85.4	88.3	78.4	79.8	(213)
전문대졸	78.8	80.8	80.8	75.0	76.9	( 52)
대졸 이상	85.3	87.9	83.6	76.7	84.5	(116)
취업 여부						
취업	84.9	85.7	85.7	77.9	82.1	(357)
미취업	86.3	87.5	90.0	73.8	77.5	( 80)
직업						
관리/전문/사무	85.4	89.0	85.4	81.7	84.1	( 82)
판매/서비스	86.1	83.4	85.6	73.8	79.1	(187)
기능/노무	80.0	86.7	86.7	82.7	85.3	( 75)
농림어업	90.9	100.0	90.9	81.8	100.0	( 11)
기타	100.0	50.0	50.0	100.0	50.0	( 2) <sup>2)</sup>
미취업	86.3	87.5	90.0	73.8	77.5	( 80)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83.1	83.9	83.1	79.0	83.1	(124)
임시/일용근로자	80.0	82.2	84.4	71.1	73.3	( 45)
고용주/단독자영업자	87.6	87.6	87.6	79.1	83.6	(177)
무급가족종사자	87.5	100.0	100.0	75.0	87.5	( 8) <sup>2)</sup>
기타	66.7	66.7	66.7	66.7	66.7	( 3) <sup>2)</sup>
미취업	86.3	87.5	90.0	73.8	77.5	( 80)

주: 1) 노후준비서비스 향후 이용의향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질문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